

증언으로 본 김포현대사 명암

# 김포 6.25전쟁 비사

저자 김진수 · 유인봉

김포문화원



| 저자 소개



김진수(金振壽)

저자는 한국기독교장로회 김포새누리교회 담임목사이자 미래신문 발행인이다. 김포 양촌면에서 태어나 고향에서 목회와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 김포의 역사를 발굴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모아내는 향토사학자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김포문화원부설 김포역사연구소 연구위원/김포시지 편찬위원/김포3.1만세운동연구소 소장/미래신문 대표이사·발행인/김포시기독교연합회 부회장/김포새누리교회 담임목사

저서 <김포항일독립운동사>(2006), <김포독립운동지도>(2007), 편찬 <조선왕조실록에서 찾은 김포이야기 <김포실록>(2007), <김포3.1만세운동자료집>(2008)



유인봉(柳寅鳳)

저자 유인봉은 경기도 이천에서 태어나 신학과 유아교육을 전공했다. 김포사람과 결혼해 김포에서 살아온지 23년이다. 1999년 한국수필지 <버꽃>, <여자나이

마흔>으로 등단하고 김포의 각 기관 및 학교, 사회단체에 성교육 및 글쓰기를 지도했으며 특히 지역 노인대학의 전문강의로 봉사해오고 있다. 또한 여성들의 아픔을 살피는 <김포여성의전화>를 설립해 상임대표로 활동했다.

2002년 뜻하지 않은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했으나 항암투어를 거부하고 자연·생태적 치유에 몸과 마음을 맡겨오고 있다.

현재 미래신문 편집국장으로 여성의 삶과 생명에 대한 깨달음을 <유인봉의 칼럼>을 통해, 연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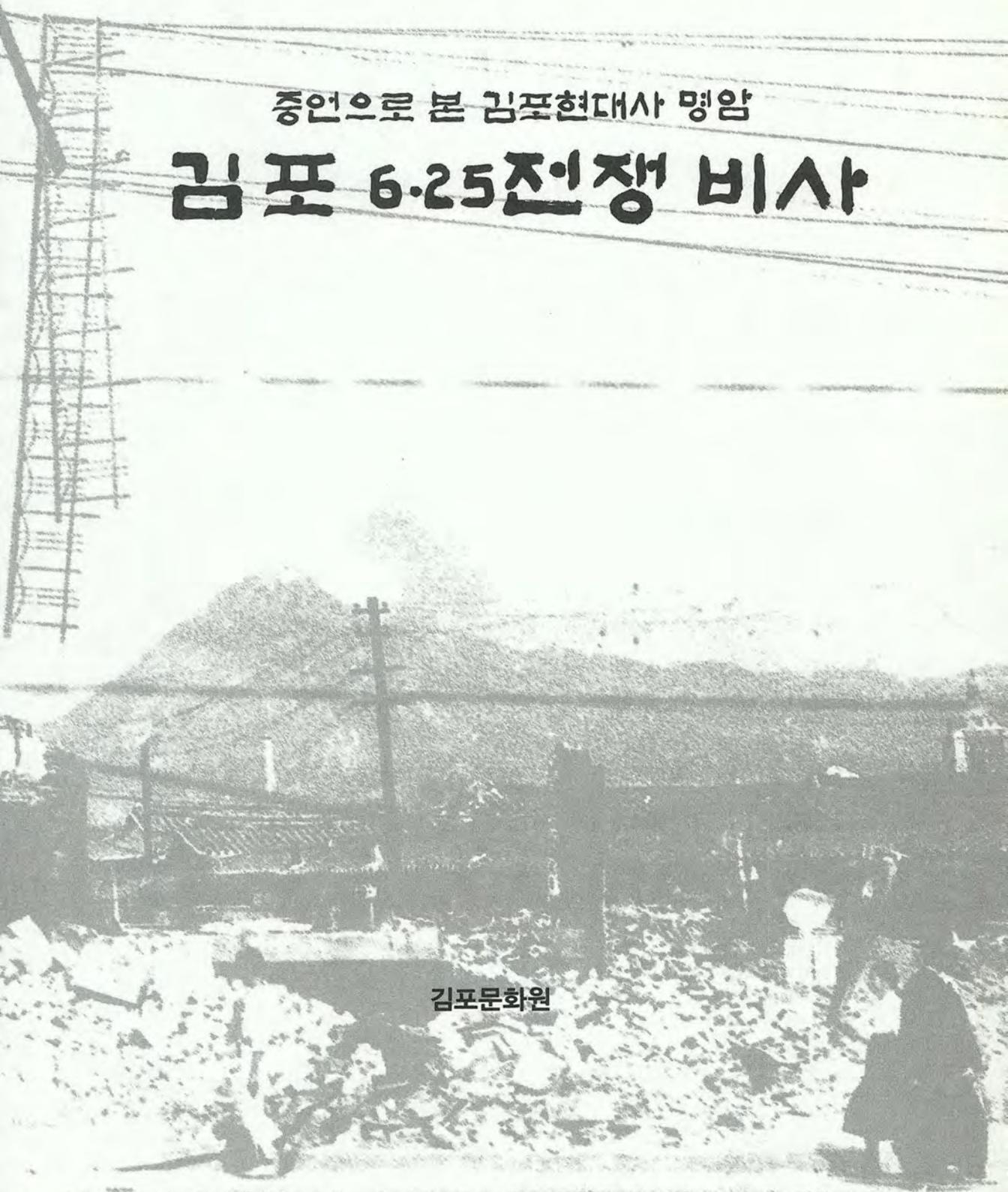
미래신문 편집국장/주인도서관 <책사랑글사랑> 대표 김포시 복지환경분과 자문위원/전 김포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저서 <엄마, 이렇게 행복이야?>(2003) **공저** <서로의 삶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가질 때이다>(1995), <삶의 발을 일구어가는 여성들>(1996)

증언으로 본 김포현대사 명암

# 김포 6.25전쟁 비사

김포문화원



## 김포 6.25 전쟁 비사

- 인 쇄 2008년 10월 10일  
발 행 2008년 10월 16일  
발 행 인 조한승(김포문화원장)  
저 자 김진수(金振壽) · 유인봉(柳寅鳳)  
간 사 신승철(김포문화원 사무국장)  
전 화 031)985-5838  
제 자 지당 이화자(사단법인 한국서가협회 초대작가)  
펴 낸 곳 김포문화원  
주 소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59-4  
전 화 031)982-1110  
기획 편집 미래신문사  
주 소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50-3  
전 화 031)983-4141  
팩 스 031)984-4141  
홈 페이지 www.gimpo.com

※ 자료 인용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증언으로 본 김포현대사 명암  
김포시 6.25 전쟁 비사

저자 김진수 · 유인봉

“

6.25전쟁 폭풍속에서 나라를 지키다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전사자와 억울한 희생을 당한 영령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

## 아픔을 치유하는 소통의 도구로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도 반세기를 지나가고 있어 당시의 분들이 한분 두분 씩 세상을 떠나가고 있는 작금에 조한승 김포문화원장님과 김진수 연구원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노고로 『김포의 6·25전쟁비사』가 발간될 수 있었던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6·25 한국전쟁은 1945년 광복이후 1948년을 기점으로 남북에 각각 이념과 체제를 달리한 독립된 정부가 구성되었고, 독자적인 군대도 창설하여 남북 분단이 더욱 확실해 진 상태에서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북한의 38선 전역의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13만 군대의 공격으로부터 시작된 동족간의 전쟁이었으며 가슴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김포지역은 한강과 임진강의 하류에 자리하고 있어 38선과 가깝고 서울 또한 가까운 지리적 위치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수 밖에 없었으며 그 만큼 민·관·군의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은 어느 지역보다 막대했습니다.

이번 『김포의 6·25전쟁비사』 발간작업은 이런 아픈 과거에 대한 기록을 정리 수록함으로써 학생과 주민에게 안보와 국가관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동안 조사와 집필을 위해 헌신해 오신 김포역사연구원 연구위원 김진수 목사님과 유인봉 미래신문 편집국장님께 노고를 치하드리며 발간에 애써오신 김포문화원 조한승원장님과 모든 분들께 甚深한 謝意를 올리면서 다시 한번 『김포의 6·25전쟁비사』 발간을 祝賀드립니다.



강 경 구  
김포시장



유 정 복  
국회의원

## 민족의 비극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풍요로운 결실의 희망이 넘쳐나고 있는 계절에 6.25전쟁 당시 김포지역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집대성된 '김포 6.25전쟁비사'가 발간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지하다시피 6.25전쟁은 지난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이 남북 군사분계선이던 38선 전역에 걸쳐 불법 남침을 감행함으로써 일어난 민족의 비극으로 역사상 유래가 없는 파괴를 초래하였음은 물론 지금까지 많은 아픔과 시련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을 간직한 6.25전쟁의 실상이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상황 위주로만 널리 알려져 있으며 실제 전투상황이나 향토방위 관계 등 지역적인 상황들은 그리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모쪼록 이번 책자 발간을 통해 반세기가 지나간 6.25전쟁의 당시 상황과 그 처참했던 기억을 상기시킴은 물론 김포지역의 역사적 사실을 후대에 전달하여 이 같은 민족의 불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힘을 모으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번 책자 발간을 위해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포문화원 조한승 원장님을 비롯 조사와 집필을 위해 수고하신 김포역사연구원 연구위원 김진수 목사님, 유인봉 미래신문 편집국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 역사적 평가와 교훈 남기는 기록으로

6.25 전쟁 발발이 올해로 58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잊혀진다지만 전쟁의 상흔이 너무나도 깊어 그 아픔은 쉽사리 이물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에 김포역사연구원에서 6.25 전쟁시 김포에서 일어난 일들을 발굴해 편찬한 『김포 6.25전쟁 비사』의 발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한권의 지역 역사서가 탄생하기 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향토사학자 김진수 목사님을 비롯한 미래신문 유인봉 편집국장님, 그리고 연구회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전쟁의 참상을 증언해 주신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감사의 말씀과 함께, 이번 조사로 밝혀진 6.25 전사자와 피해 주민의 넋을 위로하며,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58년 전에 지역에서 벌어진 6.25전쟁 참상은 결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아픈 과거일수록 역사적 평가와 교훈을 명확히 남겨 반복의 끈을 끊어야 우리 후대는 아픔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편찬된 『김포 6.25전쟁 비사』도 지난 과오를 되풀이 하지 말자는 우리 모두의 다짐이 담긴 것이며, 지역안보와 확고한 국가관 정립을 위한 눈물어린 호소와 노력이 담긴 소중한 책자입니다.

시민 모두가 이번 책자를 통해 전쟁중에 우리 고장이 겪었던 참상을 바로 아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선열의 거룩한 희생에 함께 추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영 우  
김포시의회 의장



전 세 훈  
김포교육장

## 화해 · 공존의 민족사로 새롭게 가꾸는 일

김포문화원에서 『김포 6.25 전쟁비사』를 발간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전방에 위치해 6.25 전쟁을 생생하게 겪은 김포에서 본 책자를 펴내게 된 것은 참으로 뜻 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전쟁의 교훈을 되새기고 그 참상과 비극을 기억할 때 우리는 또 다른 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6.25 전쟁의 드러나지 않은 참모습을 조사하여 정리하는 것은 이 시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큰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대립과 갈등의 민족사를 화해 · 공존의 민족사로 새롭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겪은 엄청난 희생의 상처를 헛되어 하지 않고 21세기 민족의 역사를 희망 속에 열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김포 6.25 전쟁비사』 발간은 잊혀진 우리의 역사를 복원하고 다양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일을 위해 그간 조사와 집필을 담당해오신 향토사학자이신 김진수 김포역사연구원 위원님과 미래신문 유인봉 편집국장님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책자가 지역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는데 기여하고 지역 발전의 견인차가 되기를 희망하며 김포문화원 조한승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다시 되새겨보는 아픔의 역사

6.25 한국전쟁은 생각만 하여도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불구자가 되고, 모든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16개국에서 군인과 물자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앨링턴 국립묘지에는 '공짜는 없다', '어느곳에 있는 나라의 어떤사람들인지 모르지만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바쳤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스탈린과 모택동의 시주를 받은 김일성은 고요히 잠들어 있는 평화로운 금수강산을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김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평화롭게 잘살던 이웃끼리 너는 대한민국, 너는 빨갱이라고 서로가 서로를 싸 죽이고, 때려 죽였습니다.

다행히 맥아더 장군이 인천상륙을 감행하여 신의주까지 진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공군 100만명이 인해전술(人海戰術)로 쳐들어오자 국군이 다시 후퇴하여 우리가 원치 않는 휴전으로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6.25 당시 비록 어린 학생이었지만 전쟁의 비참함을 지켜본 저로서는 지금도 무서운 생각뿐입니다.

이제 6.25전쟁도 거의 잊어가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때에 김포시와 문화원에서는 6.25전쟁을 다시한번 되새겨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체험담을 들으므로서 전쟁의 허망함과 두려움을 다시한번 되새겨 봅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포지역의 향토역사학자이신 김진수 목사님과 유인봉 미래신문 편집국장님께 깊은 감사사를 드립니다.



조한승  
김포문화원장



김진수  
김포역사연구원

## 증언속에 비쳐진 김포현대사의 명암

〈김포6.25전쟁비사〉와 관련 자료조사와 인터뷰 시작은 2006년 3월부터이다. 김포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김포역사에 관한 흔적들을 찾아 자료화 하는 일에 몰두해 오고 있다. 그런데 다른 내용들은 시간을 투자해 노력하면,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정형화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어떤 분야에서는 시간에 쫓기는 조바심속에 있어왔다. 그 분야가 바로 김포지역에서 6.25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의 증언부분이었다. 그 조바심이란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의 수가 줄어가만 가고 있기 때문이었다. 고령화로 인한 병과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연령들이 되셨기 때문이다.

더 이상 시간을 미룰수 없다는 생각에서 개인적으로라도 채록을 시작한 것이 2년 5개월 전이다. 하지만 초기에는 증언채록이 쉽지 않았다. 많은 분들이 '왜 그때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느냐' 혹은 '다시는 그때의 경험을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셨기 때문이다. 필자의 설득과 이해를 받아들이신 분들도 계셨지만 끝내 증언을 해주시지 않은 분들도 많았다. 증언채록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증언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비슷했다. 첫째는 두려움에 대한 기억이다. 살벌한 환경 속에서 살아 남은자로서 그때의 경험이 되살아나 혹시나 피해가 오지 않을까하는 피해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식구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하는 전쟁 상황속에서 생존했던 분들로서 '조사와 증언'이라는 말에 어떤 피해가 다가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셨던 것 같다. 더욱이 억울한 희생을 당한 이들은 수십년간을 죄인 아닌 죄인으로 숨죽여 살아와야 했던 가슴저린 한이 맺혀 있지만 또 어느 구석에서 어떤 피해가 올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었다.

두 번째는 당시의 상황이 55년이 지난 지금까지 종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사자들이 아직 살아있으며 더욱이 그 후손들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어떻게 했다'는 증언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신 분들이 계셨다. 아쉽지만 이 또한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전쟁은 끝났지만 사건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어느 한편에서는 '정당한 일'로 또 다른 쪽에서는 '억울한 일'로 계속 진행 중인 것이다. 지혜로운 침묵을 통해서 말이다. 이 침묵을 깨겠다는 필자의 증언 요청이 얼마나 허무맹랑함으로 들렸겠는가?

이번 44명의 증언자는 이 침묵을 깨고 증언해 주셨다. 용기를 내주신 증언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따라서 행여나 증언자의 증언내용이 왜곡되거나 억울함을 가중시키는 또 다른 억압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진실한 마음으로 보아주시기를 요청한다. 고백은 화해와 평화를 소망하는 자의 첫걸음이다. 이 평화와 화해의 걸음을 색안경을 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고백은 그 자체로 묶여진 어둠을 밝히는 소중한 촛불이기 때문이다.

이번 <김포6.25전쟁비사>는 공동저작물이다. 우선 필자를 비롯해서 44명의 증언자 분들이 저자로 참여해 주셨고, 44명의 증언자를 인터뷰하고 내용을 지면으로 옮기는 역할을 유인봉 미래신문 편집국장이 참여해 주었다.

유인봉 편집국장의 섬세한 감성과 설득력 있는 질문은 증언자의 증언을 더욱 풍부하고 다양한 기억을 되살리는데 특별한 역할을 해냈다. 또한 증언자들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 보고, 후세들에게 이 증언이 얼마나 교육적이고, 김포 지역적으로 중요한 일인가를 설득해 내는데 큰 역할을 해주었다. 공동저자의 한사람으로 침묵으로 일관했던 귀중한 김포현대사의 명암을 현실의 역사로 끌어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아울러 힘든 증언인터뷰 과정으로 인해 얻은 지친 몸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을 전해드린다.

아버지로서 고마웠다는 인사를 기록으로 남겨야 할 인물이 있다. 필자의 아들 김희대군이다. 이 책의 일부 자료사진들을 직접 촬영하고, 증언자 인터뷰를 비디오로 촬영해 주었다. 어르신들의 증언 내용들을 함께 경청하며 그 많은 시간을 인내해주고, 아버지가 하는 일에 기꺼이 협조해 준 최고의 공로자이다.

이 책의 구성은 제1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1년 9월 28일 김포수복까지의 북한군과 국군 및 연합군의 전투사를 소개하고 있다. 이는 제2부 6.25전쟁의 증언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자료로서 당시 김포지역의 전쟁(전투)상황을 소개한 것이다. 이는 6.25전쟁의 북한군이 김포반도에 어떠한 계획 하에 진격해 왔으며, 국군의 방어와 후퇴, 공격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전투사를 기록한 것이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김포지역에서 수많은 전쟁이 치러졌지만 전쟁(전투)에 관한 공식적인 기록은 없었다. 이번 소개되는 전쟁사에 관한 내용은 군사적인 전략적 측면에서 기록한 전투사에 한정되어 있지만 최초로 김포지역 전쟁사를 기록한다는 의미가 있다 하겠다.

제2부는 김포지역에서 6.25전쟁을 겪은 44명의 전쟁 경험과 체험을 증언의 형식을 통해 모아냈다. 이 또한 6.25전쟁에 관한 개인적 경험을 증언집으로 모아낸 것도 김포지역 사회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지역적으로 전쟁이라는 역사적 경험은 동일하나 각각 증언자들의 개인적 체험은 다르고 다양했다. 당시의 전쟁 상황 속에서 김포주민들의 생존과 삶의 질곡 등을 상세하게 만나볼 수 있다. 김포지역 현대사의 한 명암인 전쟁체험을 증언이라는 고

백의 형식을 통해 우리 부모세대들의 생명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들에게 역사적 교훈과 삶의 책임의식을 갖게 하는 지혜를 만날 수 있다.

제3부는 44명의 증언자들이 다양하게 고백한 내용중 김포지역에서 발생한 집단 '민간인 학살' 과 '납북자 실태' 내용에 대한 증언과 조사 분석한 자료이다.

특히 김포지역에서 전쟁 중 좌익과 우익에 의한 민간인 학살 규모가 약 2,000여 명이 학살되었다는 증언은 실로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김포사람 1,400여명이 납북(피랍)되었음을 자료를 통해 밝혀진 일도 지금까지 처음 있는 일이다.

증언자가 고백한 6.25전쟁 중 김포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과 납북자에 대한 지역별 실태를 증언과 자료를 근거로 분석해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김포출신의 6.25전쟁중 사망한 <전사자 명단>과 관련자료 등을 부록으로 첨부했다.

당초 <김포6.25전쟁비사>의 조사와 집필 완료시점은 2009년 6월까지였다. 그러나 원고마감 요청이 2008년 9월로 앞당겨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한 불가피한 과정에 의해 다소 증언과 자료를 꼼꼼히 하는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부족한 내용과 서툰 부분은 전적으로 집필자의 책임이다. 추후 면밀한 조사과정이 허락된다면 보충해 갈 것을 약속한다.

이 조사가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분들이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44명의 증언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분들의 증언이 이 책의 가치를 더 없이 귀중하게 했기 때문이다. 많은 분들이 지난날의 쓰라린 아픔을 토해내는 일에 대해 고통스러워 하시고 망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한 55여년이나 지난 과거의 기억이 가물가물해져 그 기억을 이어가기 위해 힘드셨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그 절규를 뿜어내셨다.

최선을 다해 증언자분들의 고백을 담아내고자 노력했다. 또한 어렵게 증언해주신 내용에 대해 허튼 낱말과 단어로 수정하지 않았다. 다소 문법적으로 맞지 않더

라도 그 심정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깊은 뜻이 드러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이제 자신의 피눈물 나는 전쟁의 아픔을 뒤로하고 삶을 정리하여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분들이다. 사랑하는 부모를 잃고, 자녀와 형제 자매들을 내 눈앞에서 먼저 죽음이라는 시간 속으로 보내야 했던 분들이다. 더욱이 함께 웃고, 울어야 했던 이웃을 내가 살기위해 죽여야만 했던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삶의 현장을 만났던 분들이다. 이분들의 증언이 전쟁을 겪지 않은 우리 후세들에게 조금이라도 그 아픔을 생각하고 또다시 이와 같은 전쟁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데 귀중한 씨앗의 역할을 충분히 하리라 믿는다.

증언자 인터뷰를 위해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 먼저 읍·면동사무소에 감사를 드린다. 증언자를 지역별로 선별 추천해 주시는데 협력해 주었다. 또한 자료조사 과정에서 특별히 신세를 진 분들이 있다. 김포시 문화예술과의 최해왕 과장과 김성규 계장, 주민복지과 신경란 계장과 이남현 담당자에게 지면을 빌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린다. 이 사업의 취지와 가치를 이해하고 증언자 추천부터 자료확보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협력이 있었다. .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전쟁중 납북되어 평생을 고아아닌 고아로 삶을 살아야 했던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이미일 원장님께 특별한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김포지역의 6.25전쟁중 납북(피랍)자 현황을 알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필자의 김포지역의 피랍자 실태조사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주시기까지 했다.

오랜시간 교분을 나누어온 하성면 신석균, 민경자 어르신과 양촌면의 이기실 어르신에게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린다. 필자의 증언채록을 위해 증언자로 나서줄만한 분들을 섭외해 주시고, 함께 시간을 내서 증언의 내용이 풍부해지도록 협조해 주셨다.

이번에도 조한승 문화원장님의 도움은 특별했다. 증언자로서도 참여해 주셨고,

많은 증언자 분들을 일일이 추천해 주시기까지 했다. 더욱이 10월로 김포문화원 장직을 퇴임하시게 돼 <김포6.25전쟁비사>가 마지막 사업의 결과물로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 동안 김포문화원장으로 최선을 다해 김포문화의 구심점을 만들어 놓으시고 김포문화의 정체성을 굳게 세우시는데 노력을 다하셨다. 이제 그 노력으로 얻어진 심신의 피로를 해소하는 평안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드린다.

<김포6.25전쟁비사> 발간을 위해 축사로 격려해 주신 강경구 김포시장과 유정복 국회의원, 이영우 시의회의장, 전세훈 김포교육장께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또한 원고 정리와 편집을 위해 애쓴 미래신문 황인문 기자와 총무 김나미 씨에게도 고마운 인사를 전해드린다.

이제 부족하지만 <김포6.25전쟁비사>라는 작은 형식으로 김포 현대사의 일부분이 모아졌다. 또한 지금까지 '침묵'으로 간혀있던 전쟁의 참혹함의 실체가 증언을 통해 우리 삶의 시간 속으로 들어왔다. 더욱이 이제까지 알 수 없었던 대규모로 진행된 민간인 학살과 납북자 문제는 어느 개인의 지혜와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듯싶다. 이에대한 지역적 차원에서 진실규명 노력과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김포지역의 민간인 학살과 피랍자가 수천 명에 이르는 희생의 역사를 외면해온 우리의 무관심을 반성하고, 김포의 역사적 현실로 승화시켜야 할 지역적 과제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6.25전쟁 폭풍속에서 나라를 지키다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전사자와 억울한 희생을 당한 영령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2008년 10월

장릉산 기슭에서 김진수 목사

증언으로 본 김포현대사 명암  
김포시 6.25 전쟁 비사

I 부. 김포지역 6.25 전쟁사	21
1. 북한군의 김포반도 작전계획	23
1) 김포반도 진격 작전계획	
2) 북한군의 작전경과 과정	
3) 김포 점령한 북한군 제6보병사단	
2. 북한군의 도하작전과 국군의 대응조치	27
1) 김포지구의 병력배치 상황	
2) 김포지구 공방전	
3. 인천상륙작전과 김포반도 상황	39
1) 김포지역의 한국해병들	
2)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김포상황	
4. 터키군 참전과 김포배치	43
-제25사단 배속, 김포반도 진출	
5. 1.4후퇴 이후 해병대의 김포반도 방위 (1951년 3월 16일부터 4월말까지)	44



## II부. 김포6.25전쟁비사/주민증언 — 47

- 북변동/ 김경모 · 48 박점문 · 58 송영환 · 63 윤종호 · 68  
 곁포동/ 유선종 · 70 유연종 · 74  
 감정동/ 구정회 · 78 두병환 · 81  
 사우동/ 김병춘 · 86  
 풍무동/ 이순희 · 88 이재근 · 91 이일희 · 95  
 고촌면/ 김부섭 · 99 송해봉 · 102  
 양촌면/ 김천길 · 109 이기갑 · 116 이병수 · 118 최종훈 · 123 홍종기 · 126  
     남정순 · 128 이기실 · 130 홍선표 · 134 홍종운 · 138  
 대곶면/ 권순덕 · 141 심문섭 · 144 권영세 · 147 이강운 · 151  
 통진읍/ 경제봉 · 158 신범수 · 162  
 월곶면/ 강성구 · 164 김문복 · 168 박세원 · 171 신호철 · 176 정해운 · 180  
 하성면/ 박광원 · 184 장명수 · 186 조한승 · 189 유재언 · 194 조시현 · 197  
     최기윤 · 201 홍순면 · 204 민천기 · 207 민경완 · 211

## III부. 증언, 김포지역 민간인 학살 실태 — 217

1. 민간인 학살에 대한 인식 — 219  
 2. 조사방법 — 220

3. 6.25전쟁 전후 김포 지역적 상황	_____	223
1) 증언으로 본 김포 상황		
2) 인민군의 김포 점령		
3) 9.28수복과 경찰 치안 활동		
4. 민간인 학살에 대한 주민 증언 및 실태	_____	228
1) 김포1, 2, 3동 지역		
2) 양촌면 지역		
3) 하성면 지역		
4) 고촌면 지역		
5) 월곶면 지역		
6) 대곶면 지역		
5. 조사(진술)자료에 의한 김포 민간인학살 실태	_____	260
1) 김포면 여우재 고개·독자골 사건		
2) 양촌면(현 통진면 일부 포함) 양곡지서 사건		
3) 하성면 태산골짜기 등 사건		
4) 고촌면 천등고개 사건		
5) 대곶면 소라리 고개 사건		
6) 사건 조사 결과		
6. 증언 및 진술로 본 희생자 규모	_____	283
7. 조사를 마치며	_____	285
<b>Ⅳ부. 6.25전쟁 중 김포 납북자 실태조사</b>	<b>_____</b>	<b>291</b>
1. 납북자 유형구분 및 조사자료	_____	293

2. 자료 소개 및 김포납북자 실패자료 분석	_____ 293
1) 서울특별시 피해자 명부	
2) 6.25사변 피랍치인사 명부(일명 신익희 소장명부)	
3) 6.25사변 피랍치자 명부	
4) 6.25동란으로 인한 피랍치자 명부	
5) 실향사민신고서(실향사민 등록자명단)	
6) 6.25사변 피살자 명부	
3. 김포 납북(피랍)자 자료 통합 분석현황	_____ 310
1) 지역별 납북(피랍)자 분포	
2) 연령별 납북자 분포	
3) 직업별 납북자 분포	
4) 피랍일자별 납북자 분포	
4. 조사를 마치며	_____ 318

#### 부 록 · 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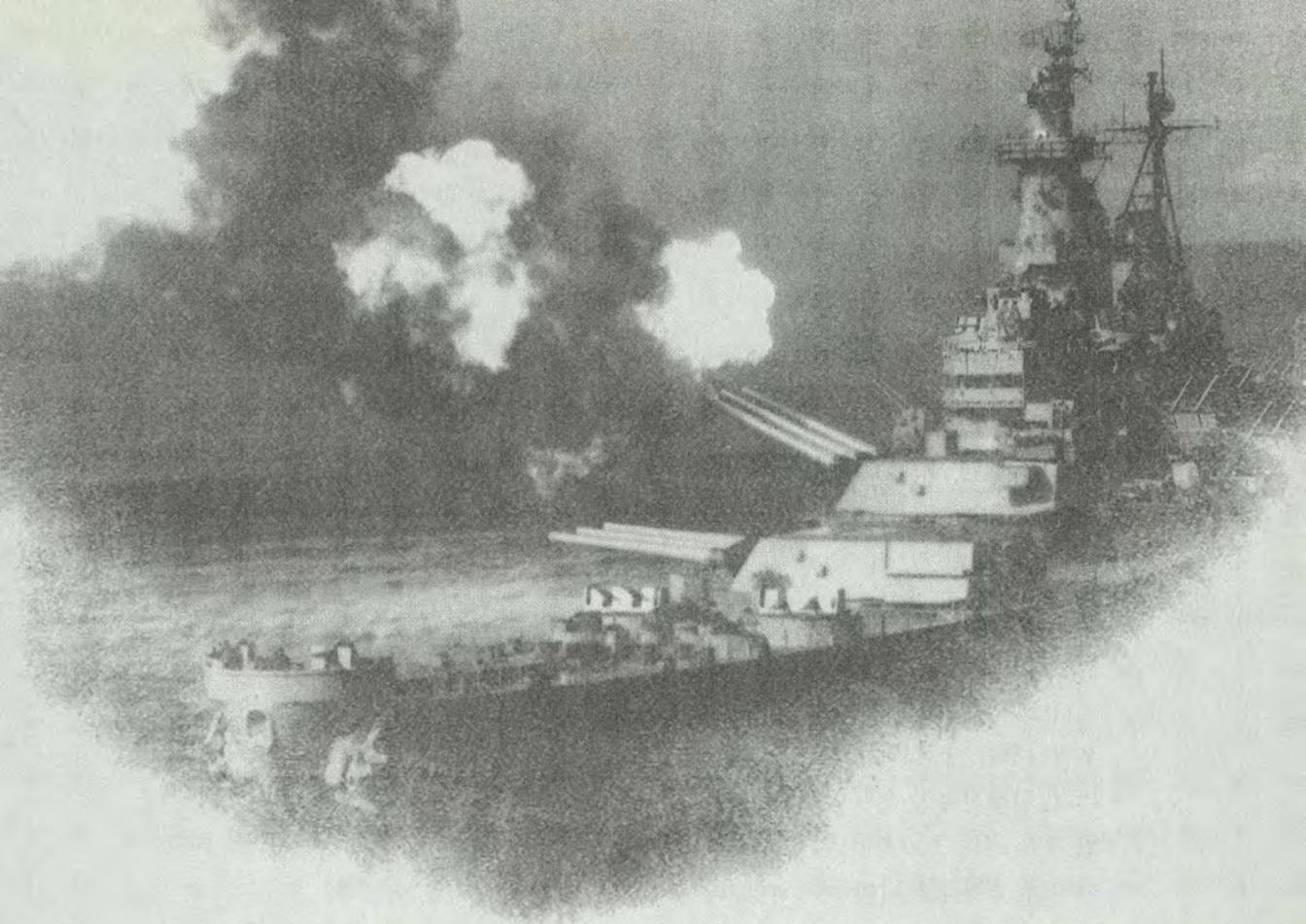
- 6.25사변 피랍치자 명부(其二) 대한민국 정부/1952년
- 6.25사변 피살자명부(其一) 공보처통계국/1952년
- 실향사민신고서(12명)
- 김포 6.25전쟁 참전 전사자 명단\_ 김포군지 · 육군본부



미 국립문서기록보관청(NARA) 6.25 기록사진

### 일러두기

- 주민증언자는 총44명이며 이중 증언 2개의 내용은 자료를 인용하였음을 밝혀둔다.
- 증언내용 중 인명표기는 일부 생략하거나 부분적으로 표기하였다.(예, 김OO)
- 증언내용중 내용전달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증언자가 구술한대로 표기하였다.
- 민간인 학살현장 일부는 증언자 현장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밝혀둔다.
- 이 책에 소개된 주민증언 내용은 증언자의 허락을 받아 게재하였음을 밝혀둔다.



## I. 김포지역 6.25 전쟁사

1. 북한군의 김포반도 작전계획
2. 북한군의 도하작전과 국군의 대응조치
3. 인천상륙작전과 김포반도 상황
4. 터키군 참전과 김포배치
5. 1.4후퇴 이후 해병대의 김포반도 방위

## I. 김포 6.25전쟁사

이 글은 6.25전쟁 과정 중 김포지역에서 전개된 북한군과 국군 및 유엔군간의 전투상황을 중심으로 요약서술한 것이다.

1950년 6월 26일부터 28일까지의 북한군의 김포지역 점령과 국군의 방어 및 후퇴상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으며 두 번째 인천상륙 작전에 의해 연합군 및 해병대의 김포진격이 이루어진 1950년 9월 15일부터 21일까지, 또한 1951년 1월 4일 일명 1.4후퇴 이후 서울재수복이 이루어진 1951년 3월 16일까지 해병대의 김포재확보 과정을 기술하였다.<sup>1)</sup>



1951년 4월 3일. 강대국이 그어놓은 원한이 3.8선. 이 3.8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왔는가.

1) <김포6.25전쟁비사> 조사와 관련하여 주민증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김포지역에서 전개된 전쟁사(전투사)를 중심으로 요약 발췌하였다. 참고도서는 본문 후반부에 첨부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태풍 '엘시'의 영향으로 38선 일대는 가랑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운데 38선 일대에 배치돼 있던 북한군 각 부대에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리면서 '폭풍'이라는 암호가 하달되었고 무전망으로는 '224'가 타전됐다.

암호 '폭풍'과 무전망의 신호 '224'는 이미 남쪽을 향해 포격을 시작하라는 남침명령이었던 것이다. 이로서 북한군의 포구(砲口)는 일제히 남쪽을 향해 불을 뿜기 시작하였고 피비린내 나는 남북한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38선으로부터 불과 40키로 떨어진 서울 시민들이 일요일을 맞아 느긋한 아침 단잠에 빠져 있는 사이, 북한군은 질풍노도처럼 남으로 진격해 왔다.

북한군은 불과 3일 만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장악했고, 국군의 주력은 한강 이북에서 거의 붕괴되다시피 했다. 이후 전쟁은 무려 3년 동안이나 계속됐다. 그리고 한민족이 5,000년 동안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한반도는 아비규환의 수라장 속에서 잿더미로 변했다.

김포지역도 이 참혹한 현실을 맞이해야 했으며 그야말로 북한군의 공격암호가 말해주듯이 김포반도에 폭풍이 들이닥쳤다.

김포지역에서 전개된 북한군과 아군의 전투사를 통해 그 폭풍의 현장을 소개한다.

## 1. 북한군의 김포반도 작전계획<sup>2)</sup>

### 1) 김포반도 진격 작전계획

1950년 6월 25일 남한 공격을 감행한 북한군의 작전계획 기본방향은 “1950년 6월 말 전면공격으로 신속히 서울을 점령하고, 인민봉기를 유발하여 한국정부를 전복시킨다. 그 후 인민군이 신속히 남해안까지 진격하여 미 증원군의 한반도 상륙을 막아 1개월 내에 전쟁을 종결함으로써 8월 15일 해방 5주년 기념일까지 서울에 통일 인민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이었다.<sup>3)</sup>

북한군은 위와 같은 전략적 방침과 작전개념하에 남침의 기본계획을 세웠다. 특히 개성방면의 제6보병사단(-1개 보병연대, 1개 포병대대 및 1개 자주포포대)은

2) 북한군의 김포반도 진격 및 점령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에 기술된 북한군의 김포반도 진격 작전계획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3)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1995, p.75.

한강을 끼고 있는 김포반도 진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부여받았다.

“첫째 날 오후 늦게 병력 일부로 하여금 개성반도의 방비를 강화하게 하면서 하조강리(개성 남방 20km) 지역에서 한강을 도하하고, 둘째 날 아침에 통진(강화 동남방 6km, 현재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기점), 백석현(통진 서방 2km, 현 통진을 도사리) 고개, 마곡리(통진 서방 8km, 현 하성면 마곡리), 선을 따라 강의 남쪽 강변에 교두보를 확보하고, 서울의 적 병력이 서남쪽으로 후퇴하는 것을 차단하면서 한강 남쪽 강변을 따라 영등포(서울 서남방 5km)로 공격을 확대할 준비를 갖추다”는 것이다.

위 전략계획에 의하면 김포반도로의 진격은 서울에서 후퇴하는 국군의 퇴로 차단을 목표로 김포를 진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김포반도의 진격은 치명적인 장애물이 있었다. 바로 한강도하의 문제였다.

북한군 작전 김포지도<sup>4)</sup>



## 2)북한군의 작전경과 과정

북한군은 김포반도 진격을 위한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고 있다.

“한강은 진격에 있어 치명적인 장애물(6km까지의 폭과 0(8)M까지의 수심)이었

4) 6.25전쟁 당시 북한군 작전 지도/이 문서는 북한군 제105전차여단 107연대가 축척 1:50,000 지도에 강화도, 고양군, 서울, 부천 등 한반도 중서부 지역 등이 포함된 김포지역에 대한 방어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1949년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에서 작성한 것이다./제지/ 가로 : 178cm 세로 : 118cm



기 때문에 이 강을 도하하는 데는 충분한 양의 도하장비와 군관 및 병사들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요하였다. 적절한 조직력이 부재하고 도하장비도 부족했기 때문에 6월 26일 아침 6시 30분 무렵까지도 제15보병연대 예하 1개 대대, 제13보병연대 예하 1개 대대, 교육대대 및 76mm야포 2문만이 한강남쪽 방면으로 도하할 수 있었다.

북한군의 한강도하는 한강하구의 자연적인 환경조건과 도하장비의 부족 때문에 시간을 많이 지체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군은 6월 27일 한강도하에 성공하여 김포지역 월곶면 조강포 지점에서 3키로까지 진격하는데 성공했다.

“제6보병사단 예하 부대들은 포격과 공습에도 불구하고 도하를 계속하여 6월 27일 오전에 제15보병연대, 제13보병연대 주력, 제15보병연대 연대 포병 및 대대포병, 제6사단 포병연대 예하 2개 포대와 제17군단 포병연대 예하 제2포대 등이 한강을 도하하였다. 그 외의 포병, 전차 및 자주포 등은 도하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6월 27일 여명을 기해 짧은 시간동안 포병 공격준비 사격을 실시한 후, 제15 및 제13보병연대는 적을 공격하여 교두보를 5km 내지 6km까지 확장하였다. 그러나 항공과 포병의 지원을 받는 적은 강력한 저항을 펼쳤으며 수차례에 걸쳐 역습을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오후 5시 무렵에 사단 예하부대들이 적의 저항을 극복하면서 통진, 백석현 고개, 선을 점령하였다. 전과확대를 위하여 교육대대가 통진(현, 월곶), 율생리(통진 남동방 8km, 현 대곶면) 방면 전투에 투입되었다. 사단은 6월 27일 오후 늦게 율생리, 수참리(통진 동남방 8km, 현 양촌면) 선까지 진출하였다”

“이후 제6사단 예하 부대들의 진격은 서울로부터 투입된 적 제22보병연대 2개 대대, 2개 보병학교생도 대대 및 여타 부대들의 조직적 저항에 의해 약산리(통진 남방 10km, 대곶면), 도이곶(도사리, 통진 동남방 7km, 통진읍) 선에서 저지되었다”

“6월 27일 주간에 시도된 포병의 도하는 적의 수차례에 걸친 항공공격으로 인하여 계속 지연되었다. 6월 27일 밤부터 28일까지 사단내 보병 제13보병연대 연대포병 및 대대포병, 제6포병연대 예하 2개 포대, 76mm 자주포 포대, 제17군단 포병연대 예하 제2포대 및 전차중대 등이 강을 완전히 도하하였다”

“6월 28일 여명을 기해 짧은 시간 동안 포병공격 준비사격을 실시한 후에 보병이 전차중대와 협동으로 적을 공격하여 적을 대곡리(김포 서방 4km, 현 인천시 서구 대곡동), 김포 지역으로 퇴각시켰다. 하지만 진격을 계속하여 김포를 점령하려

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하였으며, 이후에 펼쳐진 10여 시간에 걸친 전투 후에야 적의 저항을 와해시키고 오후 5시 20분에 사단 예하부대들이 김포를 점령할 수 있었다. 이후 사단의 진격은 서울에서 철수하는 적 부대들로 인하여 정지되었다.

6월 29일 하루 동안 예하부대들은 김포 동남방 10km 지점에 위치한 공항을 점령하기 위하여 전투를 벌이는 한편 적의 역습을 격퇴시켰다.

### 3) 김포 점령한 북한군 제6보병사단

북한군의 김포반도 진격은 중공군 제166사단을 전환하여 편성한 제6사단이었다. 이 부대는 1942년 만주의 관동군에서 탈주한 한국인들을 모아 편성된 중국 공산당 8로군 예하 동북의용군 사단으로, 항일투쟁과 국공내전의 전투경험을 가지고 있는 관록 있는 사단이었다. 이들은 마오쩌둥과 김일성의 합의에 의해 국공내전이 마무리될 즈음인 1949년 7월, 북한군으로 전환하기 위해 신의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단명칭을 제6사단으로, 예하연대를 제13·14·15연대로 개편한 후 국적전환에 따른 적응훈련을 실시하였다.<sup>5)</sup>

개성 및 김포반도를 공격하였던 제6사단의 주요장비는 <표1>과 같이 T-34전차 4대를 비롯한 SU-76자주포 16문 등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표1> 북한군 제6사단의 주요장비 현황<sup>6)</sup>

구분	계	사단(-1)(개성지역)	제1연대(웅진지역)	비고
122mm평사포	8	8		군단지원포병
122mm곡사포	16	12	4	사단8,군단
476mm견인포	40	28	12	
76mm자주포(SU-76)	16	11	5	
45mm대전차포	48	36	12	
120mm박격포	18	12	6	
82mm박격포	81	54	27	
T-37전차	4	4		배속부대

5) 『한국전쟁(제1권):38선 초기전투와 지연작전』, 육군본부, 1986, p.19.

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부예프의 6.25전쟁 보고서(제1권)』, 2001, pp.284-287.



북한군 제6사단장에 임명된 방호산(方虎山:본명 李天富) 소장은 1913년 함경도에서 출생하였다. 1931년 만주사변 후 흑룡강성 밀산지역에서 공산당 항일유격대에 참가하고, 1936년경 공산당 만주성 위원회의 추천으로 소련에 유학하여 모스크바 동방대학에서 수학하였다. 1940년 소련에서 교육을 수료한 후 연안에 도착하여, 동북간부 훈련반과 중공 중앙 해외사업위원회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일제 패망후 동북조선의용군 제1지대 이흥광 지대, 동북민주련군 독립 제4사, 제166사의 정치위원으로 만주의 국공내전에 참가하였다. 그 후 1949년 7월, 제166사단을 인솔하여 신의주로 입북한 뒤 북한군 제6사단으로 개편하고, 사단장에 임명되었다.<sup>7)</sup>

## 2. 북한군의 도하작전과 국군의 대응조치

### 1) 김포지구의 병력배치 상황

#### (1) 제12연대 제2대대(-)의 재편성

한강 북안의 개성지구에서 38도선의 경계임무를 맡고 있던 제1사단 제12연대(전성호 대령)는 25일 새벽에 적의 공격으로 그 날을 미처 넘기지 못한 채 정면의 제2대대와 예성강 서쪽 연안지구의 제3대대가 남쪽으로 밀리게 되었다.<sup>8)</sup>

제12연대 제2대대(한순화 소령)는 그 일부가 문산쪽으로 철수하는 가운데 주력은 한강으로 남향하여 정관리(개성 동남쪽 10.5km) 일대의 포구에서 선박 10여 척을 얻어 한강하구를 건너게 되었다. 그리하여 대대장 한순화 소령과 대대 S-3 전자열 중위 등 150여 명의 동 대대원이 김포반도 동북단의 하성면 시암리(통진 동북쪽 10km) 부근에 6월 25일 19:00 전후경에 상륙했다.

저녁 무렵 제3대대의 부대대장 박광윤(朴光允 경기양평. 육사3기. 대령예편) 대위와 제11중대장 백문 중위 등 제3대대의 일부가 합세되어 집결병력은 모두 600명으로 늘어났다.

제2대대장은 제3대대와의 혼성병력 600여명을 4개 중대로 재편하여, 대대본

7) 김종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명지출판사, 2000, pp.174-176.

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1977, p.661

부를 월곶면으로 이전하는 동시에 하성면 가금리에서 월곶면 강녕포에 이르는 강안에 3대 중대를 배치하고, 1개 중대를 월곶면 북쪽고지에 예비로 확보하였다. 대대는 14:00경 진지편성을 끝내고 경계태세에 들어가게 되었다.<sup>9)</sup>

## (2) 김포지구 전투사령부의 편성과 배치

6월 25일 저녁, 개성에서 철수한 제12연대 제2대대는 하성면 시암리 부근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출동한 기갑연대와 장갑소대는 그 반대쪽의 하안에서 각각 전후좌우의 상황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밤을 새웠는데, 26일 날이 밝자 전황의 윤곽이 들어나기 시작하였다.

김포반도로 북한군의 도하작전 징후는 6월 26일 오전부터 포착되기 시작했다. 곧 6월 25일 저녁 웅진반도의 강령을 떠난 북한군 제14연대는 다음날 영정포로 집결하여 도하지점을 정찰하면서 도하용 대·소 선박을 수집하는 등 준비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 시점 육군본부 작전담당자들은 김포반도에서 적의 징후와 도하 기도를 포착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군이 김포반도에 상륙하여 김포가도를 따라 영등포, 노량진 일대를 우회한다면 아군으로서는 후방이 크게 위협받게 되는 작전상 위기를 맞게 될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26일 오전 김포지구 전투사령부를 편성(육군본부 작전명령 제97호(1950.6.27. 10:00), 구두명령은 26일 오전에 하달)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육본 수뇌부는 김포지구 한강하구의 넓은 강폭으로 적이 쉽게 도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미온적인 조치만을 취했다. 즉 보병학교의 제3차(6.18-8.5) 고급반 학생이던 계인주 대령을 이날 아침 남산학교장으로 복귀 시킴과 동시에 김포지구 전투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김포지구에 있는 모든 병력을 통합 지휘하여 적의 도하를 막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갑연대 일부를 증원하고, 보병학교의 학생연대 후보생(갑종간부)으로써 1개 대대를 급편하여 김포반도에 투입하는 정도의 미봉책만을 강구하였다.

9) 제2대대장 한순화 소령은 부대를 재편성하고 부대대장 전면식 대위에게 대대를 지휘를 맡기고 제1사단 백선엽 사단장으로부터 "지체 말고 봉일천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고 다시 통진으로 돌아왔으나 이미 제12연대 제2대대는 육군본부의 지시에 의해 김포지구전투사령부 작전통제하에 들어가 있었다. 따라서 원대복귀 할 수 없게 된 제12연대 제2대대는 이날부터 김포지구에서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다.

## 〈김포지구 전투사령부의 편성과 배치상황〉

- 전투사령부 : 김포경찰서에 전술지휘소 설치  
계인주 대령은 남산학교(주 정보학교) 기간요원들을 주축으로 하여 지휘부를 편성하였으나 통신장비 등의 불비로 인하여 그의 작전 통제 하에 있는 부대들의 지휘가 어려운데다, 편제상의 부대가 아닌 여러 개의 부대들이 분산 배치된 관계로 지휘체계마저 제대로 확립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 제12연대 제2대대(훈성)  
대대본부 : 통진(월곶면)  
제5중대 : 월곶면 용강리 북서쪽 무명고지(BS 8382)  
제7중대 : 101고지(BS 8580)  
제8중대 : 월곶면 조강리(BS 8880) 99고지  
제6중대 : 대대 예비, 통진(월곶면) 서쪽 무명고지에 배치
- 남산학교 : 월곶면 조강리  
공병학교 및 남산학교 기간요원 50여명으로 훈성 편성한 증강된 1개 소대 규모
- 기갑연대 제 3대대(도보수색대대) : 128고지 서쪽 기슭(강변)일대  
대대 본부중대 화기소대 및 제9중대를 대대장 강문헌(姜文憲)대위가 지휘
- 기갑연대 제1대대(장갑대대)  
장갑 제2중대 및 제2대대(기병수색대대) 제7중대의 2개 중대를 제1대대장 박무열(朴武烈) 소령이 지휘  
대대본부 : 통진(월곶면)  
장갑 제2중대 : 월곶면 조강리, 강령포, 128고지 남단 48번 도로상에 각1개 소대씩 배치  
기병 제7중대 : 월곶면 포내리(염하 동쪽 강변:BS 8275) 일대
- 보국대대  
대나루(현 김포CC 오른쪽 고갯길) 남쪽 151고지(BS837750) 일대(월곶면 포내리)  
26일 오전, 보국대대장 방원철(方圓哲) 소령이 육군본부에 출두하여 전투에 참전할 것을 자원한 결과, 김포반도 방어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어, 대대장이 직접 1개 중대-병력 100명 미만, 장비 일제99식 및 38식 소총-를 지휘하여 김포로 출동하였다.
- 보병학교 후보생대대 : 갈매-72고지(BS 859757) 일대(월곶면 갈산리)  
26일 오후 육군본부 작전명령에 따라 보병학교 공격전술학 교관 장영문(張泳文) 소령이 후보생 대대장에 임명되었으며, 갑종 간부후보생 제2·제3기와 포병 사관후보생 제1기, 그리고 병기 사관 후보생 제4기와 일반 공병 후보생 제5기의 총500여 명으로 4개 중대를 편성, 김포로 출동하였다. 사관후보생들은 M-1소총 사격술 훈련까지 받았으나 실제 실탄사격은 실시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게다가 그들에게는 지급된 것은 그들이 조작법도 배우지 않은 일제 99식과 38식 소총이었으므로 이 대대가 과연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는지 의심스러운 실정이었다.

제인주 사령관은 사령부 편성이 끝나는 즉시 전날 개화산에서 밤을 새운 남산, 공병학교의 혼성병력 50여 명을 우선 조강리(월곶면 조강리)로 파견하여 도하장소의 경계에 임하게 하고, 병기관인 조한춘 중위를 육본과 부평의 제1병기대대(김창배 소령)로 보내 소요 탄약을 확보하도록 조치하였다.

전투사령부는 병력이 김포읍에 도착하는 대로, 반도 북단의 월곶면 문수산(376고지)을 중심으로 북쪽 한강변의 월곶면 조강리-강녕포와 그리고 북쪽의 염하변(월곶면 포내리)에 각각 배치하여 반도의 서북쪽 지역에 방어의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아무런 사전준비 없이 생소한 지역에 투입된 데다 통신수단이 확보되지 않아, 부대 간의 횡적인 연락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령부의 종적인 지휘계통도 유명무실 그것이었다. 각 병사의 방어의지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 (3) 북한군 도하공격의 전초전

김포지구 전투사령부 지휘 하에 들어간 각 부대, 그 중에서 제12연대 제2대대는 6월 26일 16:00 무렵 월곶면 강녕포-조강리 대안의 하조강리와 석류포 부근에서 북한군의 도하지점 정찰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로부터 2시간 후 하조강리를 떠난 수척의 어선이 강녕포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이 지역 방어는 제12연대 제5중대와 장갑 1개 소대가 맡고 있었다. 2개 중대 규모로 추산되는 북한군을 태운 어선이 강녕포 부근 강변에 도착하여 하선을 시작하였을 때 기습적인 일제사격을 가해 북한군의 도하는 실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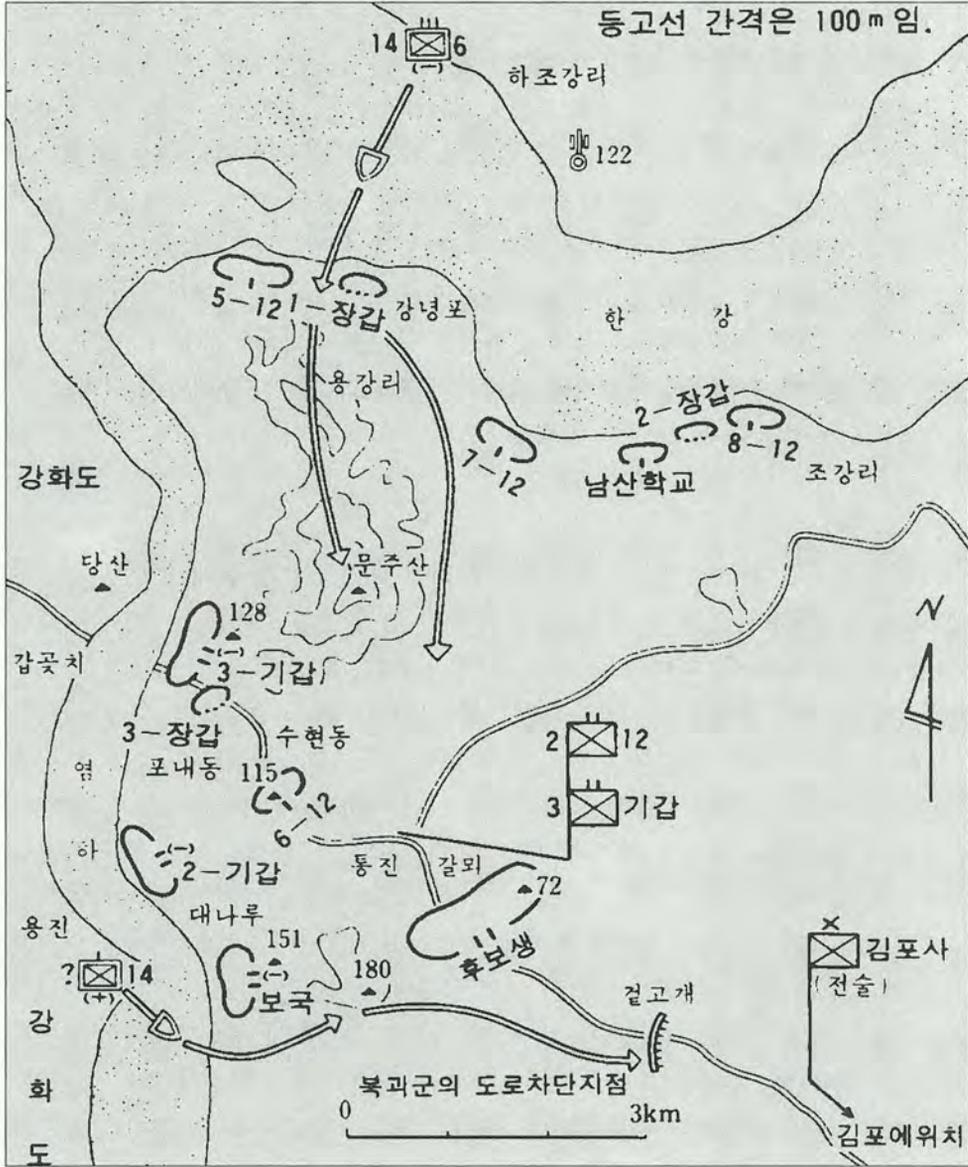
또한 월곶면 조강리 한강변 독에 배치된 장갑 1개 소대(곽응철 소위)는 석류포에서 화물선을 끌고 접근하는 북한군 발동선에 37mm포-장갑차에 장치된 직사포-를 발사하여 격침시켰다. 그러나 북한군 제14연대는 한밤중을 이용하여 소규모 부대를 월곶면 강녕포 동쪽 무명고지와 180고지-보국대대 방어진지 후방;BS 843747-로 침투시켜, 다음날 27일 실시할 도하작전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 2) 김포지구 공방전

### (1) 북한군 제14연대의 기습

26일 삼경(三更)에 180고지로 침투하여 공격의 발판을 확보한 1개 중대 규모로 추산되는 북한군 제14연대의 선발대는 다음날 27일 이른 새벽 151고지에 배

〈김포지구 전투사령부의 배치 및 북한군 제14연대의 도하 상황〉



치된 국군 보국대대(-)를 배후에서 급습하였다.

한편 월곶면 강녕포 일대에서는 27일 자정을 전후하여 제12연대 제5중대와 제 7중대의 배치지역 사이의 무명고지로 침투한 북한군 제14연대의 일부 병력이 교 두보 확보를 위한 발판을 굳혔다.

북한군은 새벽 선발대의 사격유도로 대안 하조강리 부근에 방렬된 122mm곡사포가 일제히 포격을 개시한 가운데 북한군 제14연대의 주력이 각종어선에 분승하여 영정포를 떠나 한강을 도하하기 시작했다.

월곶면 강녕포 서쪽 무명고지에 배치된 제12연대 제5중대는 북한군의 도하부대가 강변에 도착하여 상륙을 개시할 시기에 사격을 할 계획으로 그들의 접근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격을 중대 방어지역에 집중된 북한군의 122mm 곡사포탄에 의하여 진지가 크게 파괴된 데다가 그 동쪽 무명고지에 침투한 북한군 제14연대의 선발대가 월곶면 용강리로 진출하여 중대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결국 제12연대 제2대대의 한강변 방어선은 무너지고 제5중대와 제7중대는 월곶면으로 철수하게 되었으며 월곶면 조강리의 제12연대 제8중대와 남산학교 소속 병력 또한 접전도 하지 못한 채 월곶면으로 후퇴하게 이르렀다.

#### (2) 제12연대 제2대대의 역습 실패

제12연대 제2대대장 한순화 소령은 한강변에 배치한 3개 중대가 모두 철수하게 되자 강녕포로부터 먼저 월곶면으로 철수한 장갑 1개 소대를 수습한 후 대대 예비인 제2중대를 지휘하여 28일 08:00에 역습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포병의 공격준비 사격도 없이 행동을 개시한 역습부대가 월곶면 북쪽 1.5km 지점의 고막리 부근에 이르렀을 때 북한군의 122mm곡사포 공격으로 진출이 어렵게 되었다. 이미 문수산을 점령하고 있던 북한군 제14연대 일부병력이 기습적인 측방사격을 가했기 때문에 역습부대의 공격은 차단되었으며 결국 월곶면 지역으로 철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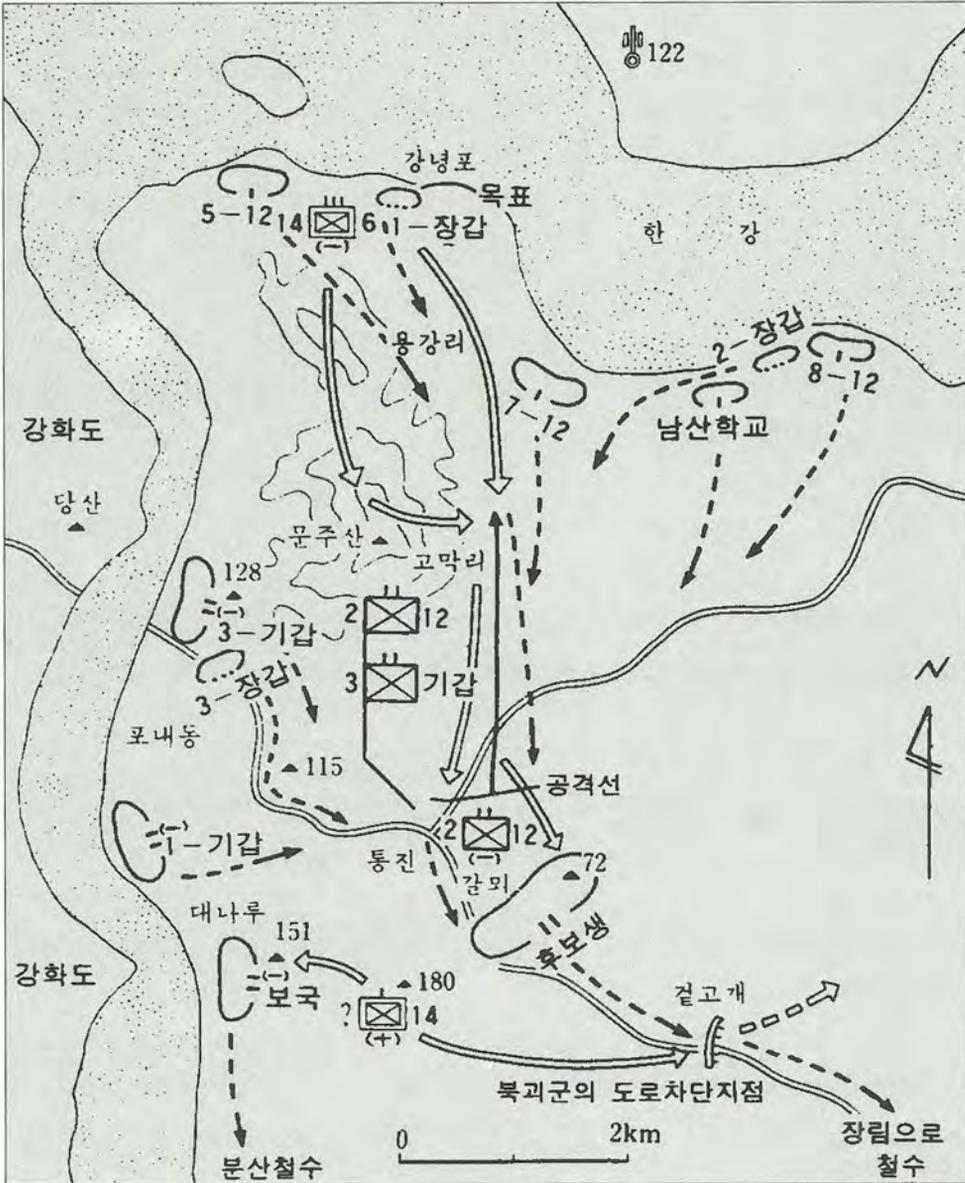
이 전투를 계기로 염하 강변에 배치된 기갑연대 제1대대 및 제3대대의 방어진지도 무너져 월곶면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월곶면에 집결한 김포지구전투사령부의 주력부대는 갈피-72고지(월곶면 갈산리)에 배치된 보병학교 후보생대대의 엄호를 받으면서 장림(BS 8972)(통진읍 도사리(마송초 삼거리))으로 철수하였다.

겉고개(월곶면 남동쪽 3.5km)(통진읍 서암4리)에는 잔날 밤 180고지로 침투한 북한군이 이 고개를 확보하고 국군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 (3) 장림일대의 지연전(현 통진읍 도사리 마송초 삼거리)

27일 11:00를 전후하여 장림으로 철수한 제12연대 제2대대(-)는 60고지를 중심으로 하여 급편방어진지를 준비하고 보병학교 후보생대대의 철수를 엄호할 때

〈제12연대 제2대대의 역습실패와 각 부대의 철수상황〉



세를 갖추었다.

그 무렵 갈피-72고지(월곶면 갈산리)를 방어하던 보병학교 후보생대대는 김포지구 전투사령부의 주력이 철수한지 얼마 후에 그 뒤를 추격하는 증강된 1개 소

대 규모의 북한군을 격멸한 후 장림으로 철수하여 60고지 동쪽 구릉지에 방어진지를 급편 하였다.

장림은 월곶-김포-서울 통로(48번)와 장림-인천 도로(305번)의 분기점으로서 전술적으로 중요한 길목이었다.

후보생대대는 장림 삼거리 북쪽 구릉지에 진지를 구축하여 장림=김포읍의 도로를 제압하고 제12연대 제2대대는 일부가 한강변에서 분산되었으므로 제2중대로써 그 남쪽의 천마산(60고지) 일대에 진지를 급편하여 장림-양곡(장림 남쪽 4km)간의 도로를 차단하였다.

증강된 북한군은 1개 대대규모로서 각종 중화기와 함께 문수산 일대를 석권하고 곧 통진-김포가도를 따라 공격을 계속하여 국군이 방어선을 치고 있는 장림지구에 120mm 박격포 공격을 개시하였다.

북한군의 추격은 대단히 빨랐다. 제12연대 2대대와 보병학교 후보생대대가 미처 상호지원을 위한 협조를 할 사이도 없이 증강된 1개 대대를 장림에 투입하여 공격 개시 20분만인 13:00를 전후하여 먼저 보병학교 후보생대대의 방어진지가 돌파되어 김포읍 쪽으로 후퇴하였으며, 또한 좌측의 제12연대 제2대대도 양곡방면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이로써 북한군은 이날 오후 김포평야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 (4) 운유산-73고지 방어선 편성(양촌면 석모리 일대)

장림에서 양곡을 거쳐 양촌면 구래리로 철수한 제12연대 제2대대(-)(한순화 소령)는 낙오병을 수습하면서 58고지(BS 911678)-소마산(양촌면 마산리)에 방어진지를 구축하여 305번 도로를 따라 남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군에 대비하였다. 이 때 기갑연대 혼성병력과 남산학교는 김포읍에 집결하였고 보국대대는 영등포의 본대로 복귀하였다.

보병학교 후보생대대(장영문 소령)는 15:00에 58고지 동쪽 2km 지점에 있는 운유산(양촌면 석모리)에 방어진지를 편성하면서 한편으로는 추격하는 북한군과 교전하던 중 대대장 장영문 소령이 전사하고 부대대장 김광순(金光淳) 소령이 대대를 지휘하였다.

이때에 북한군 기마대가 운유산 방어선을 돌파하여 김포를 향해 차단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때마침 김포에 집결하여 운유산 쪽으로 진출 중이던 기갑연대 제2중대(장갑중대)가 그 도중 북한군 기마대와 조우하면서 이를 격퇴시킴으로써 김포의 조기 함락을 극적으로 모면할 수 있었다.



보병학교 후보생대대의 일부병력이 시흥으로 철수하고 이에 당황한 제12연대 제2대대의 낙오병과 일부 병력이 부평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58고지-운유산 방어선에 배치된 국군 병력은 도합 1개 대대 규모에도 미달되는 실정이었다.

김포지구전투사령부는 육군본부에 병력증원을 요청하고 부평지구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들로 하여금 각기 전투부대를 편성하게 하는 한편 제1병기대대 병기고에 보유중인 M-1 소총을 보병학교 후보생대대에 지급하여 99식 소총과 교환시켰다.

육군본부는 김포반도의 전황이 점점 국군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어가자 제3사단(유승열 대령) 제22연대(강태민 중령) 제3대대(대대장 손영을(孫永乙) 소령)-6월 25일 오후 용산에 도착, 제8연대 영내에서 대기-와 6.25 이틀 전에 집단휴가가 부여되었던 수도경비사령부 제8연대 제3대대(대대장 박태운(朴泰云) 소령)-휴가 중 복귀한 장병으로 재편성, 실병력 2개 중대 규모-그리고 26일 가평으로 출동하였다가 서울로 복귀한 기갑연대 도보수색대대 제8중대를 김포지구 전투사령부에 배속하였다.

전투력이 두 배 이상으로 증강된 김포지구 전투사령부는 김포방어를 위한 마지막 보루인 운유산-73고지 방어선을 편성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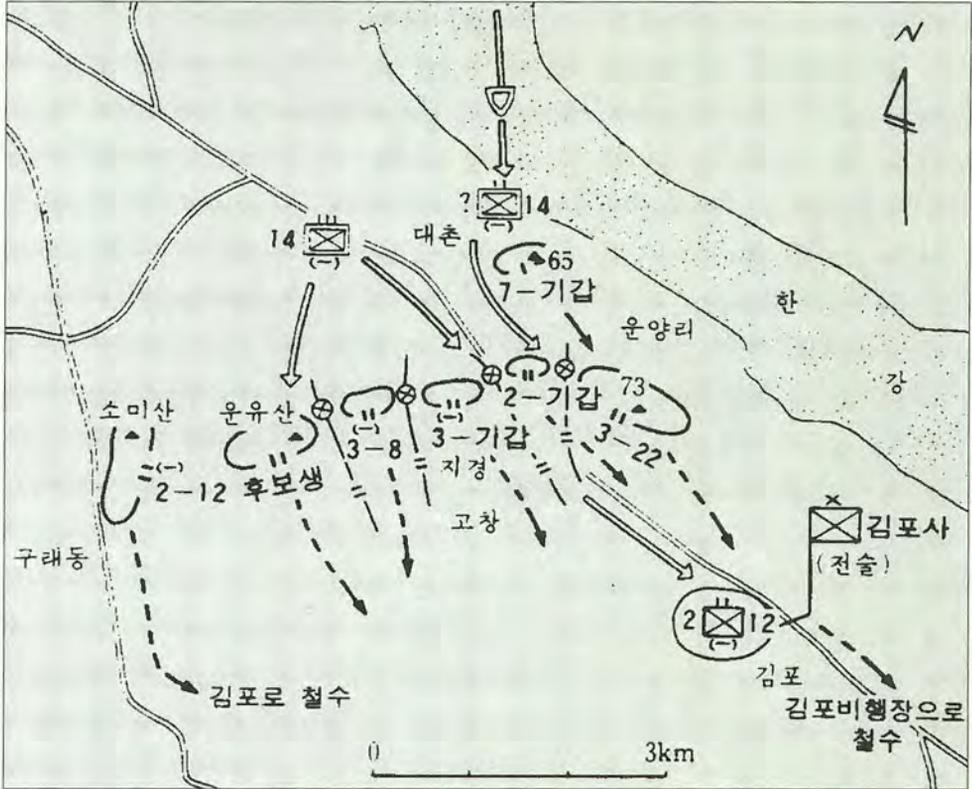
저녁 무렵 김포읍에 집결한 대대는 김포지구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운유산 동쪽의 73고지 일대에 진지를 점령하였다. 대대는 그 좌측의 후보생대대와 저녁에 다시 증원된 제8연대 제3대대와 더불어 김포읍에 대한 최후 저지선을 방어하게 되었다.

이때 양곡의 제12연대 제2대대는 잔여병력이 150명에 불과해 김포읍으로 철수하여 재편에 들어갔다. 이날 낮에 김포읍에 집결한 기병 제7중대(김충성 중위)는 이때 한강변의 63고지에 배치되어 제22연대 제3대대 전방에서 적의 한강으로의 우회침투에 대비하였다.

이날 부평지구의 잔류 병력도 김포전선에 동원되었다. 제1공병단(윤태일 중령) 산하의 일부는 부평-김포읍 사이 계양산(395고지) 동쪽으로 추진되고 병기학교(심언봉 대령)에서는 기간장교(교관)로써 장교특전대를 편성하여 한강변의 고촌면 전호리 부근에 배치하게 되었다.

그러나 통신장비의 미비 문제가 끝내 해결되지 않아 횡적 협조 및 연락은 거의 불가능하였으며 심지어는 사령부와 각 전투부대 간의 통신마저도 연락장교의 운용으로 겨우 유지되는 형편이었다.

〈운유산-73고지 방어선의 전투 상황〉



(5) 북한군의 김포읍 점령

운유산-73고지 방어선에서의 첫 교전은 뜻밖에도 대촌(김포2동;운양동) 부근 한강변에서 벌어졌다. 곧 28일 새벽 북한군의 도하부대를 만재한 어선 수척이 만조가 되자 한강을 거슬러 향진하다가 대촌 북쪽 강변에 접안함으로써 그 남쪽 65 고지에 배치된 기갑연대 제7중대(기병중대)(김촌성 중위)와 충돌하게 되었다.

북한군은 강변에 병력을 상륙시키기 전에 선상에 거치한 82mm 박격포로서 65 고지의 기갑연대 제7중대를 제압한 후 상륙을 시도하였다.

이때 제7중대장 김촌성(金村成);육사 8기 특별) 중위는 모든 화력을 접근하는 북한군에게 집중시키면서 분전하였으나 전투력의 심한 격차로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이 북한군의 박격포에 의해 마필이 포성에 놀라 요동함으로써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08:00 운유산-73고지의 제22연대 제3대대 방어진지에도 북한군의 공격준비

〈운유산-73고지 방어선의 배치 상황〉

- 김포지구전투사령부 전술지휘소 : 김포
- 보병학교 후보생대대(-) : 운유산
- 제8연대 제3대대 : 운유산 우측(동쪽) 구릉지
- 기갑연대 제3대대(-) : 운곡-지경(BS 948690) 일대(현 김포2동; 장기동)  
28일 증원된 제8중대 포함
- 기갑연대 제2중대(장갑중대) : 지경(48번 도로 차단)(김포2동; 장기동)
- 제22연대 제3대대 : 지경 우측(동쪽) 구릉지-73고지(BS 965685)  
제3사단 참모장 우병옥(禹炳玉 : 忠北 육사1기) 중령이 제22연대 제3대대와 동행하였으며 동대대의 작전 지휘권을 김포지구 전투사령관에게 넘겨 준 후 사령부에 남아 사령관을 보좌하게 되었다.
- 기갑연대 제7중대 : 65고지-대촌(BS 9570)(김포2동; 운양동)  
한강변의 경계임무 수행
- 제1공병단 일부병력 : 계양산(부평 북쪽 4km)을 확보(인천광역시 부평구 계양동)
- 병기학교 장교특전대 : 전호(행주나루터 차안 서쪽 1.3km)(고촌면 전호리)  
27일 아침 병기학교장은 한강변 경계임무를 부여받고 기간장교 및 교관 60명으로 장교특전대를 편성하여 이를 전호에 배치하였다.
- 제12연대 제2대대(-) : 김포지구 전투사령부 예비로 전환, 김포에 집결 대기

사격이 시작되고, 48번 도로에 한강을 도하한 소련제 T-34 전차 두 대를 앞세운 북한군 제14연대의 주력이 나타났다. 국군은 김포지구에서 처음으로 북한군 전차에 대하여 2·36인치 로켓포와 장갑차의 37mm 직사포를 사격하였으나 속수무책이었다.

김포지구 전투사령관은 운유산-73고지 방어선의 일각이 무너졌다는 상황보고를 받자 곧 사령부 예비인 제12연대 제2대대(-)를 전방에 투입하였으나 만회할 수 없었다.

북한군의 포가 김포읍을 공격하자 10:00에 김포지구전투사령부는 공군의 경비사령부와 함께 지휘소를 김포읍 동남쪽 2km의 가도상으로 철수하여 계인주 대령과 최용덕 준장 등이 대응책을 논의하였으나 이날 새벽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었다는 비보가 전해졌다. 결국 전세가 기울어졌다는 판단 하에 김포지구전투사령부는 11:00 정각에 김포 철수명령을 하달했다.

북한군이 영등포쪽으로 도하를 한다면 퇴로를 차단당할 것으로 내다보고 김포반

도 중부에서 교착상태에 있는 동안 부대를 우선 부평지구로 철수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병학교 후보생대대와 제12연대 제2대대(-)는 장릉산(김포1동)-계양산(인천)을 거쳐 부평으로 철수하였으며 나머지 부대는 전투사령부와 더불어 김포비행장으로 후퇴하였다. 이리하여 김포는 1950년 6월 28일 12:00를 전후하여 북한군이 점령하게 되었다.

한편 김포읍에서 석권한 북한군 제6사단은 부대를 전면 재정비하였다. 적은 김포반도 북단에 상륙을 시작한지 불과 30시간 만에 김포읍까지 진출하였던 것이다.

〈일자별 김포전투사령관과 작전경과〉

일자	사령관(병력)	작전경과
6/25일		· 북한군 : 개성점령, 한강변 진출 · 국 군 : 김포반도에 장갑소대 배치, 12연대 2대대 철수(25일 오후)
6/26일	계인주대령, 실제 최복수중령 (3개 대대규모)	· 북한군 : 통진-수참리 일대 교두보 확보(27일 오후) · 국 군 : 김포전투사 편성(26일 오전) 운유산 일대 저지진지 점령(27일 오후) · 도하시간 기록상이 -북한군측 기록은 26일 06:30 조강리 일대 교두보 확보로 되었으나 국군측 기록에는 26일 18:00 강녕포 일대에 상륙한 것으로 기술
6/27일	최복수중령 (5개 대대규모)	· 국 군 : 김포북방 방어선 붕괴, 김포비행장 경유, 부천으로 철수 · 북한군 : 김포읍 점령(17:00)
6/28일		
6월29일	우병욱 중령 (3개 대대규모)	· 북한군 : 김포비행장점령 · 국 군 : 김포비행장 탈환작전 실패, 신임사령관 우병욱 중령자살
6월30일	임충식 중령 (4개 대대규모)	· 북한군 : 오류동 점령(20:00) · 국 군 : 오류동 일대 방어 및 역습
7월1일	최영희대령 (6개 대대규모)	· 오류동 일대 공방전
7월2일		· 오류동일대 공방전계속
7월3일		· 북한군 : 오류동 우회, 영등포 진출 · 국 군 : 한강방어선 붕괴, 수원으로 철수



### 3. 인천상륙작전과 김포반도 상황

(1950년 9월 15일 이후부터 21일까지)

#### 1) 김포지역의 한국해병들

미 해병 제5연대와 같이 인천시가지 전투를 마친 한국 해병대는 경인가도를 따라 진격하여 부평을 점령한 다음 한강변의 정곡리까지 진출했다.

한강 상륙부대가 서울 탈환을 목표로 경인가도를 진격함에 따라 북한군 패잔병이 측면으로 도주하였으므로 김포반도 쪽은 북한군으로부터 역습을 받을 우려가 있고 특히 김포비행장에 대한 엄호를 위하여 김포지구 일대의 차단과 방어를 위해 작전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한강도하 작전준비를 맡은 한국해병대 김윤근 소령이 지휘하는 제3대대는 9월 18일에 미해병 제5연대로부터 배속이 해제되어 독립적으로 김포와 부평간의 모든 지역을 경비하고 패잔병을 색출하는 임무를 맡았다. 제3대대는 18일 17:00에 박촌리(인천 계양구)까지 진출하였고 제1대대는 정곡리로 진출하였다.

김포반도 쪽에는 약2개 대대의 북한군 병력과 부평지구에서 퇴각하여 온 패잔병들이 합류되어 일부는 한강을 도하했고 나머지 병력 약500명은 부대를 재편성하여 다시 반격을 시도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3대대는 김포지역의 패잔병 소탕을 위해 김포 수로 제방 북서쪽의 넓은 지역을 목표로 우선 일차적으로 부평-김포읍간 지역을 탐색한 다음 제2단계로 김포읍 이북지역에서 강화도까지 확보하기로 작전계획을 세웠다.

#### 2)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김포상황

9월 19일 오후 사령부 정보참모실 소속의 정보대가 단지 적정을 파악할 목적으로 김포에 진출했었다. 그날로 활동을 마친 정보대는 사령부로 복귀하면서 파견대와 같은 성격의 소규모 병력을 김포에 잔류시켰다. 파견대의 선임자 오세동 대위는 치안 목적의 임시 조직체인 지방청년단 단원들과 함께 얼마 안 되는 대원들을 김포 외곽의 요소에 배치하는 한편 김포 중심가의 간판도 없는 한 음식점에 지휘 본부를 설치하였다.

밤이 되자 한강하류의 나루터로 김포반도에 건너 온 북한군의 일부가 김포에 침



인천 앞바다에 모습을 드러낸 인천상륙작전 지휘선, 마운트 맥킨리(Mount Mckinley). 1950. 9. 14 자료사진 | 지울 수 없는 이미지 (2007, 눈빛)

투하였다. 중과부적으로 북한군에게 유리당한 파견대 본부에서는 오대위를 포함한 4명의 전사자 외에 또 수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뒤늦게 이 상황을 알게 된 사령부에서는 제3대대의 의한 즉각적인 김포 공격을 미해병 사단에 건의하였으나 승인되지 않았다. 이날 새벽부터 진행 중이던 한강 도하작전이 절정에 달하고 있었고 한국 해병대 사령부와 제1대대는 곧 이동을 개시해야 할 시기였던 것이다.

9월 20일 제3대대는 김포반도 북서쪽 방어를 위하여 부대를 재배치하였다. 한강변 방어를 위하여 천등고개 북쪽의 96고지 일대에 제11중대를 두고 제1대대가 위치하고 있던 서해안 쪽의 검암리 일대에 제10중대를 이동시켰으며 김포-서울 간 도로를 중심으로 김포반도의 중앙지대를 방어할 수 있도록 김포 남동쪽 2km 거리의 풍무리 일대에 제9중대를 전개시키는 동시에 대대본부도 화기중대와 함께 풍무리로 이동하였다.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김포를 지척의 전방에 두고 이 대대 역시 전방으로의 진출은 제한 받고 있었다.

구 부평에 주둔하고 있던 해병대 사령부는 제3대대가 김포반도 패잔병 섬멸 작전을 하기에 앞서 정보탐색을 위해 정보참모부 예하 첩보부대 70명을 부평과 김포, 강화도에 출동시켰다.

오세동 대위가 지휘하는 첩보부대는 이날 새벽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김포읍을



중심으로 잠입하게 되었고 치안 목적의 임시 조직체인 지방청년단 단원들과 함께 김포외곽에 배치하는 한편 본부를 김포읍 안에 있는 우체국 건너편에 설치하였다. 그러나 첩보부대는 한강하류 나루터로 도하한 약 150명으로 추산되는 북한군으로부터 기습을 받아 첩보부대장을 비롯하여 4명이 전사하였다.

이 사실을 전달받은 박촌리에 있던 제3대대 본부는 첩보부대를 구출하기 위해 출발 김포읍 남방에 위치한 157고지에 도착하여 진지를 구축하였다.

이때 주민이 제공한 정보로 신리(김포비행장 서북방 약 8km)에 북한군이 집결하여 있다는 것과 김포비행장을 탈환하기 위해 한강을 도하한 약 1개 대대의 병력이 재편성되어 역습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제3대대는 북한군이 집결하여 있는 신리일대에 81mm와 60mm 박격포 공격을 가하고 2개 중대를 포위한 후 제9중대로 돌격해 백병전을 전개하였다. 제3대대는 이 전투로 북한군 120명을 포로를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9월 21일 제3대대의 과업은 아침 일찍부터 각 중대별로 할당된 지역 내에서 패잔병에 대한 탐색 작전을 전개하는 것이었다. 한편 9월 19일 이후 계속 한강을 건너와 김포 이북 쪽에 집결 중이던 북한군 제107연대는 9월 20일 밤 무방비 상태의 김포에 진입하여 지휘본부를 설치하고 그 이하의 2개 대대를 김포 남동쪽으로 전개시켰다. 새벽 동틀 무렵까지는 그 선두 부대가 김포-서울 간 도로와 한강 남안을 따라 선수동과 향산리에 이르고 있었다. 북한군 부대들의 이 같은 전개는 김포비행장을 공격할 목적에서였다.

9월 21일 06:00쯤 이날의 작전 준비를 막 시작하려던 제3대대 본부에 인근 주민이 북한군의 출현 사실을 알려왔다. 규모는 알 수 없으나 상당수의 북한군이 선수동 마을에 들어와 아침 식사를 요구한다는 것이었다. 대대장의 출동명령을 받은 제9중대장 황영 중위는 제1 및 제3소대를 우선 출동시켰다.

풍무리와 그 동쪽의 선수동 사이에는 아직 추수하지 않은 논들이 약 500미터 폭으로 가로 놓여 있었다. 공격부대는 개활지를 통과 중 북한군의 사격을 받았다. 개활지를 덮은 짙은 안개 덕분에 북한군의 사격이 치명적인 것은 못되었으나 공격 부대는 고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갑작스러운 총격전의 영문을 모르는 채 제9중대의 잔류부대는 신리 일대에서 서성대는 또 다른 북한군 부대를 발견하고 공격에 나섰다. 대대본부에서는 고전하고 있는 제9중대의 최초 출동부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익삼 일조(일등병조)가 이끄는 대대 보급소대를 개활지 우측으로 우회 기동시켰다. 때마침 개활지를 덮었던 농무가 얇게 걷히기 시작하면서 북한군의 저

항 또한 힘없이 쓰러지기 시작했다.

이 무렵 김용선 중위가 지휘하는 고촌 방면의 제11중대는 실상 소부대 단위로 탐색 작전에 나서던 길이었으나 향산리 일대에서 분산 대기중이던 북한군들은 스스로 동요를 일으켜 싸우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해 버렸다. 북한군들은 앞을 다투어 김포쪽으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대대장 김윤근 소령은 화기중대를 추격부대로 동원하였다.

김포 중심가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화기중대는 북한군의 저항을 받았다. 김포경찰서 북동쪽에 인접한 속칭 천주교 뒷산에 적 제107연대의 지휘부가 자리 잡고 있었던 때문이지만 이들 북한군의 저항도 오래 끌지는 못하였다.

야산 숲속에 위치해 있던 북한군의 지휘본부는 이광수 병조장이 이끄는 제2소대(로켓포 소대)의 급습을 받았다. 엄순길 수병의 제2분대에 붙들린 한 장교가 북한군 제107연대장이라는 것을 중대장 정중철 중위가 확인했다. 단독신문에 순순히 응하던 북한군 포로가 마실 물을 청하자 중대장은 연락병에게 물을 떠다 주도록 지시했다. 중대장은 북한군 장교 생포 사실을 알리기 위해 SCR-300 무전기로 대대장을 호출하는 동안 포로에 대한 주의를 잊고 있었다. 대대장에게 막 보고를 시작한 정중위의 카빈 소총을 포로가 순식간에 가로챘다. 때마침 수통에 물을 떠오던 연락병이 지체 없이 포로를 사살했으나 이미 정중위가 목숨을 빼앗긴 뒤였다.

천등고개 쪽으로 침투한 북한군의 일부는 제11중대가 포위하여 사살 또는 생포하였다.

김포와 그 주변에서 미처 도주하지 못한 북한군의 패잔병들은 제9중대와 화기중대에 대거 투항했다. 무려 300여명의 달하는 포로와 그리고 다량의 노획 무기가 미해병 사단에서 긴급 지원된 DUKW(수륙양용트럭)에 실려 인천으로 후송되었다.

9월 21일 오후 제3대대장 김윤근 소령은 화기중대를 대대본부 지역으로 복귀시키는 대신 제9중대를 김포로 재배치하였다. 이날 밤 최소한 중대 규모를 넘는 북한군이 제9중대에 역습을 감행하여 그 일부가 진내에까지 침투하였으나 다음날 새벽녘에는 모두 격퇴시켰다.

제1단계 김포반도 북한군 패잔병 소탕작전을 끝낸 제3대대는 제2단계 작전에 착수 김포읍 북쪽지역과 한강연안 지역 및 강화도까지 패잔병 소탕에 들어갔다.

김윤근 대대장은 대대본부를 월곶면 문수산 남방에 있는 월곶초등학교로 옮기고 문수산과 성동리 부근 그리고 한강하류 일대에 수색작전을 전개해 북한군 패잔병



을 생포하거나 사살함으로써 김포반도의 치안을 마무리 했다.

밤사이 <미주리호>를 비롯한 다수의 미 해군 함정들에 의해서 지원된 함포 사격은 해병들이 적을 물리치는데 결정적인 힘이 되었다.

#### 4. 터키군 참전과 김포배치

- 미 제25사단 배속, 김포반도 진출

터키는 1950년 7월 중순 유엔사무총장으로부터 파병요청을 제의받자 4,500명 규모의 파병을 결정하였다.

터키군의 파견이 확정되자 터키 육군은 1950년 8월 3일 제28사단 예하의 제241연대와 제2기갑의 제2포병대대를 주축으로 전투부대를 편성한 후 터키 제8군단 제4관구에서 공병, 수송, 병기, 통신, 의무부대를 차출하여 지원부대를 구성함으로써 독자적인 전투수행능력을 보유한 제1여단을 창설 9월 10일 제2기갑 여단장인 야지시(Tahsin Yazici) 준장을 초대 여단장에 임명했다.

터키 제1여단은 9월 13일까지 각 병과별로 보충교육을 실시하였으나 탄약 부족으로 실탄사격 훈련은 하지 못했다.

5,090명으로 편성된 여단은 9월 14일 추령준비를 마치고 20일 지중해의 항구도시인 이스켄데룬에 집결하였고, 제1대대는 25일, 제2대대는 26일, 제3대대는 29일 터키를 출발했다. 여단은 21일간의 항해 끝에 1950년 10월 17일 부산에 도착한 후 20일 대구에 위치한 유엔군 수용소로 이동하였다.

터키여단은 한강이남 후방지역에서 공비토벌 작전과 후보급로 경비업무를 맡은 미 제9군단에 배속되었다.

터키여단은 11월 13일 장단으로 이동 패잔병 소탕작전에 참가하고 20일 군우리로 이동하고 11월 28일 와원에서 중공군과 격전을 치렀다. 11월 30일 미 제2사단 주력과 태형의 계곡을 돌파하고 12월 3일 개성으로 철수하였다. 1950년 12월 14일 미 제25사단에 배속되어 김포반도로 진출하였다.

미8군은 12일에 A방어선에서 중공군 개입 후 처음으로 동서 양해안을 연결하는 B방어선(임진강-38선)을 구축하였다.

1950년 12월 10일에 B방어선의 좌측인 김포반도의 방어임무가 터키 여단에

게 부여되었다. 이렇게 하여 미제8군의 최좌측으로 문산에서의 임진강 남안을 방어하고 있는 미제25사단에 배속된 여단은 14일에 김포반도로 진출하였다. 여단장은 김포반도의 허리부분(김포읍에서 9km 서쪽에 있는 양촌면 양곡리 부근)을 분할하여 전방 지역이된 반도북쪽의 우전방 마조리 부근에 제1대대를 좌전방 문수산(△376) 부근에 제2대대를 배치하고 후방지역에 제3대대로서 운유산-가현산(△112)-운양리선에 제2저지선을 구축하였다.

그런데 38도선까지 후퇴한 북한군은 그의 주공을 중동부 전선으로 지향함으로써 서부전선에서는 12월 31일까지 소강상태의 전황이 계속되었다. 김포반도 정면의 북한군도 도강을 기도치 않아 터키 여단 정면에서는 북한군과의 전투는 없었다.

## 5. 1.4후퇴 이후 해병대의 김포반도 방위

(1951년 3월 16일부터 4월말까지)

중부전선의 한국군과 유엔군이 진격을 계속함으로써 서부전선의 적은 측방이 포위될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3월 중순에 서울을 포기하고 북으로 후퇴하기에 이르렀으며 제1사단(장, 백선엽 준장)은 일제히 한강을 도하하여 3월 15일에는 서울을 완전히 장악하였고 이어서 계속하여 북진을 준비하였다.

이와 같이 전선이 북상함에 따라 대대는 인천방어와 치안임무를 끝마치고 미제2특별공병여단으로부터 제1사단에 배속되어 계산동(인천 동북쪽 10km)으로 전진하게 되었다.

이때 대대에 부여된 임무는 제1사단과 한강을 사이에 두고 연결을 유지하면서 김포반도에서의 적의 상륙을 저지하고 고수함으로써 사단의 우측을 방어하는 것이었다. 또한 김포반도는 강화도를 비롯한 서해의 여러 해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역이므로 수륙양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해병대가 이 지역을 맡게 된 것이다.

**3월 16일** : 대대장 오명복 소령은 이날 계산동으로 이동하여 3월 17일 10:00를 기하여 제1사단에 배속되라는 미제1군단장의 작명을 받고 우선 사단의 작전 현황과 대대의 임무를 분석한 다음 부대 이동계획을 세우고 다음과 같은 요지의 명령을 하달하였다.



- 1)대대는 계산동으로 전진하여 제1사단의 좌일선으로써 김포반도를 방위하려 한다.
- 2)제21중대(증강)는 양곡리에 위치하여 부여된 지역을 확보하고 김포반도의 북반부에 대한 적의 상륙을 저지하라
- 3)제23중대(증강)는 김포에 위치하여 부여된 지역을 확보하고 김포반도의 남반부에 대한 적의 상륙을 저지하라.
- 4)화기중대는 제21, 제23중대에 박격포 및 중기 1개 반을 각각 배속하고 중대(-)는 계산동에 위치하여 부여된 후방지역을 확보하라.
- 5)제22중대는 대대에비대로서 최초 계산동에 위치하여 부여된 후방지역을 확보하고 의명 출동할 준비를 하라.
- 6)대대 CP는 계산동에 위치한다.

**3월 17일** : 대대는 이날 09:00에 부대 이동을 개시하여 16:00에 제21중대(장, 박이 중위)는 양곡리(김포 북서쪽 7km)에, 제23중대(장, 김재혁 중위)는 김포에 그리고 제22중대(장, 이 중위)와 화기중대(장, 강영구 중위)는 계산동에 각각 배치되어 이날부터 지역 내 잔적을 소탕하고 적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한 정찰에 착수하였다.

**4월 4일** : 그 동안 제1사단(장, 백선엽 준장)은 북진을 계속하여 이미 임진강까지 진출하고 있었던바 대대는 사단의 작명에 따라 김포반도의 북반까지 전진하여 한강하구로부터 임진강을 따라 제1사단과 연결하게 되었다.

대대장 오명복 소령은 2개 중대를 전방 1개 중대를 예비로 하여 반도의 북반을 연하여 주저항선을 00기로 계획하고 이날 다음과 같은 요지의 명령을 하달하였으며 급후 이 작전개념 밑에서 김포반도 방위임무를 계속하였다.

- 1)대대는 김포반도의 북반을 주저항선으로 하여 이를 고수하면서 제1사단의 좌측을 포호하려 한다.
- 2)제21중대는 대대의 우일선으로 부여된 전투지대를 방어하라
- 3)제22중대는 대대의 좌일선으로 부여된 전투지대를 방어하라
- 4)화기중대는 일선중대에 박격포 및 중기 1개 반을 각각 배속하고 중대(-)는 대대의 제2예비대로서 최초 양곡리에 위치하여 대대 좌측을 방어하라
- 5)제23중대는 대대 제1예비대로서 최초 양곡리에 위치하여 대대우측을 방어하고 의명 전방에 투입될 준비를 하라
- 6)대대 CP는 양곡리에 위치한다.

4월 5일 : 대대는 이날 08:00에 부대 이동을 개시하여 11:30분에 제21중대(장, 박이0 중위)는 태동에, 제22중대(장, 이00중위)는 통진에 각각 CP를 설치하고 제23중대(장, 김재혁 중위), 화기중대(장, 강영구 중위) 및 대대 CP는 양곡리에 전진하였으며 15:00에 이르러 대대는 방위진지의 점령을 끝마쳤다. 그러나 대대의 방위정면은 너무 넓었으므로 대대는 주저항선에 연하는 주요 지점에만 병력을 배치하고 그 간격은 정찰로서 보강하는 개념아래 방어 임무를 계속하면서 4월말에 접어들었다.

#### 〈참고문헌〉

- 최용호·김병륜, 『그때그날-끝나지 않은 6.25전쟁이야기』, 삼우사, 2003년 8월 20일 초판2쇄  
국방부전사편찬연구위원회, 『38도선초기전투』  
신덕수, 『한국전쟁 초기작전간 김포전투 고찰』  
최용호, 『한국 전쟁시 북한군 제6사단의 서남부 측방기동 분석』, 〈전사〉 제4호, 2002.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참전자 증언록1-북한의 남침과 서전기-』, 2003.12.20  
국방부전사편찬연구소, 『인천상륙작전 -한국전쟁 전투사-』, 1983.12.1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편집, 『한국전쟁사(제5권)』, 1972.12.30.  
국방부, 『한국전쟁사(제3권)』, 1970.12.2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편집, 『한국전쟁사(제10권)』, 1972.12.3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북한의 전면침략과 초기 방어전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6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편집, 『한국전쟁사료(44)』, 1986년 8월 30일.  
국방군사연구소, 『전적기념물편람집』, 1994.12.13  
해병사령부작전교육국, 『해병전투사(제1부)』, 1953. 3.  
손문식, 『UN군지원사』, 국방군사연구소, 1998.12.28.  
육군본부, 『유엔군전사-낙동강에서압록강까지-제1집』, 팜프렛70-17-1, 1963.9.30



## II. 김포지역의 6.25전쟁 · 주민증언

- 북변동\_ 김경모, 박점문, 송영환, 윤종호  
걸포동\_ 유선종, 유연종  
감정동\_ 구정희, 두병환  
사우동\_ 김병춘  
풍무동\_ 이순희, 이재근, 이일희  
고촌면\_ 김부섭, 송해봉  
양촌면\_ 김천길, 이기갑, 이병수, 최종훈, 홍종기  
남정순, 이기실, 홍선표, 홍종운  
대곶면\_ 권순덕, 심문섭, 권영세, 이강운  
통진읍\_ 경제봉, 신범수  
월곶면\_ 강성구, 김문복, 박세원, 신호철, 정해운  
하성면\_ 박광원, 장명수, 조한승, 유재언, 조시현  
최기윤, 홍순면, 민천기, 민경완

## “죽일만 하니 죽였지, 경찰은 더했어”

- 인천 상륙작적으로 좌익 후퇴하며 하성까지 밀려가

김 경 모(79세)/북변동

21살 나이로 민족청년단 활동, 김포 11곳 학살 현장 직접 참여

“8.15해방이 되었을 때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21살 이었습니다. 민족청년단이 18세면 활동할 수 있었는데 이범석 장군의 휘하에 있었거든요. 전국의 결성 대회에 많이 가보았구요. 황의식 중대장은 호국군을 창설했어요. 9개면에 4개 소대가 있었고요. 1개 중대에 편성되었어요. 그 이후 국군을 창설하고 호국군을 정부에서 해산을 시켰어요. 대부분의 호국군인들이 국군으로 갔어요. 사단이 없고 연대창설을 했다고요”

“6.25때 군인이 남하하면서 패잔병 등이 정신 순화교육을 받았어요. 일주일에 열흘간 내무서에서 순화교육을 받았어요. 자아비판 하고 인민군대에 가라, 의용군을 지원하라는 교육인데 이리저리 회피하다가 박원재 대위와 지하호국군(국군 지하조직)을 만들어 지하조직 공작을 하게 되었어요. 경찰 가족, 국군에서 처진 사람들이 태극단을 조직하고 각서를 썼는데 ‘죽어도 좋다’라고 도장을 찍고 활동을 했어요. 그들이 본류예요. 지금도 그때는 얼씬도 안하고, 지금 호국단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집에서 만나지도 못하고 콩밭에서 만났어요”

“무기를 모았는데 국군이 버리고 간 것을 오밤중, 세시 네 시에 가서 주어 와서 초가집에 꽂아놓았어요. 검단, 대곶, 하성, 통진에 오밤중에 가서 무기를 모아왔



어요. 칼빈 9정, M1 열한정 등 21정을 모아왔어요”

“수복이 되면서 현역, 호국군이 뒷산(천주교 뒷산)에 있었어요. 해병대도 안 들어오고 호국군이 향토방위하자 해서 무기 들고 지켰어요. 인민군이 후퇴했다가 김포에는 군인이 없다고 도로 들어가자고 했어요. 우리는 M1을 가졌고 면사무소에서 실탄 못가지고 간 것들을 가졌어요. 인민군것도 아시바총을 불 지르고 갔는데 일부 남은 것을 분해해서 수리했어요. 그 총을 가지고 싸웠어요. 김포에는 그때 인민군도 없고 군인도 없는 공방상태였어요. 9.28 수복 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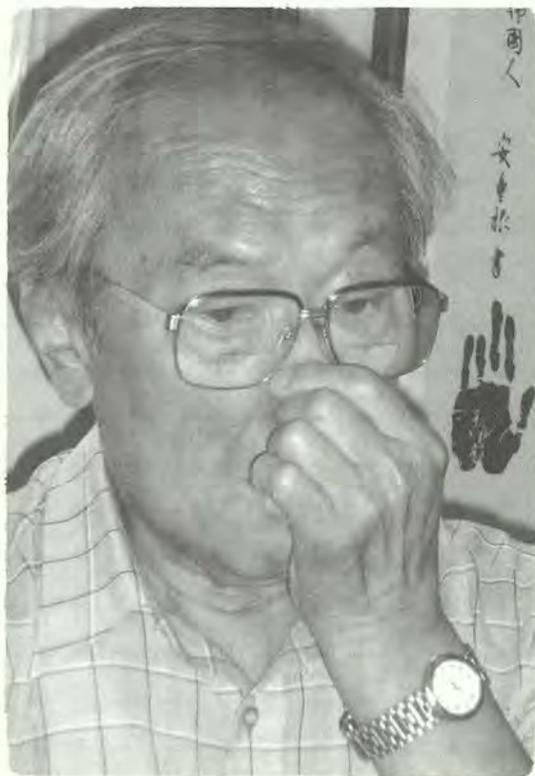
“6.25가 나고 김광희라고 사관학교 생도후보생이 여기 왔어요. 6.25가 났는데 말을 타고 왔더라고요. 소위 뺏지는 못 달고요. 인민군은 건너오고 탱크를 가지고 오는데 말을 타고 왔어요. 저항도 못하고 군이나 경찰이나 다 달아나고 인민군이 점령했어요. 내무서에서 우리같이 남하하지 못한 사람은 자수를 시켰어요. 30여 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을 내다보고 무기를 수거해서 향토방위를 한 거예요”

“사단이 인천상륙을 하면서 좌익이 후퇴를 하면서 이리 밀려서 하성까지 갔어요. 인민군이 식량과 잠자리가 없으니 야습을 했어요. 천주교 뒷산에 깃대가 밤에는 인민군 공화국기, 낮에는 태극기가 휘날렸어요. 한국군은 영등포, 부평, 검단까지 한 달간 공방상태였습니다. 인민군기가 보이면 몸서리가 쳐졌어요. 그렇게 반복을 20일을 했어요. 우리 가족들이, 부인들이 밥을 해줬어요. 서장관서 옆에서요. 내 옆의 친구가 밥을 먹는데 국에 고춧가루를 넣어 먹고 있어서 웬 고춧가루냐고 했더니 고춧가루가 아니고 코피가 터져서 그렇게 보인 거예요. 주먹밥을 하루 한 끼를 먹거나 혹은 못 먹기도 했어요”

“12용사 죽은 사람들은 밤에 해병대 정규부대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몇 개 소대가 분산해서 김포 에워싸 들어왔는데 그 전날 해병대가 G2(선발대)라고 13명인가 차를 타고 왔어요.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느냐’고 물어서 ‘13명이다’ 했는데 ‘경찰 낙오자 가지고 있는 것 다 회수해라’ 하고 빼앗았어요. 호국군이 4명씩 배당되었는데 ‘총이 없으니 자 버린 거라 이말이지’ 다리목마다 지키고 있었는데 총이 있으면 안 죽었지. 해병대가 호국군 출신을 인정을 못해서 G2대장이 무장해제 다 무기압수해서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바닥 빨갱이가 데리

고 와서 살상하게 된 거예요”

“해병대가 무기를 부대로 보내고 해병대는 잤어요. 지금 김포약국 자리에서 인솔자 장교 한명 남고, 하사관 7명이 죽었어요. 황금상 새집자리 이층에서 해병대 7명이 자다가 죽은 겁니다. 사우리 바닥빨갱이가 데리고 와서 밑에서 총으로 쏘서 죽었습니다. 대장은 따로 자다가 위기를 모면했고, 내가 서장 관사에서 자다가 총소리를 듣고 살살 들어가니 두 사람은 피가 낭자하고, 2명은 계단을 내려오다 층층대에서 죽고, 3명은 이층의 마룻바닥에서 죽었습니다. ‘그 안에 누가 있나?’ 하고 물으니 대장이 손들고 나와 ‘여기 총 있으니 가지고 가라’ 해서 M2총을 가지고 20년 이상을 소지했습니다. 제대 후 보신용으로 보유한 것입니다. 대장은 후에 중앙정보부 과장으로 있다가 일부러 나를 만나러 와 전국야간통행증, 무기 휴대증을 해주어서 총을 20년 이상을 소지 할 수 있었습니다”



호국군 조직 적극 참여  
천주교 뒷산 등 20여일 전투

걸포리 대부분 우익, 용주물은 좌익  
여우재 세 골짜기서 110명 총살

“12동지를 잡아 학살했는데 한구덩이에서 했어요. 고양군 송포면으로 끌려가 총살당했어요. 난 9사단에 가서 있는데 막 그 뉴스가 나오니 ‘야 너 집에 갔다 와라’ 하더군요. 당시에 박원재 씨는 9사단 30연대 2대대 5중대장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진영에서 좌익 진영을 잡아서 경찰 유치장에 가두고, 그 소식을 듣고 호국군 대원과 그 가족



들이 죽이기 시작했어요. 해병대가 12명이 사상자가 나니 G2완장을 줄 테니 G2 1개 분대에 배치하라고 해서 정식으로 3, 5대대로 활약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해병대에 현지 입대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족 있는, 노인을 모신 이는 평양 앞까지 갔다가 인수해 주고 도로 와서 국군을 갔고요. 그때 바로 따라 갔던 사람들은 3기 특기로 들어갔어요. 교전을 해도 우리가 앞장섰어요. 호국군이 선발대이고 해병대는 따라 다녔습니다. 지역을 잘 모르니 우리가 앞장섰습니다. 제다 뒤로 쳐졌어요. 해병대도 7발인데 실탄을 장전을 못하는 이도 있었어요. 8발이 다 나가도 장전을 못해서 살살 기어서 고장 났다고 가져오곤 했어요”

“9.28이 어느 정도 안정되니 윤원표 대동청년단 단장이 ‘호국군과는 무관하지만 호국청년단이 희생자를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확인하고 일부를 수습해서 물어 놓았다가 충현탑 밑에 화장해서 모셨어요. 매해 시에서 모아서 제사를 지내주다가 안지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2년간 지냈어요. 전화를 걸어서 호국출신들한테 돈을 만원씩 모아 제삿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자유총연맹에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인민군과의 전투는 수십 번 했어요. 천주교 위 뒷산에 경기관총을 놓고 걸포리 쪽에서 인민군이 움직이면 기관포로 쏘어요. 낮이면 방어를 하고 그 전투를 한 기간이 20일, 매일이었어요. 우리는 급하면 뒷산에서 내려오고, 낮이면 올라갔어요. 33명이 호국단 정원이었는데 호국단 정원의 자녀 어린 사람들도 5명이 있었어요. 우리보다 5살 정도 아래 열 대여섯 살 아이들인데 따라 다녔어요. 군사교육을 못 받고 청년 운동하던 이 사람들은 총을 못 쏘어요”

“김신애는 샘재 한옥마을 감바위에서 인민군과의 교전 중에 죽었어요. 김신애는 혼자 싸우다 총에 맞아 죽었어요. 지금의 하나로 마트 쪽에서 인민군 4명이 내려오고 우리는 총을 가진 사람이 3명이었는데 김신애는 칼빈소총 가지고 싸우다 아침 새벽에 죽었어요. 먼동이 트면서 인민군이 배를 타고 감바위로 건너오면서 공항습격을 목표로 가다가 김포에서 반항에 부딪친 겁니다. 김신애는 다른 3명의 호국군과 헤어져 김포읍 호국단에 인민군이 온 것을 알리러 들어온다고 하다가 인민군과 마주쳐서 총을 맞았던 겁니다. 김포에서는 사태보고 받고 7,8명이 나와 보니 벌써 죽었어요”

“논에 물을 수가 없어서 김경춘 순경네 집 모퉁이에 대강 묻고 도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4-5년 후 내가 제대한 후 시청 사회과에서 화장을 해서 12용사들과 합사 했어요. 1955-56년쯤입니다. 중앙정보부에서 촬영을 나왔을 때 죽기는 여기서 죽고 싸움은 여기서 했다고 말해 주었어요. 김신애와 덕문이 연금을 타게 해 주었는데도 가족들이 없어서 못 탔어요. 덕문도 유복자 딸이 있었고 김신애도 누이동생이 있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없어서 못 탔어요”

“전투를 많이 한 것은 서변리 쪽이었어요. 경찰서장 관사가 총본부였어요. 어디 인민군이 온다고 정보가 마을 주민들한테서 와요. 지금 김포예식장이 수리조합이었고요. 감정리 응주물은 거의 좌익이었어요. 90-100%였어요. 서변리 쪽은 응주물 사람들이 몰고 들어왔어요. 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호국단은 보초를 설 수가 없고 어디 어디에 뭉쳐서 있다가 정보가 오면 나갔어요. 걸포리, 서변리, 샘재, 응주물 등이요. 급할 때 면사무소에 남아 있던 예광탄을 터뜨려 예광탄이 뜨면 ‘테부뚝’(제방뚝)에서 상대를 했어요. 거리는 4-50미터로 살살 기고요. 그때는 수수농사를 많이해 가을걷이를 해 세워놓았는데 그것을 세워놓은 곳에 인민군이 은폐해 있거나 한강쪽의 갈대숲 속에 숨어 있다가 밤이면 나오고는 했거든요”

“해병대와 미군들이 총원이 되고 인민군을 잡으면 포로에게 꼬리표를 달고 가라고 했어요. 하도 많으니 꼬리표를 달아주고 ‘이것이 없으면 너는 죽는다’고 말하며 대대로 보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인민군 낙오병 철장에 가두었다가 후방에서 포로수용소까지 제대로 보냈는지 몰라요. 운송할 힘이 없으니 능력껏 꼬리표를 달고 혼자 보내는 거예요. 그런 전쟁이었어요”

“경찰서에 진짜빨갱이 40명을 잡아넣었는데 인민군이 별안간 왔다는 바람에 다 놓쳐버린 적도 있어요. 밤으로 집집마다 다 뒤져서 5,60명 다 잡아서 경찰이 막 들어와서 가두어놓고 20-30명씩 데려가서 죽였어요. 그때는 경찰이 죽였어요. 한 70명 죽였어요. 굴창이 큰 굴창이에다 잡아넣고 죽였어요. 9.28때 10월 초였어요. 70명 죽이는 현장에 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겁에 질려 말 한마디 못했어요”

“경찰이 들어와서 구 경찰서 담 밑에서 7-8명의 걸포리 사람을 죽이니까 약이



김덕문의 12용사의 영혼을 위로하는 공적비. 김경모씨가 총병탑과 공적비가 있는 현장에서 옛 기억을 되살렸다.

올랐었어요. 곁포리 사람들을 대창으로 찢러 죽였거든요. 그래서 죽였어요. 10월 6,7일에 죽였어요. 70명은 패잔병들이었어요. 김포사람들이 아네요. 김포에서 붙잡힌 사람들이예요. 이북에서 군인으로 내려왔다가 붙잡힌 사람들이예요. 포로 수용소에 못 보낸 이유는 너무 많아서 곤란해서예요. 여기 사람들 죽이지 않았으면 그렇게 까지는 안 죽였어요. 경찰이 원대 복귀해서 민간인을 죽였다고 죽였습니다”

“바닥 빨갱이들은 당시에 이미 완전히 좌익세상이 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걸 믿고 날뛰었던 거예요. 나도 누군가가 보도연맹이라고 써 넣어서 나도 모르게 보도연맹이 되어 있었어요. 누군가 말하면 보도연맹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루는 경찰에서 내게 말을 하더라고요. ‘너도 보도연맹이 되어있어서 그 사람은 아니라고 지워버렸다’ 고요. 그렇게 나도 모르게 보도연맹으로 있다 경찰이 신뢰하고 지워버렸어요”

“조카인 김영학(당시 27살)이는 대곶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청주김씨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문씨와 김씨가 대곶에서 갈등하는 상황에 있었는데 당시 이○○이가 방위군 대장이고 문○○이는 감사인가 그랬고 이○○이는 선임하사 인

데 문○○이가 사주를 해서 이○○, 이○○이가 학살했어요. 난 붙잡혀 갔다는 정보를 닷새 뒤에 듣고 쫓아가 보니 그 날 새벽에 죽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죽인다고 난리, 난리를 쳤더니 이○○이가 오줌 누러 간다고 하고 도망갔어요. 정말 20여명 죽이려고 했는데 1명도 죽이지는 않았어요. 찾아 갔을 때 시체는 못 봤어요. 너무 속이상해서 물어보지 못했어요. 빨갱이도 아닌데 서로 김씨와 문씨의 대립으로 죽었다니까요. 당시에는 양곡, 대곡을 합쳐서 죽이고 그랬으니까 그 날 저녁에 몇 명을 죽인지 몰라요”

“사우리 안동네는 80%가 빨갱이였습니다. 이○○은 일본 와세다 대학 다니다가 사람 하나가 빨갱이가 되니까 부락 전체 빨갱이가 되었어요. 월북자가 많았어요. 15여명 정도 있고, 죽인 사람은 5-6명 정도입니다. 그때 풍비박산이 되어서 나가서 살다가 다시 들어와 산 사람들도 있어요. 걸포리는 100% 우익이고요. 샘재도 심중기라고 심면장이 있어서 다 우익이라고 보았어요. 웅주물은 100% 좌익 정씨네가 많았어요. 풍무동은 더러 좌익이 있었어요. 북변동은 다 우익이었고요. 원당리도 드문드문 섞여있었어요”

“조리미도 바닥 빨갱이가 있었는데 인민군(의용군)보내느라 나쁜 짓을 해서 끌고 올라가라고 해서 내가 직접 죽였어요. 김 아무개였는데 돈이 있고 배운 사람이고 부자소리를 들어가면서도 그러더라고요. 나보다 6-7살 더 위였어요. 당시에 와세다 대학을 다닌 사람들이 5명이었는데 돈 있는 부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다섯 명 다 월북해서 도지사급을 두 사람이 해먹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명은 이○○ 사우리 사람이고, 한 명은 검단면 대곡리의 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직접 사살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나를 직접 붙잡아 매를 심하게 때린 사람은 내가 죽였어요. 괴롭힌 자들은 5-6명을 직접 싸 죽였어요. 우리의 밭을 해 먹으면서도 지주의 자식이라고 소작인들이 욕을 해서 남편, 여성, 아들(동창)을 직접 죽이고 누이 동생은 다른 사람이 죽였나 그래요. 그들은 정말 악질적으로 앞장섰던 빨갱이들이었어요”

“고려공원 세 곳, 이곳은 아주 큰 골창들이 있어서 밤 12시가 넘으면 끌고 와서 죽였어요. 첫 골창에서는 10명, 두 번째 골창은 17명, 세 번째 골창에서는 30



헌병들이 구덩이 속의 부역자를 향해 사격을 가하고 있다. 대구, 1950. 9. 자료사진 | 지울 수 없는 이미지 (2007, 눈빛)

명을 죽였어요. 걸포리 사람 7-8명을 묶고 창으로 찔러 죽이는 바람에 이곳에서는 좀 더 추려야 하는데 추리지 않고 마구 죽였어요. 이곳은 경찰이 들어오기 전에 죽였던 곳이죠”

“여우재 고개도 3곳이 있었어요. 첫 번째 곳에서는 20명, 두 번째에서는 10명, 세 번째 더 큰 골짜기에는 70명 모두해서 110명을 죽였어요. 여우재 고개는 경찰이 들어와 10월 초에 총살이 이루어졌어요. 지금의 신명 아파트 뒤쪽 20미

터 더 간 지점이었어요. 과거에는 꼬불꼬불한 길이었고 밤 12시가 넘어야 끌고 갔어요. 가다가 개머리판으로 차면서 머리 오른쪽을 쳤는데 흘러덩 머리가 벗겨지면서 즉사하기도 했어요. 우리만 있을 때는 별로 안했어요. 경찰이 들어온 뒤 많이 했어요”

“예비군 훈련장 뒤 이곳은 두 군데에서 죽었어요. 이곳은 골짜기가 크지 않았어요. 작았어요. 옆으로 된 골짜기는 지금은 다 깎아져 있어요. 이곳에서 옹주물, 사우리 사람들이 죽었어요. 두 군데서 6-7명을 죽였어요. 지금 자손은 거의 안 살아요”

“성인교회 뒤쪽 산골짜기에서 20명을 총살했어요. 여우재 고개를 올라가며 왼쪽으로 성인교회를 바라다 보며 뒤쪽에서 바닥빨갱이 다 총살했어요. 총으로 죽여야지 창으로 죽이면 더 불쌍했어요. 애처로웠죠. 그래서 총으로 했어요. 빨리 죽여 달라고 하고 울거나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충현탑 밑 채석장 자리 이곳은 당시 나무가 뻥뻥하게 있고 골짜기만 뺨 뚫려 있었어요. 돌만 몇 십 차를 끌어내가서 인적이 없는 곳이었어요. 이곳에서는 정확한 명수로 31명이었어요. 진짜 빨갱이들만 죽였어요. 모두 다 바닥 빨갱이들로 손가락질 당한 사람들요. 이곳에서 바닥 빨갱이 가족, 위원장을 한 남편, 육을 심하게 한 여자, 부위원장을 한 아들 등 일가를 죽였어요. 개중에는 조리미 사람도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도망가는 자를 붙잡아 왔는데 죽을 각오를 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이곳에서 여성은 7명이 죽었어요. 여선생 2명, 여성인민 위원장과 육한 여자, 그리고 술집 영업자 2명이 있었어요. 악질이라고 분류된 31명중 여자는 7명, 남자는 24명이었어요. 밥도 주는 것이 아까운 진짜 빨갱이라서 낮에도 4-5명씩 데려다 죽였어요. 죽일만 하니 죽였어요. 다른 곳, 경찰이 들어오고 나서 죽인 곳들과는 다른 곳이었어요. 다른 곳은 더 골라야 했는데 억울한 죽음도 있을 수 있었어요. 경찰에서 취조할 때 우물쭈물하면 죽었어요. ‘어디서 뭐했나?’ 물었을 때 우물쭈물하면 ‘이거 갈 데가 따로 있군’ 하고 죽였어요. 경찰들이 들어오고 나서는 서슬이 시퍼랬어요”



“난 군인을 6-7년 했어요. 제대 말엽에 인민군한테 기습을 당해 을지로 6가 중앙의료원에 4달 동안 입원했어요. 팔을 관통당하고 이마 발뒤꿈치 등을 심하게 다쳤어요. 제대장병 보도회(재향군인회 전신)가 상이용사회와 재향군인회로 갈리니까 나중에 재향군인회로 바꾸게 됐거든요. 박원재씨가 재향군인회에 있는데 그는 제대한 걸로 되었고 나는 부상당해 원대복귀 못해서 아무런 보상을 못 받았어요. 서류, 진단서를 시청에 병사계에 냈는데 서류가 분실되고(담당 황○○) 이미 군인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어떤 때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팔자려니해요”

“우리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다 죽었어요. 1.4후퇴때 내려가서 제주도에서 예비 군인으로 있는데 9사단 선임하사 전진택이가 데리러 와서 9사단 사창리 백마 부대로 가서 총 쏘는 법을 가르쳤어요. 싸우는데 실탄도 썰 줄을 모르더라고요. 급하니 인원만 가지고 메우고 한 거예요. 그 부대만이 아니고 다른 부대까지 가서 가르쳤어요. 난 총이라면 명사수였어요. 잘 쏘고, 불러 다니며 총다루고 쏘는 법을 가르쳤어요. 전쟁 이후에도 10년 이상을 제대군인 8천명이 선배님, 선배님, 했는데 그렇게 산 인생을 자료로 남기지를 못했어요. 하성면 부면장을 했던 권모씨가 당시에 시청 연감을 만든다고 생존자 박원재씨를 비롯해 7-8명이 둘러앉아 그 때의 상황을 토론하고 자료를 만들었는데 아마 어디 있을 텐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 좌익, 우익 수백명이 묻혀 있었어요

- 6.25전 야산대는 6.25의 전초였다

박 점 문(84세)/북변동

김포경찰서 정보과 근무(48년 8월 15일-58년 10월 말)

“1945년 해방되고 10월 20일 경찰에 입문해서 김포 경찰서에 근무했습니다.

1월 10일 사령장을 받고 하성지서에 근무하는데 아침에 교육을 하라는 것이 박현영의 위대성과 레닌맑스주의를 교육하라는 거였어요. 왜 공산당 이야기를 하나 하는 거였는데 당시에 어○○ 면장이 하성면 인민위원회 사무소가 있었는데 그곳의 위원장이고, 공산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이었으며 지서장인 이직현이라는 이는 하성면 인민위원회 사무소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성에 와서는 지서장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언쟁하고 그랬어요. 신문이라고는 인민일보만 하성에 왔어요”

“48년 정부수립 후 지서장인 이직현씨는 지서장을 관두고 검단면 부면장을 하다가 공무원을 마쳤어요. 김포경찰서는 정보과가 처음 생기면서 사상관계를 다뤄서 나는 시험을 봐서 경사가 되어 근무했어요. 일부러 간부시험을 안보고 아이들이 이리저리 전근을 따라 옮겨 다니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정보과에 있으면서 6.25를 만나게 되었지요”

“6.25전에 좌익분자를 취급했는데 남로당이지요. 이북에서 공산당 전신인데 남쪽에 있어서 남로당이었어요. 조직이 드러난 것만 알게 되었는데 지하로 움직이기 때문



에 세력을 알 수가 없었어요. 이북에서 사람을 내려 보내 간첩 활동하는 것이 발각되어 12명의 고정간첩을 잡은 일이 있어요. 6.25사변 전에 '야산대'<sup>1)</sup>를 조직해서 산에 가서 군사훈련을 받고 인민군 조직과 똑같은 조직을 만들었어요. 이북은 12명이 분대이고 우리는 10명이 분대예요. 그때에 원당리에 1개 소대, 고촌 신곡리 1개 소대, 대곶 가현리에 1개 소대가 있어서 1개 대대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김포에 좌익 많았던 이유는  
이북 가깝고 보도연맹 관계 때문

김포경찰중 5명  
좌익으로 전향 구속하기도



“검단면 원당리에 김병욱이가 연대 연락장교를 맡아 서울에서 대대장이 되어 지휘를 했어요. 서울에 가서 붙잡아 와서 연대와 본부에 접선하러 갔다가 못 만나기도 했어요. 강화, 김포, 부천에 1개 대대씩이 있었어요. 전쟁 전에 활동했는데 48년도에 훈련을 마치면 전쟁이 나도 인민군과 똑같이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놓은 것이어요. 그리고 사변이 난후 인민군은 지금 개성서 조강리를 건너 왔는데 경찰이 원당고개를 넘어가는데 뒤에서 총을 쏘는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경찰은 인민군이 온지 알고 도망을 갔어요. 야산대가 인민군 행세를 한 거지요. 야산대를 검거해서 보고하니 각 도에도 알아보라 했는데 전국에 야산대 조직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김포에서 최초로 야산대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1) 야산대(野山隊) 미 군정하 1946년에 발생한 10월 대구폭동 또는 10월 인민항쟁으로 유혈사태가 일어나며 남조선노동당(남로당)이 불법화 되는 과정에서 산으로 들어간 좌익인사들이 조선인민유격대의 호시이다. 이를 야산대로 불렀으며 혹은 빨치산이라고도 지칭한다.

“야산대를 발견하게 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목지에서 강도사건이 발생했는데 한 사람이 소를 팔아오다가 강도를 만난 사건이었어요. 단순히 강도사건에 그칠 뻔한 이 사건이 야산대를 추적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강도를 만난 이가 소를 팔아 나오다가 빛을 झा아버리고 돈이 없는데 강도들이 돈을 내 놓으라고 하니 3만원 밖에 없다고 3만원을 내 놓으니 돈은 관두고 인민공화국 만세를 부르라고 말해서 단순 강도사건이 정보과로 이관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당리, 사우리, 고촌, 가현리를 수색해서 일망타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3개 소대가 1개 중대병력으로 40명이었어요. 1개 대대가 150명에서 160명인데 다 잡았습니다. 그 윗선은 시간 때문에 못 잡았는데 전국 각 시군에서 많이 잡아들였어요. 6.25사변을 위해 목적활동, 즉 군사훈련을 했기 때문에 달밤에 야산에서 활동하고 훈련을 해서 기가 막혔어요. 6.25사변의 전초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사변이 나지 않았습니까?”

“6.25사변이 나고 경찰이 후퇴했는데 부평, 소래, 공주 쪽으로 후퇴했어요. 금강을 건너야 하는데 배가 있어야 건너지 배를 대라고 야단이었어요. 논산, 강경을 거쳐 대전에 집결하라고 해서 집결해 보니 무장과 비무장으로 나뉘지더라고요. 10월에 대구 가니까 미군과 합세해서 새무기를 받아 미군 제 1기갑사단 소속이 되었어요. 낮에는 아군, 밤에는 인민군이 낙동강을 건너왔어요. 서치라이트를 밝혀도 소용없이 인민군들이 낙동강을 건너왔어요. 그래서 1개 소대 밖에 안남아 2/3는 죽고 1/3만 남아 도망을 가자고 해도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인민군은 대구를 함락시키지 못해서 한이 되어서 대구에 4만 명이 집결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구 낙동강을 건너면 부산이 가깝게 점령될 수 있다고 봤으니까요. 그래서 대구 왜관 뒷산에 4만 명이 집결되어 있는데 B29기가 99대가 와서 위에서 맴돌다가 폭탄을 투하했어요. 우리가 다 봤어요. 새우젓 독 같은 크기의 폭탄을 터뜨리니까 소련제 탱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대구에서 20여대가 발랑발랑 뒤집어지더군요. 정보가 누설되어 한데 모아놓고 폭격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인민군 연대병력이 있었는데 내가 소련제 권총, 망원경을 노



획했어요. 연대장 것이었는데 소련사람이 장교인데 카키복을 입고 죽어 있었어요. 연대장 옆에 1개 연대병력이 다 죽어 있었어요. 시체를 치우다가 수류탄이 터져서 7명이 다 죽을 뻔도 했어요. 걸어서 상주, 부산, 영등포까지 화물차를 타고 와서 다시 수복이 되었습니다”

“김포경찰서의 서원들도 분산되다 보니 죽은 사람들도 있고 후퇴를 안 한 다섯 명이 있었는데 와보니 좌익으로 전환되어 있더라고요. 목 자르고 구속했어요. 이 적행위를 했으니까요. 그 바람에 우익 청년들을 바닥빨갱이들이 죽이고, 밀려올라 갈 때는 또 반대로 그러고 그랬지요. 천등고개에 오니까 20여구의 시체가 즐비하더라고요. 여우재 고개 오른쪽 땅이 사태가 나서 파진 곳에서는 우익, 좌익 수백 명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엉망이야. 월곶면 고막리에 가니까 땅 파고 잡아넣고 총을 쏘어요. 이○○이라고 대한청년단 단원이 있었는데 그이가 대한청년단 월곶면 반장이었어요. 이제일이가 총을 쏘니까 고꾸라져서 맞은 척 드러누워 있다가 흙으로 덮고 간 뒤에 흙을 파고 나와 충직한 얼굴을 아니까 다시 보복하게 되었지요. 그 바람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우익도 좌익도요”

“6.25사변 전에 김포는 유일하게 보도연맹을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파악을 하기 위해서지요. 빨갱이 중에 검거된 사람들 중심으로 조직되었는데 경찰에 관계없이 활동을 하라고 했어요. 관계하던 사람들을 회원으로 집어넣어라 하고 활동비도 주고, 활동보조도 적극적으로 하고 이익도 주니까 좌익사상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다 들어간 겁니다. 경찰에서 모르는 이들도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6.25사변이 나니까 그들이 나서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앞서서 우익 청년들의 희생이 많았어요. 우익 청년들은 대한청년단과 민족청년단이 있었어요. 대한청년단으로서 만족한데 민족청년단이 왜 있었느냐하면 단장인 이범석 장군이 조직을 했는데 그와 가까운 지인이 김포에 있어 민족청년단이 더 강했어요”

“이범석 단장이 월곶면 행사에 왔는데 깡통을 권총 5발로 쏘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총을 잘 쏘어요. 그것을 보고 민족 청년단의 단결력이 강화 된 겁니다. 지금 김포인쇄소 자리에는 자유당 사무실이 있었고, 대한청년단은 이장희 단장과 김충무가 있었고, 민족청년단은 홍성동 단장과 황의식 부단장 등이 열렬히 활동했어요. 좌익은 남로당 사람들과 남로당의 후신인 보도연맹 사람들이었지요”



서울 수복을 위해 한강 도하작전중인 국군과 유엔군. 1950. 9. 자료사진 | 지을 수 없는 이미지 (2007. 눈빛)

“김포가 이북도 가깝지만 공산당 좌익계열이 많은 이유는 바로 보도연맹 관계로 인해서 책임자를 내세우면서입니다. 김단 오류리의 이종빈이는 웅변도 1등이고, 포섭능력이 좋아서 말 잘하고 청중을 잘 모았어요. 스카우트해서 책임자를 세웠는데 특징이 있어야 규합이 잘 되었어요. 돈을 준다고 해도 돈만 가지고는 불가능하고 유아무야 되고 말지요”

“48년 8월 15일부터 58년 말까지 내내 정보과에서 일했어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하성면 전류리에서 전봇대 전주 3개와 전선줄이 잘려진 사건이 있었는데 통신계에서 수리를 하라 했더니 수사를 하라는 겁니다. 일부러 잘랐다는 거예요. 허허벌판 물논에 전주 3개가 누워있는 거예요. 야산대에서 끌어 활동했다는 심증을 가지고 홍성표를 추적한 끝에 이북지령 온 것을 실천한 것을 자백서를 통해 밝혀냈어요. 수사 중 자백서를 통한 효과로 치안본부에서 보고한 후 전국망을 파악하게 되었지요”



## 6.25때는 서로 믿지를 못했어요

- 여우재고개 구렁텅이와 신방축, 독자골 엉구렁텅이에서 학살 이어져

송 영 환(74세)/북변동

당시 16세, 1.4후퇴 당시 피난

송영환씨는 16살에 6.25를 만났다. 그에게 있어 ‘16살’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진다.

의용군 징집이나 국군징병이나 모두 17세 이상을 차출해갔기 때문에 생명을 보전할 수 있었다.

“6.25가 난 것은 6월 26일 되어서 알았어요. 이야기 듣기로는 인민군이 건너와 문수산 용강리 쪽으로 조강리 전투가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26일엔 군인과 국군의 장갑차 정도를 보았고, 피난 가서 2,3주 후에 귀가 했어요. 부상당한 인민군이 우리 집에 있었는데 당시 중학생들을 동원 인민군들을 위해 강제로 노역을 시켰어요”

“엠블런스가 들어와 인민군들이 전선 아래쪽으로 환자들을 실어 날랐어요. 인민군에 의한 피해는 없었어요. 잠시 바닥 공산주의자들이 군 인민위원회를 조직해 놓은 하부조직으로 자위대가 조직되어 유력 인사들을 불러내서 납치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샘재에서도 김포면장을 했던 이모 씨등 몇 사람이 납치되었던 걸로 알아요. 나



는 북변동 294-2번지에서 74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북변동에서는 납치인사가 없었어요. 9월 17일 해병대가 들어와 김포시에 주둔했는데 1개 소대였고, 인민군에게 밤에 습격을 당해 교전이 있었어요. 3일간인가 5일간을 밤에는 인민군, 낮에는 국군이 주도권을 잡았어요”

만17세 이상 청년 방위군 징집  
부역자 거의 월북, 남은 가족 희생

이웃끼리도 서로 믿지 못해  
낮에도 대문 닫아 걸고 살아

“당시에 매부인 이상현(당시 30세)씨가 희생당했어요. 집에 남아 있다가 인민군이 들어와 가가호호 수색하는 가운데 구경찰서로 연행되었지요. 의용군 안 나가려 피해 다니다가 인민군에게 학살당한 것이 아니라 국군한테 공격을 받아서 그리 되었어요. 매부는 국군이 쏜 포에 의해 희생된 건데 당시 5-6명이 희생당하고 시신은 수습을 했어요”

“잔존 부역가족들이 많이 희생되었어요. 구경찰서 자리에 방공호가 있었어요. 부역가족들은 그 자리에서 희생당한 것은 아니고, 희생처는 ‘여우재 고개 구렁텅이’와 ‘신방축’이라고, ‘감정동 독자골 고려묘원 안쪽의 영구렁텅이’에서 희생되었어요. 인민군들이 부역자들을 하성 시암리에 가서 교통호도 파게 했어요. 통진 조강리쪽에 가서도 봤어요”

송영환씨가 군에 징집되지 않은 이유는 당시 17세 미만이었기 때문이다.

“17세부터 의용군으로 뽑혀갔어요. 나는 16세라서 피해 안 당한 거야. 당시 생



활상은 서울에서 옷감이나 재봉틀 머리 가지고와 식량 바꾸어 살기도 했어요. 모를 심어놓고 당한 거라 식량이 모자랐어요. 당시에 학교는 못 다녔어요. 학교에 민간인 수용 같은 것은 하지 않았어요. 교직에 있던 사람들 나오라고 했지만 나갔어도 학생이 있어야 가르치지. 9.28 수복이후 안정되어 공직에 있던 사람들 복귀했어요”

“그 해 12월 10일 이후 청년방위군이라고 아군 청년들이 만17세 이상을 동원 다 끌고 갔어요. 연령만 되면 다 끌려갔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또 9.28 수복때 치안대라고 경찰 진주하기 전에 민간조직으로 자칭 우익조직이 있어서 활동했지요. 부역자들은 거의 월북하고 그 가족들이 남아있다 당하기도 했어요. 좌익에 있던 사람들은 전향한 사람들이 보도연맹에 가입한 것들이었지만 인민군이 들어오니까 보도연맹 사람들이 부역을 했고, 그 가족들이 희생된 거예요. 좌익 자위대는 악질적인 행위를 많이 했는데 학력이 낮은 무식 대중들이 의용군을 잡아가고 그랬어요”

“6.25때는 서로 믿지를 못했어요. 가까운 친척 외에는 믿을 수 없는 공포 분위기였다고요. 저쪽 체제는 조직적이고 서로 이웃끼리 믿음 없이 살벌했어요. 그래서 낮에도 대문 닫아놓고 살았어요. 희생자는 저쪽 사람들보다 이쪽에서 더 많이 낸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고. 그쪽 체제는 무조건 숙청이었잖아 그쪽 측에서도 그런 희생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1.4후퇴 시는 김포사람들이 피난을 가는데, 김포 향산리로 해서 황허장터로 해서 소사, 부천시 그리고 시흥시 반월 쪽으로 걸어서 이동했어요. 이고, 지고 우리는 발안으로 갔는데 피난 가다가 어린아이 보자기에 싸서 놓고 간 것도 봤고, 눈 위에 요 깔고 자고 그랬어요. 당시는 잡혀갔다하면 납치였어. 하지만 피하면 어디로 피하냐고. 1.4후퇴시의 피난은 한 달이 뭐야. 봄인 3월말, 4월초에 돌아왔으니 죽 썬어먹고 피골이 상접했던 시절이야”

“위로는 누이가 5명, 남동생 한명, 누이동생 1명이 같이 피난을 다녔어요. 미국과 소련이 억지로 약소 민족을 분리시킨 거야. 6.25때 고모가 함북 길주에 살았는데 고모부가 계시고 사촌형이 일본제국주의 대학을 다녔는데 사변 끝나고는 끝

난 거야. 그 소식을 전혀 모르잖아요. 4월에 들어오고는 GNP 100달러도 안 되는 사정이라 몹시 어려웠어요”

“1.4후퇴 이후에는 희생이 없었는데 조알까지 세는 공산체제를 싫어했어요. 공동생산, 공동분배, 개인소유가 없으니 그런 체제를 1-2개월 시행하다 안되었지. 공포정치니까. 그 당시 6.25부터 9.28까지 일개 인민소대가 김포면사무소에 주둔했어요. 내무서는 내무서대로 있었고요. 방위군으로 나갔던 이웃의 황윤수(당시 18-19세), 장경환(19)등 몇 명이 희생되고 돌아오지 못하고 그 가족들은 다 떠났고 소식을 모릅니다”

송영환씨가 기억하는 당시의 사상적 흐름은 지식계층 중에서 프롤레타리아 사상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

“봉건체제 아래에서 있는 사람에게 없는 사람들이 억압받는 생활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좌익 사상들을 가진 거지요. 낭만적 좌익 사상으로 마르크스, 레닌 책만 보고 막연하게 좇았던 거지요. 하지만 공산주의는 혁명 아닌가. 타도, 숙청은 불가분의 관계거든 말로만 있는 거 내놓으라고 하면 누가 내놓겠나? 당시에 그래도 김포는 사상의 영향이 없던 지역이에요. 김포는 전쟁당시에도 빈부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 수리조합이 있어 심한 식량의 고통이 없었어요. 김포의 당시 수리 안전시설은 제일이었다고요”

부친 송명성(당시 40)씨는 부르주아로 분류되었던 인사였다.

“아버지가 부르주아로 분류되면서 인민군 검찰청(등기소 현재는 김포경찰서 뒤쪽 컴퓨터 학원자리에 이틀을 있다가 반성문을 쓰고 나온 적이 있어요. 정말 끌려가면 기약 없던 혼란기였어요”

“9.28수복이 되면서 치안대를 보았던 사람들은 인민군한테 희생당했어요. 치안대는 잡히면 인민군(패잔병 인민군)한테 죽었어요. 9.28수복때 해병대와 인민군의 교전이 있었는데 조리미에는 해병대가, 선수동에는 인민군이 한강을 도하해서 건너와 교전을 했는데 해병대 1명이 전사했고, 인민군들은 포로가 되고 패주했어요. 당시 외가가 조리미에 있어서 그곳에 있어서 혼났어요. 벽에 총알이 박히고 민간인들은 이불을 쓰고 뒹굴어야 했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피란민 행렬. 1951. 1. 5 자료사진 | 지울 수 없는 이미지 (2007, 눈빛)

실질적으로 인척으로 매부의 희생과 더불어 공포스런 전쟁 분위기를 경험해야 했던 송영환 씨는 지금도 여우재 고개의 예비군 훈련장 앞 골짜기에서 희생된 많은 생명들에 대한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

‘높이 들어라, 붉은 깃발, 장백산 줄기줄기’ 등 당시에 5-6가지의 노래를 기억하는 이들이 많을 거라고 말하면서 ‘행여 당시 상황에서 장본인인 사람들이 아직 생존해 있음을 알지만 증언에 선뜻 응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 다들 ‘누가 죽었다’ 고 말 안한다

- 김포초등학교 뒷산에 학교 지을 때 뼈가 발견됐다. 20년도 안된 얘기다

윤 종 호(81세)/감정동

평안남도 순천 사리원 출생, 1.4후퇴시 단신 남하 반공청년 부단장 역임

“1.4후퇴 때 피난 나오면서 개성서 혼자 나왔어요. 20살에 결혼했어요. 휴전회담 열고 난 다음 아내가 참 대단했어요. 혼자서 어머니, 가족 데리고 나와 함께 살게 되었죠. 전쟁 중 3년간 군인 생활했어요. 국군 입대할 때가 24세 때였어요. 백선엽 1사단 586부대에 있었어요. 강화도에 있었는데 제대하면서 김포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반공청년 부단장을 했는데 이 일을 할 때는 살상이 이루어진 후였어요. 여우재 고개와 김포초등학교 뒷산, 충현탑 아래 등에서 많이 죽었다고 들었어요”

“치안대들이 빨갱이 잡아다 죽이고 그랬다고 들었어요. 대한청년단이 있었고 서북청년회가 있었는데 서북청년회는 이북출신자들이었으며 치안대들은 혼합되어 있었어요. 단체는 정확성이 없었어요”

“홍두평 별판에서 인민군하고 치안대하고 싸웠어요. 똑방 있는데서(지금은 길)싸웠어요. 옛날에는 소들을 많이 매어놓고 그랬어요. 똑방은 말뚝만 박으면 내 땅이던 시절이었죠. 좌익의 경기도 책임자가 옹주물에 있었어요. 6.25, 5.16이후에도 옹주물로 들어왔어요. 옹주물 좌파들은 검단 두밀(대곡동) 산줄기 타고 들어왔어요. 병찬 아버지도 좌익이었어요. 상이용사 탐아래 강훈석씨가 처음에 집 지을



때 사람의 뼈가 나와서 삼태기로 담아내 공동묘지 위에 묻어주었어요”

“김포초등학교 뒷산에서도 학교 지을 때 뼈가 나와서 어린 학생들이 보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런 일들이 20년이 안된 소리예요. 땅 작업할 때 나왔어요. 누가 죽었다 서로 누가 그랬다 그런 말은 안했어요. 그 당시는 비가 오면 흙이 패어지면서 뼈다귀가 나와 반짝거렸어요. 40년 전만해도 그랬죠. 비가 오면 직원이 뼈다귀가 나와서 반짝이는 것을 무서워해서 데려다 주기도 했어요”



“좌우지간 감정적으로 죽은 사람이 많았어요. 전쟁 후에도 잔뜩 긴장하고 말이 아니었어요. 이런 일들을 조사하는 것, 관심을 미리 두었어야 했어요. 10년 전만 여론을 수 집했어도 좋았을 걸 그랬어요. 5,60대는 잘 몰라요. 김포에서도 서로 많이 죽었어요”



윤종호씨가 과거 6.25당시 학살현장으로 여우재고개를 지목하고 있다.

## 그 때는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 인민군들의 은신처는 한강변의 수수밭, 콩밭이었다

유 선 종(77세)/곶포동

곶포리 284번지에서 6.25만남, 당시 19세(18세) 치안대활동 제2국민병

“6.25가 나서 안성까지 피난을 갔습니다. 이불조각이라도 가지고 나가려고 가다보니 인민군이 더 앞장서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더 갈 수가 없었고, 수원까지 가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기억하기로 1달 정도 만에 돌아와서 석 달 동안 수수밭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인민군한테 잡히면 의용군을 가야하니 어찌겠나! 당시에 인민군한테 잡혀 끌려갈 때 가지 돌친 나무로 사타구니를 마구 문질러 피가 흥건하게 나오면 치질이 있어서 못 간다고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떤 피를 내서라도 의용군에 안 끌려가고 들 안간힘을 썼습니다”

당시 곶포리는 180여 호가 있는 아주 큰 부락이었다고 한다.

“곶포리는 180호가 살고 있었어요. 그중의 4분의 1은 교인들이었어요. 빨갱이가 없는 지역으로 이름나 있었어요. 사상이 확고부동한 사람들은 치안대원을 했습니다. 9.28수복 당시에 밀고 당기면서 9월 24일, 25일쯤 김포는 다시 수복을 하고 서울은 김포를 지나가서 수복하게 되니까 9월 28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김포는 9.25라고 해서 그 날을 ‘김포의 날’로 정해 10년 이상 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김포가 다시 태어난 날이다 그거지요”



“인천에서 함포사격을 하면서 밤에 교전을 했어요. 벼가 익어 누룽누룽해 지는데 치안본부는 앞에서 총을 들고 해병대는 이 지역의 지리를 잘 모르니까 뒤에서 뒤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와삭와삭 소리가 나더니 인민군이 ‘간나썰끼’ 하면서 총을 쏘서 도망갔어요. 당시에 인민군은 암호가 상대방이 ‘땡’ 하면 ‘꽁’ 이었고 아군은 ‘타’ 하면 ‘병’ 이라고 암호를 대야했어요”

“6.25때 텐노선생이라고 4학년 때 담임이 있었는데 6.25년부터 사상이 좋지 않아 피난 나갈 때 남편이 끌려가 죽었어요. 남편 끌려다 죽인 것을 알고 인민군 시절이 되자 여성동맹위원장을 맡아 독이 올라 날쳤어요. ‘동무 이리왕 해서 악수하자고 해요. 그런데 악수하면 의용군으로 데려갔어요. 어떤 사람은 악수하자고 하니까 악수 못한다고 살려달라고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선생이 9.28수복 당시 미처 도망을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충현탑 밑에 채석장에서 총살당했어요. 내손으로 죽었어요. 총을 한방 맞았는데도 돌아보며 ‘죽일 테면 죽여라!’ 고 소리칠 정도로 독했어요. 사람들을 죽일 때는 혼자 가서 죽인 것이 아녜요. 치안대들이 여럿이 가서 열 명씩 열 명씩 전화 줄로 묶어서 놓고 쏘았어요. 그때는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썩썩이 바람에 콩, 수수가 쓰러지면  
숨은 인민군 발견하고 사정없이 죽여

걸포리 사람들은 사상적으로 확실  
제2국민병으로, 걸어서 부산까지

유선종씨가 당시에 기억하는 인민군들은  
은신처를 강변의 수수밭으로 삼았다고





학살 후 암매장된 시신을 마을 주민들이 수습하고 있다. 충주, 1950. 9. 29 자료사진 | 지울 수 없는 이미지 (2007, 눈빛)

했다.

“한강 변 옆에 수수밭, 콩밭에 숨어 썩썩이가 바람을 일으켜 콩, 수수 등을 쓰러 뜨리고 지나가면 우리들이 수수를 베어나가다가 인민군을 발견하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죽였다고요. 총을 들었기 때문에 먼저 까야 살았어요. 어떤 이는 ‘비켜 내가 죽인다’며 낫으로 이마를 팍 찍는데 피가 하늘로 치솟드라구요”

유선종씨는 아버지에 이어 2대째 천주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고향은 다른 부락과 달리 천주교 신도들이 자체적으로 치안대 활동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곶포리 대 다른 부락 장기동, 감정동과 싸운 거예요. 중학교 늦게 들어가 중학교 4(고1)학년 학생모 쓰고 다니며 그렇게 했습니다. 총을 쓸 줄 몰라 오발도 했어요. 아군 패잔병들이 버리고 간거를 주워서 쏘았어요. 20일 만에 활동한 것들이었어요. 곶포리 사람들은 아주 사상적으로 확실했어요”

“인민군에게 밀려 오촌 작은 할아버지 댁에 가서 ‘문 열어 달라’ 하니 대문을 열어줘서 헛간에 숨었어요. 헛간에 큰 독이 있어 함석으로 덮어놨다 함석을 열고 독에



숨었어요. 오촌 아주머니가 나인줄 모르고 인민군이 우리 집에 왔다고 치안대에 신고하러 갔는데 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며 '우리 집에 인민군이 왔다' 하니 이미 인민군들이 치안대원들을 포박했고, 아주머니도 같이 포박을 당한 후에 고문을 당하고 갇혀 있다가 아군의 박격포가 터지는 바람에 살아 돌아왔습니다. 얘기하면 기막힌 얘기입니다. 그때는 어디서 죽어도 죽었다는 말도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타 지역은 걸포리처럼 치안대원들이 없었어요. 여우재와 독작골들은 좌익들을 죽인 곳이에요. 나도 거기 갔었어요. 그때는 골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몇 해 전 만해도 해골이 굴러 나왔어요. 버젓한데서 어떻게 죽입니까? 으스스해서 거의 집이 없다시피 하니까 죽었지요. 우리는 가족은 해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본인은 용서하지 않았어요. 폐서 죽이고 때려서 죽였어요. 일반 빨갱이들은 그렇게 까 죽였어요”

“용주물은 사변나기 전에도 땅굴 속에서도 산속 빨갱이도 잡았었어요. 실제 간첩으로 넘어온 사람도 있어요. 걸포리 다리에서 간첩을 잡았는데 용주물의 정경모, 정범모라고 6촌끼리 넘어오다 1명은 사살되고 1명은 자수해서 살았는데 벌써 죽었어요”

유선종씨는 1.4후퇴 이후 인적 자원이 모자라자 제2국민병을 모집할 때 군대 가서 고생했던 이야기를 했다.

19살에 제2국민병으로 걸어서 부산까지 갔다고 했다.

“걸어서 부산까지 갔어요. 걸어서 가는 사람, 매달려가는 사람, 부산서 돈은 떨어지고 춥고 배고팠어요. 제2부대가에 가서 지게질을 했어요. 피난민의 세간을 날라주면 밥 한 공기 300원하고, 멸치국 넣어서 1천원하는 음식을 사먹을 수가 있었어요. 또 미군 군수물자 등으로 쳐서 날라주면 1천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시 밥 사먹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도 배가 고팠어요”

얘기하면 기가 막힌 얘기라며 담담하게 말하는 유선종씨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그의 가슴에 남아 있어 슬픔으로 녹아나왔다.

## 지금 사람들은 너무 느끼지 못해요

- 자체 치안대 조직한 고향리, 고향 · 감정 · 북변 · 운양 일대 활동

유 연 종(76세)/곶포동

곶포리 297번지에서 6.25만남, 당시 20세(19세) 치안대활동 제2국민병

“6.25전쟁이 나고 6월부터 9월까지의 의용군 안 나가려 도망 다녔어요. 그러다가 붙잡혀서 나갔다가 다시 도망 왔어요. 한강을 건너 김포로 왔는데 그때 도망 오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완일이 동생 이인수와 조막손이도 못 왔어요. 방호철이도 못 왔어요. 우리 또래는 다 갔었어요. 30명쯤 갔었는데 그 사람들은 못 왔어요. 그때는 천주교 예배당이 곶포리에 있었는데 천주교회에 모여라 해서 집단적으로 끌고 갔어요”

“9.28수복 때는 인천상륙 작전을 하면서 인민군이 유엔군에 의해 밀려오면서 사람을 죽였어요.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개신교인들을 싫어했어요. 아마 맥아더가 인천상륙이 1주일만 늦었어도 1/3은 더 죽어나갔을 거라고 믿어요. 그 당시에 듣기로 좌경인민위원장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선 학살하자고 결의를 봤었다는 거예요. 1주일만 늦었어도 큰일날뻔 했어요”

“그 당시에 9.28 치안유지 대원들은 모두 곶포리 출신들이었어요. 치안대는 오로지 곶포리에만 있었어요. 곶포리는 행정리로 부락단위로 4개리가 모인 규모라서 김포군에서 제일 컸어요. 우리는 자체적으로 치안대를 만들었습니다. 곶포동, 감정동, 북변동, 운양동일대의 치안을 담당했어요. 풍무동은 아니었어요. 당시에



학살된 시산들. 파주. 1950. 10. 13 자료사진 | 지을 수 없는 이미지 (2007. 눈빛)

는 집안끼리도 사상이 다르면 까고 죽였어요. 그렇게 무서웠어요”

“당시 뱀골은 모스크바였어요. 사변 시에도 봉화불로 사변을 연락했잖아. 운양동이 강을 오가는 나루터였어요. 감바위, 감암포라고 했지. 지금은 일산대교가 놓였잖아요. ‘행동한 자는 다 죽인다’ 그때의 감정은 그랬어요. 재판이 있어 뭐가 있어 내 형제 멀쩡한 사람이 죽어 가면 눈에 보이는 게 뭐있나. 어느 누구도 순한 사람이 없어요. 겪은 사람은 그대로 했어요”

“수수밭에서 낮으로 ‘비켜 비켜 내가 할게’ 하면서 머리고 뭐고 닥치는 대로 찍어 죽였어요. 경찰서 앞에서는 빨갱이들을 잡아가지고 오다가 패면서 옆에 불난 집으로 몰아넣어 빨갱이들에게 뛰어 들어가 죽어라고 해서 그 집에 들어가 타 죽기도 했어요. 사람은 당하고 나면 순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사람들은 느끼지 못해요. 우리는 분통이 터집니다”

“우리가 군인을 나갔을 때에 이승만 대통령은 너희는 죽으면 역적이다. 살아야 애국자라고 인력이 모자라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흔히 민주화운동이란 말



들을 하는데 공산당과 싸운 참전용사들이 민주화 운동 한것 아닌가 말아야. 17살 18살에 그런 일들을 했다고요. 피난 가서 고생한 것 그런 생각을 하면 열불이 난다구요”

### 인민군, 교인 먼저 학살 결의 뱀골은 모스크바 방블

해병대 · 인민군 밀고당기며 살상  
당시 감정은 행동한 자 다 죽인다

“구 경찰서 유치장이 있었는데 반달 형이었어요. 인민군이 삼각창으로 죽였어요. 치안대들은 당시에 30명이 활동했고 서에서도 김포 걸포리는 사상적으로 완전한 곳으로 인정했었어요. 지금도 생존한 치안대원들이 있어

요. 강○○, 유○○, 유○○, 방○○, 조○○, 유○○, 박○○, 박○○, 방○○, 김○○, 유○○, 한○○, 유○○, 유○○, 유○○, 유○○, 유○○, 유○○ 등은 모두다 6.25참전 용사입니다”

“나는 대한청년단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변나니까 지역빨갱이 앞세우고 잡으러 다니더라고요. 큰집에 숨었다가 외가 거물대리로 갔다가 그 지역이 사상이 불순해서 다시 와서 건넌방에다 땅굴을 파고 숨었어요. 구들장을 뚫고 숨었는데 만약 아궁이에 불 지르면 굴뚝으로 해서 빠져 나가려고 했어요. 가을엔 새막을 짓고 숨어있었는데 유재덕씨와 같이 숨어 있었어요. 유재덕씨는 제2국민병 나가서 8사단 21연대 6중대에서 육박전을 했는데 새벽에 거기서 죽었어요. 나는 초등학교



교 2학년 때 눈을 상처받아 잘 안보였었기 때문에 8사단 21연대 5중대에서 눈 때문에 병참학교 장군때 있었어. 근무하다가 4년 만에 제대했어요. 보급만 지원했습니다”

“인천에서 함포사격을 해서 터진 것도 있고 불발탄이 걸포리에 떨어져 한강주변에서 터졌어요. 지금 어디엔가 몇 발은 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한강위주로 부락들이 피난을 갔고 풍무동 원당고개에 해병대가 있었어요”

“서로 인민군과 밀고 당기면서 살상행위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때 제일 많이 죽었다고요. 길거리와 경찰서에 불순분자들이 잡혀서 있었어요. 밤에는 인민군이 점령하고 서에서 해방되었는데 130명 정도가 갇혀 있었어요”

“당시에 걸포리에는 산 밑에 새까맣게 인민군들이 붙어있었어요. 치안대 하다가 도망을 가다가 붙잡힌 7명이 삼각창에 찔려 죽었어요. 따봉총(따발총)에 묶인 삼각창으로 찔려 죽었는데 그 외에도 북변리 사람도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들을 안치시킨 곳이 무명탑이고 충현탑이라구요. 우리 아는 사람들만 일곱 명이지 또 있어요. 박상연 장복남(노루아버지)도 죽고, 유지종씨는 창으로 찔려 죽었어요. 유시윤, 유윤종, 유재선도 죽고, 채기화는 나이든 노인인데도 창으로 찔려 죽었습니다”

“무명탑이라는 것이 이름 없다는 거잖아요. 고양에 가서 죽인사람도 있었는데 방공호에 놓고 죽인 것들인데 한테 화장해서 항아리에 담아서 묻었어요. 누가 누구의 시체인지 아느냐고 말이야. 누구시체인지 몰라요. 그저 한테 묻은 거야. 9.28수복 전투시에 그때 당시에 인민군 시절에 너무 많이 활동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행동한 자는 다 죽었어요. 우리는 가족들을 해치지 않는 않았어요. 행동한 자는 다 죽었어요”

“걸포리는 사상적으로 깨끗했어요. 아군 패잔병 군인이 와서 숨겨주고 전쟁 끝나고 경상도 사람인데 17연대 소속인 사람은 살려서 고향을 찾아가게 했어요. 곁광애다 감춰두고 상처를 썩으로 비벼서 살려냈어요. 박사준 어머니가 가까이 돌보며 살려줬어요”

## 빨갱이로 몰리면 사촌도 다 죽이던 시절

- 인민군 요구로 4~5일 반장일 한 외가, 치안대 끌려가 참살

구 정 회(73세)/감정동

중학교 1학년 나이로 6.25경험

“저는 당시에 중학교 1학년 14살이었어요. 외갓집이 다 당한 일들이예요. 정준현씨가 외삼촌이었어요. 삼남매중의 외아들이셨고요. 인민군 시절에 반장일 시키니까 반장일 며칠, 한 4-5일 했대요. 인민군이 후퇴하고 치안대에 의해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인민군이 후퇴했다 도로 와서 문 열어 주었는데 4-5일 반장한 것이 무슨 죄가 있나 생각하고 도망가지 않고 있다가 국군 쪽에 의해 죽었어요”

“외할머니와 가족들도 다 잡혀갔고요. 살피듬이 좋으셨던 외할머니는 아들이 그랬다고 죽었어요. 할머니는 여우재 고개에서 돌아가셨는데 외삼촌은 어디서 죽었는지도 몰라요. 당시는 치안대의 횡포가 심했어요. 치안대가 장롱부터 손가락까지 다 가져가고 싹쓸이를 해갔어요. 인민군들은 지식인들만 못살게 하고 곡식 알을 평을 재서 세었어요. 생산량 조사를 한다고 말이야”

사춘기 시절 구정회씨의 기억에 외갓집에 대한 슬픈 기억은 그대로 뇌리에 새겨져 있다.

“외할머니는 소복하고 담배한테 주어서 피우셨던 모습 보았던 기억이 나요. 외할머니는 젊으셨고요. 난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외삼촌도 잘생기셨어요. 그 일로 외숙모는 조씨였는데 무얼 잘못했느냐고 항의하다 환장을 하고 서대문 형무소



에 구속 되었고요. 9년이나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5-6년도 못살고 돌아갔어요”

“외숙모는 막내를 업고 감옥을 갔고요. 감옥살이 중에 애기는 죽고 아들인 정순열이는 경찰고아원에서 찾아다가 우리 어머니가 길렀어요. 정순열이는 머리가 좋고, 똑똑했고 지금은 부천에서 살아요. 아들이 둘이구요. 공부를 잘해 고대 수석으로 다녔고, 무역회사, 교사들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6.25 겪으면서 외가집 일로 우리 어머니가 너무 고생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외숙모가 억울하다고 재판을 신청하고, 면회를 신청해서 재판을 통해 재판 3년 끝에 9년을 감옥살고 풀려났어요. 우리 어머니 정어진씨는 친정식구 데리고 있기를 정말 너무 고생했어요”



치안대, 장롱부터 숟가락까지 싹쓸이  
외숙모는 항의하다 9년 감옥살이

남편 큰댁도 빨갱이 몰려 몰살  
미군전투기 사격...피난 멀리 못 가

“우리 어머니는 양말 한 짝을 신겨도 우리와 순열이와 똑같이 신겼고 참 잘했어요. 어머니는 똑똑하고 사회경험이 많아서 소송비용을 다 대고 억울한 친정식구 살리려고 무진 애를 썼어요. 당시에 용주물의 정서방네는 다 빨갱이로 몰렸어요. 차라리 외삼촌도 이북으로 도망갔으면 살았을지도 몰라. 정서방네들은 모두 다 넘어갔어요. 어정정한 사람들만 남아 죽었어요.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다 죽은 거야. 억울하게”

“6.25때는 멀리들 피난 안 갔어요. 피난 갈 때 미군기들이 총 쏘서 피난민들이 많이 죽었어요. 나는 건너가면서 애기는 살고, 엄마는 죽은 것도 보았어요. 이불 잔뜩 싣고 콩 볶은 것, 쌀 볶은 것 머리에 이고 기어서 갔던 기억이 나요.”

구정희씨는 외가댁은 물론 시가 쪽의 남편 정진구씨(73)의 큰댁도 몰살을 당한 경우이다.

“우리 큰댁은 몰살당했습니다.”

구정희씨 남편 정진구씨(73)는 김포토박이다. 강남주유소가 있던 곳 일대의 갑부로서 살면서 중학교 2학년 때 6.25를 만났다.

정진구씨의 기억이다.

“중학교 2학년 때고요. 우리 할아버지 사촌형남네가 완전히 몰살당한 거예요. 사변이 나기 전 남로당원들은 붉은 기를 썼어요. 당시 우리는 차주를 해서 차타고 공주까지 갔어요. 아버지는 민족청년단 부단장을 하셔서 청년 훈련하던 것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치안대의 즉결심판에 걸리고 빨갱이로 몰리면 사촌도 다 죽이던 시절입니다”



학살 현장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찾는 가족들  
자료사진 | 지을 수 없는 이미지 (2007, 눈빛)



## 지금도 그 자리에 가기 싫다

- 8월10일경부터 9월 초순까지 양민학살 수차례 진행돼

두 병 환(71세)/감정동

6학년 나이로 독자골에서 진행된 학살 목격

두병환씨는 초등학교 6학년 때의 6.25의 선명한 기억을 아직도 또렷하게 가지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의 기억이지요. 생생한 기억입니다. 어릴 적에 장릉은 미사일 부대 있는 곳에서 여우가 울고, 노루가 나오고 그러던 곳입니다. 현재 신안 2차 아파트가 있는 이곳은 6.25전에는 굵은 소나무가 뻗뻗하게 숲을 이루고 있던 곳이 구요. 6.25사변 후에 숲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지요. 6학년은 6.25 때문에 다녀보지도 못하고 6.25날이 마지막 수업이 되고 말았어요. 1.4후퇴 시에 원래 3월에 졸업을 해야 하는데 동창생들이 피난가다 죽고, 병들어 죽고 기간이 지나니 8월에 졸업장을 보내 주더라고요. 지금 내가 동창회장입니다”

“6.25때 인민군이 들어온 것은 29일-30일쯤 들어왔어요. 초가집에 아버지 어머니와 있었고 당일 날에 모를 냈는데 날이 흐리고 가물었어요. 북쪽이 캄캄하고 흐렸는데 쿵쿵 소리가 나서 천둥번개인줄 알았어요. 비가 오후에 안개비가 왔습니다”

“6.25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3개월 동안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형님 두병덕이는 김포농고 1학년이고, 17살이라 의용군을

갈 수 밖에 없었어요. 이를 피하려고 쪽마루를 서너 쪽을 뜯어내고 마루밑 흙을 파서 들킬까봐 세숫대야에 조금씩 멀리멀리 가져다 버렸어요. 구렁덩이에 밤새도록 퍼 나르고 숨겼지요. 그리고 마루를 원상태로 해놓고 밤마다 밥과 똥오줌을 받아내며 견뎌야 했어요. 인민군은 양민학살을 안했어요. 그들은 전쟁을 하러나왔지 양민을 죽이러 오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 6.25폭격으로 경찰서 일부와 시내 초가집들이 불타고 길가의 집들이 불탔어요. 인민군이 넘어오니까 바닥 빨갱이들이 난리였어요. 하루아침에 붉은 완장을 두르고 사람을 죽였어요. 인민군은 지역 실태를 모르는데 붉은 완장을 끼고 설쳤다고요. 그때만 해도 이곳은 산골이어서 마차하나 경루 끌고 다닐 소로만 있었습니다. 사람은 거의 안다니고 그랬는데 당시에 대문을 걸어차면서 뛰어 들어와 우리 형님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학교에 간다 하고서 소식이 불통이라고 했는데 서너 번 와서 장롱 뒤지고 그러고 나서는 안 왔습니다”

“김포에서는 8월 10일경부터 9월 초순까지 1달간 양민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양민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잘 몰랐고요. 우리 집에서 삼을 얻어갔습니다. 인민군 복장에 완장을 찬 사람들이요. 잡아들이고 죽게끔 한 것은 바닥빨갱이 들입니다. 당시에 이장, 일을 본 사람들은 젊어서 피난을 가고 징병되었거나 인민군으로 끌려갔거나 했지요. 학살을 할 때 끌고 가는 사람이 많은 때는 20명쯤이었고요. 이틀 건너 사흘 건너 15명 정도씩 끌고 가는 것을 마당에서 구경했습니다”

“장릉산에서 5-6미터의 계곡길이 낭떠러지에서 죽였습니다. 끌려가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은 없고 50대 이상의 중늙은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에는 50대 이상의 남자들은 늙은이로 행세했습니다. 끌려가는 사람들 중에 여자들은 애기 업고 걸리고 갔는데 한 줄로 갔습니다. 빨갱이들이 저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욕을 했습니다”

“낭떠러지 앞에 일렬로 세워놓고 따발총으로 드르륵 쏘면 자동적으로 골창으로 떨어져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삼을 가지러 완장을 찬 사람이 와서 삼을 빌려다가 얇게 덮었습니다. 수백 명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여자들은 애기를 업고 간 채로 죽었습니다. 이틀 걸러 사흘 걸러 죽 데리고 와서 수십 번 그런 일을 했습니다”



“8월 20일 넘어서 인천에서 함대를 끌고 중부전선에 함포사격을 하면서 김포에도 밤낮 10일 이상 사격을 했습니다. 8월 말에 함포사격을 할 무렵에 더 많이 죽었습니다. 함포사격을 하면 초가집 문이 다 열려버리고 이불을 쓰고 견뎠습니다. 그러니 놔두고 갈 수 없어서 다 죽었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앞 영구령팅이가 깊었습니다. 그 임새에 여기서 다 죽었습니다. 네다섯 살 어린 아이와 끌려간 여자들이 눈에 선연합니다. 우익 가족들이었습니다”

“서울이 수복되고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9월 이후에는 빨갱이 가족들이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여우재 고개에서 보다 많이 죽었습니다. 독자골에서도 처형사건이 몇 번정도 있었습니다. 우리 형님은 9.28수복 때까지 숨어 있었습니다. 햇빛을 못 보니까 밤에 바람을 쏘이게 하고 얼른 들어가야 했습니다. 밥과 요강을 교대로 들여보냈는데 햇빛을 못 보다가 보면 장님이 되니까 밖에 잠시 나올 때는 수건을 가지고 눈을 가리고 환한 기운에 천천히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치안대 예비경찰로 지원해서 형님이 치안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2달 근무하는데 좌익을 희생시켰습니다. 1.4후퇴가 나니까 가족들이 다 피난가야 한다고 형이 권해서 아버지는 55세, 어머니 동생 두 명 데리고 천안까지 밤낮으로 걸어서 피난을 갔습니다”



임산부, 애기 엮은 아낙들...  
어린이 할 것 없이 죽음 목격

인민군 복장, 완장 차고 삼 빌려가  
수복 후엔 반대로 빨갱이가족 희생

“형은 치안대로 지리산 공비 토벌사건으로 집결명령을 받아 갔다가 2월 중순쯤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경찰직을 그만두었습니다. 치안하라니까 열정으로 한 겁니다. 이 마을은 7-8집중에 인명피해는 없었고 무사했습니다”

“당시에 장릉산은 아름드리나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무위에서 잠을 자며 의용군으로 끌려가는 것을 모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0-30대는 숨어 지냈습니다”

“좌익 가족 희생할 때 한 사람이 살아나가는 것도 봤어요. 30대 남자인데 총맞지 않았는데 구렁텅이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구렁텅이를 타고 후다닥 튀어서 달아났습니다. 뒤에서 총을 쏘았지만 마구 달려가 고개를 넘어가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미운 사람들, 감정이 있으면 법이 있나 무방비 상태에서 이쪽저쪽에서 죽었습니다. 어린애 업고 간 여자가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모습이 이해가 안갑니다. 어린아이 뺨 여자도 죽였습니다. 인간들이 아니고 눈이 뒤집힌 겁니다”

“6.25사변 나고 지방 빨갱이들이 공산주의가 뭔지도 정확히 모르고 살던 사람들인데 왜 날뛰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웃사람, 양민학살 한 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북으로 갔거나 응주물 뺨골은 바닥빨갱이가 더 많았습니다. 6.25이후 이북으로 도망갔는데 10년 후 교육받고 간첩으로 왔던 일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잡혔는데 신문보도도 없었습니다”

“샘재산에서 숨어있는 간첩을 1명 잡았는데 40년 전에 서른세 살로 예비군 출동을 했어요”

두병환씨와 저녁 7시쯤 부슬부슬 내리는 비와 함께 양민들이 희생되었다던 장소를 찾았다. 고려공원 안에 있는 그곳은 골짜기가 이어지는 계곡이었다고 한다.

공포와 절망으로 일렬로 끌려갔다는 부녀자들과 어린이 심지어 애를 뺨 임신부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발걸음을 옮겼을 그 길을 찾아갈 때 어둑어둑 해지는 저녁 무렵의 빗줄기 속으로 이름 모를 희생자들이 다시 두병환씨의 기억을 통해 살아나고 있었다.



“장릉산에는 갯골이 컸어요. 사람들을 희생시킬 때 나는 우리 발 근처였기 때문에 먼발치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야 이놈의 새끼야 가서 삼 가져와’라고 심부름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장마가 지면 뼈다귀들이 군우물 앞에까지 즐비했습니다. 지금도 그 자리에 가기가 싫고 으쓱합니다”



깊은 구덩이에 던져진 시신들. 아비규환 속에 웅케 살아남은 생존자도 곧 다시 처형됐다.  
자료사진 | 지울 수 없는 이미지 (2007. 눈빛)

## 모진 피난살이, 고생은 말도 못하지

- 소가 끄는 마차 붙잡고 걸어 걸어...아비귀환 세상

김 병 춘(87세)/사우동

31살 나이로 6.25 겪어, 임신부 몸으로 피난길

“그때 당시에 아들 하나 딸이 셋이였고 하나는 태중에 있었습니다. 남들이 피난 간다 어쩐다해서 아이들과 다리 못쓰시는 어머니 모시고 피난을 나갔습니다. 피난을 가는데 사람들이 무언가를 들고 가는 것을 봤는데 사람 죽은 거였어요. 동네 사람을 쫓아서 시어머니 모시고 있으니 어떡해요. 동네 사람들과 발안까지 피난 가서 이틀을 자고 집에 왔어요. 어찌나 고생스럽던지 아이는 앞을 못 보지요. 그래서 소가 끄는 마차를 붙잡고 계속 걸어갔어요. 어머니는 다리를 못 쓰지요. 뱃속에 아이는 있지요. 그리고 또 딸들이 있으니 고생은 말도 못하지”

“이웃에 금영이네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네 덕분에 같이 피난 갔어요.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남편은 의용군을 피해서 경상도 고성으로 미리 몸을 피했었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 집은 그대로 있고 이미 인민군들이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겁이 나서 인민군을 보고 별별 떠니까 ‘아무 걱정 말고 할머니와 편히 사시라’고 하더라고요. 인민군이라고 다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인민군들이 집에 들어왔지만 시어머니와 아이들이 있으니깐 간다고 하면서 갔어요”

“착한 사람들도 있어요. 나쁘지 않고 좋은 사람도 많더라고요. 언젠가는 아기를 업고 있는데 아이가 우니까 등을 두드려 주면서 울지 마라 아가야 집에 가라고 하



더라고요, 착한 사람도 많더라고요. 나는 밖에는 잘 안 나가니까 빨갱이들이 왔다 들어갔다고 하는 소리만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사람 죽인 것은 없었어요. 그때는 무서워서 밖에 못나갔어요. 붙잡아 갈까봐 못나가니까 소식을 못 들었어요. 젊은이들은 내외가 심했던 시절이잖아요”

임신한 채로 앞 못 보는 자식,  
다리 못 쓰는 노모, 모시고 피난

피난 후 돌아온 동네 인민군 점령  
당시 의용군 나간사람들 소식 끊겨

“열여섯에 시집을 와서 열아홉 살에 첫 아이를 낳았어요. 한 번은 남편과 큰 집에 다녀오다가 빨갱이들을 만났어도 동네 사람이라고 봐 줬어요. 병철이라고 자랄 때 착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이 좋았어요. 그런데 빨갱이 하나까 달라지기는 달라지더라고요. 이곳에는 빨갱이 별로 없었어요. 어쩌다 하나씩 있는 거지”



“그때는 사우리에 집이 많았어요. 20년 전까지만 해도 큰 동네였어요. 서곶마을(3통), 가운데 마을(1통)이라고 불렀어요. 의용군을 나간 사람들도 있지만 가족들이 어디로 가서 이제는 모르지요. 모두 떠나고 죽었어요.

## 휴가를 나오니 ‘죽은 놈이 왔다’ 반겨

- 8월 인천 포격 이어져, 9월15일 싹싹이가 뼈라 뿌려 인천상륙작전 알려

이 순 희(79세)/풍무동

9.28 수복후 간부후보생 지원 육군종합학교 소위로 활동

당시 중학교 6학년때 6.25를 만났다.

“고촌에 있는 형님 댁에 들려보니 벌써 인민군이 들어와 다 충청도로 피난을 가고 남동생(당시 18살)만 남아 있더라고요. 아버지(이의만씨)는 대한청년단 회장을 했기 때문에 온가족이 피신을 해야 했어요. 아버지는 계양산에 숨어 밥을 가져다 주면 먹고 있었지요. 아는 사람을 만나면 적을 만나는 것처럼 무서워 검단 오류골 외삼촌댁에 밤에 가니까 검단면사무소 창고에 갇혀 있었던 친형등 삼형제가 다 만났어요. 잡히면 셋이 다 죽는다고 형님은 남고 도사리 이모 댁에 가서 동생은 숨어있고 밤길을 걸어 나는 연희동 누님 댁에 숨어있었어요”

“8월이 되니까 인천을 폭격하고 그랬어요. 산에 가서 보면 싹싹이(제트기)가 9월 15일까지 뼈라를 뿌려 인천상륙작전을 알려주었어요. 나는 서울 연희동에 땅굴을 파고 있었고, 9월 15일에 인천상륙이 이루어졌는데 연희동 연세대학교 뒷산에서는 교전이 있었어요. 아직 입성을 못한 상태였고요. 그 당시 아버지는 충청도 아산에서 잡혀와 김포경찰서에 잡혀 있었어요”

“나는 교전하는 곳을 뚫고 나와 수색에서 유엔군에게 잡혔는데 많은 이들이 잡혀왔었어요. 전투상황을 이야기하고 싸인을 받아 행주나루로 와보니 탱크를 배에



실어 나르면서 도강을 하는데 나만 태워줘서 도강을 했어요. 도강을 해서 보니 논 바닥에 시체가 있더라고요. 다행히 고촌 형님 댁에 가보니 아버지가 와 계셨어. 내무서에서 인민군들이 도망간 사이 유치장문을 부수고 나왔던 거야”

이순희씨는 당시 9.28 수복후 1.4후퇴 전에 간부후보생으로 지원 육군종합학교 소위로 9사단에 소속되게 되었다.

“강릉 오대산가서 오월 초에 포위가 되었어요. 소위로 임관한지 두 달 된 상태이고 칼빈총 밖에 없었어. 죽어도 싸움을 하다 죽겠다고 밤마다 고개를 하나씩 넘었는데 건빵 먹으며 산행을 하니 기진맥진이지. 소나무 껍질 벗겨 먹으며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오월 초에는 소 한 마리 잡아먹자는 생각이 들더라고”

“동네 한 가운데 가보니 삶아 놓은 콩이 있어 먹어버렸어. 그 당시 33,000원 두 달 치를 주인에게 꺼내주고 콩을 구해 볶아 달라. 아래 가서 구해봐라 했더니 이미 중공군이 마을 식량을 다 빼앗아 가는데 그냥 가져가진 않고 보관증을 주고 빼앗아 가더라. 우리는 7명이 한 뒷박씩 콩을 차고 길을 안내해 달라고 민가 주인에게 부탁하니 거절을 하더군. 그럼 숨어 있을 테니 먹여 달라 부탁하니 그것은 오케이 하더라고. 아마 남쪽으로 안내해 달라는 말이 부담되어 거절한 거야. 그 당시 군인들에게는 밥을 해주며 주민들은 멀건 죽을 끓여먹으며 버텼어요. 그리고 보름여만에 유엔군을 만났어요”

“우리 집에서는 나를 실종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휴가를 오니 ‘죽은 놈이 왔다’며 반겼어요. 23살이었는데 22살에 소위 달고 9사단이 동해안에서 서울로 그리고 포천으로 오면서 나는 영등포에서 밤새 걸어서 김포로 외출을 나왔던 거야. 그 당시 아버지가 국군을 싸 죽인 사건이 있었어. 사랑채에서 주무시는데 M1총을 끼고 주무신 거지. 밤에 누군가가 사랑문을 박차고 들어오니까 무조건 주무시다가 썩서 2명중 한 명을 죽였는데 해병대 수색대 소속이었어요. 아버지가 자수를 하시고 국방부회의에 회부 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으셨었지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전쟁에는 수없이 있는 법이야. 나도 전시에는 최전방에 근무했어요. 아군포탄을 철원에서 맞았었다고. 앞으로 나가면 적이고 뒤에는 아군

이 있는데 당시 선임하사 이하 모두가 내려가고 인민군이 파놓은 호에서 버티다가 철수 명령을 받았는데 소대원 한명이 상체와 하체가 분리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나는 파편이 철모에 맞아 소대장 시신 찾으려다가 그랬어. 그 철모를 집에 갖다 두었는데 웬일인지 없어졌어”

“그런데 3년 3개월을 싸웠는데 부상은 안 당했어. 포위망 속에서도 도와주는 사람은 있더라고. 험한 싸움 속에서도 포탄이 떨어지면 솔직히 전쟁터에서 소대장은 총알받이인데 총알받이 소모품 소위였는데 안 다쳤네. 백마고지에서 10일 싸웠는데 주인이 25번이 바뀌었다니까. 그건 하루에 2번, 3번씩 바뀌는 상황이었는데 포탄 실탄 기관탄 속에서 살았어. 수화기 가지고 직접 지시하면서 말이야”



대한 청년단 회장였던 아버지  
계양산에 숨어지내  
실수로 군인 쏘 죽이기도

오대산 전투에서 인민군에 포위  
소나무 껍질 벗겨 연명



## 좌 · 우익 극심한 대립 일어나

- 양도부락은 '빨갱이 마을' ...치안대에서 40여명 사살

이 재 근(74세)/풍무동

중2, 3학년 당시 여우재고개, 향교자락서 학살 목격

이재근씨는 당시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당시 6.25를 만나 생생하게 그 기억을 가지고 있다.

“중학교 2,3학년 때라고 기억해요. 학교 갔다 오니 내가 안와서 피난을 나가려다 못나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양면을 거쳐 다남리까지 피난을 갔다가 다시 돌아왔고, 그 이튿날 안산으로 가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도로 왔어요. 다남리까지 갔다가 짐을 지고 들어오려는데 인민군이 기를 가지고 해방군으로 들어오다가 ‘아바이들 편히 쉬라 해방군이다’ 라고 말하며 해코지도 안하고 착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27일 날 집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부락에는 빨갱이(남로당)가 많았어요. 간부들이 살아 무식한 사람들이 가세했어요. 우리하고 우리 당숙 사촌은 우익이라서 우리는 맥을 못 추었어요. 인민군은 여기를 지나서 아랫지역으로 내려가고 바닥빨갱이들이 여기 사람들 끌어다 노역을 시켰는데 아이들은 안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피신을 했지만 어린아이들은 괜찮았어요. 인민군들이 가혹행위를 많이 해서 벼 나락을 세고 식량도 다 가져가고 그랬어요. 김포읍 김포경찰서 뒷자락에 인민군이 다리가 잘라져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돼지를 잡아서 수발한 적이 있어요. 당



숙은 당시에 구장을 보았는데 아버지와 당숙이 '하양이'라고 끌려가 매 맞고 그랬어요”

동네 처녀들 치안대에 농락당해  
‘빨갱이 색시’라고 머리 밀기도

식량 없어 날감먹으며 호 노역  
하양이 - 빨갱이 낄선 대립

“우리 부락은 거의가 다 좌익사상이었어요. 우리 부락사람들 봐주지 않아서 피해가 상당히 많았어요. 인민군이 하양이라 멸시했어요. 외갓집이 향산리였는데 외할아버지, 외삼촌 고촌면사무소에 붙잡혀 가기도 했어요. 외조부와 외삼촌이 서울로 끌려갔는데 외삼촌은 어

디서 죽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 당시 우리 마을은 전부 빨갱이였고 부락의 인민위원장은 부평사람이었는데 웅주물, 양도부락의 피해가 컸다고요. 당숙은 재산 빼앗기고 매 맞고 그랬어요“

“인민군이 밀려가고 정식 경찰이 들어오기전 치안대가 있었어. 김포사람들이 했는데 우리 동네 처녀들이 치안대에 농락당했어. 빨갱이라고. 전부 끌어다 여우재 고개, 향교자락(김포초 뒤편) 있는데서 철사로 묶어 싸 죽였어. 우리 마을 사람 많으니 쫓아가 봤다고. 당시 30명 죽었어. 뭐 다 죽은 거지. 그렇게 죽이고 나서도 자치대라고 해서 남편 끌어다 죽이고, 그 아내는 머리 뺏깎이고, 빨갱이들이라고 참 가혹했어요. 그래서 내가 당숙 어른에게 부락사람들인데 구출해 줘야지 여



자들까지 그럴 수가 있느냐 말했다가 어린 자식이 왜 참견이나 혼났다고. 여름이니까 삼계탕 해 주셨는데 팽개치고 내려왔어요. 제일 피해가 컸어요. 하양이들이 빨갱이 집안의 농사를 차압해서 타작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타작시 갈퀴질을 해서 뒷목에 감춰서 대어섯가마 모아줘 빨갱이들이 연명하고 그랬어요. 너무 압류해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빨갱이 가족을 돌봐줘 낫그릇을 마루밑창에 감추었다가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1.4후퇴 때는 안산으로 피난을 갔고, 부락은 전부 비어있고, 돌아와 보니까 부락의 소나 돼지는 다 잡아먹었더라고. 부천에서 인민군에게 붙잡혔는데 중공군하고 합세해서 일정때 전화기 철거 수거하는 작업을 하루 종일 도와 준적이 있어요. 안산으로 피난 갈 때 짐싣고 가는데, 큰 아버지와 함께 소마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국군이 넓적다리가 포탄에 맞아 끊어져서 벌렁벌렁하는 것도 보고, 인민군이 널브러져 죽은 것도 보았어요. 가지도 오지도 못하겠다. 다시는 무서워 안 오겠다 하고 집에 들어오고 나서 해병대가 상륙했어요. 피난 가며 국군 죽는 것 인민군 죽는 것 다 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방공호를 파서 이불을 덮어 씌워 나와 동생을 보호하고 어려움을 피했어요.”

“해병대 대대본부가 조리미에 있었어요. 별판 인민군들을 향해 쏘는 것도 봤어요. 선수부락에 무지무지 시체가 많았어. 내무서장이던 강천영이가 하양이들을 처형하러 인민군 대대를 데리고 왔는데 이미 해병대가 있었어요. 수갑을 채워놓은 인민군 대대장이 엎드려서 돌맹이를 올려놓고 해병대 대대장을 죽였어요. 그러니 인민군들이 전멸하다시피 했지. 인민군이 다리가 잘려나가서 살려달라 했지만 인민군 그냥 싸 죽었어요. 인민군이 후딱 넘는 것을 해병대가 쏘면 명중이었어. 풍무동은 극심한 전투가 있었어. 인민군대가 하양이 처형하러 후퇴하다 도로와 나중에 쏘지도 못하고 인민군이 공항이 집결지인데 가지도 못하고 전멸했어요. 넘어와서 인민군들이 선수동에서 4명 신지철 형 등 젊은 청년 5명을 죽였지, 다 죽이려다 해병대가 있어서 전멸한 거야. 종달새 마을 뒤 방죽에서 인민군들이 청년들을 죽였어요. 김포에는 해병대만 들어오고 연합군은 안 들어왔어요”

“우리 부락은 우익은 세네집이고 치안대들이 나머지 40명을 죽였어요. 그 가족

들 그대로 살아있어요. 용주물과 양도부락은 빨갱이 마을이었어요. 인민군이 군청의 탄약고를 파괴 했는데 인민군은 빼앗지 않았어요. 낱알을 세기는 했지만 거두지 못하고 1.4 후퇴 때 가을에 도망갔으니”

“당시에 대동청년단 배지만 달고 다녀도 끄뻑끔뻑했어요. 우리 처가는 빨갱이 집안이었어요. 장인어른이. 당숙이 어찌 빨갱이 집안하고 결혼하느냐고 하셨지만 다 지났는데 어떠냐며 결혼했어요. 아직도 노래 대여섯 가지는 알아요. ‘붉은 깃발’ 같은거요. 이○○씨 아저씨는 하양이였고 풍무동에서는 그이만 오면 고개도 못들었어요”

“그 당시에 좌익 미망인들이 살아있어. 90세 이상 된 이도 있고 현재 아파트에 살아있는 이도 있어요. 이○○ 어머니는 생존해 있고 이○○이는 삼촌이 10년 만에 넘어온 것 숨겨줘 3년 감옥살이 했어요. 당시 젊어서 빨갱이 색시라고 머리 깎았어요. 부락민들을 하양이들이 그랬어요. 여자들이 수건을 2년씩이나 쓰고 다녀야 했는데 그렇게 짐승 취급 당했어요. 참 참혹했어요. 이성웅씨의 아버지, 이순희씨의 아버지, 신지철의 아버지가 왜 그랬냐고 나무랐어요”

“인민군 쫓아다니며 밥도 갖다 주고 봉성리 가서 호도 파 봤어요. 밥이 없어 날감도 따먹고 그랬지. 어머니가 수수를 털어주어 서너 뒷박 가지고 가다가 콩밭에 가서 콩 꺾어 수수와 섞어 낫는데 다 썩었으니 날감 따먹어야 했지. 참 참혹했어요. 그래서 남들이 뭐라면 6.25 겪어보지 않아서 그런다고 그래요. 모기장 같은 거는 보리쌀 3되 주고 서울사람에게 샀어요. 서울 사람들은 재봉틀 머리가지고와 보리쌀 3되만 달라고 그랬어요”

“합포사격의 피해는 없었어요. 민가에는 떨어지지 않았습시다. 전쟁 3년간 주민간 갈등 있었어요. 사우리 안동네에는 빨갱이 약간 있었지만 집안이라고 감싸주어서 피해 별로 없었어요. 양도부락은 컷지만요”



## 전쟁, 다시는 안됩니다

- 살려달라 애원하는 인민군, 현 풍무동 흠플러스 뒤 아산에서 참살

이 일 희(74세)/풍무동

중학 4년에 전쟁 반발, 국민병으로 포병부대 자원입대

“중학교 4학년 때 (고1)전쟁이 났습니다. 18살에 학교에 들어가 김포초 31회, 중, 고는 1회입니다. 그해는 몹시 가물었어요. 모를 내야 하는데 가물었다고요. 원래는 한 달 전에 내야 하는데 모가 늦었더랬습니다. 그때는 포성을 뇌성으로 알았지요. 일요일 아침에 터진 거니까요. 풍무동에는 전쟁 나고 일주일 만에 인민군이 들어왔는데 완전무장을 했더라고요. 인민군 분대장이 소련제 권총을 차고 있는 반면에 한국 군인들은 M1소총도 안 나가는 그런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비참했어요.(울음) 그렇게 가난했어요. 중공이 공산화되면서 이북이 해방되고 소련군이 점령해서 들어 왔잖았어요. 학교를 다니면 군인 나가는 것이 연장되었습니다. 사실은 군인을 나갈 나이인데, 51년 군인을 나갔어요. 너무나 가난해서 군대생활도 작업복을 기어 입었어요. 포병학교 창설 1기생으로 기간요원으로 내려왔어요. 50년 상황은 인민군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해방군이다 안심해라고 하면서 처음에 가을을 겪는데 수수이삭을 다 세었어요. 현물세를 빼앗아 가느라고요”

“그해의 12월 이승만 박사가 국민병 제도를 실시해서 군인 나갈 나이를 50세까지 자원을 뽑았습니다. 길거리에서 35일 동안을 걸어서 부산까지 가야 했어요. 구포에 내려가니까 장소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산으로 올려 보냈어요. 누룩창

고에서 생활했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누워서 잠을 잘 수도 없고 앉아서 무릎을 쪼그리고 자야했는데 이가 너무 많아서 손으로 털어내도 끝이 없었어요. 주먹밥 하나에 물도 없이 먹고 자고나면 장질부사 등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봐야 했어요.(울음). 포병학교에서 3개월 동안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 송장과 같았어요.(울음) 언젠가 국가의 의무는 할 것이라고 포병학교 자원입대해서 1개월 훈련 받고 박격포 수령했어요. 야포는 미군이 안줬어요. 포 연습하고 5월 10일 날 출동했어요. 이와 같은 상황은 거의 다 90%가 79-82세가 아니면 모르던 전쟁 상황입니다”

“1950년에 희생된 것을 알고 있는 것은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이 시작되고 지금의 풍무동 홈플러스가 앉아 있는 지역에 산소 터가 있었습니다. 거기 해병대 중대가 있었어요. 9월 달 하순경이었는데 쌀쌀해서 아침에 불을 쬐어야 했던 때였는데 우리 아버지가 해병대들에게 모닥불을 놔줬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총소리가 났어요. 교회 앞 다리 있는 데서 패잔 인민군과 지역빨갱이들이 해병대와 전투가 벌어져 교전한 거예요. 수수밭이 있었고 해병대들이 다 들어가라고 했지요. 그 교전으로 인민군들이 죽어서 눈에 있었어요. 우리 눈에도 있었어요. 나중에 우리 눈에서 피를 흘리고 죽은 사람을 보았어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와서 처리를 했어요”

“인민군들 중에는 우리처럼 끌려나온 사람들, 교인들도 있었어요. 당시에 인민군 연대장을 잡았었는데 해병대 대대장이 본부에 무전 친다고 한 눈을 판 사이에 인민군 연대장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해병대 대대장을 쏘 죽였어요. 대대장이 죽자 대대장을 죽였다고 인민군들을 총살을 시켰는데 열 명 정도였고 며칠 만에 끌려나온 인민군들도 있어서 살려달라고 해도 홈플러스 뒷산 옆에서 죽였어요. 서로 죽고 죽인거지요. 포로는 제네바 협정에 의해 인도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안하고 쏘 죽였어요. 우리는 겁이 나서 못 올라가 봤어요. 겪은 사람들은 인민군, 중공군 다 봤어요. 어려운 세상 다 겪어봤습니다”

“51년도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은 군인들이 무연탄 밥이라고 밑에서는 타고, 국은 소금국에다가 무를 넣은 것 먹었어요. 지금은 상류생활입니다. 53년도에 영양실조로 늑막염에 걸리고 난 중고등학교를 2년 3개월 공부했어요. 양반의 집에 태어나 종아리 맞고 사랑방에서 살았어요. 10촌 형님이 이정희라고 정동교



회에 다녔는데 절대 공산당하면 죽는다고 알려줬어요. 이박사 노선이 우익이고 공산당이 어떤 것인지 당시에는 잘 몰랐잖아요”

“넘어간 사람, 끌려가 죽은 사람들이 빨갱이들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좌익이 우익을 죽이고, 수복 후에는 우익이 좌익을 죽이고 동족끼리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어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아버지가 법 없이 살 양반이고 그 당시에는 부자이셨는데 약주를 좋아해서 우리 어머니가 수수, 찹쌀로 술을 담가서 대접하고는 했어요. 먼촌 집안사람이 빨갱이였는데 평상시에도 술이나 대접을 잘해왔었던 덕택으로 의용군을 잡으러 왔다가도 악착같이 수색을 하지 않았어요. 숨으면 길으로 돌다가 그냥 갔어요. 벽장 같은데 숨으면 그냥 돌아가서 의용군에는 끌려가지 않고 외아들이면서도 보호를 받았어요. 다 부모님 덕으로 인심을 잃고 사시지 않은 까닭으로 그렇게 무사할 수 있었어요”

“53년도 기간요원일 때는 늑막염으로 77육군병원에 입원했는데 약을 안주고 일주일에 링겔한병을 놓았어요. 늑막염환자라고 4개월간 누워서 지내면서 집에 연락을 하니, 삼촌이 병원으로 돈을 가지고 와서 날계란을 4개월간 먹고 있다가 제대를 해서 집에 와 있었어요. 참 비참했습니다. 약이 없으니 영양제 한 알이 다예요. 이북 땅에서는 감자를 밭에서 캐다먹고 가지고 있던 수류탄도 동해바다에 던져서 고기 잡아 먹고 그랬습니다. 감자국에 된장이면 다였고 이북의 간성을 지나고성까지 갔어요”

패잔 인민군과 빨갱이, 해병대와 교전  
제네바협정 무시, 포로 사살  
수류탄은 동해바다 고기잡는 일 사용  
무연탄밥 먹으며 영양실조, 늑막염



“육군 수도사단 기갑연대에서 박격포를 쏘면 유효사거리가 4킬로미터 밖에 안 되었어요. 전쟁하면 유탄이 막 날아다녀요. 포 쏘면 그 다음날 고지를 탈환하면 인민군이 포로병이 되어 살려달라고 나오면 포로로 보냈어요. 우리 죽은 사람들은 다시는 전쟁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절대 공산주의도 안됩니다. 세계 4대 강국들에게 있어 정치 지리학적으로 우리나라는 소중한데 한반도는 미국이 안 내놓는다고 확신합니다. 반미주의 시각은 우려할 만한 겁니다. 6.25를 보고, 듣고, 겪고 전쟁을 하고 다시 들어와서 살아서 잊어서 그렇지 동족상잔은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절대 안돼요. 지금은 지상천국입니다. 보리밥도 모르고 구시대라고 말하는데 답답해요. 생활철학은 우리세대가 박사입니다”

“부역자들의 희생도 억울한 겁니다. 나는 면피해서 그렇지 좌경이론은 이론상은 번지르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 교육은 절대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였어요. 어려운 세상 정말 다 겪어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당시에 ‘짧아지네! 짧아지네! 하시던 말씀은 전쟁하다 죽는다는 말이었어요. 군대 가서 서신 왕래가 안 되니까 건빵봉지에 서신 써서 보냈어요. 외아들, 내가 군인 나갔다고 얼마나 걱정이셨는지 우리 할아버지가 18살 때부터 아버지에게 가르치셨던 담배를 끊으셨답니다.(울음) 다시는 전쟁은 안 됩니다”



108밀리 곡사포로 전방 지원사격을 하고 있는 국군 포병대원들 1950. 7. 26. 자료사진 | 지울 수 없는 이미지 (2007. 눈빛)



## 어린아이까지 몰살시킬 것이 무어나

- 상수도사업소 자리 인근, 삐삐선으로 손목 묶은 삐 발견돼

김 부 섭(71세)/고촌면 향산리

13살, 천둥쳐 비오는 줄 알았더니 까만 전쟁이

김부섭(71세)씨는 당시 13살 초등학교 6학년으로 기억한다. 6.25에 대한 기억은 26일쯤 모 김을 땄 때 쿵쿵 소리가 나서 가뭍에 천둥해서 비가 오려나보다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전쟁이 났는지는 까맣게 몰랐다고 한다.

“천둥소리가 나서 비오겠다고 생각했어요. 포소리를 천둥소리로 알았어요. 피난은 한 터로 갔어요. 집에서는 500여 미터 거리인데 하루저녁 자고 군인이 많아 못자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향산리는 거의 안 갔어요. 국군 패잔병이 너무 불쌍해서 우리 집으로 와서 밥해줘서 먹고 바로 떠나자마자 곧바로 인민군이 우리 동네로 들어왔어요. 인민군이 지나가는데 일렬로 정돈해 가지고 무기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더라고요”

김부섭씨가 기억하는 당시의 인민군에 대한 피해는 초기에 없었다.

“군인하고 경비를 한 덧새 썼어요. 국군이 수복했을 때인데요. 소년단을 조직해서 동네에서 심부름했지요. 강둑에서 경비를 썼거든요. 1사단이 주둔했어요. 군인들이 수복했는데, 수복 후 인민군 패잔병들이 석골나루 수수밭으로 강 건너 가려고 왔다가 당산(고촌에서 가장 높은 산)에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우리 집에서 3킬로미터 정도였는데 군인이 총을 쏘며 가는 것이 보였어요. 그때 인민군이 잡히고 죽었어요. 들어보니 수수밭 그런데서 시체가 있었다는 것 들었어요”

## 1.4후퇴 때 부모와 평택으로 피난 현 한화아파트 부근서 학살 목격

몇 년 후 미군이 은행정서 시신 발굴  
천주교 교사, '공기돌' 선생 찾아

“1.4후퇴 때는 부모님과 누이와 평택으로 피난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며칠 있다 보니까 중공군이 화성, 평택까지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살았어요. 6.25 전후에 빨갱이를 국군이 끌어다 죽였는데 고촌에도 많이 죽였어요. 5학년 6학년 때 죽이는 거 봤어요. 군인도 아니고 무슨 자치단체인가 봐 구덩이에다 사람 놓고 쏘고, 솔가지 덮고, 흙으로 메우는 거 봤어요. 지금의 한화아파트 근처인데요. 나중에 한화아파트 질 때 그 흙을 가져다 매립했거든요. 혹시 그때 유골이 나올까 걱정했는데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전쟁나고 미군이 와서 발굴하는 것을 또 목격했다.

“몇 년 후 나중에 미군이 와서 은행정의 천주교 전도사, 자칭 ‘공기돌’ 선생을 찾느라 발굴하는 것을 봤어요. 공기돌 선생의 동생 수녀들이 찾으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때 백골들이 달려 나오는 것을 봤어요. 학교가다 오다가요. 지금의 상수도 사업소 근처인데요. 당시는 넓은 길이 아니라 아주 좁은 소로이고 깊은 길이었어요. 당시 공기돌 선생은 정식 신부는 아니고 전도하는 이였는데 계양면에서 살았는데 왜 그런지 잡혀 죽었어요. 당시 고촌 은행정에서 가르쳤어요. 빨갱이들한테 당한 적은 없어요”

“진짜로 일을 본 사람들은 이북으로 도망가고요. 우리 동네도 5-6가구가 좌익



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남은 사람들만 죽었어요. 부인들이야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았겠지만 자식들이야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 친구도 끌려가 죽었어요. 1.4후퇴 시 이북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내려와 자기가족이 다 죽은 것 알고 정씨가 울고, 다시 동네에 피해는 안주고 갔어요. 자기 가족이 죽은 것은 알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는 전혀 주지 않았어요. 죽인 사람은 모르지요. 죽은 사람만 알지요. 글썽 한 동네에서 눈 말뚱말뚱 뜨고 있는 것을 어떻게 죽이느냐고요. 보려고 본 것은 아녜요. 나는 어렸지만 당시 개구저서 돌아다니다 본거예요. 빨갱이 일도 보고, 민주일도 본 사람은 10년 동안 감옥간 사람도 있어요. 우리 친구도 죽었어요”

“우리는 향산 1리이고 향산 2리에도 몇 가구가 있었어요. 그때는 무지하게 순박했는데 학살 장소로는 미군이 점령하면서 호구덩이(참호)를 파서 모아놓았거든요. 공동묘지 줄거리로 해서 많았어요. 그곳이 학살 장소로 되었다고요. 나중에 조사할 때 현재 상수도 사업소 자리 근처에서는 뼈뼈 선으로 손목 묶은 것, 뼈가 함께 따라 나왔어요. 어른 죽이는 것은 가능해도 어린아이까지 몰살시킬 것이 무어나구요. 말도 안되요. 당시에 천등산 골짜기는 천수답이 있었고요. 공동묘지 뒷산 줄거리가 현재 한화아파트 자리예요 그 두 곳에서 학살이 있었어요. 나는 당시에 장난이 심해서 총소리 나서 뛰어가서 2명을 죽이는 거를 본거예요”



피란길에 젖을 먹이는 아낙네 1950. 8. 24.  
자료사진 | 지울 수 없는 이미지 (2007. 눈빛)

“6.25때는 김일성노래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지옥, 절세의 애국자가 누군가 김일성장군 같은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김부섭씨의 형 김순섭씨는 22살로 당시 국군으로 전장에 나가 6.25를 겪고 6.25후 인민군하고 싸우다 전사했다고 한다. 당시 결혼해 딸을 하나 낳았는데 죽고 아내는 집을 나가 손이 끊어졌다. 김부섭씨의 증언에 의하면 한강변으로는 빨갱이가 많았다고 한다. 전호리는 더 어려움이 많았다고 전했다.

## 스물넷, 못다 사른 불꽃<sup>1)</sup>

- 공깃돌 송해봉 선생의 삶과 영성

송해봉/천주교인

1926년생으로 경기도 부천군 계양면에서 출생,  
계양·김포 등에서 신앙 전도, 6.25전쟁 중 고촌면 자치대원들에게 피살

아, 1950년 6·25!

부락에 들이닥친 인민군들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밥을 해 내라고 졸랐다. 사람들은 꼼짝없이 밥을 해다 바쳤다. 그런가 하면 국군들이 부상을 당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다. 강습생들은 그들을 데려다가 응급치료를 해 주기도 했다.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는 7월, 선생은 제자들을 데리고 강당 옆에다 굴을 파기 시작했다. 얼마지 않아 제자들은 의용군으로 끌려갔다. 그는 끌려가는 제자들에게 본명을 하나씩 지어주며 대세를 주었다. 날이 갈수록 선생의 신변도 위험했다. 선생은 누산리로 간다고 소문을 내고, 제자 몇을 데리고 산언덕 콩밭으로 들어갔다. 그는 제자들에게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

낮이면 몰래 강당을 둘러보고, 밤이면 콩밭으로 가서 눈을 붙이고 때로는 강당

---

1) 공깃돌 송해봉 선생의 삶과 영성 <스물넷, 못다 사른 불꽃>, 2006년 5월 30일, 역은이 안영. 펴낸 곳 에우안젤리온 이 책의 주인공 송해봉 선생은 1926년생으로 경기도 부천군 계양면에서 출생하고 함흥 덕원신학교를 나와 계양면 굴현리, 김포군 고촌면 신곡리, 양촌면 누산리 등에서 돈이 없어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을 모아 중학교 과정의 학과 교육을 가르쳤으며 밝은 신앙으로 전도에 힘쓰다가 6.25전쟁 중 고촌면 자치대원들에게 피살되었다.



옆 바위틈에 숨어 잤다. 그러나 인민군의 기세는 날로 심해졌다. 선생은 이리저리 피하다가 9월 1일 학생 셋을 데리고 진짜 누산리로 갔다. 선생이 그 곳 교우 홍태안씨 덕으로 찾아드니, 공산치하에 놀려 어찌할 바를 모르던 청년들이 구세주를 만난 듯 좋아하며 인민군들의 눈을 피해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 선생은 그들에게 조금만 참으면 대한민국의 승리가 온다, 흔들리지 마라, 일선에서 국군이 실탄을 맞아가며 싸우고 있으니 우리는 후방에서 정신적 후원을 해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이럴 때 일수록 기도를 열심히 하고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 라고 타일렀다.



9월 8일에는 오후 내내 비행기 폭격이 그치지 않았고, 9일에는 종일 함포사격이 그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고촌 은행정에서 아주머니들이 왔다. 그들로부터 제자들이 의용군으로 끌려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선생은 그들과 함께 9월 14일 은행정으로 떠났다. 그 곳 제자들이 걱정되어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폭격 소리가 진동해, 너무나 위험하다고 모두들 만류했건만 기어이 떠났다.

## 감격의 9.28 수복

선생이 고촌으로 옮겨온 날은 마침 맥아더 장군이 인천상륙작전을 시도하던 때였다.

박용석씨의 증언을 들어보자. “하여간 얼마나 기뻐는지, 우왕좌왕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궁금하던 차에 선생님님이 오셨으니 얼마나 기뻐했어. 그러자 국군이 상륙했다는 소식이 들렸으니 생각해봐요. 우리는 서로 부둥켜안고 울었지요. 그 때도 우리는 선생님님의 지혜에 놀랐어요. 어서 태극기를 찍어내야 한다고, 감자를 가져오라 하시더니 그걸 하나씩 파서 태극기 모양을 깎어 맞추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먹물에 문혀 하나하나 종이에 찍으니 태극기가 되었어요. 그걸 들고 모두 저쪽 언덕 너머로 몰려가 만세를 불렀지요. 그 날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분을 공산당이라고 하다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완전히 누명이지요.”

## 주민의 텃세, 그리고 종교적 갈등

인물 좋고, 기운 좋고, 다정하고 친절하고, 가난 때문에 진학 못한 청소년들 데려다 좋은 공부 가르치고,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그를 그들은 왜 빨갱이로 몰았을까. 고촌에는 본래 임씨가 많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고촌의 유지였고, 당시 그곳의 유일한 개신교 교회 '제일교회' 신자들이었다. 그런데 전혀 타지방 사람 송해봉이 들어와 마을 청년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었다. 남녀 할 것 없이 그에게 훌쩍 반해 저녁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당을 짓는다고 난리를 피우지 않나, 천주를 찬미한다고 거기서 배운 노래를 낮이나 밤이나 부르고 다니질 않나, 아무리 봐도 눈에 걸렸다.

이런 저런 이유로 임씨 일가를 비롯한 유지들은, 객지에서 들어와 자기들의 정체성까지 흔들려 놓는 송해봉이 눈에 가시였다. 뚜렷한 명분만 있으면 당장 쫓아내고 싶은데……. 그러다가 6·25가 터졌고, 그들은 제법 식자층인지라 인민군이 시키는 일에 협조도 했다. 그런데 다시 9.28 수복이 되고 김창룡 대장의 지시로 마을 자치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마을에서 말꺼나 하고 글꺼나 하는 그들이 앞장설 수 밖에 없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이다. 그들은 인공치하에 협조한 것을 무마할 겸 껌싸게 자치대를 조직했다. 임○○, 임○○, 이○○, 장○○, 최○○ 등이 그 일을 맡게 되었고, 대장은 젊고 유능한 임○○(선생의 제자 임병렬씨와 한 집안)이 맡았다.

그들은 날마다 '빨갱이' 색출 작업에 머리를 모았다. 인공 당시 거세게 부역을 한 사람은 물론, 공연히 미움을 샀던 사람들도 하나 둘 끼워 넣었다. 그러던 중에 어이없게도 송해봉 선생을 지목한 것이다. 청년들을 모아 밤마다 공부를 가르친다면서 정신교육을 시키는 젊은이. 남의 동네에 들어와 마을 유지인 작들보다 더 청년들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젊은이. 처녀총각들이 풍금 소리에 맞춰 손뼉을 쳐대며 노래를 부르도록 시키는 젊은이. 무엇을 하는지 걸핏하면 토굴 속에서 지내던 젊은이. 그 알미운 젊은이를 이 기회에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았다.

박용석씨의 증언을 들어보자. 마을에서 인심이 후하기로 소문난 박○○ 씨의 어머니 황○○씨(99년 91세로 선종)는 자치대원들이 꾸미는 수작을 눈치 채고 선생



에게 피신을 권한다. 그러나 선생은 무슨 죄가 있느냐며 그냥 고촌 강당에 머문다.

황○○씨는 아무래도 불안하다고 선생을 자기 집 벽장 속에 숨긴다. 선생은 황○○씨를 통해 바깥소식을 들으면서 며칠 동안을 그곳에서 지낸다. 그러나 치안대원들은 어떻게 냄새를 맡았는지, 기어이 그를 찾아내고 만다.

선생은 어처구니없게도 ‘빨갱이’라는 누명을 쓰고 붙들려 간다. ‘공깃돌 선생님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천주교 신자들과 제자들이 변호했지만 무법천지의 당시 상황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자치대의 횡포를 누가 막으랴. 임○○ 일행은 여럿이서 선생을 사로잡아 끌고 나갔다. 이런 절차로 선생은 공깃돌처럼 버려져 면사무소의 곡식 창고 속에 갇히게 되었다.

다음은 제자 임병렬씨의 증언이다. “당시 고생은 말도 못해요. 나는 의용군으로 끌려가 인천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신체검사를 받는데 그들의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서 도망을 왔지요. 협궤열차 길을 따라 소래산으로 올라가서 인민군 눈을 피해 가며 밤중에 갯벌을 따라 집 쪽으로 왔지요. 배가 고파 생옥수수를 까먹으며 이틀을 지나고 강당 주변에 도착했는데, 그 땐 사람 속을 모르니까 제일 무서웠지요.

누가 빨갱이고 누가 우리 편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하여간 그 고생을 하다가 무사히 9.28 수복을 맞아 한 시름 놓았더니, 어른들이 자치대를 결성하고 나에게 심부름도 시키고 했어요. 우리 선생님은 공산당 아니라고 해도 누가 내 말 듣나요. 하여간 선생님이 면사무소 창고에 갇힌 것을 알고 면회를 갔지요. 신자 아주머니가 선생님 드리라고 삶은 계란 몇 개를 싸 주기에 갓고 갔어요.

창고 문을 열자 수십 명이 갇혀 있었는데, 앞 쪽에 우리 선생님이 계셨어요. 나는 선생님, 하고 부르며 울먹였지요. 그러자 선생님은 내 어깨를 두 손으로 감싸면서 ‘걱정 마라. 나는 아무 죄 없다. 어서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네 일이나 잘 봐라’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 때, 뒤에서 누가 내 어깨를 탁 잡아챘어요. 자치대원들이었지요. 그 길로 그들은 나를 가두었어요. 너, 아직도 그 송해봉 제자 할래? 하고 다그치는데, 한다고 그랬지요. 그랬더니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느냐, 그 사람 집에 알릴거지? 하면서 못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반항하자 전깃줄로 손을 묶어 거꾸로 매달아 놓고 때리면서 매일 선생 제

자 할 거냐 안 할 거냐. 험박을 하다가 사흘 후에야 내 주었어요. 너, 집에 가서 여기 갇혔었다는 말 하면 절대 안 된다, 하면서 겁을 주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알았으면 아버지가 그들보다 더 어른이니 그냥 둘 리가 없었지요. 하여간 나오자마자 면사무소 창고로 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만 있고 선생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다른 제자들보고 어떻게 된 거냐, 어찌 그냥 있었느냐, 왜 선생님 덕에 알리지 않았느냐, 했더니 계양으로 가는 길을 다 막고 얼씬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때 생각을 하면…….”

임병렬씨가 말을 잊지 못하자 박용석씨가 뒤를 잇는다. “아무튼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각 부락에서 사상 의심자를 다 데려다가 지서에 가두고, 전깃줄로 고문을 하고 굉장했어요. 그러다가 간부들끼리 재판을 해서 불손자라고 결정이 나면 죽이는 거지요. 새벽 3시가 되면 김포 지서로 이동한다면서 몇 명씩 데리고 나갔대요. 그리고는 바로 인적 드문 천등고개로 데리고 가서 총살을 했대요. 불려가는 사람은 죽으러 간다고는 상상도 못했겠지요.

어찌다 살아온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참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많지요. 그 때, 부엌일을 돕던 홍제동 아주머니도 끌려가서 고생 많이 했어요. 선생님 집에 이 일을 알리면 죽을 줄 알라고 전깃줄로 묶어 거꾸로 매달아 놓고, 물 먹이고 매질을 해 대며 몹시 심한 고문을 했대요. 그분이 심신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 고생하는 걸 알고, 선생님 어머니가 그 아주머니를 데려다가 오래도록 보살펴 줬지요.”

## 한 맺힌 사람들

작은 반도 안에서 남과 북의 대결도 참혹한 일이거늘, 같은 동네에서 얼굴 맞대고 살던 이웃끼리 평소 가졌던 반감 때문에 살상까지 저질렀던 치욕의 역사. 6·25의 희생자가 어디 한둘인가. 이쪽이 죽었건, 저 쪽이 죽었건 그 수를 어이 다 헤아릴 수 있으랴. 그들 가슴에 맺힌 한을 누가 풀어줄 수 있으랴. 엮은이가 송해숙씨를 만나 천등고개를 방문하던 날, 당시 희생자 가족이라는 기노정씨가 함께 나와 50여 년 맺힌 한을 풀어내며 울음을 토했다.

“저는 당시 세 살이었어요. 고촌면 향산리가 고향인데, 조상 때부터 땅이 많아 부자로 살았답니다. 우리 큰 아버지께서는 서울 가서 공부를 하셨다고 해요. 그런



데 당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좌경 서적을 많이 읽었대요. 그래서 사상을 의심받았던지, 아니면 질투를 받았던지, 그들한테 미움을 받았나 봐요. 그 큰아버지 핑계대면서 농사만 짓고 있던 일가족을 모두 몰살한 거예요. 아버지 형제가 삼형제인데, 부인 자식 할 것 없이 세 집 가족을 모두 죽인 거예요. 나는 마침 할머니가 업고 피해서 살아난 거래요. 어린이도 남겨 두면 후환이 두렵다고 무조건 다 죽인 거예요. 친척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라고는 다 늙은 노인뿐이었지요. 그러니 무서워서 어디다 말도 못하고 시체 찾을 길이 없어 오늘날까지 부모님 산소도 없어요. 이제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고 혼자 남았지만 이 억울함을 호소나 좀 하려고 이렇게 따라 나왔어요.” 한 중년 사나이의 그칠 줄 모르는 눈물이 옆은이의 가슴을 후빈다.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저희가 그 난리 직후 오빠의 시체를 찾으려고 천등고개를 여기 저기 다닐 때 어떤 구덩이에서 70여구 시체가 발견되었는데 아마 기노정씨 가족 시신도 거기 있었지 않나 싶어요. 저랑 아는 분이라 천등고개 간다는 말을 듣고 쫓아 나온 거예요. 우리야 재판을 해서 오빠의 누명도 벗기고 시체도 찾았지만, 이런 분들은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평생 한을 품고 사신 거지요. 그 당시 시체를 못 찾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 누명을 벗다

1951년, 어느 정도 질서가 회복되자 송희진씨 가족은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딸들이 앞장서 곳곳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마침내 모든 수속을 밟아 당시 치안대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굴현동의 제자요, 선생의 5촌 조카 송영식씨는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세상에 당숙을 빨갱이라 하다니 말이 되느냐 말예요. 나는 처음 굴현리에서부터 배우기 시작했는데, 고촌에 외가가 있어서 거기까지 따라가 배운 제자지요. 나는 지금도 훤히 기억해요. 인공 때 동네 수수밭에서 국군이 버리고 간 MI 총 세 자루와 칼빈 총 한 자루를 주웠어요. 공깃돌 선생한테 그 말을 했더니, 고촌으로 가지고 오라고 하더군요. 나는 그것을 대빛자루 만드는 대싸리 잎새 사이에 잘 숨겨 가지고 걸망에 메고 갔지요. 지름길로 가면 빠르겠지만 일부러 한적한 길로 돌아서 갔어요. 선생님은 그 총으로 제자 몇을 데리고 굴속에서 사격 연습을 하셨지요.

국군들이 일선에서 싸우고 있으니 우리도 후방에서 싸울 수 있으면 싸우도록 준비를 하자는 거였어요. 그런 분이 웬 공산당입니까? 환도 후 너무 억울하니까 그냥 있을 수 없다며 당숙 댁에서는 임○○씨 등을 상대로 재판을 걸었지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마음고생 몸 고생 퍽 많았지만 어쩔거나 승소를 했어요.

그 때서야 천등고개에 묻힌 걸 알고, 가족이랑 인부들, 그리고 여러 제자들이 천등고개를 찾아갔지요. 그들이 일러 준 곳으로 갔더니 정말 비슷한 장소가 나왔어요. 조심조심 봤지요. 알고 보니, 큰 구덩이에 여러 사람을 함께 매장해 놓은 거예요. 얼기설기 한데 모여 있는 시체들이 부패해서 냄새는 나고, 정말 참혹했지요. 그래도 다행한 것은 당숙을 쉽게 찾을 수가 있었어요. 검은 신학생 예복이 바로 보였거든요. 우리는 당숙을 조심조심 꺼내다가 소지품을 찾았지요. 바지 주머니에서 늘 갖고 다니시던 유리 목주가 나왔어요. 그리고 웃웃 주머니에서는 상본이 나왔어요. 바로 소화 테레사 상본이었지요.

총 맞은 자리였는지 피가 묻은 채로……. 선생의 어머니가 그걸 들고 한참을 우시는 바람에 우리도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말로만 들었던 선생의 죽음은 이제 확실해졌다. 그들은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 다른 시체들은 도로 묻어 놓고, 바삐 관을 구해 선생의 시체를 옮긴 뒤, 바로 옆 산 주인에게 양해를 구해 임시 이장을 했다. 모든 것은 사필귀정. 이 진리가 있어 그나마 위로를 받는다.

단기 4284년(1951년) 7월 6일 금요일 대한신문에 난 기사를 보자.

### ■ 죄상 발각이 무서워 총살 - 진짜 빨갱이들 도리어 법망에

세상에 이런 일도 있나? 자기의 죄상을 감추기 위해 남을 죽이고 드디어 발각되어 법망에 걸려든 이가 있다. 현주소를 김포군 고촌면 신곡리에 둔 임○○ 외 5명은 한 동리에 사는 천주교 신자인 송해봉을 작년 10월 13일(가족들은 11일로 기억함)에 동리 뒷산에 끌고 가 총살을 하였다는데 그 원인을 알아보면 작년 적군 남침 이래 전기 임(林) 등은 허다한 부역행위를 하고 국군 수복 이후 범죄 사실이 발각될까 하여 전기 송(宋)을 사감 끝에 빨갱이로 몰아서 것처럼 죽였다 한다. 이 사실을 탐지한 김포 서에서는 범인을 체포하여 엄중 문초 중이던 바, 작 7월 3일 인천 지검에 일심 서류와 함께 송청하여 왔는데 엄중한 처단이 있으리라 한다.



## 사람 죽일 때 ‘야 해장거리 없니’ 하더라

- 해병대 잔인한 학살에, 여성들 가현산 데려가 성폭행

김 천 길(74세)/양촌면 양곡리

16세 전쟁 발발, 19세 대한청년단 입단 치안대 활동

“16살에 전쟁이 나서 고2때까지 전쟁이었습니다. 학교는 안다녔습니다. 대한청년단에 19세에 들어갔어요. 치안대원을 51년까지 했습니다”

“6월 26일-27일 양곡초등학교 교실에 수백 명이 가득했어요. 하성쪽 사람들이 피난 왔고요. 양촌면 사무소에서 지역방송으로 ‘괴뢰군이 문수산에 상륙했다. 몇 명이 왔다. 우리 용감한 국군이 포위했다. 독안에 든 쥐다. 시간이 문제이다. 문제가 생기면 사이렌을 울리겠다’라는 방송을 계속하고 다녔습니다”

“옛날 시장은 문 안 닫고 가게 물건들을 피난민들에게 팔았습니다. 당시에 나는 혼자 전쟁 구경하러 간다고 홍실리 쪽으로 갔습니다. 수리조합 사무실 앞까지 갔는데 포탄이 떨어져 그만 양곡시장으로 뛰어왔습니다. 집에서는 피난 보따리를 싸고 기다리는 중이었고 당시에 총소리도 못 듣던 사람들은 포쏘는 소리에 천지가 진동하니 난리가 났지요. 양곡초등학교에 있던 피난민들이 다 도망갔어요. 양곡시민들도 다 도망갔지요. 당시에 중학교 앞 초등학교 뒤, 홍실리 별판에 포탄이 떨어졌어요. 문수산 전투에서 국군이 패하며 인민군이 문수산을 점령하고 국군을 향해 포를 쏘아댔던 것입니다”



경찰과 헌병들이 죄수들을 향해 총을 쏘고 있다. 1950. 9. 23. 자료사진 | 지울 수 없는 이미지 (2007. 눈빛)

“지휘자는 인대령이 했는데, 국군이 패잔하고 나오니 인민군을 막으라고 했는데 문수산서 포를 쏘서, 인대령이 서울서 내려오는 차에 맞아서 버스가 탔습니다. 흥실리서 오는 2km는 다 도망갔습니다. 가게문 열어논채로 도망갔습니다. 인대령은 문수산에 올라가지도 않고 도망갔습니다. 가게들은 다 문열어 놓고 도망갔기 때문에 주인도 없이 빈 가게들을 보며 나오는데 말을 탄 인민군들과 마차 등이 흥실리 쪽에서 막 밀려왔습니다. 내가 도망가니까 불려요. ‘아버지 어머니 어디갔냐’ 해서 피난 갔다고 하니 ‘너, 어머니 아버지 다시 들어오라고 해라 해방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며 도망을 가서 집에 가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없고, 상추쌈상이 차려진채 그대로 있더라고요”

“죽음에 들어가면 자식이고 부모가 없어요. 가족이 세 갈래로 다 도망간 거예요. 구례 1리쯤 가니까 인민군 총소리인 따발총 소리가 났어요. 국군이 도망가면서 버리고 간 과자 주워 먹으며 갔어요. 국군이 도망가다가 배가고파 민간인 집에 들어가 밥 얻어먹다 총맞아 죽은 일도 있어요. 세경골짜기 파보면 나올 것입니다”



“쓰르레미 고개 3분의 1쯤 올라가니까 국군 패잔병 3명이 있어요. 인민군들은 벌써 다 쫓아오고 국군이 총 세 자루 다주며 메고 가라고 해서 메고 킁킁 대고 올라갔습니다. 지금의 오삼농원 팽과리 고개를 가고 있는데 양곡서 누군가 오토바이를 타고 빨간 모자 장화를 신었는데 인민군 장교였어요. 이를 되돌아 보고 군인들이 총을 다시 빼앗아 동산으로 튀었어요. ‘간나이새끼 어디로 갔냐’고 장교가 물어서 세 명의 군인이 도망가는 것 가르쳐 줬어요”

“당시 사류지 앞 범바위는 국군과 인민군이 전투를 했어요. 인민군이 포위를 해서 30분 정도 총소리가 났습니다. 끝난지 모르고 대고모 할머니네 가서 부모도 만나고, 막내 동생도 만나서 붙잡고 울었습니다. 며칠 있다 집에 오니 밑으로 3남매가 나흘 만에 집으로 찾아들어 오더군요. 그때 인민군의 빠른 진격이 인상에 남아요. 27일째 막 밀려갔어요”

“9.28 수복 당시는 인천상륙작전을 하면서 인민군이 후퇴하고 도망하게 되었지요. 미 24사단이 김포책임이었고 양곡은 미수복지였습니다. 내무서원은 다 비어서 국군패잔병이 고향으로 들어오고 대한청년단들이 합하여 4,50명이 치안대를 만들었습니다. 국군이 도망가면서 버리고 간 총, 실탄이 몇 가마며 수십 정이 되었어요. 국군출신이 총 쏘는 법을 청년들에게 가르쳤고 치안대를 구성하여 자체방어를 했지요”

“국군이 들어오려니까 경찰기로 시찰하는데 치안대가 태극기로 만세를 불렀어요. 그때 해병대가 가현산 뒤까지 와 있고 치안대 보초 방위를 썼어요. 군인 1명에 치안대원이 몇 명이 섰는데 밤에 인민군들이 만세 부르며 한 손에 총 쏘며 점령했어요. 역부족이었어요. 인민군 못 이겨요. 밤에는 나타났다가 낮에는 없어지고 했거든요”

“미 24단이 안전한지 알고 국도변으로 점령 들어 왔는데 태극기 안 흔들었으면 긴장했을 텐데 안심하고 들어오다가 인민군들이 양릉의 절 있는 곳에 매복하고 있는 줄 몰랐지요. 미군이 국도변을 따라 차타고 들어오는데 양릉에서 인민군이 닭을 잡다가 미군에게 총을 쏘었어요. 거기서 미군이 죽고 수리조합에서 미군과 전투가 벌어졌어요. 인민군과의 전투시 미군의 화력이 커서 후퇴했는데 인민군 1500

여명도 후퇴하고 미군도 후퇴를 했습니다. 그 전투가 벌어지고 나서 이튿날 양곡에는 함포사격이 있어서 양곡시장이 초토화 되고 말았어요. 다 불탔습니다. 면소 앞에 7채만 남고 양곡교회 하나남고 폭격을 맞아서 불타고 있었어요. 그 7채의 집에 인민군이 꼭 차 있었어요. 낮에는 1천명쯤 있었고 부상병도 있었어요. 그 집집마다 물건이 꼭 차 있었어요. 좋은 물건 잔뜩 걸머지고 와서 쌓아 놓았어요. 우리 집에 들어가 보니 여기저기 똥 싸놓고 그랬더라고요”

“아마 8월 15일로 기억하는데 인천 쪽에서 탱크를 앞세우고, 치안대 하면서 지역공산주의자들을 다 잡아 죽이기 시작했어요. 굴이 있었는데 양곡교회 있는데 극장 뒤에 20평의 굴이 있었어요. 인민군들이 곡사포를 묻는다고 했던 곳이에요”

“김동선 치안대장이었어요. 6,25전에도 남로당이 있었거든요. 농민들이 뭘 알아요. 도장 찍어서 남로당이 되었지 조사한다고 불러다 도장 찍어서 남로당이 되는 것이었어요. 인민군 시절 반장하고, 공무원 하던 사람들은 치안대에 물어보려 불려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부부는 애업고 하성 살다 피난 갔다가 온다고 했는데도 ‘당신, 수상해 조사받고 가라. 남편은 더 조사하겠다’고 말하고 아내는 돌려보냈는데 그걸로 사별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빨갱이가 아닙니다라고 치안대가 말해도 해병대가 빨리 끌어오라고 오히려 치안대에게 총을 대며 말했어요. 줄로 묶어서 굴속으로 10명, 5명, 3명 끌려 올라가면 다 죽는 거예요. 애무한 사람이 죽는 거예요. 붙잡히면 새벽에 죽고, 하성의 그 부인은 남편 찾으러 왔는데 남편이 뒤따라 갔다며 거짓말 하고 돌려보냈어요. 어떤 이는 빈 집에서 담요를 들고 나왔다가 굴에 갇혀서 싹 죽이기도 했어요,

“당시에 해병대들은 ‘야 해장거리 없니?’ 했어요. 사람 죽이는 것을 그렇게 말하곤 했어요. 치안대에서 빨갱이 재산 다 몰수하고 버선 양말짝까지 가져가고 집까지 철고 그랬어요. 인민군이 쌓아놓고 못가지고 간 비단, 재물들도 치안대가 나눠갔습니다”

“그 이후에 절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엄명이 있어서 사람



을 안 죽었어요. 가장 많이 죽은 곳이 양곡교회 위 극장 뒤하고, 양곡중학교 뒷산, 베데스다 요양원 근처였어요. 아버지가 붙잡혀 가도 우리 아버지 어디 있냐고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다시 6.25나면 원한이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족 세 갈래로 뿔뿔이 피난  
국군 패잔병·청년단 40명 치안대 구성  
함포사격으로 양곡시장 초토화  
양곡교회, 양곡중 뒷산서 가장 많이 죽어



“인민군이 죽인 일도 있습니다. 아주머니에게 빼앗은 물건을 이고 가게 한 다음 가방은 가져가고 아주머니는 죽였습니다. 심중운씨의 부인이었는데 심중운씨가 찾아가서 죽은 것을 발견하고 원한이 맺혀서 치안대 감찰부장을 했는데 누군가가 잡혀오면 파출소 뒤로 끌고 가 반은 죽여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이가 사람을 제일 많이 죽였는데 나중에 후손들이 제대로 안되더라고요. 그이가 죽었을 때 아무도 안 갔고 거지들이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딸도 심분순이라고 죽었어요. 후손들이 그만 다 안 되더라고요. 인민군들이 후퇴하면서 치안대 명부를 가지고 악질과 준 악질로 40명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후퇴하는 날 죽이기로 계획했는데 골말의 장옥이라는 사람이 재무서 자위대들과 같이 월북하면서 도망가라고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해 주어서 치안대가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는 영 돌아오지 않았지요. 같이 월북한 사람은 1.4후퇴 때 정식 내무서원이 되어서 왔었어요. 우리 집을 찾아와서 김동선(치안대장)이 어디 있나 물었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 안 죽었어요. 그들은 눈에 띄게 죽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내무서에 1,2명 밖에 안와서 죽일 사이가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농민이고 남로당원이었어요. 모르고 그냥 도장 찍어서 된 거지. 우리 아버지를 잡아다 죽인다고 박○○이가 끌어갔어요. 당시 나는 치안대에 안 들어갔고 어머니는 울고, 강의수 아버지가 마지막 치안 대장이었는데 풀어줘서 살아나셨어요. 빨갱이라고 도민증도 안줘서 강○○가 찾아다 줬어요. 군인을 마치고 동생하고 뒷동산으로 아버지를 끌고 간 이를 끌고 갔어요. 그리고 ‘당신, 이제 우리가 쫓으니까 당신 죽어야겠어’ 당시 내가 21살, 동생이 20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이가 ‘나 같은 사람하나 죽이면 평생 남는다. 아버지가 죽지 않았잖느냐, 나도 죽이지 말아 달라’고 탈씩 주저앉아서 비는 바람에 같이 눈물 흘리며 내려왔어요. 우리 아버지는 죽지 않았는데도 아버지와 관련해 원한이 맺혔었는데 죽은 사람들은 얼마나 원한이 깊겠나!”

“해병대 1등병이면 기세가 당당했어요. ‘야 묶어’ 하니까 굴에 있던 사람들 중에 국군패잔병 상사가 항의를 하자 앉아서 개머리판으로 맞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상사다 이해를 바라니 겨우 뇌뺐어요. 죽일 때는 한명씩 굴 안으로 들어가라 하고는 2미터 사이 두고 총을 쏘았어요. 그러면 딱 고무라져요. 초등학교 2회 선배는 총을 쏘기 전에 ‘대한민국만세, 이승만 대통령 만세’ 10여번을 했어요. 해병대가 기분파라서 그걸 보더니 ‘가라!’ 해서 살아나서 갔어요”

“우리 아버지는 2차로 또 불러서 또 죽는 줄 알았어요. 도망가다 죽인 사람을 실어 나르려 들것을 가져오라는 것을 모르고 놀랐었지요. 우리 아버지는 대한민국의 반장을 10년 했고, 우리 앞집 아저씨는 인민군 시절 반장일 좀 봤다해서 죽었어요. 그 아들도 거지로 살다 객사했고, 부인도 죽었어요”

“왜정시대에 초등학교 3학년 때 해방이 되었는데 담임도 국제공산당이어서 간첩이 되어서 나왔다가 잡혀서 반공강의를 하러 다니곤 했어요. 정선생이라고요. 그리고 선배들 중에도 7-8명이 똑똑했는데 국제공산당에 들어가 해방되고 ‘높이 들어라 붉은 깃발’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45년에 다 배웠었어요. 그 사람들이 6.25나고 9.28 수복되니까 다 없어져 북행을 하고 인민군 의용군을 지원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모르게 다시 월남해 산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말야 죽을 때까지 못 잊어요. 같은 사람끼리 파리새끼



죽이듯 말아야. 치안대 밥해줄 때 반반한 집 딸들, 하이칼라 현대여성들이 학생동맹 위원장 여성동맹 위원장 했다고 잡아다가 식사 동원시켰어요. 죄인이니까 심부름했지. 그런데 해병대들이 오니까 하루오더니 죄 붙잡아 가현산에서 돌아가면서 강간을 했어요. 그리고는 또 잡으러 와요. 여자이고 인물이 있기 때문에 살았어. 보이지 않아야지 보이면 다 문제야. 해병대를 '개병대' 라고 했잖아요. 인간으로서는 전쟁하지 말아야지 어떻게든 피해야 돼. 한 두 대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기억하고 있지요. 얼른 4, 5대 후딱 지나가야 해요.”

“밀리고, 밀려갔다 하면서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아니야. 경찰 가족이 아버지 죽었다고 당숙 등 7명의 친척을 죽인 일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양곡에는 터키 1개 여단이 있었는데 터키부대 장병이 키가 크고 어른 같아 보이자 ‘커뮤니스?’ 라고 물어보니 영어를 모르는 채 ‘오케이 오케이’ 해서 끌고 간 후 행방불명 된 일도 있어요. 진재울 앞에서 그랬는데 행방불명이 된 경우도 있어요. 강의수 아버지인 강영규씨는 마지막 치안대장이었어요. 가라고 빼주고 선처를 많이 해서 번영회도 자비 들여 봉사하고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송덕비도 있어요. 죽은 영혼들을 위한 위로가 가능할까요? 지금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 ‘사상 다른 사람들은 다 잡아들이라’

- 석모5리 ‘지난이’ 부락은 모두 빨갱이, 방공호에서 피해 살아

이 기 갑(82세)/양촌면 석모리

21세 전쟁 발발, 제2국민병 포로로 평양서 2년 억류 후 교환

“6.25가 날 땐 21살 이었어요. 가물어서 발동기로 물을 푸는데 ping ping 소리가 났어요. 천둥번개인가 했는데 하성서 피난민들이 우리 집으로 꼭 차게 오더라고 요. 문수산에서 번쩍 번쩍했어요. 피난을 아버님이 가자고 해서 인천 번지기 나루 터 고모네로 피난을 가서 사흘만에 돌아왔어요. 그러니 인민군 정치였어요”

“그 당시에 초등학교에서 연설한다고 나와라 해서 나가면 보초를 서서 의용군을 뽑아 내보내는 거였어요. 나는 손가락이 없다고 총을 쓸 수 없다고 했더니 다른 쪽에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도망을 왔어요. 석모 5리는 ‘지난이’ 부락인데 다 빨갱이였어요. 그래서 방공호에 피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6.25때 치안을 보았어요. 7-8월에 동네 자체로 치안대를 조직해서 7명이 활동을 했어요. 보도연맹을 잡아다가, ‘사상이 다른 사람들은 잡아들이라’ 해서 잡아왔는데 이웃에서 형님 이니, 아우니, 아저씨니 하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요. 잘해줬어요. 그리고 무사하게 돌아갔어요. 죽인 사람은 없었어요”

“내무서원 보도연맹 민병대, 양태훈, 이강운이는 조범산이가 죽었어요. 이 사람들은 양촌면이고, 그 사람들 시절도 안전하게 해 주었는데 다른 면인 김포면의 조범산, 장기리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들이 내무서원이라 장릉산에 끌고 갔어



요. 여우재 고개를 포함한 등성이가 장릉산이라고 했어요”

동네 치안대가 사상 검증  
양곡천주교 자리에서 사살

‘바닥빨갱이’는 모두 이북으로  
중공군에 포위돼 부대원 모두 피납

“사상이 다른지 알려주는 일은 동네 치안대가 했고, 당시 양곡치안대가 있어서 데려갔어요. 양곡천주교 자리에서 싸 죽였어요. 말하자면 지서에 속한 치안대이지요. 경찰이 모자라니까 협조하는 부서였어요. 바닥 빨갱이들은 이북으로 많이 갔어요. 보도연맹 하는 사람들은 비밀이 있어서 밤에 몰래 모이고, 어디 가서 했어요. 사변 전에는 조합원 가입하듯이 밤에 와서 찍어라 해서 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공직생활 못했어요. 이박사 시절에 보도연맹이 창설 된 거고요”



“12월 제 2국민병에 뽑혀서 대구에서 1주일 훈련받고 전방에 배치되었어요. 6사단 8사단에 소속되었는데 충북 단양으로 후퇴했다가 올라오다 중공군한테 포위가 되어 8사단 5사단이 전체가 포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북으로 끌려갔어요. 평양으로 끌려가서 2년 동안 평양 서성리 초등학교 마룻바닥에 가마때기 깔고 살다가 포로 교환하는데 국군 1명에 인민군 7명하고 교환했어요. 더러는 명단에 빠져서 못 온 사람도 있어요. 개성서 교환했어요. 이북에서 주먹덩이 밥을 주어서 먹고 학대는 그렇게 안했어요”

## 사람 죽이고 애국자인 척 사는 사람들

- 인민군, 의용군 강제 동원하고 사상 변할때까지 매일 회동

이 병 수(82세)/양촌면 구래리

19세 전쟁 발발, 의용군 2달 반, 국군 4년 활동

19살 때 구래리(꾸지)에서 6.25를 만났다.

“6.25가 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5남매였는데 논에서 일하며, 바쁘게 다니고 있을 때 새벽 4시인가 몇 시에 인민군의 기습을 알리며 비상소집을 내리는 거예요. 그때는 방위대가 있어서 18세 이상은 방위군 교육도 받고 훈련을 받았었는데 동료가 비상소집을 알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방위대원들은 양곡으로 출동하게 되었지요. 나가보니까 바리미 한강변에서 보초를 서라고 내보내더라고요”

“한강변에 목총을 들고 민간복으로 보초를 서고 있는데 인민군 총소리가 들리고 포성이 들리더라고요. 27일, 저녁에 누산리에 소집되었고, 마송으로 배치시켰는데 그때까지는 인민군을 못 봤어요. 무조건 수참으로 배치를 시켰는데 이미 빈집 들이고 피난을 가고 없더라고요. 28일 식전에 포성소리가 별안간 들리더니 총알이 떨어지고 포사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위대와 부락민, 군인들이 한데 섞여서 논두렁 밭두렁으로 기어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에까지 도망을 왔어요”

“집에 와보니 이미 부락에서도 피난길에 나섰고, 검단 인천쪽으로들 도망가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기다리며 울고 있어서 함께 구래골 넘어 향동까지 피난을 갔



어요. 그리고 빈집에서 하룻저녁을 자고난 뒤 도로 집으로 왔어요. 삼도 끝에서 이틀을 자고 왔는데 군인들은 대항도 못하고 모두 후퇴하고 이미 인민군이 면사무소를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숨어서 살았어요”

“인민군 시대가 되었으니 거기에 타협안하고 숨어있는데 하루는 우물 뒤에 숨어 있는데 저벅저벅 중공군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숨어 있는 것이 들키지 않았어요. 그때는 젊은 사람들 잡아다가 사역시키거나 죽는다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중공군을 우리 집으로 안내한 사람은 보도연맹으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과 청년단 노역자 두어 사람이었어요. 그 이후 인민군 쪽에서 방위군에 다니던 사람들은 18세 이상 다 모이라고 했어요. 인민군은 참 말을 잘했어요. 면민을 총출동시켜 놓고 이북선전공세를 했는데 ‘이미 대구까지 내려갔다. 얼마 안 있으면 전쟁이 끝난다’고 선전했어요. 인민군은 강제 동원으로 의용군을 뽑았어요. 명색이 지원이지 강제였어요. 지원자를 뽑는데 나는 노인 어머니만 모시고 있고 병환중이라 집을 빠져나갈 형편이 못된다고 핑계를 대고 다음에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날마다 회의였어요. 사상이 변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보도연맹 믿고 안 나가려 뺨을 좀 써보려고 했는데 ‘방위군이었던 사람은 안 데려가려고 해도 지원해 나가야 된다. 어서 나가라, 지원해라 한 달 안에 다 끝난다’고 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큰 형은 50세였는데 50세까지 다 끌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달 안에 끝날 줄 알고 지원을 나갔습니다”

“김포초등학교에서 연설을 듣고 한강을 건너 마포초등학교, 의정부, 동두천, 장단, 평양 이북까지 갔어요. 걸어가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비행기가 무서워서 낮에는 꿈쩍 못하고 밤에만 걸었어요. 며칠 동안 훈련하고 진남포에 주둔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평양에서 1.4후퇴 때 인민군 부대에 편입하게 되었어요. 우리 부대가 압록강 제2집결지에 모여라 했는데 후퇴를 제대로 시킬 수가 없으니 해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간 사람들이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조가 되어 흩어졌어요”

“5명이 한패가 되어 ‘우리 고향은 서울이 아닌가 여기 와서 죽는 것보다 고향

땅에 가서 죽더라도 죽자'고 하면서 5명이 촌락에 들어갔어요. 어디서 강제로 온 사람들이 해산되어 치안을 도와준다는 소문이 나자 도와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부락에 1-2명이 배치되어 지켜 달라하고 보호를 받으며 부락을 지켜주었어요. 그러다가 며칠 지나자 평양이 탈환되고 미군측 CIC 특무대에 자수를 하러 갔습니다”

“오대령이라고 특무대 대장이 있었고 처가가 있고 집이 있었어요. 경황이 없으니 빨리 특무대에 찾아가자 가는 길에 날이 저물었는데 주민들이 '경비원들이 밤중에 일렬로 세워놓고 총살을 시킨다'고 하는데 마침 미군지프차가 지나가면서 김포공항의 통역관으로 있던 사람이 일체 특무대에 가서 우리 일을 도와주다 보면 가는 길이 뚫릴 거라고 해서 건축 잡일을 도와주게 되었어요”



의용군 동원돼 평양에서 훈련받아  
평양에서 1.4후퇴때 인민군 편입

옷도 안 입고 얼음 언 임진강 건너  
꾸지 2리 등 남자들 없는 부락도

“오대령의 집을 수리하고 장작도 패고 그랬어요. 12월에 피난 소개명령이 내리면서 특무대 대장이 식솔들을 데리고 피난을 나오는데 같이 나왔어요. 대동강 다리폭격으로 사람들이 몰려 반은 떨어져 죽었어요. 아군들이 폭격을 한 거예요. 우리는 피난을 하느라 개성 무인지대에서 밥을 해먹고 있었어요. 뒤는 중공군이고 앞은 국군하고 미군들인데 우리는 신분이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끼어서 나오는데 매우 조



심해야 했어요”

“개성에서 2-3일 지체하고 가운데 들어서서 죽게 된 사람들이니 어떻게 해요. 얼음 강을 건너야 했지요. 임진강을 옷을 벗고 건넜어요. 여자들은 어린 아이업고 가다가 애가 죽은 줄도 모르는 이도 있었어요. 그렇게 파주 땅에 와서 고양 이산포 나루에 왔는데 경찰 심문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실 붙잡혀도 안심했어요. 왜냐하면 강 건너가 김포니까 금방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제다 죽인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보따리 속에 미군 사지쓰봉과 이북 돈이 있었거든요. 이북 돈, 그거 들켜서 혼났어요. 이북 돈이 있으니까 가두는 거예요”

“밤에 국군이 한사람이 말하기를 ‘물 건너가 고향인데 심정이 오죽하겠나, 군인 옷을 두고 갔으면 한다’고 해서 얼른 대답을 하고 다 털어줬어요. 옷을 주고 나니 통과 시켜줘서 배를 타는데 사람이 하도 많아 이북 돈을 선장에게 집어주고 새치기를 해서 배를 탔습니다. 강 건너 고촌지서에 도착해서 다음날 향산리 고모네로 갔다가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흘 있으니 후퇴명령이 내려 1.4후퇴가 시작되고 남으로 가야 했지요”

“그런데 그 동안 경험상 그냥 쫓아갈 일이 아니라는 판단이 서서 어무르 6촌형 처갓집 동네로 가서 여러 날 있었어요. 그 후에 집에 와보니 인민군도 한국군도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학교에 들어가면 연기가 된다고 해서 중학교 3학년 보결로 다니다보니 영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국군으로 나가서 논산훈련소 창설시 일을 많이 했어요”

“하루도 제대로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문을 1년 반 배운 실력으로 주야로 기간요원 글을 써 주다 보니 2천명 졸업생 대표로 답사도 하고, 서무계 조수로 뽑혀서 임시 소대장 노릇도 하고, 육본 직하로 있던 경비대대 해체가 되어 원주 제 1군사령부 거쳐서 15사단 화천으로 부대 배치되고, 밤중에 호명해서 영관급 차타고 사단본부에 데려다가 사단 사령부 작전계로 가서 일했어요. 가리방 굽어서 하달하는 일을 고생은 했어도 전투는 안했어요. 그리고 사년 있다가 제대 했지요”

“당시에는 도장을 찍어서 보도연맹이 되고 아무 죄도 없이 자격도 안 되고 무식

한 사람들, 몇 사람은 무슨 죄인지 알지도 못하고 양곡서 홍실리 나가는 중학교 뒷산에서 죽었어요. 사람을 밤중에 나오라고 해서 죽였다는 얘기에요. 보도연맹에 가입시키고 앞장섰던 사람들, 죽인 사람들이 평이 좋지 않았어요. 죄가 없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당시에는 60호 정도의 인구였는데 청년들이 군대 나갔다가 들어와서 자꾸 죽었어요. 우리 또래가 제일 외롭다고요. 죽기도 많이 죽고 아팠어요”

“애국자가 없어요. 저 살기위해 이리저리 빠져나가면 살았던 겁니다. 내가 알기로도 세 사람이 보도연맹이 되고 남의 집이나 살던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죽인 사람들은 애국자인척 하고 더 나쁜 짓하고 살아 남았다가 명예롭지 못하게 죽었어요.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있겠어요. 집권자들 때문에 국민들은 이리 저리 쫓아다닌 거지”

“마을 골이 깊어졌던 이야기들입니다. 지금은 다 잊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5명의 장년들이 죽음을 당하고 끌려가서 죽은데서 다 죽었어요. 남자들 없는 부락도 있었어요. 꾸지 2리는 그랬어요. 행불자는 알 길이 없어요. 18명이 의용군 나가 죽은 사람이 7-8명이고 포로 수용소에 있는 줄 알았다는 사람이 개성서 돌아다니는 것 보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소식이 없는 사람들 몇 사람은 살아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 무엇을 위해 싸웠을까 의문이 일어

- 염창교 다리 끊겨 배타고 건너 고향으로

최 종 훈(85세)/양촌면 양곡리

50년 6월1일 위병제대 후 전쟁발발로 재소집

“그 때를 생각하면 무엇을 위해 싸웠나 의문이 들어요”

“국군 창설한다고 하여 경비대에서 1분대 분대장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6.25 사변 시에는 경비대 시절이었고 6.1날 의병제대하고 대곶에서 아픔을 치료하고 있더랬어요. 우당탕 통탕 비가 오는 천둥 소리인줄만 알았는데 통진학교 다니던 아이들이 피난민 온다해서 알았어요”

“난 군대에 있을 때 결혼을 해서 아내는 상계동에 있고 나는 몸을 고치러 대곶에 있다가 자전거를 타고 상계동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광하더니 방안이 번쩍하고 아내는 만삭에 오산까지 피난을 가느라 법석이였지요. 피난 중에 애기를 낳아 다시 들어왔어요. 그때 인민군이 붙잡고 손바닥을 검사했어요. 농사짓다가 돌아오는 중이라고 했지. 아내가 아니면 잡아 죽였을 거야. 아내는 아기를 낳자마자 사흘 안에 얼굴이 붓고 나는 애기 걸레를 빨다가 인민군한테 걸려서 비행기 수신호를 보낸 걸로 알고 잡아가려고 했거든. 마누라 덕분에 살았다고요”

“염창교 다리는 끊어져서 김포군 양서면 염창리였잖아요. 배타고 건너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빈집에서 자다가 누군가가 찢어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

이 엄마 있으니 봐달라고 애원하니까 놔주더라고요. 천동고개를 넘는데 인민군 트럭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세워서 말했어요. 총알이 무서워서 피난 갔다가 돌아오는 중이니 좀 태워달라 부탁하니 산모만 태워주는 거야. 그래서 트럭위에 타고 누산리에 내려줘서 걸어서 양곡에 왔는데 동네빨갱이들이 무서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저녁때에 대곶으로 갔어요. 혼자서 마른 논에서 잤어요. 아내는 여자라서 안 잡으러 오니까 다행인데 나는 국방군 출신이라 잡히면 죽었어요. 그래서 몇 달 있었어요”

### 만삭 아내는 피난 중 출산 밥 얻어먹으려고 군 재입대

당시엔 도강증 있어야 한강 건너  
53년에 부상, 수도병원서 제대



“그때는 도강증이 있어야 한강을 건널 수 있었어요. 9.28이후 한강을 건너갔어요. 군 제대했지만 국군으로 있다가 부대를 이탈한 사람들을 종합적으로 재소집을 하더라고요. 충정로 집에 가니까 군에서 재

소집장이 내려와 있어 경복궁으로 집합을 했어요. 어디가야 사나해서 차라리 군대 가서 밥한 끼 얻어먹고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대곶에 아내는 처갓집에 두고 중사계급인 갈매기 세 개로 아침 10시에 소집에 응했던 거예요”

“1사단은 강성이었어요. ‘목이 마르면 피를 빨아먹고 살아라’고 할 만큼 말이야. 그래서 살아있는 소를 한 마리씩 대검으로 찢아서 먹고, 불도 못 놓게 해서 생으로 먹다 말기도 했고요. 1주일인가 2주일 훈련을 시켜 신병들은 일선으로 가야했어요. 1개 분대 9명씩 자고 훈련했는데 고랑포 나가서 완전 포위되고 풍비박산 났지. 아군은 서너 명 죽고 인민군은 서울 북악산까지 진출했었어요. 1.4후퇴



식사중인 군인 최중훈씨는 제대 후 한끼 식사가 아쉬워 재입대했다. 자료사진 | 지울 수 없는 이미지 (2007. 눈빛)

때가 시작되면서 배재중학교에 아군의 포를 마당에 배치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53년에 부상을 당했는데 장단에서 1사단과 인민군과 수시로 접촉되고 싸움이 일어났었어요. 수도 육군병원에 있었고 대구 27육군병원에 있다가 836부대를 통해 제대하고 고향으로 오니 형님은 잡혀갔다가 도망오고 우익단체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보도연맹이 잡아갔더라고요”

“그때 고생 고생한 것을 누가 알아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살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위해 싸웠나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하는 생각도 들구요. 그 고생, 고생한 거 말도 말아요. 지금 사람들이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생도 아니야. 그리고 그때 일어난 일들 다 말 못하는 거 많아요. 다 살아 있잖아요. 자손들이 서로 말을 안 할 뿐이지 잊지는 않고 있는 거라고요”

## 사람이 없어져도 누가 죽인 줄 아나

- 총 쏘는 법도 몰랐다...5미터 앞에서 80미리 폭탄 떨어져 죽더라

홍 종 기(87세)/양촌면 양곡리

50년 12월 29살 나이로 제2국민병으로 징집

6.25당시에 29살이었다.

“이미 장가를 갔었고 아들이 세 살이었습니다. 50년 12월 제2국민병을 나가서 20세 17세들까지 나갔습니다. 부락에서 16세 17세부터 30세까지 징집을 해서 나갔지요. 굶어가면서 부산까지 하루 주먹밥 하나로 버티며 일주일 훈련받고 기차를 타라고 해서 타야 했어요. 총 쏘는 법도 몰랐고 휴전 무렵 전투가 더 심해졌어요. 5미터 앞에서 80미리 폭탄이 떨어져서 죽더라고요. 김일성이가 전선지역 맹공격을 지시하면서 3.8선 전선지역이 다 후퇴하고 7월 27일 정전이 되었지요”

“지리산 노고단은 사흘을 올라갔고 밥한덩이에 눈을 녹여서 죽 쑤어서 먹었습니다. 이등병이 일등병이 되고 1등하사가 중사로 특진되고 그랬습니다. 인민군 수백 명 죽었습니다. 양구지구에서의 전투로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을은 공산당 협조자가 없었어요. 한 사람인가 인민정치 협조했다고 붙잡혀 하는 것을 보았는데 생사는 알 수 없었어요. 내가 군인가기 전까지는 희생자가 없었습니다. 양능 옆 동네인 양곡 3리였어요. 인명피해는 없어 모두 피난을 갔는데 늙은이 빼고 오산, 천안까지 가있다가 왔습니다. 양곡전체에서 빨갱이들(보도연맹), 개인적인 감정 있는 이들은 손가락질하면 죽었어요. 자고나면 어떤 사람



이 없어도 누가 죽인 줄을 아나! 양촌과 대  
곶에 보도연맹, 빨갱이들이라고 죽은 사람들  
의 자손들도 있습니다. 죽은 것은 알지만 누  
가 죽인지는 모르지요. 보도연맹이 이쪽 죽  
인 거는 없고 끌어가기는 했어요. 치안대에  
서 죽였습니다”

부산까지 하루 주먹밥 하나로 버텨  
마을엔 공산당 협조자 없었어

아내는 가루담배 팔아서 살아  
인민군, ‘인민 위해 나왔다’ 수화도

“인민군들은 우리는 인민을 위해 나왔다고  
손바닥으로 한문으로 수화를 하기도 했습니  
다. 그들에게 누가 밥해줬는지 몰라 저희들이 해 먹었지요. 군인 나가 있을 때 아  
버지인 홍재원(당시 70세) 어머니 아내가 당시 3살짜리 아들 업고 나무해서 살고  
가루담배를 사서 팔아먹고 살고 있었어요”



## 보도연맹 대다수 양곡서 죽었다 소문

- 톱질전쟁으로 가현산, 흥실리 밀리고 밀리다 인민군 마산리 주저앉아

남 정 순(77세)/양촌면 마산리

가현산 전투, 국군 방어선은 쓰르레미 고개

19살에 마산리서 명신학교에 다녔는데 중학교 과정이었다.

“마산리에는 의용군 나가라고 독려하고 다니던 사람이 있었어요. 여성동맹도 있고요. 대마산에 한집 두 집 인민군들이 많았습니다. 대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9.28후퇴할 무렵에 인민군들이 많았어요. 이창수라는 사람의 집 마루 밑에는 주민들이 숨어 있었는데 다른 집에서는 외양간 위에 숨어있기도 했습니다. 인민군들이 갑자기 밀려들어오니 피할 사이도 없이 같은 집에 숨기도 하고 인민군들이 그곳에서 밥들을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톱질 전쟁으로 가현산, 흥실리로 밀리고 밀리다가 우리 동네 와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8월 15일 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경우는 벽장에도 숨고, 최 회장(최경희)네 집으로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 집에 감나무 밑에 병커가 있었거든요. 이미 네 다섯 명이 숨어 있어서 함께 숨어 있는데 인민군 밥을 최회장네가 해주고 있었어요. 왜통을 가려놓고 병커 그 위에는 인민군이 보초를 서고, 비행기가 날면 ‘항공’ 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우리는 어두운 곳에서 그들이 보이고 그들은 우리들을 못 보지만 같은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어떤 인민군은 광방에 들어와 밥을 먹었어요. 이쪽에서는 인민군을 다 볼 수



있고 그들은 킁킁해서 못 봤지만 그 집엔 인민군이 딱 차 있었어요. 우리는 밑에 있고 그들은 위에 있어서 기침만 해도 들킬 뻔 했어요. 다행스럽게 3-4일 있다가 인민군들이 빠져나갔어요. 한 사람은 서대문 형무소 간수하다가 동네에 왔는데 인민군이 오라고 했는데 독 밑으로 달아나 총을 못 쏘아서 살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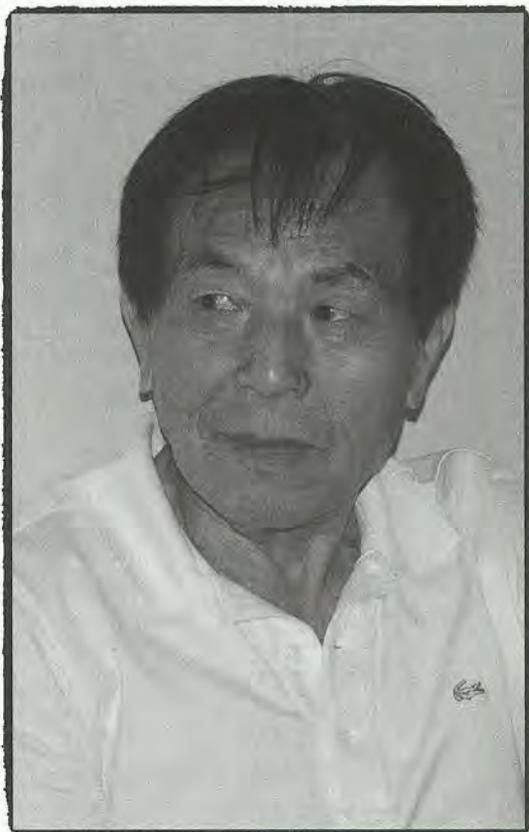
“우리 부락에서는 6.25때 죽은 사람은 없었어요. 소마산 부락민들이 빨갱이라고 때려서 죽지 않고 매는 많이 맞은 사람은 있어요. 가현산 전투시 인민군하고 국군하고 대치하는 방어선이 쓰르레미 고개였습니다. 우리 동네에 군인 나가 죽은 사람은 한 명 의용군 나가서 죽은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군인 나갔다와서 아파서 혹은 나이 들어서 죽었지요”

“우리 초등학교 친구 머리 좋고 똑똑한 민번식이는 의용군 나갔다가 월북했어요. 또 한 친구는 보도연맹, 나이는 안되고 물들었었는지 죽었어요. 보도연맹의 나이는 지금의 83-4세여야 했어요. 대다수는 양곡에서 죽었다는 소문은 접했어요.

감나무밑 병커에 숨어 지내  
인민군은 바로 위 광방에서 밥 먹기도

똑똑했던 친구 의용군 갔다 월북  
부락에서는 6.25때 죽은 사람 없어

“나는 피난은 소래까지 갔다가 왔어요. 제2국민병은 20일 걸려서 부산까지 걸어갔어요. 전투는 공비토벌 일산 금와지구, 지리산 그리고 휴전시에 부상당해 병원 있다가 제대했어요. 마산리는 인민군이 가다오다 머물렀던 곳입니다”



## 터키군에 강간당한 사람도 있어요

- 문수산의 아군은 학도병, 9.28 수복 당시 터키군 김포에 지원

이 기 실(73세)/양촌면 석모리

초등 5학년, 토끼풀 뜯다가 6.25 발발

이기실(73세)씨는 만 15살에 6.25를 만났다. 9대째 양촌면 석모리에서 살아 오고 있다. 당시에 양곡초등학교 6학년 재학중이었다.

“문수산의 아군은 학도병들이었습니다. 일주일간 훈련받고 있다가 인민군 박격포 쏘니까 다 밀려 나온 겁니다. 나는 토끼풀을 뜯다가 부천까지 피난을 갔어요. 집에 들어오니까 고단이 주공단지 앞에 박격포가 떨어져 모두 난리가 난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가물었었어요. 비가 오려고 뇌성벽력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난데없는 피난행렬이 이어지고 6월 27일 28일 이틀 만에 점령되고 말았습니다”

“피해는 아군이 무기가 있나? 고3들이고 머리는 뺄뺄 깎고 등걸잠뱅이로 갈아입고 민간인들과 같이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인민군이 먼저 앞서서 그 학도병들이 고향을 제대로 찾아갔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 국군은 무기가 없었어요. 나는 부천으로 피난을 갔다가 이틀 만에 집으로 왔어요. 석모리 349번지 우리 집은 400년 이상 조상 대대로 9대째 살아오던 곳이었습니다. 9.28때는 하루는 터키군이 김포에 있는데 인민군은 밤에 통진 쪽에 있었어요. 인민군이 올 때는 배타고 왔어요. 6.25때는 팔로군이라고 옷이 불그죽죽한 옷이었고 따발총을 썼고요”



“1.4후퇴 때는 중공군이 왔었어요. 인민군 3개월 정치시의 바다 빨갱이들을 전부 잡아다 죽였어요. 장릉산이나 양곡 천주교회 뒤에서 죽였어요. 석모리에서도 3.4명이 가서 죽였어요. 이북의 내무서원을 했다고 여기 치안대가 죽인 거예요. 어떤 이는 25세에 결혼하고 딸 하나씩 낳고 가족이 있었는데 죽고 난 후에 아내는 재혼해서 시집가고 뽀뽀이 흠어졌어요. 시부모 모시다가 재혼했지요. 옛날에는 결혼하면 죽어도 그 집 귀신이었어요. 요즘하고는 세대차이가 많지요. 바다 빨갱이들이 설친 것은 많았어요. 막말로 갯골창에 은폐하고 숨어 있다가 붙잡혀서 장릉산에서 죽었어요.”

“6.25가 나니까 젊은이들 20살 넘는 사람들은 양곡초로 모여서 의용군을 지원 하라고 했는데 끌려가면 함흥차사가 된 거예요. 석모리에도 45가구 정도가 있었고 9.28이후에는 미군 병커를 수도 없이 지으면서 휴전을 하고나니 수백 개가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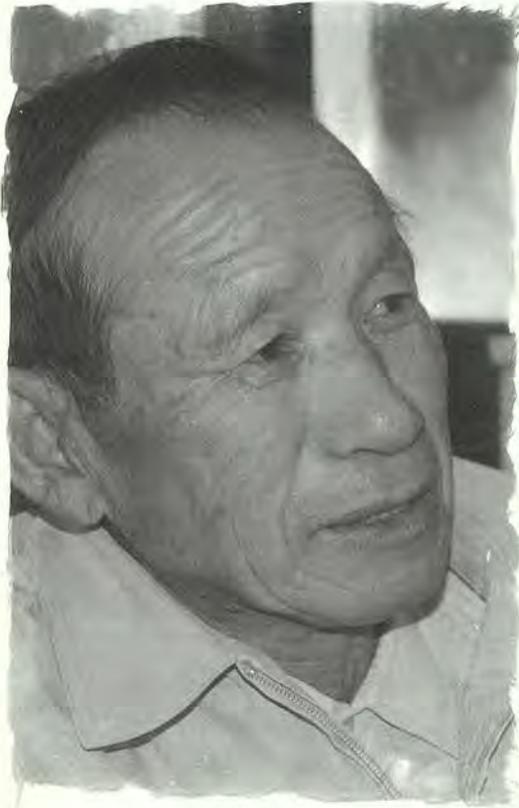
“우리 형님은 바로 위 형님인데 이기승으로 1.4후퇴시 현역으로 나가 전사를 했어요. 51년 10월 20날 전사한 것을 최근에서 찾았어요. 57년 만에 국립묘지 현충원에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위패를 모신 것을 찾아냈고 당시에 21살이었는데 DNA검사를 해서 유골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동작구 현충원에는 위패만 모셔있는데 서울농대(당시에 경농)를 졸업하고 8사단에 참전 중 사망확인된 것으로 57년 만에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형의 일을 해결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형도 군인 나갔다가 휴전이 되면서 포로석방이 되어서 교환되어서 온 이가 있습니다. 큰 형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피난은 어머니와 15살이었던 나와 9살 동생과 갔어요. 공항에서 아군들이 후퇴하느라 드림통이 불타서 평평 하늘로 불꽃이 치솟아 올랐어요. 다음날 부천에 가니까 벌써 중공군이 와있어서 평택을 가니까 다리가 끊겼더라고요. 동생은 엿을 고아서 걸머지고 가고, 나는 소에 쌀 두 가마 싣고 어머니하고 평택까지 갔는데 다리가 끊겨져 있어서 갈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미군 탱크부대가 포를 쏘았어요”

“우리는 피난민이 아니라 불구덩이 속에 있었어요. 화성군 반월면 번호리라는

동네서 4시 30분에 썩썩이가 폭격을 하기 시작했는데 51년 12월 7일에 어머니가 폭격에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처음에는 팔에 맞으셔서 “어머니 팔에서 피가 나요” 했는데 다음순간 등을 맞으시고 돌아가셨어요. 난 솜바지를 입었는데 앞이다 없어졌더라고요. 동생은 넓적다리 있는데 맞아서 솜바지가 떨어져 나가면서 살았어요. 눈구덩이 속에 쳐 박히고 숨어 들어갔는데, 나는 없어진 동생을 부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동생은 엄청나게 많이 왔던 눈 속에 쳐 박혀 있었고 나는 어머니를 잃고 고아가 된 거예요”



6.25 붉은 옷의 따발총 든 팔로군  
9.28 수복때는 토익기군(터키군)  
1.4 후퇴엔 중공군

‘바닥빨갱이’ 장릉산 등지에서 사살  
화성 피난에서 어머니 폭격으로 사망

“아버지는 왜정때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피난길에서 잃고 시신을 모시지 못하고 집에 올 수 밖에 없었어요. 그 때의 심적 고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달밤이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폭격 시에 피난민들이 별판으로 내뿜는데 중공군 반 피난민 반 그랬어요. 그 당시에 소마산, 대마산에서 같은 쪽으로 피난을 갔던 사람들이 53명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의 시신은 소에 싣고 간 이불로 싸서 모시고 겨울이니까 이영으로 덮어 놓았다가 52년 봄에 어머니를 찾으러 갔습니다. 석 달 후에 아군이 밀어서 압록강까지 가니까 경찰청에 다니던 형이 27-8살 되었었는데 돌아와서 사람이 리어카에 어머니를 모시고 나흘 걸려서 모시



상륙작전 기간중 잠시 피란 갔다가 귀가하고 있는 인천 시민들. 자료사진 | 지울 수 없는 이미지 (2007. 눈빛)

고 와 선산에 모셨습니다. 다른 이들은 모릅니다. 어머니 시신 돌봐 준 사람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집에 왔을 때 보호자가 없어서 2달 동안 밥 얻어 먹었습니다. 이웃사촌들이 밥들을 줬어요. 쌀을 가져다 주면 밥을 해 줬어요. 피난 시절에 밥해 준 이들 2명은 생존해 있어요. 수정엄마와 이진종이 누이가 너무나 고마워서 쌀 한 가마 부쳐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15살이던 나와 9살 내동생은 날마다 울기만 했어요. 소도 남을 줬어요”

“6.25전에는 할아버지가 천석꾼 작은 아버지도 그랬어요. 동대문 구청장 등을 하고 왜정때 일꾼을 수십 명 두고 살았어요. 형은 22살에 대포 지서장을 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형수와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양곡은 천주교 지은 곳에서 내무서원 했던 사람들 많이 죽고, 지금 3.1만세운동 기념비 있는 산에서도 많이 죽었어요. 토익기군(터키)에 의해 강간을 당한 석모리 사람도 있었어요. 양곡중학교를 창설한 반병섭 목사는 군목이었는데 강간했다는 사람을 유선 줄로 묶어서 의자를 걸머지게 했어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여자를 귀찮게 해서 벌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터키 사람은 키는 작고, 노란 수염을 달고 있었어요”

“9.28편 석모리 논에 인민군이 숨어 있는 것을 부락 치안대가 잡았었는데 장거리 헌병대가 데려갔어요”

## 개가 시체를 먹고 온동네 냄새를 풍겼어

- 유엔군 사격으로 동네 썩대밭

홍 선 표(78세)/양촌면 양곡리

김포농고 2년, 양릉에서 유엔군·인민군 전투 목격

홍선표씨는 당시에 김포농고 2학년이었다.

새벽밥을 해먹고 2시간 넘겨 걸려서 김포농고로 통학을 했다.

“당시에 부잣집 아이들은 고무신을 신었지만 가난한 아이들은 짚신신고 다녔어요. 중학교를 16살에 입학했어요. 등록금이 3,900원이었는데 가난해서 이웃에서 도와줘서 학교를 다닌 거예요. 6월 25일 아침 공부는 오전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데 20살이었어요. 지원해서 의용군에 많이 갔는데 현 학생은 보류가 가능했었습니다. 27일 인민군이 왔고요. 겁나고 무서워서 얼굴을 대고 보지 못했습니다. 마차 우마차로 포와 쌀을 싣고 가는 것을 먼발치로 양릉에서 봤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잡혀간 사람은 없고 보도연맹 사람들이 자진 입대해서 의용군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마을의 피해는 하나도 없었고 7-8명이 의용군가서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양릉은 8.15해방 되기 전 김포에서 가장 빈한한 동네였고 나중에 수리시설이 되었던 곳입니다”

“피난은 하루 만에 되돌아와서 피난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인민군이 우리가 간 것보다 더 먼저 앞질러 갔기 때문이다. 국군은 간부후보생들이 쫓겨 내려



전쟁기간중 피란민들은 전선이 바뀔 때마다 피란 봇짐을 싸야 했다. 부녀자들만 남은 피란민들이 아이들을 앞세워 또다시 피란 길에 올랐다. 자료사진 | 지을 수 없는 이미지 (2007. 눈빛)

오면서 27일, 28일, 29일 우리 집 부엌에 숨겨 주었고, 하룻밤 한복을 입혀서 내보냈습니다. 우리 동네는 가혹행위는 그 때까지 없었습니다. 보도연맹 사람들이 의용군으로 나가고 나서 우리 동네는 민족청년단 활동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인민군 부역경험은 있습니다. 서해바다 쪽 검단 안동포에 방공호를 구축하러 갔었어요. 인천상륙작전 대비하려고 한 이틀 공사를 했는데 인민군은 아니고 시키는 책임자가 간곳이 없어서 호파던 사람들이 모두 집으로 왔습니다”

“8월 추석 전 9월 초순에 인민군들이 이북으로 쫓겨 가기 시작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9.28수복이 되면서 피해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민군이 쫓겨 가면서 일부가 남아서 우리 마을 옆으로 닭을 잡으러 왔었습니다. 그 당시 유엔군이 김포 누산리를 거쳐서 양곡으로 들어오다가 닭을 잡아 식량을 보충하러 온 인민군 1개 분대와 마주쳐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유엔군 지프차와 트럭행렬과 1개 중대가 들어오고 있는데 인민군들이 자기들 군대가 지원온줄 알고 환영을 하다가 유엔군인줄 알게 되자 사격을 해서 유엔군이 2-3명이 사망했습니다”

“인민군이 쫓겨 가면서 쓰러졌는데 그때는 벼가 익어 가는데 논바닥에 쓰러져 죽고 뿔뿔이 흩어져서 산에서도 죽었습니다. 미군들이 사격을 받아 후퇴를 하고 그 다음날 유엔군이 포 사격을 했습니다. 그 당시 유엔군이 들어올 때 우리 마을의 한 농부에게 물었어요. ‘인민군이 있느냐’고요. 도리깨질을 하던 농부는 인민군을 보지를 못했으니 없다고 말을 했고, 유엔군은 안심하고 통과하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그 당시에 포 사격으로 마을이 피해를 크게 입었습니다. 집이 다섯 채가 불타고 죽은 사람이 네 사람이나 되었습니다. 포사격을 맞고 우리 작은 집에 소한마리 기르고 있었는데 그 소도 죽었습니다. 동네가 쑥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엔군 있는 쪽으로 피난을 갔어요. 당시에 48가구였는데 다 빈집이었고요. 죽은 사람은 유엔군 사격으로 피해를 본 것입니다”

“남쪽으로 피난 갔다가 하루 있다가 오니 유엔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유엔군들이 유엔군 시신은 가져가고, 인민군들의 시신은 논바닥에서 어찌 되었나 모르고, 산에서 죽은 인민군들은 그 자리에 묻었습니다. 그때는 개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 송장을 파먹고 다니면서 냄새를 풍겼습니다. 동네 피해는 어린아이가 파편에 맞았고 할머니한 명은 집이 불이 나서 타죽고 어린아이 한 명중에는 시집갈 나이었는데 죽고 말았습니다”

“수복이 되고 나서는 자치대인 치안대에서 당시에 도리깨질을 하던 농부 박탱이(24살 혹은 25살)를 면 지소 뒤에서 죽였습니다. 박탱이는 당시에 인민군이 없는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인민군들이 숨어있으니 농부가 알 수는 없었지요. 유엔군이 물으니 보지 못했으니 없다고 대답한 거예요. 완전히는 아니라 보도연맹에 조금 몰들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의 천주교 자리의 낮은 산에서 죽였어요”

“죽일 적에는 보도연맹 찌꺼기들은 다 죽였습니다. 몇 십 명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선동하고 부역을 심하게 한 사람이나 보도연맹 사람들을 끌어다 호속에 집어넣었습니다. 2-3일 있다 끌어다 죽였어요. 양곡중학교 뒤쪽 산, 한강뺨에서도 죽였었는데 당시에는 철조망이 없었어요”

“1.4후퇴 전에 제2국민병 소집이 있어서 20세 이상의 젊은 장정들은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방위 장교들인 무궁화 앞 하나인 사람들이 인솔해서 제2국민병은 몇



백 명을 데리고 매일 걸어서 대구까지 갔어요. 우리 부락은 10명이 갔는데 난 장남이고 방위사관 학교에 들어가 6주간 교육마치고 방위 소위가 되었어요. 2기생으로 김윤모, 이윤택 등이 동기예요”

개들이 먹을 게 없어 송장 파먹어  
마을주민 7~8명 의용군 후 행불

도리깨질 농부, 치안대에 보복 희생양  
보도연맹 한강뺨 등에서 집단 사살



“근데 김윤군 대령이 제2국민병 부식비를 다 떼먹어서 사형당하고 국가에서 방위군을 해산했어요. 대구에서 창령 105사단 사령부까지 걸어 내려가서 밀양 112연대에 소속되어 1년 있다가 방위군 해체 되니 제각기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복학해서 3학년 졸업을 맞고 52년 징집되어 다시 논산훈련소 8주 교육받고, 마산 육군군 의학교 6주 교육, 위생병, 구호병, 보충대 거쳐서 춘천보충대로 가고, 9사단 백마부대 의무중대에 소속되었어요”

“53년 7월 27일 휴전이 되면서 휴전되기 전에 사람이 가장 많이 죽었어요. 나는 최전방에 있지 않아서 살았어요. 축구를 잘해서 사단에 떨어져서 살았어요. 휴전이 되기 전 김일성이가 3.8이남으로 총공격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군 전선에서 3,40리 후퇴해서 땅을 빼앗겼어요. 사단까지 포가 떨어졌었어요. 징집을 나갈 때는 어깨띠를 메고 갔는데 그러고 나가는 것이 꼭 죽으러 가는 것 같아서 싫어서 울고나갔었어요. 6.25 때문에 군인으로 18년간을 살고 대위로 제대를 했어요. 70년 5월 30일 날 대위로 예편했어요”

## ‘사격!’ 하나까 다 죽이더라구요

- 좌동 스프레미 고개 넘어 백호부대의 인민군 처형

홍 종 운(74세)/양촌면 흥신리

쌍무덤자리에서 육군들 무수히 죽는 광경 목도

6.25당시에는 양촌면 흥신리 229번지에서 살았다.

“장림(현 마송초교 근처)이는 산이고 중대본부 있던 쌍무덤자리에서 100미터 정도 와서 지금은 살던 곳이 도사리로 들어갑니다. 전쟁할 때 구경을 갔습니다. 문수산에서 총알이 날아와도 구경을 했습니다. 육군이 쌍무덤 자리에서 즐비하게 죽어 있었습니다. 옷 입은 채로 죽어 있었고 워커를 신은 채로 그대로 죽어 있었는데 어디로 실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꿈쩍 말고 있으라고 해서 1.4후퇴 때는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안산으로 갔습니다. 부평 한들(백석)에 형이 있어서 그리로 갔습니다. 마차를 타고 우리 식구 몇이 타고 안산으로 가는데 폭격기가 있어서 만났습니다. 폭격을 하는데 인민군도 봤어요. 폭격을 하는데 앞드리라고 해서 난리가 났지요. 다행히 죽지는 않았는데 시체가 너털너털 했어요”

“난 철이 없어서 동네 빈집에 들어가서 저녁인데 날은 춥고 밥은 있는데 소금으로 밥을 비벼서 먹었습니다. 저녁에 자는데 춥더라고. 거기서 한참 있다가 며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소마차를 끌고 집으로 왔어요. 양곡에 들어오니까 양곡이 불발이더라구요. 1.4후퇴 때라 지금의 가람마트 자리가 면사무소였는데 다



타버렸더라구요. 양촌면의 호적이 다 타버려서 재판소에서 다시 해왔어요”

“6.25때는 여성동맹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양촌은 여성동맹이 휩쓸었어요. 여성동맹은 죽이지 않았어요. 인민군 4명은 죽이는 거 봤어요. 인민군 2명하고 바다빨갱이 2명하고요. 좌동 스프레미고개 넘어 커브 도는데 백호부대가 있었어요. 백호부대 대위가 ‘우리는 인민군을 잡지 못하면 밥맛이 없어 못 먹는다’고 하면서 커브 논두렁에 죽 세웠는데 동네 사람이 사촌형을 쏘아 죽이는 것을 봤습니다. 묶였으니까 허연 옷을 입고 논두렁에 죽 앉아있는데 대장이 ‘사격’ 하니까 4명을 다 죽이더라고요. 동네 사람이 쏘고 그 사람의 집안 형은 묶인 채 돌아보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백호부대장이 확인하느라 발로 차보더라고요. 그러니 벌렁 자빠져서 피바다가 되었어요. 백호부대장이 장롱에 숨어있던 인민군을 잡아가지고 왔다고 들었습니다”



양촌은 여성동맹이 휩쓸어  
면사무소 불에 타 호적 모두 소실

인민군 논바닥에 한줄로 세워 총살  
동네사람이 사촌형 사살장면 목격

“바다빨갱이는 대궐 사람이라고 했는데 M1총으로 쏘어요. 인민군 죽이는 걸 보고서 인민군이 있어서 동네에 못 간다고 해서 다른 큰 길로 가다가 인민군한테 걸린 적도 있습니다. 속새우지(검단 원당)에서 인민군이 발길로 차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않고 통과시켜줘서 며칠 있다가 집에 오니 재가 다 꺼지고 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9.28 이전에는 인민군시절 아침저녁 회의를 했습니다. 공동회의를 해서 공동



연행되는 북한군 포로들. 자료사진 | 지울 수 없는 이미지 (2007. 눈빛)

작업을 했어요. 바닥빨갱이들이 했습니다. 홍신리에도 여성동맹이 있었어요. 학교 다니던 여학생인지 예뻐어요. 홍신리 사람 김용기는 20대에 군대나가서 인민군 모가지 잘라서 들고 있는 사진이 학생들 책에도 나왔었어요. 그런 사람을 대우는 하나도 안 해 줬어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생존해 있었어요”

“9.28 이전에는 학교에 나가서 이북교육을 받았어요. 노래를 배웠는데 ‘원수와 더불어 싸워서 죽은 우리의 죽음을 슬퍼 말아라’ 는 등의 노래였어요. 홍신리 해병대 보급대대(근무중대 자리)는 산인데 육군이 많이 죽은 자리였어요. 치안대는 있는 것만 알았고 자위대도 있는 것만 알았습니다. 홍신리에 빨갱이도 있었습니다. 동네빨갱이 혹은 바닥빨갱이라고 불렀습니다. 많지는 않고 ‘저 사람이 진짜 빨갱이’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빨갱이라는 사람들이 동네에서 어떤 나쁜 짓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홍신리에 학살 장소는 없었어요. 9.28수복 때는 아군들이 누런 벼를 주욱 밟고 걸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나이 정도면 6.25에 대한 기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 속에는 저마다 응어리들이 있을 거야

- 웅덩이에서 작대기로 때려죽이는 광경 목도

권 순 덕(68세)/대곶면 초원지리

10살 소년시절, 담임교사들 밤에 소집해 교육

“당시에 열 살 소년으로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6.25에 대한 충격이 있었지요. 쓰르레미 고개라고 검단으로 가는 길로 자치위원장이 바닥빨갱이를 앞세우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을 본적도 있습니다. 웅덩이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봤습니다. 웅덩이에서 누굴 죽이는지 몰라도 작대기로 꽤 죽였어요. 살라고 나오면 다시 때리고 또 떠오르면 다시 때려서 죽였어요”

“피난을 가면서 피난길에 사람이 죽어서 시체에서 물이 툭툭 떨어지는 것을 봤어요. 피난 나가다가 해가 지면 자야 하는데 방이 없으면 돼지우리에 지프레기 깔고 잤습니다. 우리는 소 끌고 잔등에다가 쌀을 싣고 나갔어요. 다른 사람들이 소를 잡아먹자고 해도 같이 피난을 나갔다가 같이 돌아왔어요”

“우리 아버지는 좌익이나 우익에게 다 피해를 보지 않았어요. 배우고 활동한 사람들하고, 똑똑하고 머리좋은 사람들이나 그랬지요. 각 동네 여성동맹 위원장도 예쁘고 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이 뽑혔어요. 지금 부녀회장 보듯이요. 여기서도 끌어다가 강간했다는 소리도 들렸어요. 그 여성들도 다 죽고, 여자들이 우리 누이만 해도 당시에 16살 17살로 숙녀였어요. 그래서 할머니 행세하느라 하얀 옷 입고 피난가면서도 위장했어요”



우물에서 시신을 건져 올리는 모습. 함흥, 1950. 10. 10. 자료사진 | 지울 수 없는 이미지 (2007. 눈빛)

“초원지리에서는 중공군들이 닭을 잡아 가는데 아군이 새우젓 통 같은 포탄을 쏘아서 처마 끝에 불이 붙고, 기둥을 치고 눈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잠자는 집에 이불위에 떨어져 놀라기도 했어요. 나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 각 담당 선생님이 있어서 교육을 가르치느라 밤에 소집하기도 했어요. 초원지리, 거물대리, 오리산리 등 세 동네가 모이면 애국가 등 이복체제를 가르쳤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노래 등이 잊혀지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6.25 때는 기적적으로 우리 동네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행방불명 된 사람만 1명이 있었어요. 전쟁 이후에 오히려 군인 나가서 죽고, 전염병에 죽고 그랬습니다. 9.28때는 소를 뜯기러 가다가 인민군 잔여 병들이 양민을 붙잡아서 포를 지고 가게 한 것을 보고 놀라서 소를 몰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인민군 패잔병들이 면사무소를 습격했는데 면사무소 직원들이 서류를 콩밭에 숨기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는 창고에 여성연맹 위원장을 잡아 놓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총알치기도 하면서 놀았습니다. 터지지 않는 총알이 있었어요. 박격포 알을 뽑



아서 화약으로 불꽃놀이 등을 하면서 위험한 놀이지만 하고 놀았어요. 방공호에서 박격포를 분해하기도 했어요. 대장간집 아들이 분해해서 총을 만들어 사냥을 가자고 해서 꿩을 잡으러 가보니 꿩은 없고 산사태 난곳을 쓰니까 총알이 나갔어요. 플라타너스 나무도 뚫고 나가는 것도 봤어요”

“대부분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는 곳은 대곶면사무소 면창고라고, 까만 함석창고가 있었는데 그곳에 갇혀 있다가 송마 4리 소라리 뒷산에서 그랬다고 들었어요. 산 증인들이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은 까만 밤에 이루어졌으니깐요. 7촌 당숙도 부면장을 했는데 양곡에서 밤에 집에서 끌려 나가서 죽었습니다. 그 이전에 징용을 보냈다고 양심을 먹은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이리저리 일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한 사람들이구요. 완전한 사상자들은 다 넘어갔습니다. 속에는 응어리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도요”



17살 누이 강간당할까봐  
하얀 옷 입고 할머니 행세

마을 주민들은 전쟁기간 살아남았지만  
오히려 전쟁 이후 군인 나가서,  
전염병 발생해서 죽음 이어져

## 우리 백성은 이리저리 밀린거야

- 젊은 사람들은 다 의용군으로, 바닷빨갱이들은 자위대라며 경찰노릇

심 문 섭(76세)/대곶면 대능리

14살 6.25 경험, “살이 살을 먹고 쇠가 쇠를 먹는 시절”

“당시에 14살이었어요. 그해는 가물었는데 천둥치고 비오는 줄 알았어요. 모가 늦어지면서 저쪽은 비도 잘 오는가보다 했는데 조금 있더니 인민군이 들어오더라고요. 누산리 개흠에 줄을 이어서 줄줄이 들어왔어요. 면소재지 쪽에서 인민군이 가현산을 점령하면서 총 서너방 쏘고 점령한 거예요. 국방군은 다 도망갔어요”

“피난 갈 사이도 없었어요. 우리 백성은 이리 밀리면 이백성이고 저리 밀리면 저 백성이 된거야. 젊은 사람은 다 뽑아서 의용군 보냈잖아요. 바닷빨갱이들은 자위대라고 일종의 경찰 역할을 한 거예요”

“그 통에는 모든 것이 그 사람들 주장이었어요. 6.25 나던 해에 7월 8월에 많이 활동했어요. 살상행위는 별로 없었어요. 농지위원장이라 해서 조알갱이 수수알갱이를 세서 양식 빼앗아 갈려고 했고 일부는 걷어갔어요”

“사람을 살상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녜요. 여기서도 치안대가 있었어요. 치안대 완장하나면 권세가 컸어요. 완장하나 두르고 시키는 일을 했다고요. 치안대들이 공산당도 아니고 정말 빨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도 사적인 감정으로 핑계 삼아 검둥이 앞에서 손가락질 하면 죽는 거야. 말로만 빨갱이야”



“당시는 다 시키면 해야지 어쩔 수가 없던 시절이에요. 자기들 같으면 안하겠나? 그래서 이 부락 가까운 근방들에서 많은 희생들이 있었어요. 무법천지니까요. 이승만 박사가 죽이지 말라고 하기 전까진 많이 살상했어요. 죽은 것은 향동 개울 길목 지키고 있다가 개울이 다 피바다가 되었다고 들었어요. 여기서 거기가 3킬로미터 이상 되요”

“이 동네서는 의용군이 7-8명 정도 나갔는데 두 사람이 살아왔고 다른 이들은 소식을 몰라요. 치안대들이 들어와서는 손가락질하면 쏜 거예요. 치안대 활동했던 이들도 다 죽었어요. 남의 것들 공짜로 먹어 오래 살 줄 알았는데 일찍 죽더라고요. 바닥 빨갱이들의 재산 압류하고 다 끌어갔었어요. 위원장은 그 사람들이 감투 씌웠었던 거지 억지로요. 그런데 면소재지 창고에 가둬 폭행하니 자살했어요. 목매달아 죽은 사람도 있어요. 대곶초 뒤 면사무소에 있는 창고인데 공출 해다가 쌓던 창고예요. 내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도 희생당한 이들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피난 안 갔어요. 인민군이 들어왔을 때 살상행위도 못보았구요. 함포사격 있고 9.28때 치안대 생기고 인민군은 그냥 후퇴를 했어요. 치안대들이 극성을 떨고 2차 때 중공군이 밀고 들어오니 자위대가 그랬어요. 앉아있는 사람이 이리 저리 당한 거예요. 인민군이나 국방군이 죽인 것이 아녜요. 치안대 자위대들이 죽었어요. 당시에 부모와 형이 있었는데 형(심관섭)은 17살이었는데 의용군으로 뽑혀 나갔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이 부락에 의용군 나가서 소식이 없지만 자손들은 아직까지 이 부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린 탓에 의용군을 안 나간 거예요. 나이 때문에 덕을 봤지요. 이곳에는 집을 나간 날을 제삿날로 삼아요. 집을 나간 날로 자손들이 제사를 지냅니다. 부모님들은 자식 내보내고 속을 앓아 명도 짧아졌어요”

“당시에는 김씨네 일가가 바닥 빨갱이였는데 살림이 괜찮았고 좋았어요. 당시는 경제적으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소작이라도 얻으려면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머슴들은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조종을 당한 거지요. 김씨네는 그 당시 어무르 나루터(원모루)에서 배를 가지고 가서 인천가서 팔고오고 그랬어요. 창고업에 배도 갖고 있었어요. 심씨네 성씨도 바닥빨갱이가 더러 있었어요.

암암리에 서로 사귀며 조직 활동을 하였는데 잡혀갔다가 나오면 보도연맹에 가입하여 항상 뒤를 밟히고 살아야 했습니다”



의용군 형 여지껏 소식 없어  
집 나간 날로 자식들 제사

바닥빨갱이였던 김씨네, 어무르 나루  
터(원모루)에서 배 이용해 상거래

“우리 집안에 열촌이 있었는데 김서방네가 처가였어요. 그래서 물들어 여기서 활약하면서 도지사급으로 도에 가서 일을 보았는데 저쪽에서 밀고 들어오니까 월북했어요. 그때 살아난 사람들이 용한 겁니다. 이곳에서는 사방 20리가 안쪽으로 다른 성을 가진 사람이 없었던 심씨 촌입니다. 굿뱌이 면소 옆 동네 대곶면 치안대장 이하영이라고 명을 거슬렀다하면 죽었어요. 굿뱌이 뒤 으쓱한 산에서 죽었어요”

“살이 살을 먹고 쇠가 쇠를 먹는다고 그때의 세월이야 사람 사는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형이 의용군을 나갔다고 해서 이하영의 사위가 나도 빨갱이라고 봐서 엉덩이를 구똥발로 걷어차서 한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이하영의 사위가 방위소 대장을 했는데 이들은 지역사람을 모아서 훈련시키고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큰 소리 못 내고 살았습니다. 사람 사는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 빨갱이다 손가락질 당하면 죽는거야

- 당시 대곶면 참전용사 70명중 국가유공자는 10명뿐

권 영 세(80세)/대곶면 송마리

22세 전쟁 발발, 1차 징집 후 15일간 훈련 후 전쟁 투입

6.25당시 대명리 204번지에 살았다.

22세에 6.25가 터져 징병 1차로 대구 제2훈련소에서 15일간 훈련을 받고 전쟁터로 나갔다. 다른 이들은 일주일 받고 나갔다.

“그때의 지도를 보면 한심했어요. 당시 대구 낙동강을 끼고 싸웠어요. 당시 22살인데 의용군에 끌려가다가 장단에서 은인을 만나 열흘 동안 숨겨줘 살았어요. 국군이 진격해와 해방되어서 조강 바다를 건너 집에 왔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3개월 있다가 재 입대를 했는데 국군에 입대한 거예요. 금화지구 강원도 중부전선에서 무릎에 파편을 맞아 야전병원 서울 36군병원에서 1주일 있다가 밀양 7국군병원에서 5개월 병원치료를 받았어요. 파편이 50년 이상 몸에 있었던 거지. 50년 이상을 몸에 넣고 살다가 뺐어요. 연골을 우겨내고 인공관절을 했어. 그리고 2008년 국가유공자 7급 판정을 받았어요. 그때 군대생활은 18개월을 했어요. 그리고 명예제대를 했어요.

“대곶면에는 참전용사가 70명 있는데 국가유공자는 10명뿐이야. 내가 제대해와서 대곶면으로 인민군이 들어왔어요. 대곶면은 물 건너가고 격전지는 아니었어요. 중부전선에 들을 때는 김포는 쑥밭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돌아오니 멀쩡하

다 싶어”

1.4후퇴 때는 피난을 가다가 돌아왔다.

“누이동생 2명 남동생 1명과 안양근처 남양에까지 갔다가 중공군이 더 앞섰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때는 농사지으며 살았지. 전시에요 의무대여서 휴가 차 집에 와보니 농사짓고 있었어요. 22살에 입대해서 24살에 제대했어. 그리고 25세에 결혼했어요. 오늘날까지 살고 있는데 6.25 때문에 자손도 못보고 죽은 이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무슨 질서가 있었나. 치안하는 사람들, 치안대들에 의해 죽은 이들이 많아요. 저사람 빨갱이다 손가락질 당하면 죽었어요. 사적인 감정으로 죽인사람들도 있었지. 상극시대라 죽였어. 무극시대였으면 안 죽였지. 나의 맏형인 권영목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당시 25살인데 방앗간 하던 이영수(35-37살)의 사주를 받고 죽은 거야. 처음에는 치안대에 형이 면사무소로 잡혀 들어 갔는데 치안대장이 놓아줬어요”



친 맏형 빨갱이로 몰려 죽음당해  
본인은 의용군 거쳐 국군나가 부상

당시 강화는 ‘빨갱이면’ 이라 했지  
낙동강 전투 후 월북자 많아져

▶ 권영세 노인은 국군으로 전쟁터에 끌려다니며 파편을 무릎에 맞아 50년 세월 장애를 안고 살았다.



“대명리서 몇째 안가는 부자였는데, 농사가 서른 닷마지기였다구. 인민군하에 민청위원장을 형이 보았어요. 한 2개월여 봤어요. 인민군이 들어왔을 때 ‘인민공화국 만세’ 하며 환영일색이었어. 이○○도 따꿍총 소련제 메고 대명포구에서 치안대 했다고. 인민군쪽 일을 말아야. 근데 국군이 들어오니 ‘내가 애국자’ 라고 변해서 국군치안대로 행세하면서 설치고 다니고, 권영목을 사적인 감정으로 지목해서 면사무소에 가두었다가 면사무소 산 너머 골짜기에서 죽였어요. 대곶면 사람들 수십 명이었지”

“이 근방에서 아는 사람으로도 대명리에 친형 권영목, 송마리에 권오향, 권영표, 권오선, 김창봉, 신안리 차정식 등 대명리, 송마리, 신안리 사람들도 죽었다고. 대곶면 전체는 모르지. 1.4후퇴 전에 죽인거야. 그래서 1.4후퇴할 때 노인이라고 안 나간 사람들 늙은이들이 물어주었어요. 당시에는 제대로 모르니까 옷들 보고 찾아가 물었어요. 살얼음판이라 얼씬도 못했다고. 죽이면 끝난 거야. 손가락질 한 번이면 죽는 거야. 우리 형은 부모가 있는데서 끌려갔어요”

“우리 아버지는 권태명, 우리 어머니는 이흥녀씨야. 살아계셨으면 아버지는 113세, 어머니는 105세시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아들 총살당하고 한두 달 있다가 피난을 가졌어요. 그때까지 아들시체를 찾아오지 못했어요. 직접 거두지를 못하고 집안의 삼촌 육촌형님들이 마주잡이해서 물어준거야. 당시에 장조카가 있었어요. 다섯 살이었는데 권오운이라고. 그런데 25살에 유행성 출혈열로 죽고 말았어. 그래서 제사 지내다가 손이 끊어진 거예요. 지금 살아있으면 63세야. 우리 형은 당시에 똑똑했어. 그래서 일 시켜 놓고 나중에는 빨갱이라고 죽였어. 서로 맞충질한 일이 맞아요. 전쟁당시 부상당하면 이쪽저쪽에서 서로 죽인다구”

“1.4후퇴 때는 큰 난리였지. 길거리가 모두 차서 말이야. 대곶면에 인민군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22살이었는데 동네마다 회의가 생겼다고. 이북 선전하니카 180도 모두 이북성향으로 돌아왔어요”

“곡식 알갱이 세고, 조알갱이 세고, 현물세 권으려 했지. 6.25전부터 남로당이 봉화 불을 키고 연락하고 있다가 인민군들이 들어오면서 합세가 된 거야. 당시 강화는 빨갱이 군이라 빨갱이면이라 했어요. 낙동강 전투 후에 월북자가 많았어요.



후방으로 후송된 국군 부상병들. 자료사진 | 지울 수 없는 이미지 (2007. 눈빛)

신안리만해도 차경덕, 문현철, 차덕윤이가 북으로 갔고 송마리에는 심상현, 권영운(교사)이가 의용군 포로로 수용소에 있다가 이북으로 갔어요”

“포로교환을 할 때 7:1로 바꾸어 왔어요. 일곱 명을 보내야 1명을 데리고 왔어요. 아직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이북에 많아요. 그 당시 유엔군 락 소장이 잡혀 갔다가 신문에 보니까 돌아왔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그것이 7:1로 바꾸지 않았나 생각해요. 7:1이 뭐냐 이거지. 포로 교환시 돌아온 사람 많아요. 권영현, 민동천, 정운수, 권영범, 이영범(포로수용소에서 죽었음), 권영환이가 있었는데 권영환은 다시 국군 나가서 죽었어요”

권영세씨는 매우 선명하게 그때 일을 기억하고 이름도 정확하게 말했다. 6.25회고가난 노량진 전투가등의 가사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형은 빨갱이라고 죽고 본인은 의용군에서 다시 국군으로 전쟁터에 끌려 다니며 파편을 무릎에 맞아 50년 이상의 세월을 장애를 안고 살았다. 지금은 대명리124-2번지에 살고 있다.



## 마당에 모깃불 놓자 ‘신호한다’ 반동분자 취급

- 오리미 별판에 포가 떨어져 풀 뜯던 소 버리고 뛰었다

이 강 운(77세)/대곶면 오리산리

18살 명신고등공민학교 재학중 6.25 발발

18세 때 6.25를 만났다. 오니산리에 살았다.

“명신고등공민학교를 다니는데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들려서 뇌성을 한다고 그렸는데 하늘이 시커멓게 되었고, 그 다음날 나오니 6.25가 터졌다는 거였습니다. 통진 문수산 쪽에서 불이 번쩍번쩍 했다. 한쪽에서 소의 풀을 뜯기며 오니산리 산에서 구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들과 아군이 괜찮다고 했는데 그 밤에 까맣게 인민군이 오더라고요. 오리미 별판에 포가 떨어져서 소를 버리고 뛰었습니다”

“가물어서 발동기로 물을 통통 푸다가 전라도 무주 구천동까지 피난을 갔어요. 부모님들은 안가고 너라도 살아야 한다고 해서 킁킁한 밤에도 걷고, 얻어먹고 혼자서 갔습니다. 우당탕탕하니까 도망을 갔던 거예요. 가족들은 피난을 갔는지도 모르고요. 피난을 갔다가 올라와서 9.28 수복 때 벼가 누렇게 익어 가는데 여성동맹 위원장(면위원장)이 인민군 정치 시절이니까 마당에서 내가 모깃불을 놓았다고 신호를 한다고 반동분자라고 하면서 끌려가서 얻어 터졌습니다”

“수복 전에는 인천상륙작전 하는데 인천 고모네로 도망을 갔더니 총알이 고모네 집을 뚫고 들어오더라고요. 거기 있다가 군인들이 진격하니까 따라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9.28 수복이 되면서 경찰로 들어갔어요. 대곶지서에 근무했는

데 1.4후퇴를 시켰습니다. 1.4후퇴 때는 남기면 인민군이 먹는 다고 경찰이 전부 불 놓고 나갔습니다. 사람들 먼저 다 내보내고 불을 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1.4 후퇴시키고 대전을 가서 사표를 냈습니다. 공비 토벌하라고 해서 사표를 냈습니다”



한강 부근, 1951. 3. 4. 자료사진 | 지울 수 없는 이미지 (2007, 눈빛)



“우리 동네 경주이씨네 집안은 모두 율복한 집이 있었어요. 부락 인민위원장은 아버지, 면 여성위원장은 딸, 아들도 보도연맹 위원장이었는데 모두 북으로 갔어요. 그리고 오니산리 사람들은 크게 피해를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1.4후퇴 때도 도와주었어요. 그 사람들이 책임지니까 반동분자가 아니게 된 거지. 그리고 복귀할 때 같이 넘어간 겁니다”

### 1.4후퇴 ‘남기면 인민군이 먹는다’ 경찰이 전부 불질르고 가버려

“보도연맹위원장과 친했다”이유 죽여  
‘나쁜 짓 안했다’ 증언 지인 살리기도



“수복하고서 내가 경찰에 들어가니까 먼저 보도연맹 하던 사람들 중에 우리 동네사람 한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쁜 짓 안 했다고 담배한대 피워 물리며 살려줬어요. 김상규씨는 내가 살려줬어요. 그런데 이원상과 김경섭이는 벌써 죽였더라고요. 열성적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나는 한 명 살려 준거예요. 송마리에 구덩이가 있었대요. 거기서 죽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면 보도연맹위원장하고 다정했다고 죽였습니다. 그 사람이 운동을 했는지는 난 모릅니다. 같이 협조했을 거야. 나도 반동분자라고 내무서에 가서 두드려 맞았단니까요. 이○○ 작은 아버지네야. 그 여성동맹 위원장은 이○○예요. 진짜 빨갱이지”

“1.4후퇴해 가지고 올라와서 집에 있으니까 용산고등학교 다니던 이○○, 정○○이가 같이 보결로 청강을 하다가 김포농고 4회로 졸업하게 되었어요. 24살에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군대제대 하고는 농사를 지었어요. 5.16 혁명 시절부터 농협에 들어갔어요”

## 김포지역의 민간인 학살

- 분단 반세기의 침묵...6.25 민간인 학살 증언

오 ○ ○ 씨 외/미래신문 2004년 6월25일자 기사  
남편 도망갔다 이유로 임신 부녀자 살해하기도

한국전쟁 54돌을 맞아 김포에서도 민간인 학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미래신문이 6.25 세대를 취재한 결과 그 동안 소문으로 무성했던 김포에서의 민간인 학살이 사실로 드러났다. 증언자들에 따르면 학살자 수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증언자들에 따르면 대곶면 지역에서는 북한군의 김포 점령 당시 일을 봤던 사람들이나 좌익세력, 그리고 일부 무고한 시민도 희생됐다. 한 마을에서는 남편이 도망갔다는 이유로 임신 중인 부녀자도 희생됐다. 김포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의 참상을 알아본다.

### 한국전쟁과 김포

김포는 1950년 6월25일 새벽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피난길에 오를 시간적 여유도 없었겠지만 서울이나 인천지역에 비해 전투가 치열하지는 않았다.

당시 대곶면에 살았다는 A씨는 “피난을 가려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여기가 피난처인데 어디로 가느냐”며 “오히려 피난길에 오르는 것보다 여기가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오○○씨도 “일부는 피난을 가기도 했고 일부는 그냥 남아 있었다”며 자신의 가족들은 인천까지 피난을 갔다고 돌아왔다고 증언했다.



### 북한의 김포 점령과 청년들의 의용군 참전

한국전쟁이 터지고 북한군이 김포를 점령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의용군으로 전쟁에 투입됐다. 증언자 오00씨의 형도 3차례나 의용군에 참여했다가 뒤에 한국군에 정식 입대, 강원도에서 전사했다고 한다.

오씨는 “형님이 의용군에 참여했다가 도망오기도 하고 나중에는 논산까지 내려가서 입대를 했다”며 “꽤 여러명의 청년들이 논산까지 걸어가 한국군에 입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시 오씨의 형이 받은 군번은 ‘01’로 시작되는데 이것이 논산훈련소의 첫 군번이라고 한다.

### 남북의 번갈은 김포 점령

1950년 9월15일. 남한의 패색이 짙던 한국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인천상륙작전이 전개됐다. 새벽 6시를 기해 월미도에 상륙한 맥아더와 미 해병대는 삼시간에 인천을 수복하고, 전세를 몰아 북으로 진군한다. 김포도 수복된다.

그러나 김포 수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1951년 1월 중공군이 밀려오면서 1.4 후퇴의 긴 행렬이 시작된다. 김포가 중공군에게 점령됐다. 증언자들은 김포를 점령한 중공군은 닭과 돼지, 소등 가축을 많이 잡아갔다고 말한다.

당시 14세였던 A씨는 “중공군이 내려오면 가축을 모두 잡아간다가에 키우던 닭을 잡았는데 다음날 정말로 중공군이 와서 닭을 잡아갔다”며 “쇠스랑 모양의 농기구가 그려진 동전을 주기도 했고,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국전쟁 발발 당시 16세였던 또 다른 증언자 B씨는 피난길에 일행과 헤어져 중공군에게 잡혔다가 삭시(양춘면 학운3리) 부근에서 풀려났다고 한다.

1950년 6월25일 북한의 남침과 인천상륙작전, 중공군의 개입,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이르기까지 김포는 남북의 점령이 반복됐다.

### 북한군의 후퇴와 치안대의 좌익 색출

한국군이 김포를 수복하면서 치안대 활동이 시작된다. 당시 북한군에 협력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치안대는 군·경과 함께 좌익인사 및 북한군 동조자들을 색출한다.

이때부터 김포지역에서도 학살이 시작된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북한이 점령했을 때 동네에서 일을 봤던 사람들이다. 증언자들에 따르면 북한군이 점령하면서 마을마다 공산당의 일을 볼 사람을 뽑았다.

당시 16세였던 증언자 B씨는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공산당 일을 봤던 것으로 안다”며 “동네에서도 몇 사람이 일을 봤다”고 말한다. 또 다른 증언자는 “북한군이 들어오면서 동네에서 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세우기도 했고, 좌익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며 “꽤 여러 사람들이 좌익 활동을 한 마을도 있었다”고 한다.

### 송마리 소래골 학살터, 최소 수십명 학살

당시 대곶면사무소(현 진양빌라) 앞에 창고가 있었다. 대곶면에서 좌익 또는 공산당 일을 봤던 사람들은 이곳으로 끌려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소내골(맹근돌이골이라고도 한다.)이라 불리는 송마리 산244번지에서 최후를 맞았다.

증언자 B씨는 “동네 사람이 끌려가서 대곶면사무소 창고에 갇혔다가 그곳에서 죽어 시신을 수습해서 묻는 것을 봤다”며 “어떤 사람은 자수를 하면 살려준다고 해서 자수를 했는데 죽이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농사일을 마치고 술을 마시다가 끌려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오00씨는 “그 곳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토리를 따러 그 산에 갔다가 흙 속에서 드러난 시신을 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금은 공장이 들어서 흔적이 사라졌지만 한 증언자는 “공장을 짓기 위해 흙을 파내면서 유골이 나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학살은 대곶면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A씨는 “양촌면에서는 (현재)양곡성당 주변의 소나무 숲에서 학살이 이루어졌다”고 했다. 그가 사는 동네에는 남편이 끌려가서 밥을 해가지고 가다가 남편이 처형되는 모습을 목격한 아낙도 있다고 말했다.

학살의 대상도 좌익이나 공산당 동조자 뿐만은 아니었다. 증언자에 따르면 부친상을 치르던 상주도 잡혀가 희생되고, 좌익 활동을 했던 남편이 도망갔다는 이유로 임신한 부녀자가 희생되기도 했다.

증언자들은 대부분 동네마다 최소 1~2명씩 북한의 일을 봤던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의 대부분이 학살된 것으로 증언하고 있다. 또 증언자들은 치안대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좌익 활동을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으로 넘어갔다고 증언하고 있지만, 이들이 실제 북으로 갔는지 아니면 죽임을 당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 민족의 비극! 이제는 말할 때다

증언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대곶이나 양촌에서의 학살이 김포의 다른 지역에서도 벌어졌으리라는 추정된다. 그러나 “민간인의 억울한 죽음이 북한군보다는 한국



군(치안대 등)에 의해 더 많이 이루어졌다”는 소문만 동네마다 무성할 뿐, 민족상잔의 비극을 겪었던 6.25 세대에게 이 이야기는 여전히 금기사항이다.

반면 2001년 1월12일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미군의 노근리 양민학살’에 대한 유감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전쟁 당시 양민학살에 대한 진상규명의 여론이 높아졌다. 민족상잔 반세기의 침묵이 서서히 깨지고 있는 것이다.

동국대 사회학과 강정구 교수는 미군의 노근리 양민학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발표되면서 ‘한국전쟁과 양민학살’이란 글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과거청산’을 요구한 바 있다.

강 교수는 “한국전쟁에서의 양민학살에 대한 왜곡은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의 양민학살까지 은폐하는 자폐증상을 보이고 있다”며 “양민학살 진상규명이 과거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의 단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6.25 세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정확히 증언할 80~90세 노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쉽지 않았다.

전쟁의 상처를 반세기가 넘도록 가슴속에만 묻어두어야 했던 세대가 모두 떠나기 전에 김포에서 얼마나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는지 밝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데올로기 대립에서 비롯된 역사의 굴레를 푸는 것이 굴절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나아가 남과 북의 관계를 푸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신문 2004년 6월 25일)

## 아버지가 머슴에게 두들겨 맞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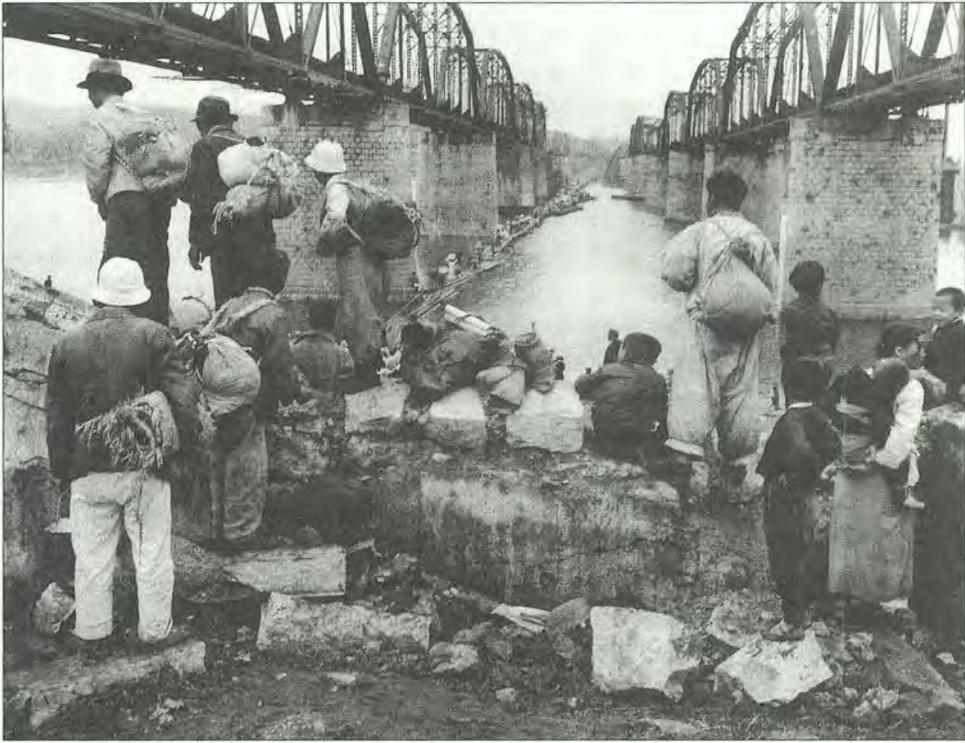
- 27일 한강철교 터지고 한강 백사장에 하얗게 몰려든 사람들

경 제 병(78세)/통진읍 서암리

중학 2학년, 다락방에 숨어 있다 인민군에 들켜 김포비행장 근로 동원

6.25때 중학교 5학년이었다. “6.26일 오후 학교에서 라디오로 방송을 하면 학교에 다시 나오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당시는 역마차와 전차가 교통수단이었고 집이 노랑진이었기 때문에 전차를 타고 집에 갔어요. 6월 27일 한강철교가 터지고 새벽 5시 30분에 흑석동 뒤에서 한강 백사장을 보니 사람들이 하얗게 몰려 있더라고요. 당시에 중지도(섬) 보트장이 있었어요. 조반 먹고 보트를 타고 한강을 건너는데 서로 건너려고 돈을 얼마 줄 테니 건너 달라 애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학생 두 명을 태우고 건넜어요”

“관악산에 피난 중에도 포가 떨어졌어요. 안양서 군포로 해서 집으로 걸어오는데 빈집이 있어서 감자도 캐먹고 걸었어요. 향동고개로 여학생 2명, 남학생 2명이 걸어 고개를 오르는데 인민군을 만나게 되었어요. 인민군이 조사를 한다고 가방을 조사하는데 서울서 학교를 다니다가 양촌 마송으로 가는 중이라고 설명하니 남학생은 2명 다 가라고 하고 여학생은 더 조사를 할 것이 있다며 호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학생은 중5(18살), 중3(16)인데 나하고 같이 있던 남학생이 자기 고모라고 울며 안 된다고 하자 남학생을 개머리판으로 엉덩이를 차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난리를 떠는데 빨간 줄이 있는 바지를 입은 인민군 장교가 왔어요. 왜 그러냐고 해서 보더니 ‘이 간나씨끼 왜 안 보내느냐?’ 며 인민군들에게



중공군의 춘계 대공세로 서울 시민들이 피란붓짐을 꾸려서 한강을 건너고 있다. 서울, 1951. 5. 29. 자료사진 | 지울 수 없는 이  
미지 (2007, 눈빛)

말을 하고 보내줘서 쓰르레미 고개에서 구래리까지 단숨에 뛰어왔어요”

“양곡에 오니 불바다가 되었더라구요. 집들이 불타고 있었어요. 걸어서 마송리까지 왔는데 그때가 29일 이었고요. 당시에는 양촌면 마송리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구장을 보았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머슴하던 이가 작대기에 빨건 기를 달고 아버지를 붙잡아 가서 이틀 동안 매를 맞았대요. 새벽 세시 반에 풀러나자마자 옷한 벌과 쌀 한말을 가지고 인천으로 도망을 가셨답니다. 집에 와보니 이미 아버지는 가고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다락방에 숨어있는데 인민군이 찾으러 와 일주일 만에 들켜서 근로동원 가라는 통에 강서구 가양동으로 갔어요. 양천초등학교 교실에 300-400명이 모여 있는데 저녁 7시에 김포비행장으로 근로동원 되었어요. 인민군 비행기가 10대정도가 와 있어서 도치카를 만드는 것인데 마대로 동그렇게 싸고 위장막을 씌우고 비행기를 가져다 놓았어요. 부역은 1주일 했어요 새



벽 4시 30분이면 철수해서 다시 양천국민학교로 가서 다시 자고 밤에만 동원되어서 작업을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 ‘구장 보았다’ 매질당해  
인민군 비행장 근로동원 두 차례 부역

양곡에 오니 ‘불바다’ 아버진 이미 피신

해병대가 인민위원장과 여성동맹위원장  
나무에 묶고 때린 후 총살

“당시에 인민군 장교에게 말을 걸어 본 적이 있어요. 자신이 조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북에는 동네마다 노적가리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나?’ 고 물었더니 그 조종사가 ‘상상에 맡기겠다’ 고 하며 웃더라고요. 당시에 인민군의 비행기가 미군기에 폭격을 맞아서 3대가 부서졌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이튿날 미군 콘세트가 폭격을 맞아서 불이 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간을 부역하고 마송으로 왔어요”

“그리고 5일 만에 곰달로 미군 잠수함이 들어온다고 호를 파라고 인민군 쪽에서 끌어내는 바람에 이틀을 자면서 이틀간 부역을 하고 다시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10일 후에 인민위원장이 인민군을 모집하니 양곡초등학교로 가라고 해서 그날 밤으로 외갓집이 있는 대곶 송마리로 도망을 갔습니다. 집에는 어린 동생들과 어머니만 있었고 9.28수복이 될 때까지 있다가 집으로 왔습니다”

“9월 21일 경 해병대가 마송리 동산에 와서 주둔하게 되었는데 그중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을 만나게 되어 물과 미숫가루를 주었습니다. 해병대가 인민위원장과 여성동맹위원장 2명을 나무에 묶고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양곡지서에



서 끌고가서 총살했습니다. 나는 외갓집이 외따른 곳에 있어서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해병대 동창을 따라서 문수산에까지 가게 되었는데 가는 도중 인민군 잔여부대에서 박격포를 다섯방을 쏘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문수산 정상에까지 갔다가 집으로 왔어요”

“그때는 지서가 양곡밖에 없었고 당시 마송리는 양촌면 관할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동창생들이 인민군으로 3명이 지원해서 갔는데 나중에 포로수용소에서 2명은 북으로 가고, 한명은 남으로 와서 해병대에 들어갔어요. 통진은 직접적인 학살은 없었어요. 바다 빨갱이가 좀 있었습니다. 바다 빨갱이들이 5명 정도를 인민군으로 끌고갔어요”

“1.4후퇴 전에는 압록강에서 후퇴를 할 때 다시 인민군이 오면 죽겠다 싶어서 25일 동안을 걸어서 부산 동래에까지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학도병을 모집한다 해서 국군을 지원했습니다. 1950년 12월 8일에 입대해서 56년 5월 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우연히 배제를 다닌 장교인 대위를 만나서 육군본부 인사국 본부에 근무했습니다. 1800명 중 나 하나가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1800명 동기생 중의 3분의 2가 전사했어요. 1주일 훈련받고 전방에 배치되었으니까요. 동기생들 전방에 간지 1달이 안되어 그렇게들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쟁을 할 적에 나는 전쟁은 안했습니다. 육군부관학교 1기생이 되었습니다”

“지역 빨갱이들이 한 동네에 몇 사람 있고 비교적 많이는 희생이 안되었습니다. 희생자는 바다빨갱이 6-7명 있었습니다. 마송은 과거에 매수리라고 했고요. 구연호라고 내무서원이 있었는데 총을 메고 고촌서 지키다 죽었고, 마송리에서만 6명이 있었습니다. 마송에서 월북한 사람은 10명이고 그 중에 이산가족과의 만남이 있을 때 만난 이도 있습니다. 성덕경씨가 외삼촌을 만났었습니다. 가현리에는 신씨네가 빨갱이가 많았습니다. 희생자가 10명 넘을 것입니다. 월북하고 그랬습니다. 9.28당시지요”

“양곡초등학교 24회 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결혼한 하상만이라는 5살 위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개성 송악산 전투에서 12용사로 전사했어요. 아들이 1명 있는데 고교 교사로 재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치안대 등쌀에 약먹고 자살하기도

- 백일이 채 못된 딸, 피란중 병으로 숨져

신 범 수(81세)/통진읍 가현리

당시 22세로 방위군 복무중, 다리 부상으로 명예제대, 국가유공자

“당시 22세로 방위군으로 보초를 서고 있다가 문수산 있는데서 포가 날아왔어요. 탱크로 쏜 것입니다. 양곡으로 포탄 때문에 도망갔다가 밤에 집에 들어갔어요. 인민군들은 인천으로 갔고 나는 집에 숨어 있다가 1차 국민병 영장을 받고 군인을 나갔어요. 숨어 있을 때는 마루 밑창에 파고 들어가 그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니다. 뚜껑 열고 밤이면 음식을 줬어요”

“인천으로 가는데 화물차에 120명씩 차속에 차곡차곡 신고 갔어요. 낮에는 이동하고 기차 안에서 나흘을 묵었어요. 밥은 없고 건빵을 주었는데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넓적다리를 다쳐서 명예제대를 했어요. 군인 나갔다가 흥천에서 부상당해 몇 개월 부상치료차 병원에 있다가 제대를 하고 집으로 왔어요. 51년도입니다”

“그때는 결혼하고 군대를 나갔었어요. 딸 하나가 있었는데 백일이 채 못 되어 피난을 업고 가다가 병이 나서 죽었어요. 묻었다는 이야기만 들었고 같이 피난을 나간 것이 아니라서 모르지요. 우리 때는 제대라는 것이 없었어요. 군대 나가면 죽으면 손톱, 발톱 보내는 것이 전부였어요. 예외로 5차로 명예제대를 했는데 10월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됩니다. 참전 유공자에서 국가유공자로 되는 거예요.



## 6.25참전유공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제대는 그 이후에도 9차까지만 있었어요. 전쟁에서는 보병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의복은 누비옷, 모자도 누비옷 강원도 산길에서 전쟁을 할 때 민가에서 밥을 지어서 부락 노인들이 지고 기어 올라와야 했어요. 그러면 밥이 다 얼어서 서로 맞붙어 싸우다 못 먹고, 이는 득실득실하고 그랬어요. 저녁에는 인민군이 낮에는 아군이 비행기 지원을 얻어서 점령하고 그랬어요“

피난 중 화물차에 120명 차곡 차곡  
저녁엔 인민군이, 낮에는 아군이 점령

주민들 치안대에 큰 고통 당해  
6.25참전 유공자 있어 대한민국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간판을 세워놨는데 국회에서는 뭐하나 몰라요 이제까지요. 2007년 보훈청에 가서 재신청하니 보훈병원에 가서 검사해라 하는데 58년 전 큰 상처였는데 이제는 별것 아닌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보훈청장 걸어서 재판하러해서 그만두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다쳐서 들어온 사람도 나 하나고요 1차로 나간 사람도 나 하나였습니다”

“우리 동네는 3,40호쯤 되었는데요. 그 때 일을 이야기하려면 골치가 아파요. 별별 일이 다 있었는데 개인감정 같은 거 다 있었어요. 의용군으로 끌려 나가서 소식 없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 두 명 있었어요. 부역자들이 일을 하면서 어렵게 산 사람들이었다가 반장을 하며 감정 있는 사람들을 막대하니까 그 시절 지나고 밀리니까 치안대들이 죽였어요. 죽은 사람들 가족들도 떠나고요. 뿔뿔이 갔어요. 지금은 공장만 있고 1리에서부터 5리까지 있었는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죽인 데는 없고 치안대들한테 고통을 당하니까 약 먹고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 거무래골 파보면 뼈가 착착 쌓였을 걸

- 면사무소 앞 벼 창고에서 매일 50명씩 끌고가 총살

강 성 구(68세)/월곶면 군하리

9살에 만난 6.25, 아버지는 전쟁 전부터 마을 청년단장

“당시에 9살이었고 아버지가 6.25전부터 민족청년단 단장을 맡았던 강동근씨입니다. 많이 보고, 많이 들었습니다. 당시는 무법천지여서 손가락질만 하면 죽었습니다. 그때의 참혹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군인을 지원해 나간사람 전승택이라고 향교 밑에 살았는데 총을 만지는 법을 아는 사람이라서 바다 빨갱이 잡아들이는데 전택룡, 김진태와 같이 거무래골(월곶초 뒤 골짜기)에서 총을 쏜 사람들입니다. 용강리, 개곡리, 동막에 빨갱이 들이 많았는데 그 동네사람들 애 어른 할 것 없이 다 잡아왔습니다”

“그렇게 잡아온 사람들은 면사무소 앞 공출하면 벼를 쌓아놓는 창고가 있었는데 그곳에 두고 매일 50명씩 갖다가 죽였습니다. 월곶면 창고에 들어가면 죽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하얗게 광목을 입은 사람들이 죽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아침밥을 못 먹었습니다. 아침 밥할 때 끌고 가고 밥을 해서 먹을라하면 따따따따 총소리가 쿵북듯이 들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밥을 먹나, 밥을 못 잡수셨어요. 그 창고에서 지서 뒤 월곶초등학교 마당으로 해서 능선 뒤로 끌고 갔습니다. 능선이 하나입니다. 골짜기가 두 개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골짜기에서 죽이고 가래로 덮었습니다. 가래질 하는 이들이 쫓아가서 덮었습니다”



“아버지가 청년단장이어서 그런 얘기를 우리 집에서 하는 것을 들었어요. 애 업은 사람 간난 아기까지도 죽었어요. 그리고 그 빨갱이들 살림을 양쪽에 비석이 있는 면사무소에서 길까지 죽 갖다 놓고 군하리 사람들이 나눠가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동적이라고 빨갱이 오야지가 있었는데 죽었다고 했는데 이북에서 ‘너희 내가 나가면 죽인다’고 했다고 해서 전쟁나면 우리는 빨리 도망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살벌한 데서도 살아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병란 아버지라고 이북 갔습니다. 도란(조강리)사람인데 그 자식들은 잘 살아요”

“우리 아버지가 살려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군하리 장터의 정두환씨의 큰 형 정문환이라고 흑설탕 배급하고 석유 배급하고 그랬는데 전진, 후퇴당시에 의용군을 나갔다가 후퇴를 하면서 자기 집에 숨었더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구장을 보다가 데려와서 지서 가서 살려주었는데 그만 병이 들었다고 했는데 양곡의원이 주사를 놔는데 죽었어요. 50살이 안되어서 죽었어요. 백재학씨도 찾는데 우리 아버지가 큰 항아리에 감추어서 살려줬어요. 아버지가 구장을 오래 봐서 빨갱이가 아니라고 말해서 어느 아주머니를 살려줘서 우리와 같이 산적도 있어요. 바느질을 잘 해서 재봉틀을 사줘서 우리 옷도 지어주고 그렇게 같이 살다가 사위를 얻어서 모셔 갔어요”

“사람들 많이 죽인 사람들이 말로가 좋지 않았어요. 눈이 빠지고, 다리 자르고 죽은 사람이 전승택이구요. 화장실에 가서 죽고, 피난 갔다가 다리가 부러지기도 했던 사람이 김진태이구요. 전택용이는 면목동에 사는데, 들은 지 10년 되는데 아들이 말썽을 부린다는 것이 아버지 때문에 죄 받는 것이 아닌가 해요. 시킨 것도 시킨 것이지만 나서는 사람,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막내 외삼촌인 김진태는 앞장섰어요”

“제일 많이 묻은 곳이 거무래골이에요. 월곶 초등학교 뒤편에 셀수도 없어요. 하루에 50명이라고 분명하게 들었어요. 20일간 이니 1천여 명 죽인 거예요. 지금도 파보면 시체위에 시체가 겹겹이 있을 거예요. 거무래골을 파보면 뼈가 착착 쌓였을 걸. 대나루는 자세히 몰라요. 동막은 눈먼 송서방, 송기배 아버지가 죽었어요. 산성 옛날 나루터인데 똑딱선 다니던 때 각성받이가 많은데서 많이 죽었어요. 일가 친척들이 많은 곳은 덜해요. 군하리 박치옥은 처남이 갯고개에서 죽었어

요. 광고개는 2차 징집(의용군) 거부한 사람들도 죽었어요”

“남산에 비행기(아군)가 떨어져 파편을 주어다 옛 사먹었는데 내 바로 위의 형이 가서 주어진 적이 있어요. 백기남씨의 이발소에 들창이 있었는데 파편 주어진 것을 인민군이 조사하면서 우리 형에게 총을 겨누는 적이 있어요. 강동근이 아들이 주어왔다고 그들이 말해서 조사하게 되었는데 그 일로 우리 형이 놀라서 화근이 되어 27살에 죽었어요.”



“인민군이나 바닥빨갱이들은 절대로 나쁜 짓이나 피해는 안줬어요. 피난을 군하리에서 오류정을 거쳐서 석정리, 양곡, 부평까지 가는데 왜 가느냐며 도로 들어가라고 인민군이 말했어요. 인민군은 닭을 하나 잡아먹어도 시빨건 돈을 줬어요. 우리 아버지는 구장을 보았다고 외양간 밑을 파고 숨어 있었는데 구학문과 수판을 할 줄 안다고 조이스 세려 불러 다니기도 했어요”

줄줄이 끌려가 죽임당하는 사람들  
따따따 총소리에 어머니는 밥도 못드셔

용강리, 개곡리, 동막 빨갱이 많았어  
피난 온 사람중 몸 파는 여자들도

“동적이라고 바닥 빨갱이의 여동생은 1.4후퇴를 갔다 와서 도망을 못 갔는데 발가벗기고 동네 우물물을 양동으로 끼얹고 말의 싱으로 때려 죽였어요. 임시 경찰(치안대)들이 그랬어요. 임시 경찰들은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무조건 다 갖다 죽였어요. 바닥 빨갱이들은 내무서가 있을 때 백씨네 집안 딸들이 다 가서 일했어요. 백씨네 가정집을 임시 사무실로 만들어 일했어요”



“우리 큰형이 17살에 첫 번째 인민군을 나가라고 했는데 친구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뛰어내려 무릎이 흘렁 까져서 전염병 몹쓸 병에 걸렸다고 말해서 모면했어요. 그 상처가 다 나았을 때는 옷나무로 온몸을 칠해서 3.4번 모면했어요. 올해 77세입니다”

“월곶에는 미군, 터키군, 영국군 다 있었어요. 월곶초에는 미군이 주둔했어요. 팔각정 같이 신사마당이 면사무소 뒤에 있었는데 텐트를 치고 토이기군(터키)이 있었는데 동네여자들이 몸 파는 사람도 있었고, 피난 온 여성중에도 몸 파는 여성들이 있었어요. 토이기군이 제일 난폭했어요. 밤에 자면 막 들어왔어요. 애우는 것을 제일 싫어해서 그들이 들어오면 애를 꼬집어 올려서 그냥 가게 하기도 했어요. 딸 2명과 엄마가 있는 집에 영국 군인이 건드려서 영국군이 땅을 파고 그 군인을 죽였어요. 그리고 묻었어요. 그들은 엄격했어요. 듣기로 영국 사람이었어요”

“후퇴를 할 때 학교 안에서 먹고 잤는데 죽으면 인민군들이 뒤에 묻었어요. 인민군들도 가면서 많이 죽었어요. 군하리 다리 밑 남촌교 다리 밑엔 아군과 인민군이 바닥이 안보일 정도로 죽어서 당시에 물이 내려오면서 모래가 밀려와 시체를 덮여졌었어요. 그 이후 10년이 넘어서 참계를 잡는다고 하는데 많이 잡았다고 하니 장마 통에 여기 '송장 있어 송장 치러 온다'며 긴 장대를 가지고 아는 이가 왔어요. 송장은 물에 있으니 안 썩는다며 '이놈들아 인민군 죽은 거지' 하면서 장대가 쭈석여서 시체를 떠내려 보내기도 했어요. 곰배 밑에서도 모래 팔아먹다가 시체가 나왔어요”

“내무서 앞에 인민군들한테 주먹밥을 해 주었어요. 오○○ 엄마하고 강○○ 엄마 하구요. 그중에 인민군 17살짜리를 어려서 잘 챙겨주었는데 그 애가 오더니 내일 모레 함포사격이 있을 테니 피하라고 귀뜸을 해 주었대요. 당시 강성구네 할아버지만 피하지 않았는데 인민군들이 동네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할아버지를 인질로 잡고 동네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했어요. 그 바람에 동네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날 밤 폭격으로 집이 무너져 사람들이 죽기도 했어요”

## 부자였던 처가, ‘반동’ 이라고 재산 몰수

- 인민위원장이었던 처남, 집에 왔다 치안대에 붙잡혀 처형

김 문 복(79세)/월곶면 조강리

전쟁 중 인민군에 끌려가던 중 도망 후 은둔

“인민군은 예성강을 지나서 바로 개성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국군보다 더 먼저 인민군이 차타고 먼저 들어왔고 국군 도망병들은 산으로 해서 걸어오는데 더 늦었어요. 황해도 배천은 40리가량 안에 3.8선이 있잖아요. 거기에 국군이 배치되어 있었던 거였거든요. 조강포에는 80호가 있었는데 조강포가 통진, 하성, 대곶, 양촌을 꾸려나간다고 할 정도로 성업 중이었어요. 월곶면 소재지보다 컸어요. 개성이 송도이고 서울이었어요. 이성계 시대예요”

“인천가면 직통코스이지요. 그렇게 조강포가 직통요지로 고기가 많이 나고 서해 바다 가깝고 그런 곳이에요. 서해바다에서 밀물이 오면 참이 된다고요. 배가 떴다가 물이 밀리면 마포까지 가는 거예요. 서해 바다의 모든 생선을 운반했는데 장사가 잘되었어요. 썰물에 마포에서 내려오는 거지요. 배가 대기하다가 서해바다로 가는 곳이기도 하구요. 이곳은 번성해서 집들이 많았고 우리 아버지도 상업을 하셔서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런 배경이 있었지요”

“인민군이 오밤중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총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보니 인민군들이고, 인민군하고 같이 피난 온 사람들이 인민군이 국군보다 먼저 왔다고 말해줬어요. 국군들은 뒤쳐졌어요. 그리고 바로 서울이 점령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도망간 거요. 한강다리 티뜨려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이곳은 인민군 주력부대가 통과하고 잔여 병들만 몰아가 싸움터가 못되었던 곳  
이에요. 이곳 사는 사람들은 도망간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나는 처가가  
서암리라서 갔더니 인민군들이 다 갔다고 해서 집으로 도로 왔어요. 인민군들이  
몰고 가니 군인들도 모두 떠나고 아무도 없었어요. 소련군도 오고, 중공군도 온  
것은 1.4후퇴 때야. 나는 당시에 대구에서 훈련받고 며칠인가 27일 만에 전방으  
로 갔어요. 강원도 화천에 배치되어 있었고, 진치고 인민군하고 중공군하고 전면  
에서 싸웠어요. 싸우다가 8사단이 망해서 인  
민군에게 포위되고 옥동리에서 붙잡혀져 중  
공군에게 넘겨졌어요. 그들이 끌고 가는데  
밤중에 도망했어요”

예전 조강은 월곶면보다 크게 성업  
인민군 주력부대 통과하고 잔여병들만  
남아 싸움터도 못됐던 곳

폭격 있었으나 싸움은 없던 특이한 곳  
월곶초등학교 뒤 골짜기서 집단 처형



“밤에 행군을 했는데 개성까지 가면 집이  
어딘지 아니까 개성을 찾아 다른 군인 한 명  
과 임한면에 오니까 인민군이 잔뜩 배치되어 있어 상도리에 가서 숨겨 달라 부탁  
했어요. 주인이 서른여섯, 형은 50세 가까이 되었는데 우리 집의 내막을 잘 안다  
며 숨겨줬어요. 산소처럼 호를 파서 숨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콩보리밥, 밀밥을  
먹고 그랬는데 어려운 집에서 2명을 먹여줬어요. 대소변도 받아 내줬고요. 6.25  
때 불러오려고 했는데 못하고 헤어지고 말았어요. 이제 옮겨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에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했지요. 그들도 걸리면 총살감이잖아요. 그리고 3일 지나니까 인민군이 철수를 해서 더듬더듬 건너와 악을 쓰니 내 목소리가 크고 똑똑하니 다 들려서 뗏목을 사촌이 가지고와 태우고 해병대 5대대로 갔어요. 그리고 낙오자 수용소로 가서 며칠 있었어요. 그리고 각종 간부후보생에 합격해서 대위가 될까 말까 한 시기에 HID부대 선임하사에게 제대하겠다고 말해 제대 후 집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그 중간에 청년대를 구성해서 13명이 활동했어요. 월곶면은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월곶초등학교 뒤 골짜기에서 처형들 하고, 농협창고뒤 골짜기 밤나무골에서 죽이고 그랬어요. 바닥 빨갱이들은 인민군 군대 나가는 것, 의용군 나가는 것을 도와주고, 자기네들 말을 안 들으면 일도 더 시키고 그랬어요. 하성면은 많이 죽었다고 이야기 들었고, 서로 많이 죽었다고 들었는데 월곶은 용강리서 몇 명 나가고 귀전리, 용정리 그쪽과 성동리에서도 죽고 그랬다고 들었어요. 이 마을에서는 총소리 몇 번이지 후퇴하면서 인민군들이 소 끌어가고 이불이니 뭐니 좋은 살림 가지고 갔어요”

“우리 처갓집이 부자였는데 양자를 들였어요. 인민군들이 들어오니 부자들을 지주라고, 반동이라고 몰수를 시켰어요. 안 들어오면 재산을 몰수하겠다고 그래서 부역을 하고 인민위원장을 했어요. 우리 처남이요. 그리고 나서 6.25때 이북으로 갔다가 우리 집으로 왔어요. 그렇게 우리 집에 있다가 붙잡혀서 총살당했어요. 군인이 아니고 순경들과 치안대에 붙잡혀 죽었어요. 나도 호적상 유지라고 적혀 있어서 체크를 해 놓았더라요. 급할 때 잡아 뽑으려고 해 봤더라요”

“1.4후퇴 당시에 유엔군이 들어왔을 때 우리 집을 남겨놓고 다 소개를 해서 다들 천막치고 살았어요. 이곳은 폭격은 있었지만 싸움은 없었어요. 박격포를 거기서 쏘면 80미리가 여기까지 밖에 못와요. 60미리는 강가에 떨어졌어요. 치안대들이 다 점령해서 다른 지역보다 빨리 복귀가 되었어요. 치안대는 민간인으로 경찰소속이었어요. 순경이 모자라니까 차출해서 일할 만한 사람들이 경찰과 합세해서 일했어요”



## 사상이 다 모아, 어느 날 빨갱이 되고 노랭이도 되는거지

- 인민구호소에서 잠시 피해 있다가 빨갱이로 몰려 고문

박 세 원(80세)/월곶면 고양리

23세 청년, 천식으로 쇠약해 국민병 면제

박세원씨는 6.25당시 23세의 청년이었다. 결혼을 해서 고양리 9번지에 살고 있었다. 아주 우중충한 날씨였다고 기억한다.

“비가 오려고 꾸릉꾸릉 하는 줄 알고 노성인줄 알았는데 그것이 포성소리였어. 이쪽에서는 대항도 못해보고 당했어. 당시는 무방비 상태였거든. 아마 임종연일거야. 인민군인줄 몰라도 국방색에 얼룩얼룩한 옷 입고 모자를 쓴 사람을 보았어”

“그래서 피난을 갔어요. 인천 못 미쳐 연일까지 갔다가 도로 왔어요. 이미 인천에서 따꿍따꿍 소리가 났으니 인천까지 벌써 인민군이 들이닥친 거예요. 6월 28일, 29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내는 임신 중이어서 더 가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피난을 가다가 산하고 산 사이에서 하룻밤을 잤고, 양곡에서도 하룻밤을 잤어요. 그러니까 4-5일 지나 그냥 집으로 돌아 온 거예요”

6.25 당시 박세원씨가 기억하는 동네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기억한다.

“그때까지는 참 잘했어요. 바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방공호 파러 나오라고 했지만 마누라가 만삭이어서 의사도 없는 상황이고 봐줬어요. 당시 양곡에는 박성원의원이 개원하고 있었는데 사촌형님이었어요. 해방이후 일본군국주의 의과대학을 다니다 졸업시 숙모가 자궁암이라 일본에서 공부를 중지하고 서울대 연구2년

을 졸업하고 강화에서 개원했다가 다시 양곡으로 와서 개원했어요. 당시에 방공호를 파라고 했어도 나는 실질적으로 구경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형님이 개원한 양곡으로 갔고 방공호 파는 일에 동원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1.4후퇴하고 다시 후퇴를 하면서 제2국민병에 나갔어요. 너무 추울 때라 눈도 오고 그 난리 통에 지금까지 산 것도 행복했다고 감사하고 있어요. 천식이 나를 살려준 거예요. 어려서부터 약했거든요. 1.4후퇴 때 양촌면 흥신리에서 수리조합 있는 사이에서 뽕 소리가 나니까 양곡사람들 다 거리로 쏠아져 나와 피난 가느라 바빴어요. 1차 국민병으로 우리 동네에서는 임종원(상이군인 2급)이가 몸뚱이 절래 절래 흔들며 오다 날 붙잡고 하는 말이 박종원(상이군인) 빼고 다 죽었다고 하고 울었어요. 나는 천식 때문에 ‘무중’, ‘병중’ 하다가 돌아왔어요. 두명 빼고는 다 죽었어요. 2차 3차 4차 거의 다 죽었어요. 나는 20대때 너무 체수가 작아 튼튼해 보이지 않아 살았어요. 끌려 나갔으면 죽죠. 젊어서 끌려가 죽은 사람 너무 많아요”

9.28 수복때 인민군이 주둔해 있다가 함포사격 소리가 나니까 다 도망가던 장면을 기억하고 있다.

“해가 어스레지면서 김포면사무소에서 총소리가 나니까 자다가 총알이 뛰다가 포소리가 나면서 불길이 치솟아 오르자 다들 논으로 독으로 도망갔어요. 김포초등학교 아래 골목길이 있는데 그 당시에 우체국에 친구가 한사람 다니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언제 함포사격이 있다고 가르쳐줘서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인민구호소(보건소) 소장을 잘 알아서 소장한테 은신하려고 했고 연락 일을 봐주고 있었어요”

“9.28수복은 좋아하면서도 인민군이 또 올까봐 불안하여 인천으로 빠져나갔어요. 박의사도 같이 인천 갔어요. 우리 어머니에게 당시 “아들 어디 갔냐?”고 인민군들이 물었다는데 그때 안 나갔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아마 빨갱이 인민군들 가만두지 않았지요. 우리 형님은 다리가 아파서 산에 숨어있었는데 ‘문원아, 문원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내가 끌려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집안 대문으로 들어오니 인민군들이 셋문으로 나가더래요. 뒤따라가는데 그들이 뒤를 안돌아 보더래요. 그때 동네에 좌익 할머니가 있었는데 ‘어디라고 쫓아가느냐’고 말려 살렸어



요. 바다빨갱이들한테 미움을 받았거든요. 형님이 청년단을 해서 그래요”

“우리 형님은 장사였어. 이길 놈이 없었거든. 월곶면의 제일부자에 산 3만평에 돈 잘 쓰고 청년단 간부 활동 했다고 고문당해 발뒤꿈치가 닳아 없어지도록 인민군 내무서에서 고문당했어. 말도 말아요. 그 이후 고향 돌아오니 좌익빨갱이들 많이 잡혀가 죽었더라고요. 그 빨갱이 할머니는 얼마 못살고 돌아갔어요. 빨갱이 할머니아들이 고문을 당해 팔 부러진 것을 널빤지 대고 붙들어 매 고쳐주었어요. 정말 난리들 크게 겪고 신세도 지고 보답도 못하고 그 친구하나 구해주었네요. 모두 얽히고 설켰던 시절입니다”

청년단 활동한 형, 좌·우익 몰려 고문  
거지신세 헛 옷 행세에 간첩 취급 받아

좌·우익 나누는 것은 한심한 이야기  
김포 진짜 빨갱이와 난 진짜 친구였어



9.28수복을 하면서 박세원씨는 임시경찰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강현길이 하고 나하고 임시경찰 들어가 이북구경이나 하자고 하면서 가보니 애무완(M1)총을 보니 정나미가 떨어져 그냥 집으로 갈려고 나오다 붙들렸어요. 9.28 수복때 인민구호소에 며칠 있었다고 빨갱이라고 지목당한 거예요. 인민군 정치시에 인민구호소에 은신했는데 그것이 탈이 났어요”

“48국도에 미국비행기가 뜨고 비행기 사격후 발뒤꿈치 어깨에 총맞고 옆구리로 총알 빠져나간 것 인민구호소의 의사와 치료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어떤

이가 날 잡아다 숙직실에서 뺐어요. 몇 대 맞으니 아픈 줄도 모르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작대기에 꿰어서 일으켜 세워져 걷는데 박○○ 형님이 다가와 ‘이놈들아 똑똑히 보고 해라’고 풀어주게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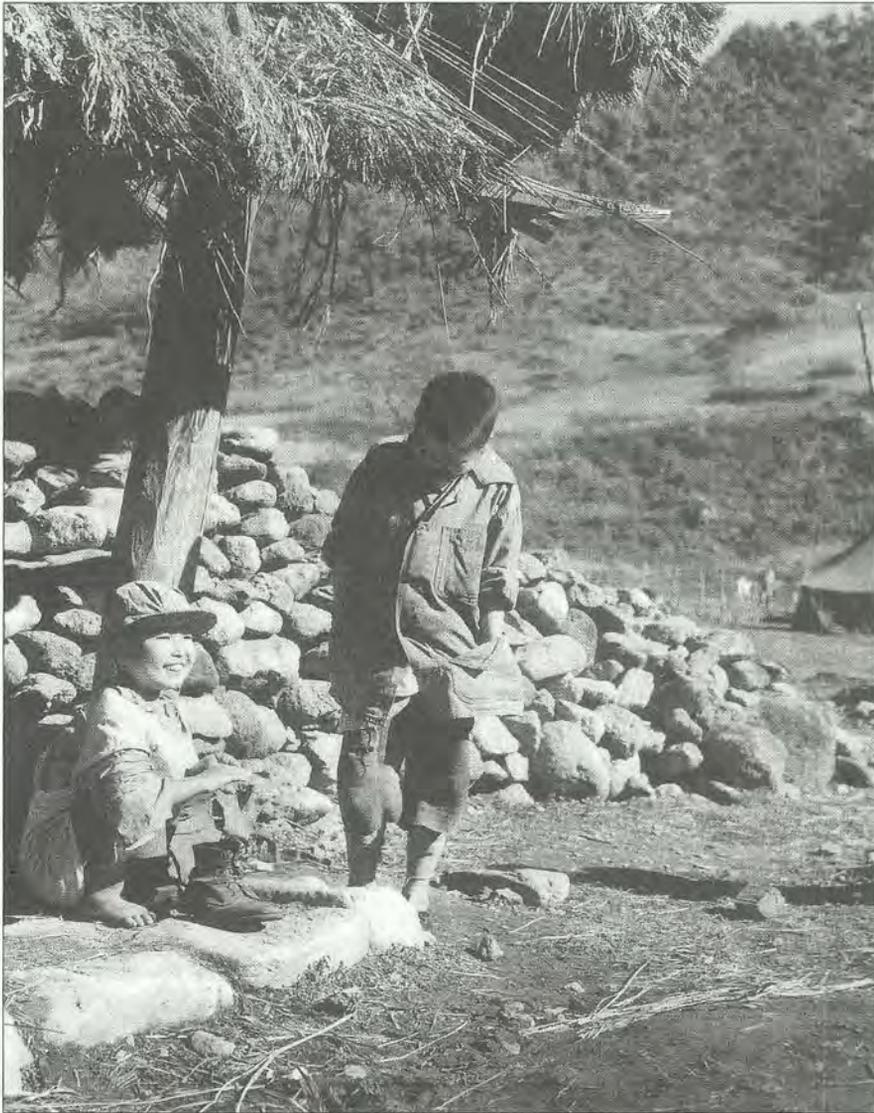
“박○○ 형님 아니면 나 죽었어요. 당시 양곡에 있을 때 박○○ 형님네 아내와 내 아내가 의형제를 맺었던 사이라 잘 알고도 남는 사이였어요. 그 형수님이 나를 데려다 사흘 나흘 죽 끓여 먹어주고 박성원의원 형님네서도 한 달 넘겨 앓았어요”

“박○○ 형님이 진짜 빨갱이들 고문하는 것을 보여줘서 봤더니 가족으로 치면 몸통이에 척 감기더라고요. 몸뎡이로 가슴을 쥐어 찌르는 모습도 봤어요. 그때 경찰서 뒷마당에 방공호에 사람이 바글바글 끓었어. 그 사람들이 어찌 되었을까 짐작이 가지요?”

“경찰은 다 피난가고 임시치안대 시절은 말도 말아요. 박○○ 그 양반이 당시 사찰계 계장이었어. 사찰계 계장이면 왕이야. 그 양반 들어와 많이 부드러워졌어. 나도 그 형님 아니면 죽었을 거야. 다시는 이런 것 없어야지, 같은 동족끼리 죽이고 살리고 그때는 좌익 우익 양숙이지, 돌이켜보면, 좌익 할머니는 참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사상이 다 무어나고. 어느 날 빨갱이도 되고 노랭이도 되기도 하고 말이야”

“그 좌익 할머니 신세 내가 항상 지고 산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 당시 좌익 할머니가 형님을 큰 독에 넣고 뚜껑 덮어놓고 보호해줘 살았던 거야. 형님이 인천으로 동생 찾으러 왔는데 거지신세 헌옷에 비쩍 말라 국군에게 간첩 아니냐며 매 맞았으니 기가 막혀 형제가 붙잡고 울었어요. 먹을 것도 없었고 10월 말경쯤 다시 고양리에 돌아오니 잡혀갈 사람 다 잡혀가고 빠져나갈 사람 다 빠져 나갔더라고”

“좌우익으로 나누는 것 다 한심한 이야기야 그때 내 친구가 조덕연이라고 있었어. 월곶초등학교 28회 동창생인데 19세 때 사상이 그래서 마르크스 책을 읽어줬어요. 난 노랭이, 그 아인 빨갱이었지. 그 친구가 서울 남의 집 부엌에서 구덩이 파고 숨어있다가 결혼때 왔어. 6.25나자 뛰어내려와 민청위원장 했어요. 우리 가족, 우리 형 살려줬어. 고문은 고문이고 살릴 것은 살려줬어요”



한 시골 초가집 양자바른 처마밑에서 두 소년이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 아이들에게 좌, 우는 아무 의미도 없다. 친구일 뿐이다, 1951. 11. 18. 자료사진 | 지울 수 없는 이미지 (2007, 눈빛)

“이 나이 먹고 어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사변이란 게 그렇게 무서운 거야 김포 진짜 빨갱이와 난 진짜 친구였어. 그 친구 배짱 좋고 똑똑했어. 귀전리 사람이야 난 빨갱이 덕도 많이 보고 이 나이 되었어. 우리 동창생 62명중 이제는 5명 만나요. 한명은 잘 안 나와. 4명은 부부동반으로 만나. 조덕연이는 북으로 가서 체신부에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정말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해.”

## 보도연맹과 치안대의 살육전이었어

– 박격포가 무서워 달밤에 모를 심어

신 호 철(76세)/월곶면 조강리

왜정시대 구장이었던 아버지, 면사무소 가마창고에 갇혀 고문

“김포군 월곶면 조강리에 조강포가 있었습니다. 조강리는 85호 정도가 살 정도로 컸습니다. 해병대 철책을 쳐 놓은 곳이 원래 조강터이고, 집터 자리가 있던 곳입니다. 조강포에는 나루터가 있어서 상조강 하조강으로 나룻배가 다녔어요. 객산이라고 월곶에서 한강호가 있어서 마포로 다녔어요. 푹푹이가 손님과 물건을 싣고 다녔어요. 선업을 하는 이들이 많았어요. 소형 선업자가 배로 짐을 실어 나르기도 했어요. 선업을 하는 이들이 50여 가구 농사를 짓는 이들이 35가구 있었어요”

“6.25일 아침에 개성 송악산에서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3.8선에서 일어났잖아요. 총성소리가 요란했어요. 나루터에 배가 많았는데 우리 동네 강가에 나가서 총성 나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개풍군 임한면 상조강에 피난민이 하얗게 쏟아져 나오며 배 불러서 피난민 실어 나르기도 했어요. 6.26일 밤새 총소리가 나고 박격포탄이 날아왔어요. 6월 27일 아침이 되니 인민군이 벌써 개풍군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많이 왔어요. 여름이니까 나무로 위장하고 건너와 가지고 동네가 아닌 애기봉으로 올라가 집결했어요. 그런데 국군은 26일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늦게 왔어요. 그래서 저수지를 경계로 인민군과 국군이 대치가 되었어요”

“26일 저녁교전이 굉장했어요. 나는 조강포에서 할머니들과 전투하는 것을 봤어



요. 부락민들은 피난을 갔고 나는 동네 할머니들과 있었어요. 나이가 어려서 위험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었지요. 국군이 전투력이 딸렸어요. 능골에서 많이 죽었어요. 사라동 뒷산 이에요. 인민군들 있는 곳은 태봉산이었구요. 그래서 27일 새벽에 국군이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인민군들은 용강리까지 배치되어 있었어요. 국군은 계속 후퇴를 하고 인민군의 박격포는 상조강에서 쏘면 대곶면까지 날아가고 수안산까지 갔어요. 엄청나게 포를 쏘았어요. 국군은 전멸하다시피 했는데 당시에 파주는 파주대로 밀고 들어와서 한강다리 끊기게 되고 서울함락이 금방 되었잖아요”

“그래서 보도연맹 남로당 세상의 정치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아버지가 왜정시대부터 구장을 봤어요. 해방 후는 이장을 보고 대한민족청년단장을 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월곶면사무소 큰 가마창고에 갇히게 되었지요. 그때는 반장을 본 사람까지 잡아갔어요. 아버지 식사를 하루 세 번씩 보름동안 날랐어요. 제일 반동분자 악질이라고 김포내무서로 7-8명은 끌고 가는데 다 총살감이라고 해서 죽이는 것인데 아버지가 당장 죽어도 끝까지 그런 일 없다고 했고 6.25나자 날뛰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고문 받고 매 맞고 살아서 나왔어요”

“인천 상륙작전하고 해병대 5대대가 들어와 부식같은거 동네에서 해대느라고 힘들었어요. 여인들이 밥을 해주면 동네사람들이 세끼를 지게로 저 나르느라 고통이 많았어요. 3년을 해병대들이랑 산거예요. 해병대들이 낮에는 건너가 진을 치고 다시 개성 남산리까지 갔다가 밤에는 월암까지 도하작전을 했어요. 휴전당시에는 인민군을 당하지 못해 건너왔어요. 인민군이 도치카를 봤는데 해병대가 건너가면 썩썩이가 교전할 때 마구 총질을 해댔어요. 해병대가 건너가면 인민군이 후퇴를 하고 총탄이 조강포까지 날아왔어요. 밤에 교전을 하면 동네사람이 맞는 경우도 있었어요. 여기서 건너가면 내려췌어요. 인민군의 화력이 세면 해병대의 희생이 많았어요”

“우리는 농사를 짓는데 논에서 일을 하면 박격포를 쏘 소도 죽고 사람도 파편을 맞고 그랬어요. 휴전 전이었고 소개를 나갈 때는 휴전 후였습니다. 다시 들어가 살게 될 줄 알았지요. 개곡리 마라니 개곡1리 도라니까지 그리고 조강포까지 소개 명령이 나서 친척집에서 겨울을 냈어요. 그 겨울에 85호나 되는 집들이 다 헐리고 막대기 서까래들은 논바닥으로 던져졌어요. 집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민통선 남방 한계선까지는 들어와 살아라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움을 파고 거지 생활을 했어요. 정부에서 천막을 주어서 천막촌(하얀 천막)에서 3년을 사니까 다 남아버리더라고요. 그 이후 미팔군에서 나무를 주어 작은 초가집을 짓고 살았어요. 이장을 봤는데요. 소개 내보내고도 막쫘었어요. 해병대한테 가진 거 다 당하고 피난민이나 한가지였어요”

전쟁 전 마을에 85가구 살아  
50가구는 어업, 35가구는 농사

휴전 후 동네사람들 움 파고 거지생활

인민군 정치때 민폐 없었어, 17살짜리 애도 있었지만 농작물 하나도 안 건드려



“인민군 정치시에는, 피난 갔다 돌아오니 현물조사 했어요. 1.4후퇴 때는 중공군 밀고 내려왔고 인민군들은 여기 주민들에게 민폐가 없었어요. 끌어다 죽인 거 없어요. 빨갱이 족속들이 끌어다 죽이고 그랬어요. 국군들이 평양까지 올라갔을 때 치안대가 사람 많이 죽였어요. 인민군들은 안 그랬어요. 치안대와 보도연맹끼리 서로 죽인 겁니다. 인민군이 여기 조강포에 왔을 때 17살 먹은 애도 있었어요. 개머리판이 질질 끌리는 애도 봤어요. 오이, 호박 같은 농작물도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인민군을 보고 ‘배고프면 따 먹으라’고 해도 ‘김일성 장군이 절대 그러지 말라고 했다’며 건드리지 않았어요”

“여기도 월곶초등학교 뒤에 사태구덩이가 있었어요. 그곳에 치안대들이 빨갱이를 붙잡으면 죽였어요. 갯 고개 넘어 웅정리 정신병원 외고 있는 데의 사태구덩이가 있는 데서 죄 죽였어요. 재네(보도연맹)가 죽인 사람도 많지만 치안대가 많이 죽였어요”



전후 농촌풍경. 농사를 짓기 위해 수로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있는 농부들. 전쟁전의 모습을 되찾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김포에는 여전히 전쟁 전의 삶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마을이 많다. 대표적인 예가 조강이다. 어업활동으로 면소 재지보다 더욱 번성했었던 동네지만 군이 주둔하면서 옛 삶의 기억이 점점 흐려지고 있다. 신호철 노인은 조강포에서 잡은 생선과 참새우, 송어, 농어, 장어 따위의 그리운 맛을 기억에서 꺼내며 “얼른 통일이 돼서 조강포로 들어가 고기잡고 집을 짓고 살고 싶다”고 했다. 판문점 부근, 1952. 3. 25. 자료사진 | 지울 수 없는 이미지 (2007, 눈빛)

“조강포 사람들은 그때 소개 나오면서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살아요. 선업하는 이들이 50가구 있었는데 강이 막히니 인천, 강화로 가서 생활하고 농토 있는 사람과 연백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여기서 살아왔어요. 피난가지 않은 사람은 현재 28집이고 선업한 사람은 다 나갔어요. 민통선 안의 집 소유권은 별로 없이 소작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농사를 지으면 비로 나라에 상환을 해서 상환 증서를 받은 바, 그 이후의 자신의 땅이 되고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어요. 당시에 오막살이를 짓고 살 때에 박정희대통령이 불하해 줘라 해서 김포시 산림계에서 불하를 받았어요. 농사를 짓는 평수는 6만평 정도입니다”

“6.25당시에 생각이 나는 것은 눈에서 일하다 박격포가 날아와 눈에 바짝 얼드려야 했던 기억들입니다. 박격포가 무서워서 달밤에 모를 냈는데 아침에 나가보면 형편이 없었어요. 간격도 틀리고요. 왜 박격포를 쏘면 꼭 조강포로 쏘어요. 다른 곳에서는 피해를 덜 봤어요. 바람은 얼른 수복이 되어서 조강포로 들어가서 고기잡던 사람은 고기 잡고, 집을 짓고 살고 싶어요. 조강포의 생선, 새우도 참새우는 맛있습시다. 송어, 농어 가을에 장어는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 인민군보다 치안대 행악 더 심했다

- 부역자 가족들까지 억울한 희생, 그 아들들까지 율화병으로 죽기도

정 해 운(71세)/월곶면 용강리

국민학교 6학년, 9.28 당시 문수산까지 함포사격 목격

“비가 안와서 말뚝모를 하는데 6월 25일 오후 2시쯤 천둥소리가 나서 25일은 천둥을 하는 줄만 알았는데 그 다음날 26일 새벽에야 전쟁이 난 줄로 알았어요. 민병대가 있어서 강녕포 나루터에 가서 목총을 가지고 경비를 했습니다. 12시가 못되어 인민군이 도강을 하고 넘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26일 저녁부터 문수산에서 전쟁이 나고 전투가 벌어졌어요. 아군은 11연대 백골부대가 있었고, 27일 새벽 동이 뜨기 전 까지 전쟁을 했어요. 일명 문수산 작전입니다. 문수산 북쪽에는 인민군이 있고 능선을 중심으로 남서쪽에 국방군이 있었고요. 그 전투에서 12시간 이상의 전투가 벌어졌어요. 인민군은 70~8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고 26일부터 27일 새벽까지 작전이 치열했습니다. 아군과 인민군이 서로 수세였지만 아군이 먼저 철수하기 시작해서 후퇴를 한 것이 27일입니다”

“인민군이 우마차로 해서 강녕포로 1개 연대 사단병력에 준하는 병력이 군수물자를 날랐습니다. 이들이 모두 도강을 하면서 아군이 후퇴를 하고 서울을 28일 점령하게 된 겁니다. 진격을 하면서는 별로 사람이 다치지 않았습니다. 인민군이 진격을 해 나갈 때 사잇갓에서 별자리를 만났는데 사단장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이가 ‘이승만이 누구냐?’ 고 물어서 철도 없이 심지를 바꾸지 않고 ‘이승만은 대통령이고 최고’ 라고 대답하니 ‘이승만이 최고가 아니다 인민군이 최고이고 김일성



장군이 최고이다. 남한을 해방시키러 왔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인민군은 무섭지 않았어요. 쳐들어왔을 때는 점잖았어요. 1.4후퇴때 무서웠어요”

“바닥빨갱이는 남로당원들이었는데 이미 인민군보다 먼저 문수산에 올라서 월곳민이 문수산에 피난을 가니 마을로 내려가라고 말했어요. 그 당시 바닥빨갱이도 해코지 안했어요. 1.4후퇴 하고 북진해갈 무렵에도 인민군은 소수만 있고 행악이 없었어요. 1.4후퇴때 지역빨갱이는 여기 사람들이라 혈육이고, 친지고, 이웃사람이니까 정명준, 정해진, 윤자빈 등 4명은 이북으로 갔어요. 정가 촌이니까요, 그리고 윤씨들이지 그러니 어찌지 않았어요. 치안대가 수복되면서 형성되고 부역자 가족이라고 많이 죽었어요. 여기서는 치안대한테 애무하게 많이 죽었어요. 분진중학교 뒷산 골짜기, 한성레미콘 뒤, 골프장 절벽, 성동리 말구릿재 같은 곳이 희생된 곳이었어요. 말구릿재는 지금도 있어요. 밀물에 물이 가득차면 90도 낭떠러지였어요. 부역자 가족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게 비극이에요. 여기서 남로당 빨갱이 월북했는데 그 가족들이 많이 죽었어요. 만약 과거사가 재정비 된다면 흑백이 가려지고 그 부분도 가려져야 한다고 봐요. 그 당시 부역을 안할 수가 있었나요. 안하면 죽인다니까 했지요”

“그 당시 노인들은 피난을 안 갔어요. 나도 피난을 안 갔는데 동네를 위해 너라도말이야 뭐라도 해야 하지 않나 하면 해야지요. 이박사가 그것을 실수한 거예요. 부역자 가족들을 왜 죽여요. 총부리대고 하라는데 어떻게 안 해. 정규호, 정규철, 조상현, 이충식 이름도 생생해요. 어른들이 동네를 살리자 한 거지. 지금도 안타까워요. 치안대들이 민간인 죽였어요. 그 당시는 인민군은 신사였어요. 후퇴를 할 때는 나쁘기는 했지만 사람은 안 죽였어요. 인민군이 쳐들어 올 때는 이곳으로 왔지만 갈 때는 장단으로 갔어요”

“9.28 함포사격은 문수산까지 왔어요. 인민군 패잔병 숫자는 드물었어요. 전쟁 상황에서도 조용했어요. 치안대가 부역자 가족 처형하고 재산 몰수하고 그랬지 바닥빨갱이는 괴롭힘이 없었어요. 6.25 겪었지만 믿는 사람, 형제에게 상처받은 곳이 이곳이고 비극입니다. 여기는 피난 곳이고 폭격은 몇 차례 있었지만 비행기 싹싹이가 앞산 박골에 폭격 몇 번하고는 괜찮았어요. 동네사람들 70%는 피난을 갔

지만 우리 아버지가 안 가서서 팔남매의 막내인 나는 아버지가 아니면 죽는 줄 알아서 아버지 곁에 남아 있었어요. 노인 가족들은 피난을 안 갔거든요”

“우리는 강화특공대 때문에 집안이 고통을 당했어요. 아버지가 사촌 형제간인데 죄가 없는데 죽이려 하니 아버지가 당숙을 피난 가도록 시켰어요. 그랬다고 총을 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빨갱이라고 다 죽인다고 우리 집에 총을 14방을 쏘어요. 우리 아버지는 선량한 분으로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하셨다가 고통과 시달림을 많이 받았어요. 1.4후퇴때 빨갱이라고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새벽녘에 지역빨갱이가 납치하려 했어요”



분진중학교 뒷산 골짜기, 한성레미콘 뒤, 골프장 절벽, 성동리 말구릿재 등지 부역자 억울한 희생

문수골 다리 위에서 사살, 밀물때 죽이면 썰물때 어디로 가는지도

“나는 6학년 때였지만 고지식해서 김일성노래를 안 불렀어요. 그 사상을 알기 때문에 김일성노래를 안 불렀어요. 강 선생이라고 이북사람이었는데 초등학교에 와서 이미 6.25전에 남로당을 조직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일체 이북이야기를 안했어요. 남로당에 가입한 사람에게만 해서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남로당이었어요”

“여기서는 인민재판 없었어요. 곡식 낱알을 세기는 했어요. 통계를 위해서요. 부락에는 인민위원들이 있어서 말하자면 이장이랄까 이용준 아버지가 인민위원장을 맡았다가 곤욕을 치렀어요. 성동리 오○○이는 치안대 총책임이었고요. 이○○이라고 용강리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일했는데 치안대가 와서 죽였어요. 오히려 치안대한테만 당했어요. 그 사람은 동네 살려야 하지 않느냐고 밀어서 했어요. 옥석과 시시



한 소녀가 동생을 업은 채 탱크 앞에서 서 있다. 경기 행주, 1952. 3. 25. 자료사진 | 지울 수 없는 이미지 (2007, 눈빛)

비비는 가려야 해요. 동네일을 하기위한 억울한 희생이고 정말 억울하지요. 자손들이 살아있어 억울해 합니다. 아들이 율화병으로 죽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죽인 장소들은 성동리가서 죽이고, 분진중 뒷골짜기에서 죽이고, 가면 그 뒷날로 죽는 거요. 월곶파출소가 성동리에 있었어요. 오○○ 치안대장이 진두지휘를 했는데 경찰은 안보였어요. 내부적으로는 어땠는지 몰라요. 월곶면사무소 옛날 창고에 수용했는데 거기 간사람 99%가 다 죽었습니다. 부역자를 임시로 수용했다가 분진중학교 뒷산, 말구릿재, 동막서 가자면 오른쪽으로 바다를 끼고 있는데 낭떠러지가 있어요. 문수골 다리위에 해병대 초소가 있어. 사격대 들어가는 입구인데 거기서 많이 죽였어요. 밀물때 죽이면 썰물때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인민군보다 치안대 행악이 더 많았어요”

“6.25때는 빨갱이들이 별로 활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평화지대이었어요. 6.25 끝날 때도 변화 없었고 인민군 패잔병들은 숨겨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었지만 식생활이 워낙 어려우니까 뭐 어떻게 하려고 해야 할 수가 없었어요. 용강리는 인민군이 지나간 자리라 피해가 적었어요”

## 올라가지 못한 피난민, 연백사람 봉성리에 많이 남아

- 유엔군 폭격으로 봉성2리 아랫동네 사라져, 남은 집은 대여섯채

박 광 원(75세)/월곶면 고양리

서울 유학중 6.25 발발, 제2국민병 경험

봉성리에서 6대 대대로 몇 백 년을 살아오고 있다.

“6.25때는 18살이었어요. 서울에서 중학교 4학년 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유학하고 있는데 7월 4일 김포로 오려하니 한강다리가 없어서 고양으로 해서 나루터에서 배타고 전류리로 왔어요. 옛날에는 봉성리, 전류리 나루터가 있었습니다. 집에 오니 피난을 안가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12월 19일에 제 2국민병을 나가서 부산까지 가게 되었지요. 13교육대에 있다가 귀향증을 해가지고 2월에 집에 오니 인민군에 의한 피해는 없더라고요”

“당시에 봉성리는 일곱 집이었는데 9.28때 봉성2리에서는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9.28일 때 미 해병대가 인천으로 상륙해서 김포로 와서 지역을 모르고 미군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총으로 서너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봉성리 독에 다리간이 있어서 그곳에서 죽었어요”

“유엔군이 폭격을 해 가지고 죽고, 폭격으로 아랫동네가 전부 없어지고 남은집이 대여섯집밖에 없었어요. 사람도 많이 죽었어요. 봉성2리는 집들 새로 지은 것들이고 원주민들은 얼마 안 됩니다. 의용군들은 안 갔고 국민병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한 10명 갔는데 함께 모두 돌아왔어요”



“1.4후퇴 때는 상님네, 바로 옆집 집안 네인데 4-5명 데리고 이북으로 갔어요. 남은 아주머니는 감옥에 가뒀다가 석탄리 강 낭떠러지에서 총살당했어요. 한 집만 그랬어요. 막내아들과 큰 며느리는 집안 네와 같이 피난 가서 살았고, 막내아들은 서울에서 살아요”

“우리 집은 피해가 없었는데 우리 당숙이 봉성리 인민위원장을 맡아서 가족피해가 없었어요. 서당에 다녔던 분이고, 풍신 좋고 이 동네 구장을 오래 보았었는데 6.25나고서 어떻게 봉성리의 인민위원장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

김포오려니 다리가 끊어져  
고양 나루터에서 배 타고 귀향

말 안통한 미군들에 의해  
서너명 사살 광경 목격  
봉성2리에 피난민 집 20호 지어져



“그때는 한양공고 다니다가 김포농고 청강생으로 공부하다가 다시 한양공고로 복학해서 졸업하고 단국대를 다녔어요. 이곳 봉성리는 피난민들이 6.25 이후에 많이 모여서 살았어요”

“연백군 사람들이 많았어요. 고향을 못가고 세상을 뜬 사람들도 많아요. 고향에 빨리 가려고 자리 잡은 사람들이지요. 피난민 집이 20호 되었고 당시에 정부에서 피난민 집 지으라고 재목도 주고 그랬어요.”

## 보리방아 찼고 있는데 인민군이 들이닥치더라구

- 인민군은 마금포리 조강포로 들어왔는데 셋길까지 다 알고 있었지

장 명 수(88세)/하성면 마곡리

20살 결혼 10년 후, 남편 의용군으로 끌려가

당시 29세, 우리 나이는 30세였다. 친정은 황허장터가 있는 계양면 갈산리였다. 외아들인 권이성은 3살이었다.

남편 권영옥씨는 당시 32세 1918년생이었고 석탄리 525번지에서 살았다.

“전쟁이 일어난 것은 보리방아 찼다가 인민군이 들이닥쳐서 알게 되었다구. 남편이 피난가라고 해서 봉성리 독으로 피난가다 인민군을 만나 인민군이 도로 들어가라고 해서 도로 들어왔어요. 당시 인민군은 마금포리 조강포로 들어왔는데 작전이 다 서 있어서 셋길까지 다 알고 있었어”

“음력으로 5월 21일 피난을 봉성리 독으로 가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인민군들이 집안으로는 안 들어왔어요. 사람들은 면사무소 뒤에서 죽었다는 소식만 들었지요. 집안에만 있어 몰랐어요”

장명수 할머니는 남편인 권영옥씨가 의용군으로 뽑혀나가던 날을 88세의 세월 입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남편은 키가 크고 활발하고 작은 손자 범택이가 남편을 닮아 유난히 예뻐하고 지금은 증손자까지 봤다. 결혼을 20살에 해서 30살까지 10년을 살았다.



고정빨갱이 붙잡아 시범보인이라며 코를 꼬여 시장바닥 돌아다녀  
시부모 작고 후 87년부터 남편 생일날을 제삿날로

“인민군이 남편을 의용군으로 뽑아갔어요. 남편 나가고서는 바로 미군들이 쳐들어 왔어요. 음력으로 7월 25일에 나갔어요. 도망가던 사람도 붙잡혀 의용군으로 갔어요. 하성에는 전투가 없었어요. 9.28 수복 때는 인민군이 또 후퇴해서 친정으로 갔다 왔어요. 친정에 갔다 들어오는데 다른 이들도 제다 들어 왔어요. 미군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아버님(권정규씨)이 완고하셔서 학문이 깊고 하성에서 유명하셨어요. 시아버지는 선비여서 한복만 입으시고 바깥일이건 안 일이건 다 했어요. 시아버지의 한복은 언제나 깨끗이 해드렸지. 시부모님이 계셔서 10년을 남편과 살았어도 재미가 무슨 재미인가? 남편 유품가진 것 하나도 없어요. 남편이 나간 7월 25일부터 부뚜막에 밥 떠놓고 기도했는데 언젠가부터 밥이 삭아 그만 두었어요”

장명수 할머니는 당시부터 남편 없이 시할머니,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모시고 4대가 살았다. 말수가 적고 작고 가녀린 몸이었지만 절제된 자세로 평생을 살아온 탓에 잔잔한 평화가 느껴지는 할머니였다.

“지금도 4대가 산다고. 남편 없어도 살기가 바빠서 눈물도 모르고 살았지 뭐. 그때는 젊어서 힘든지도 몰랐어. 먹고 살기가 급하니까. 나무 해다 때고 살았다고. 노인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장례를 치르려면 나무가 많이 필요했어. 그래서 나무를 해다 비축하고 살았지”

“당시에 여름에 돌아가시면 불 땔나무가 없었다고. 젊은 강범수는 원산리 사람인데 바다빨갱이였는데 악랄한 고정빨갱이 붙잡아 시범보인다고 코를 꼬여 시장을 돌아다녔다는 후문을 들었고 지방사람 잡아들이는데 앞장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할머니는 망굴 민씨가 진짜 빨갱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남편의 제사는 생일날에 지내고 있어요. 7월 25일에 의용군 나갔지만 시아버지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생사를 몰라 1987년 시어머니 돌아가신 이후부터 남편의 제사를 지내고 있어. 남편의 생일이 5월 21일이야”

장명수 할머니는 성격이 활달하고 다정다감하여 남을 많이 도와주고 살았다고 이웃이 칭송한다. 어려움을 이기고 웃어도 호탕하게 웃음 지으며 88세가 된 현재도 밭을 손수 매면서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 아들이 권이성씨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다고 말하는 인고의 세월을 살아온 여인이었다.

“도망가긴 어디로 가나? 아들하나 보고 살았지. 장가들면서 한방에서 자다가 방을 내보냈지. 손자들이 이제 모두 장가를 들었어도 정월과 칠월 칠석에는 천지신명에게 빌고 빌었어요. 손자 셋 다 키워내고 또 손자를 보았네”

장명수 할머니가 그렇게 하늘처럼 바라보고 산 외아들 권이성씨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국대를 나와 공직에 있으면서 의용군으로 끌려간 아버지를 대신하여 삼촌인 권두옥씨를 아버지처럼 모시고 공경하고 살고 있다고 이웃은 전해주었다.



## 하성은 8월14일날 유독 제사가 많았지

- 이상은 좋아보였지, 하지만 전쟁은 죽이는건데 뭐.

조 한 승(70세)/8대 김포문화원장 역임

하성초 5년. 25일은 평범한 하루, 26일엔 교실에 피난민들로 득시글

조한승씨는 당시에 하성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6.25가 나던 날 학교에 가니 평범했어요. 그러더니 26일 날 학교에 가니 사람들이 교실에 가득하더라고요. 황해도에서 온 피난민들이 가득하고 학생들은 교실에 못 들어가고 운동장에서 당시에 권이강 교감선생님이 ‘오늘은 공부를 못하니 집으로 도로 가라’ 하셔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7일 아침 중간 중간에서 전쟁났다고 가라고해서 돌아왔습니다. 당시에 전쟁이 뭔지도 몰랐어요. 담요, 이불을 새끼에 묶어 메고서 피난을 갔는데 쓰르레미 고개로 해서 작동으로 해서 인천외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28일 되니까 벌써 인민군 탱크가 인천까지 온 거예요. 사람들이 커튼을 치고 숨어서 살짝 밖을 내다보며 ‘저게 빨갱이다’ 해서 빨간가 보려고 했던 생각이 납니다”

“소래다리 건너가는데 아마 시흥, 밤새 걸어 수원 화성쯤 갔다고 짐작되는데 어느 집 마루에 죽 자라고 하셔서 잤습니다. 그때는 사랑이 빈곳이 많았습니다. 싸온 감자를 먹는데 화성에서 비행기가 나는 걸 봤어요. 오산까지 걸어가려는데 우리 군인은 없었어요. 인민군들은 나무를 쫓아서 비행기가 날면 가만히 서 있어서 오히려 피해가 적고, 민간인들은 표적의 대상이 되었어요. 울긋불긋하니까, 비행기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민간인도 죽고, 군인도 죽는 것도 봤어요”

“오산 가서 어느 사랑에 머물렀는데 산에 미군비행기가 박혔어요. 펑펑 터지는데 가볼려고 했지요. 그때는 어렸을때라서요. 그곳에 일주일 있다가 가자고 해서 도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20여명이 함께 먹을 것이 없어 동냥을 해먹어가며 그랬지요. 깡통을 걸고 먹을 것을 얻으러 가고 김치도 얻으러 가고 우리 형, 사촌, 육촌형들과 얻으러 다녔어요. 깡통에 밥도 얻고 김치도 얻으면 불을 피워서 끓여 그 것들을 먹었어요. 난 그런 것 얻으러 다녔어요”

“3일을 더 걸어 누산리에 도착했는데 바라미쯤에서는 소가 마차에 묶인 채 불이 나서 타 죽은 것을 봤어요. 하성 가까이까지 와서 얼마나 지쳤는지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정치는 인민군 시대가 되었고요. 피난을 가고오고 보름이후는 인민군시대가 됐더라고요”

“나는 6년 개근에 6년 우등이니 학교에서 연극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의사 역할을 맡았는데 ‘이 약은 욕심진통제요. 간호부 주사 놓으시오’ 라고 의사가 말하면 간호사가 놓약 주는 것으로 주사를 놓는 시늉을 하고 김일성 장군노래들을 배웠습니다”

“연극을 하면 먹을 것을 줬어요. 그 당시에 호박찌게와 하얀 쌀밥을 줬어요. 나는 지금도 수제비를 안 먹는데 그 당시 여동생이 그걸 먹고 걸려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호박죽, 호박풀떼기 먹고 살았던 시절이거든요. 공부는 별로 안하고 노래를 많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7,8월에 포도밭에 가서 포도 알을 세게 했어요. 몇 나무 몇 알인가 그리고 눈에 나가서 벼이삭도 세라고 했어요. 이렇게 몇 줄 이렇게 몇 줄 하면 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공출해서 가져가고 나눠준다고 했습니다. 연극을 하면서 공산주의 찬양노래 많이 했어요. ‘비겁한 자는 갈 테면 가라 우리는 붉은 별을 지킨다’

“우리 아버지는 하성면 쌀 창고에 간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당신 이름을 쓸줄도, 읽을 줄도 모르던 분이셨어요. 백부님은 당시 인삼조합장이었는데 납치되어 납북된 이후에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간혀 계시던 창고에



구멍이 뚫려서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 있고 누워 있는 것을 봤어요”

“8월14일에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하성에는 많아요. 도망갈 때가 되어서 우리 아버지도 창고에 계시고 하성중학교 뒤 건너 군인부대 가운데 들어간 곳에서 다 때려죽이고, 작대기차고, 때리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 때문에 달려갔는데 내무서원이 차버리니까 벌러덩 자빠지고 아버지는 까무러쳐 있었답니다. 얼마 지난다음에 아버지가 깨어서 들어보니 웅성웅성 소리가 나는데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그 자식이 빨리 안 죽어서 손바닥이 부르텨어’ 하는 소리를 들으셨답니다. 아버지는 가마니 속에 있으니 죽은 줄 알고, 창고에 더 이상 사람이 없는 줄 알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도망을 와서 동을산리 한씨네 사랑에 숨었다가 그날 밤에 집안에 왔고 콩깍지 가마니 속에 숨어 있다가 날이 밝아 기어 나왔답니다. 그런데 수참에 이미 미군이 와있어서 인민군이 어디 있나 묻더랍니다. 아버지가 하성 쪽을 가르쳐주자 우리 집 쪽으로 마구 박격포를 쏘아대고 나는 어려서 감나무 밑에 떨어져 있는 감을 주우러 갔다가 어머니한테 혼났지요”

백부 납북 행방불명, 부친 매 맞아 사망  
숙부는 총살, 사촌형 전쟁 중 전사

해병대와 터키군 부락여성 강간  
양택리 돌산, 석탄리 태매서 많이 죽어

“원산리 넘어 귀전리까지 폭탄이 떨어질 때 마다 폭탄이 떨어진 자리에 벼가 호로록호로록 다 타버렸습니다. 미군도 보았지요. 학교에 갔다 왔다 하면서 인민재판 하는 것도 봤습니다. 소시장에서 뭐라 뭐라 하고는 빵하고 총을 쏘서 사람을 죽였어요. 당시 어수잡이라



는 이가 경기도 도당위원장이었는데 어씨네는 비극적이었습니다. 하성초등학교 강당에 여자, 남자 여럿이 있었고 총 안 맞아도 지레 쓰러지면 그냥 물어버렸어요. 넘어가기 전에 죽이고 대낮에 빨갱이 가족을 죽였습니다”

“1.4후퇴 때는 미리 피난을 가라고 일렸습니다. 미군이 하성 쌀 창고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는데 시장에 석탄리 여자와 아이들이 불붙은 쌀(탄쌀)을 주어와 엿을 고으면 씹쓸했어요. 그걸 먹었지요. 우리형은 그런 것 주으려 안 갔어요. 몸이 약했거든요.당시에 회가 있어서 담배 먹이고, 소다를 10여번 이상먹고 횃배를 앓고 그랬어요”

“1.4후퇴 전에는 아버지는 도망가라 하니 안 가셨었고 건넌방에 뒤주 들어내고 구들장을 뜯어내고 땅을 파고, 우리 고모부 (심상익)와 함께 숨어 있었어요. 난 대문에서 땅을 봤는데 나중에 붙잡혀 창고에 갇혔던 거예요”

“1.4후퇴 때는 수원까지 갔는데 중공군이 흠이불같이 하얀 것을 뒤집어쓰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간인은 울긋불긋하니 더 많이 맞아 죽었어요. 중공군이 우리 집에도 온 적 있습니다. 어머니가 중공군을 보고 너무 떨려서 금이빨이 다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곳저곳 수색을 하는데 먼 촌 아저씨(조○○)가 함께 와서 옆에 섰더라는 거예요. 그 후 인민 재판할 때 아버지가 그 먼촌 아저씨를 보고, ‘아니다’ 라고 변호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서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서로 죽일 수 있던 거예요”

“1.4후퇴 때는 피난을 가고 오고 15일쯤 걸린 거 같아요. 해병대가 있어 비교적 얼른 끝났어요. 전쟁은 비참한 겁니다. 간단하면서도 비극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애꿎은 민간인이 더 많이 죽어나간다는 것이고, 공산주의가 배급은 준다고 하지만 잔인하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지요. 몽땅 다 뺏어가는 구나하는 것을 알았지요”

“인민군은 강간하고 그런 것은 몰랐습니다. 양곡에는 해병대가 있었고 하성에는 도리구군(터키군)이 있었는데 강간 많이 했어요. 군인들이 장독대에 찢어서 불린 보리 흠치러 들어왔다가 강간을 했습니다. 누구누구네 집에도 들어왔다가 갔다는



억류된 북한주민들, 하성면 증언자들에 따르면 미처 북으로 올라가지 못한 피난민들이 하성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았다. 1951. 10. 1. 자료사진 | 지울 수 없는 이미지 (2007. 눈빛)

소리가 있었으니까요”

“하성중학교 골짜기 양택리 가는데 돌산, 석탄리 태매(하성시장)에서 많이 죽었던 장소예요. 어씨네 오씨네등 인텔리들이 빨갱이가 많았어요. 이상은 좋아보였으니까. 하지만 전쟁은 죽이는 건데 뭐. 서로 죽이며 죄 없는 사람이 더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무섭게 생각하는 것은 서로 죽이는 잔인함이었습니다”

“총을 맞지 않고도 혼이 나가 쓰러져 버리면 그냥 묻어 버리는 잔혹감이 생각납니다. 연극 다니며 쌀밥 먹던 기억, 누산리에서 죽은 사람도 봤고요. 그때 죽은 사람들 8월 14일의 제사가 많은 까닭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아버지가 납북되어 행방불명이고, 아버지는 매 맞아 그 병으로 돌아가시고, 작은아버지는 총살당해 돌아가시고, 사촌 형도 전쟁 중 전사했습니다. 전쟁 정말 무서운 겁니다”

## 아침엔 ‘동해물과 백두산’, 밤엔 ‘강백산~’

– 음력 정월 인민군이 야간에 배타고 건너와 석탄리 치안대 사무실 습격

유재언(75세)/하성면 석탄리

19살 고향 장단에서 맞은 6.25, 인민군에 끌려갔다 탈출

유재언씨는 19살에 6.25를 맞아 당일에는 고향인 장단에 있었다. 그가 기억하기에 6.25전 20여일 전부터 장비, 탱크가 도로에 나오는데 남쪽에서는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이북공화국 정치를 하면서 부유층 지주계급은 이주를 시켰어요. 고모네는 황해도 이주명령을 받고 야반도주를 해 이남으로 나왔거든요. 같은 친척은 동색으로 생각해서 당 차원에서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군인을 차출하면서 형이 인민군으로 차출되고, 고모네 종이었던 사람이 인민군을 데려가려 했어요. 나는 병자로 행세하며 사랑채에 누워 아픈 척 꾀병을 하면서 버텨내다가 8월초에 가마를 가지고 와 타고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걸어가겠다 하고 인민군에 끌려갔어요”

사리원, 해주 동산에 가서 1주일 교육을 받고 군사교육을 하고는 개성을 거쳐 청량리, 그리고 대구 팔공산까지 가게 되었는데 전투가 심했다고 한다.

“팔공산 1천500고지에서 수류탄 한 개를 쫓어요. 8명중 분대장이 되어 아시보 총을 들고 새벽 2-3시에 500고지에 올라가 잠복근무를 하던 중 남쪽의 총소리, 포소리가 들려 4시에 밥가지러 갔다 오니 인민군이 내려오면서 북으로 후퇴를 하



더라고요. 국군이 올라와 소총을 쏘아대고 윙윙 소리가 나는데 한나절 도망와 보니 국군은 벌써 앞에 와 있더라니까요”

“인민군은 산으로만 후퇴를 했고요 미군은 큰 길로만 다녔어요. 위에서는 비행기 폭격, 뒤에서는 국군 낙동강을 건너려고 옷 벗고 팬티바람으로 건너 벌판을 달려 김천 와서 다시 인민군 현병 만나 군복입고, 상주, 괴산, 음성, 이천, 장호원, 충주를 산으로만 해서 후퇴했어요. 당시 광주로 가려하니 광주에서 빨갱이 횡포 있었다고 누군가가 말해주 양수리 강 건너(남한강) 또 강을 건너니 그것이 북한강이었어요. 서울 사람들이 춘천 쪽으로 피난 가는 것 보았어요. 포천에 이르러 한 가정에 들어가 사정을 하고 칼이나 낫을 달라고 해서 자해를 해서 부상병으로 통과했지만 다시 금화지구로 투입되고 친구와 도망을 쳤어요”

“좁쌀 한말 성냥 한 갑을 민간 할아버지에게 얻어 다시 임진강을 건너 친구는 북쪽으로 가고 나는 혼자서 신북사라는 절에 가서 같은 동네 부락사람들을 만나 그렇게 반갑더라. 그들은 빨갱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군인이 지나간 거라. 그래서 마음 놓고 집으로 왔어요. 아버지는 치안대 선전대장이고 나는 치대원이 되어 어린 손으로 미군 43명을 물어주었어요”

“김포에는 집안네가 두 집이 있었어요. 큰 집에 아버지, 작은집에 나는 기거하고 치안대를 구성했어요. 당시 아침에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오고, 저녁에는 강 백산-하는 노래를 들어야 했으니 참 언제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당시 권이적씨가 인민위원회 하성면 총책이었는데 팔로군 군인을 데리고 면당사무실에서 조사받고 전전궁궁 했지만 자고나니 권이적씨 모두 개풍군으로 넘어갔어요”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로는 하성초등학교 뒤에 창고가 있었는데 많이 죽었다고 해요. 하성면사무소에서 그랬다고 하고 하성초등학교 뒤 지금은 테니스장 있는 근처가 과거에는 골짜기였어요. 치안대들이 부역했지요. 바닥빨갱이들을 처형했지요. 과거에는 이장을 구장이라고 불렀거든. 이부영의 아버지가 구장을 보았는데 부역의 지하에 숨기고 구장을 보면서 닭잡아 먹여주고 인민군이 불순분자를 찾을 때 살렸어요. 동인이 아버지는 사상이 불순하다고 우익에 의해 죽었어요. 그래서 동인이가 재홍네 아저씨가 치안업무 보는데 와서 동기들과 행패를 부리며 마루짱을 치고 그랬어요”

“음력 정월에는 인민군들이 야간에 배타고 건너와 석탄리 치안대 사무실을 습격했어요. 4명이었는데 그 자리에 치안대 조직부장 공탄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인민군 네 명이 취조해 보니 별 혐의점을 찾지 못해 풀어주고, 치안대 대장과 노무한 사람들이 누군지 입수를 했지요. 나는 자고 있었는데 후레쉬를 비추며 ‘나와라’ 하더라고요. 국군인줄 알고 나가보니 달밤인데 인민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있는 데를 대라는 거예요. 아버지 있는 데를 안 가르쳐 주어야 하지 않나 고심을 하면서도 아버지 있는 곳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내가 대신 죽어야 하는 줄을 알면서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공탄옥씨가 숨어 있다가 튀니까 인민군들이 공탄옥씨를 쫓아가는 거예요. 공탄옥씨 총살소리가 들리고 아버지는 무사해 피신하셨어요. 몇 분 뒤 또 총소리가 들렸는데 그렇게 죽은 또 한 사람은 강씨였어요. 강씨가 경비를 보고 들어오다 이번에는 국군에 의해 죽었어요. 국군은 전술에 밀려 논바닥에 있었는데 인민군들은 왔다 갔다 했는데도 모르고 애꿎은 민간인만 죽인 거예요. 진짜 치안대장은 초상집에 가있어서 살았어요. 유희창이라는 이였어요”



“나는 전쟁 중에 오남매중 형님 2명, 누이 동생 2명이 하포까지는 같이 있었지만 그 이후는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큰 형님은 6.25 나자마자 인민군으로 끌려가고, 둘째형은 안 갔어요. 그 마을에서 인민군 나갔어도 형하고 나하고만 집에 왔어요. 전쟁 같은거 나지 말아야지 안 돼 못써요”

‘사상 불순’ 친구 아버지 우익에 처형  
치안대 찾아가 행패부리며 마루짱

국군이, 민간인을 인민군으로 오인 사살  
고모네 종이었던 사람이 인민군 착출



## 농사짓는 사람이 빨갱이가 뭔지 물어

- 치안대에 고문당하고 경찰에 넘겨져 징역

조 시 현(78세)/하성면 마곡리

늑막염으로 휴학중 전쟁 발발, 고촌에서 굴속 생활

조시현씨는 늑막염으로 휴학을 하고 집이 있는 하성에서 쉬고 있다가 6.25를 만났다.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사방에서 포탄 소리가 들렸어요. 조반을 먹고 노역하러 전류리 가서 목욕하는데 사람들이 물결치듯 넘어오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지요. 집에 들어가려니까 난리가 났다고 해서 집에 못 들어가고 피난민 물결을 따라 나와 지경에서 하룻밤을 잤어요. 그런데 월곶에서 포성소리가 들렸어요. 당시에 하성면 신리(마금포리) 월곶면 조강리, 용강리에는 인민군이 도강해서 온 거예요. 지나가는 배를 붙잡아 인민군이 도강하는데 쓴 거예요”

“나는 당시에 고촌의 사촌누이 집에서 1박을 더하고도 3~4일을 더 잤어요. 그리고 1주일 만에 하성면의 집 마곡리에 갔는데 부모님한테 혼났지요. 죽은 줄 알았다가 살아 돌아와서 고맙기는 하지만 그냥 나가면 어찌란 말이냐고 꾸지람 들었어요. 그때 고촌에 있을 때는 굴속에서 살았고요. 인민군을 보았어요. 개화산에서 전투가 있었는데 새벽에 엄청난 포성이 들렸어요”

“6.27일 28일인가 한강다리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고 집으로 가는 길에 샘재에서 인민군을 만나니 ‘뭐하는 사람이나?’ 물어요. 그래서 ‘피난민이다’ 라고 말하니



지계를 지고 있는 한 농민이 전투용 헬기를 쳐다보고 있다. 평화롭게 농사를 일구며 생활하던 농민들은 전쟁이 무엇인지 빨갱이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 전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여야 했다. 1953. 8. 14. 자료사진 | 지을 수 없는 이미지 (2007. 눈빛)

손바닥을 조사하고 굳은 살 박힌 것을 확인하고 학생이었다며 학생증을 보여주니 놓아주더군요”

“그렇게 전투광경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니 지방 빨갱이들, 보도연맹 가입자들이 날 뛰었어요. 좌익 야산대 조직이 날뛰었다고요. 총메고 아군들이 후퇴할 때 버리고 간 M1총 카빈총 가지고요. 농촌위원장 인민위원장등 술하게 많은 조직을 해 날뛰었는데 나는 나이 어리고 병들었다는 것을 내세워 피했어요. 늑막염, 결핵선 임파선 염이었거든요”

“그들은 미리 모의회의를 통해 조직해서 회의를 조직했어요. 인민군들이 내려올 때 군수물자 안가지고 총만 주고 먹을 것 안가지고 왔어요. 북의 병력 남으로 다 내려오니 남한 청년들 붙잡아 의용군 나가게 했지요. 당시 같은 나이 대 100명중



3분의 2 이상이 의용군을 나갔어요. 안 가려는 사람은 숨었다고요. 그 사람들은 살았지요. 나간 사람 반수 이상이 폭격이 있으면 숨었는데 다시 총을 뿔뿔 쏘면 도망은 사람도 살고 도망오지 못한 사람은 행방불명되거나 거제도나 가거나 죽게 한 것이 그 당시 김포읍의 전체 상황이었어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농사지며 살았지요. 관리들은 나와 공정하게 하겠다며 좁쌀 콩 베알갱이를 세었어요. 분배의 원칙에 의해 현물세로 농사의 30%를 현물로 가져간다는 거였지요”

“9.28 인천상륙작전은 음력 8월 보름이 못 되어서 이루어졌는데 우리형님은 강제 노역으로 좋은 나무들을 베어서 진지를 구축했어요. 인천상륙으로 끝장나겠구나 생각한 것은 9월 15일쯤인데 그 이전 7월 초순인가 7월 15일 경 인민군이 적으로 보는 사람들 면장 등을 잡아갔어요. 그때 도망가지 못한 사람들 조한승 문화원장의 백부는 철사 줄에 묶여 북으로 갔어요. 조한승 문화원장의 아버지는 도망가서 붙잡히지 않았어요. 그때 전국적으로 15만명 잡혀갔어요”

“그 당시에는 반공운동으로는 대한청년단이 지청천장군 계열로 그리고 이범석장군계열로는 민족청년단 중심으로 있었는데 난 반공운동을 했어요. 6.25이전에요. 하성에는 대한청년단 활동들이 있었고 우리 형들이 하는거 보며 자랐는데 다시 고등학교 다니는 이들이라야 1개 부락이면 한두 명 정도였습니다. 청년단 단체는 부락의 세세한 것 알아 나중에 경찰한테 알려줬어요. 치안대에서 고문을 하고 조서를 꾸며 경찰한테 넘겨 경찰에서 훑어보고 넘겨 징역살고 그랬어요”

“9월 10일쯤 아군 치안대들이 도망간 바닷빨갱이 가족들을 검거해서 마곡리 면사무소 창고에 두고 취조하려 했는데 동성산 중턱에서 따꿍따꿍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9월 12일께 인민군이 역습해서 치안대에서 지레 날뛰었던 사람들은 모두 인천으로 도망갔고요”

“인민군들이 빨갱이 가족들은 모두 풀어주고 바닷빨갱이들이 다시 들어왔지요. 치안대 원로급들은 인천으로 도망가고 아군 해병대 눈에 띄어 한국해병대 탱크 처음 만나 뒤따라 수참까지 들어와 하성 태산(동성산)에 대고 탱크 쏘고 진격했어요. 그런데 그 전날 밤 상황은 조종호씨등 우익을 창고에 가뒀어요. 전부 나오라고 하고 인민군이 전선줄로 묶었는데 두 사람은 가마니 속에 숨어 살았다고요. 죽은 척

하고 시체들 옆의 가마니 속으로 파고 들어가 버텨서 살았대요”

“비행기 때문에 죽창으로 찔렸는데 100여명 죽었다고 전해 들었어요 조종호씨 (조한승 원장 부친)한테요. 죽었는지 사나흘 되니 부패해서 파리가 낄고 쇠사슬에 묶여 시신을 알아볼 수 없었지만 찾아서 매장을 했고요. 화가 나서 도망간 바닥빨갱이 가족들을 붙잡아 죽였어요. 치안대들이 고문하고 죽였지요. 난 20대구요 30대에 펄펄뛰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석탄리, 마금포, 신리 강변에 세워놓고 총으로 갈겨 죽였어요”



또래 2/3이상이 의용군으로 착출  
9월10일 치안대가 바닥빨갱이 색출  
9월12일 인민군이 치안대 역습

좌·우 진짜 활동가보다 가족들만 죽여  
당시 동갑내기 100명중 10명만 살아

“좌·우익 계열 진짜 활동자들 보다 부수적인 가족들만 죽었지요. 하성하고 월곡이 제일 심했습니다. 김포읍도 심했지요. 피하가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있었던 겁니다”

“좌·우익에 대한 피해자가 많았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엄청 많았지요. 빨갱이가 뭔지, 농사짓는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이쪽저쪽 사람들이 국운 때문에 죽었습니다. 내 나이 동갑이 당시에는 100여명 되었는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10명뿐입니다”



## 전쟁이 무서웠지, 인민군은 무섭지 않았어

- 이불을 찢어 장대에 꽂아 대문에 달면 '민주하양이다' 표시

최 기 윤(90세)/하성면 시암리

33살에 전쟁 만나 놀라서 유산, 남편은 제2국민병 복무

“18살에 시집왔어요. 남편은 17살이었어요. 33살에 전쟁이 나고요. 6.25 새벽에 자고 있는데 팡당팡당 비도 안 오고 천둥소리가 난다고 했더니 난리가 나서 쳐들어온다고 난리가 났어요. 팡팡 난리야. 강이 있는데 개미가 줄 닿듯이 강 건너 이북사람들이 이리로 쫓겨 나왔어요. 당시에 아이를 가졌는데 놀라서 유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4살, 7살, 9살, 13살, 딸 2명 아들 2명 데리고 양곡의 친정 오라버니네로 갔어요. 소달구지에 버 몇 가마에 옷담아서 친정가서 겨울을 났어요. 작은 아이는 아홉 되었고 아들은 13되 지계에 지고 나갔어요”

“너무나 무서운 사변이었어요. 35가구 정도였는데 모두 빈집이었어요. 다 피난 갔어요. 나는 양곡인데 30리 밖이라 폭탄이 안 떨어졌어요. 남편은 죽지 않았으면 들어오겠지 하고 기다렸지요. 남편은 김용운인데 제 2국민병을 나갔어요. 봄이 되어도 무소식이었는데 편지 한 장이 없다가 음력 정월에 들어왔어요. 1.4후퇴 겨울에 들어왔어요. 목수였는데 한국목수였어요. 그 부대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집을 짓는 일 하다가 살았어요. 목수노릇을 하기 때문에 살았어요. 김포에서 300명이 나가 제2국민병을 갔는데 연대장의 집을 짓고 살아왔어요. 그 당시에 시동생이 김행원인데 당시에 20대 후반이었고 면 공무원이어서 인민군 오면 다 죽이니까 헛간에 감추고 몰래 밥해주었는데 너무 불안하고 놀라서 공포 때문에 그

랬나 빨리 죽었어요. 46살이에요”

“그땐, 오피산에 탱크가 6대가 있어 묻어놓고 통통 이북으로 쏘아 보내도 대항을 안했고 나중에 대항해서 인민군이 쏜 폭탄이 발이나 골목에도, 동산에도 마구 떨어져서 시암리는 폭탄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 ‘뽕하면 시시시식캉당’ 하고 요란했어요. 그 폭탄 때문에 사람이 하늘까지 올라갔다 떨어지기도 했어요. 1.4후퇴 때는 이북에서 불탄을 쏘서 여덟 집이 불탔어요. 집 안팎이 불타고 할머니 한분이 죽고, 총각도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도 못 치르고 밭에다가 짚을 갖다놓고 시신을 모셔놓고 소나무를 꺾어서 덮어놓았다가 봄에 장사를 지냈어요. 폭탄이 떨어지면 일하다가 날아가 담벼락에 달라붙었어요. 다른데 떨어졌으면 어디가 부러지거나 죽었을 텐데 그래도 담벼락에 붙어서 살았어요”

“미군들도 쫓았어요. 인민군 밥해주는 줄 알고 쫓았어요. 그래서 이불을 하양색으로 찢어서 장대에 꽂아서 대문에 하얀기 달아놓고 ‘민주하양이다’ 라고 표시를 했어요. 도대체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썩썩이 비행기에서 민간인 신발까지 망원경으로 보고 쫓았어요. 그때는 변소가 밖에 있어서 화장실 출입이 무서웠어요. 잘 못다녔다구요. 다시 농사를 지어도 기관총 알이 발이고 동산이고 마구 떨어져 다시 무서워서 들어왔어요. 밥꾸러 가지고 다니면서 일했어요. 다시, 그런 비극이 다시오면 까무러쳐서 죽는다고. 정말 무서운 사변이이야. 시암리 텃골 태수네등 우리 증조 할머니네도 안 안팎집 모두 탔어요”

“제 2국민병은 살살 도망 왔어요. 옥수수터미에서 종일 드러누워서 자고 산 건너 물 건너 도망 왔어요. 최서방네와 김씨네요. 이곳도 이북으로 간 집도 몇 집 있어요”

“눈을 때 인민군은 하양계 흙이불 입고 총대도 하양계 감고 왔어요. 배고프니 밥해달라고 했어요. 1.4후퇴 전 이야기야 유식한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손바닥에 글씨쓰고 피해 없이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인민군이 또 들어왔다가 나가고 또 나가고 했어요. 괴롭힌 적은 없지요. 그럼요. 인민군이 마을에 들어온 것은 모두 1.4후퇴전이에요. 이북에서 검은 말을 타고 밤에 들어와 인민을 위해 왔다고 말했어요. 전쟁이 무서웠지 인민군들은 안 무서웠어요”



“그때는 사상이 다르다고 아내를 죽여서 시부모가 손자를 2명 기른 집도 있어요. 몇 십리밖 친정 갔다 오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때는 사상이 다른 사람을 재워주면 큰 일 났어요. 치안대들은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잘 했어요. 좌익 괴롭힌 일 없었어요. 우리 남편은 46살에 돌아갔어요. 전쟁에서도 살아왔는데 병으로 죽었어요. 군인제대하고 돌아와 다시 4명을 더 낳아서 8남매를 다 키웠어요”

폭격에 밖에 있는 변소출입도 무서워  
‘사상 다르다’ 죽임 당한 며느리 대신  
손자 2명 기른 시부모도 있어

휴전후 철조망 치기 전 임진강에서 수영

“6.25가 나고 나서 휴전하고서도 임진강변에서 수영을 했다고요. 철조망이 없었거든요. 간첩이 오면 신고하면 군부대가 있어서 총을 쏘어요. 50년대 후반까지 총 쏘면 뒷산에 수류탄 실탄 등의 탄창이 있어서 옛장수한테 주고 엿을 바꾸어 먹었다고요. 어떤 아이는 그걸 땅에 놓고 치다가 오른쪽 손가락이 날아갔어요. 뼈라도 바글바글했어요. 볼펜을 빼면 수류탄이라고 줍지마라고 했어요”



“그때는 나무그늘에서 밤이면 인민군들이 회의를 했어요. 빨갱이인 유지급의 이장이 있었는데 연구아버지라고 한청사무실 차려놓고 접수보고 그랬어요. 10리 밖에서 매부가 같은 일을 하는데 물 건너서 두 사람이 고모 집에 숨어서 밥을 꾸러가지고 망태기에 담고 나무하는 척 나무를 깎아라 했는데 누가 신고를 해서 무서워서 강에 뛰다가 저놈 잡아라. 하나까 팽이가지고 와서 찍어 죽였어요. 손자들이 살아서 지금 우리 할아버지 왜 산소가 없냐고 하지. 아들은 잘 살아요. 그래도 이곳은 이씨와 김씨 동네이고 친척이라 희생이 작은 거예요. 손자 아버지는 빨갱이라고 자수하고 구류를 살고 나와서 살았어요”

## 아버지 빼내려고 김일성노래 가르쳤어요

- 학생들에게 빨치산 노래, 김일성 노래 가르쳐 선전

홍순면(78세)/하성면 봉성리

학생신분으로 의용군 징집돼 개성갔다가 다시 방위군으로 국군 복무

홍순면씨는 당시에 서울로 유학해서 공부하던 중학교 6학년 학생이었다. 흔치 않게 서울로 가서 공부를 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의 한사람이었다.

서울에서 유학 중학교 6학년 때 6.25를 만났다. 아버지가 붙들려가자 김일성 노래, 빨치산 노래 가르치겠다 해서 풀려나왔다고 했다. 의용군으로 개성까지 갔다가 폭격으로 수라장이 되자 고향으로 도망와 방위사관학교 입교 7년간 근무했다.

“하성면 시암리 집이 임진강 한강의 교차지점입니다. 중학교 6학년 때 사변이 났어요. 18살, 19살 나이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고3때였는데 29일 날 서울에서 누님 댁에 있다가 내려오는데 한강을 못 건너게 해서 일산 쪽으로 해서 전류리 나루터로 해서 노젓는 배로 건너서 집에 왔습니다. 일주일 있는데 내무서의 지방 빨갱이들이 설치서 일주일 만에 밤에 찾아왔어요. 당숙이 들어오더니 밖에서 찾는다고 말해줘서 나가보니 우리 아버지가 우익이라 붙잡으러 온 거예요. 아버지를 붙들어가서 아침 일찍 가보니 면사무소 밑 창고에 있었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는 이를 만나니 가만있으라고 말하며 조건을 붙였어요.

“너희 학생들이 선전을 해야겠다. 그러면 아버지가 무사히 나올 수 있다’고 말했어요. 김일성노래와 빨치산 노래와 같은 것을 가르치라고 해서 가르치겠다고 했어요”



인민군 장교가 가라고 해서 숨도 못 쉬고 달려  
당시는 가라고 하면서 뒤에서 쫓어

아군이 들어와 태산 한 골짜기 무지하게 죽여  
이쪽에서 죽였다. 우익 청년단이 그랬다  
바닥빨갱이라는 이들은 처음에 남로당이었던 사람들

“그래서 아버지가 들어가시고 열흘 만에 붙잡혀 갔던 세 명이다 나왔어요. 8월 13일 서울 가서 공부한 사람들은 다 집합하라고 해서 의용군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개성까지 갔어요. 남산국민한교에 집합해서 개성 들어갔는데 썩썩이가 폭격을 하니 수라장이 되면서 집으로 도망 왔어요. 마금포에서 뗏목와서 소리를 치니까 6~7명이 타고 건너와 의용군에서 돌아온 이튿날 월곡으로 도망갔어요. 학생들이 의용군가서 다 돌아오고 연세대 상대 다니던 이는 안 돌아왔어요. 이북에 여태 살아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9.28수복할 때는 큰 누님하고 셋째 생질녀가 군인이 온다고 일러서 대문간을 보니 인민군들이 보이는 거예요. 공습이 내렸어요. 인민군들이 ‘어디사냐’고 물었어요. ‘하성이다’라고 말하니 ‘누구 아냐’고 해서 ‘안다’고 했더니 장교가 고개를 까닥까닥하며 가라고 해서 숨도 못 쉬고 달려왔어요. 당시는 가라고 하면서 뒤에서 쫓았어요”

“월곶면 서암리 방공호에 숨어있는데 누님이 나오라 악써서 나와 보니 해병대가 다 나오라고 하며 호에다가 총을 쏘었습니다. 남은 사람이 있는지 쏜 거예요. ‘학생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고 해서 벨트에 새겨져 있는 무늬가 학교마크여서 증명이 돼 무사했습니다. 9.28 수복이 되고 서울학교에 복학하려고 하니 그때는 염창동까지 김포관리였는데 무산되고 다시 김포로 왔습니다”

“시암리만 해도 지방빨갱이와 보도연맹이 없고 하라는 대로 했었습니다. 수수알 조알 세는 것을 처음 봤고 평을 떠서 세었습니다. 세 번이나 인민군 혹은 국군 등이 들락날락 했습니다. 하성면에서는 전체적으로는 많이 죽었습니다. 하성에 진짜 빨갱이가 있어서 인민군의 일을 본다고 기웃대다가 아군이 들어와 무지하게 태산한 골짜기에서 죽었습니다. 이쪽에서 죽인 겁니다. 우익 청년단이 그랬습니다”

“원래 바닥빨갱이라는 이들은 처음에 남로당이었던 사람들입니다.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식모살이 구두담이, 남의 집 사는 사람들이 애꿎게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로당 계열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보도연맹에 들었는데 시암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좌익에서는 혹 가다가 죽었어요”

“51년 12월 온양에 있는 방위사관학교에 입교해서 부산에서 훈련받고 예비사단으로 배치가 되어서 1년 반을 근무하고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들어갔다가 방위군이 해체되어서 7년간 있다가 하사로 제대를 했습니다. 6.25 그 당시에는 시암리는 나누지 않고 통틀어서 불렀습니다. 시암리는 같은 물살이라도 세어서 인민군들이 오기가 나빠서 간첩들이 가도 시암리 쪽이 아니라 전류리로 상륙하고 간첩이 내려가도 김포 쪽에서 수중, 혹은 이북으로 갔습니다. 임진강하고 한강하고 합류지점이 시암리입니다”



증언 | 하성면 ㉓

## 슬픔으로 한 세상 살았습니다

- 아버지 어머니 언니 오빠 동생 등 가족 5명 희생, 여동생과 둘만 남아

민 천 기(72세)/하성면 마곡리

당시 14살, 폭격으로 집 불타 가족 뿔뿔이 흩어져

“6.25 당시에 14살이었어요. 마곡리 시장 통 면사무소 앞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민병택씨(38)구요. 어머니는 조원순(39), 오빠는 민진기(19), 언니는 민봉기(17), 동생 민군자(7)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6.25가 나니까 아버지가 서울서 사업을 하다가 집에 와 계셨습니다. 피난을 나갔다가 들어와 있었는데 아버지는 오랫동안 쌀 배급소를 하면서 해방되고 착한이로 소문이 나있었습니다. 원조품을 배급하는 일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6.25가 나니까 폭격에 집이 불타 없어지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일을 본 사람들은 죽인다고 하니 시암리에 동생이랑 가있고 어머니는 언니와 동생이랑 외갓집에 가 있고 아버지는 일산에 이모네에 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무슨 죄가 있나?’ 하면서 당시에 증명서를 내주는 고모부 남구 훈씨네 집에 오빠랑 있었습니다. 오빠는 나무하러 가고, 엄마, 언니, 여동생은 잡혀갔는데 음력 9월 23일이었어요. 왜 잡혀갔는지도 모르고 잡혀갔어요. 나는 시암리에서 열흘 전류리 큰 집으로 동생이랑 갔어요. 우리는 가면 죽인다고 해서 큰 집에 숨어 있었어요”

“음력 10월 1일 할머니가 손자 2명을 데리고 양곡, 인천으로 어머니와 손녀들

을 찾으러 갔다가 못 찾고 대구로 가셨다가 돌아가셨고요. 손자 태기등 2명이 배급 먹고 살아나 한 사람은 일본으로 간다고 하고 한 사람은 고향으로 온다고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고모부 밀고로 아버지 끌려가  
사흘 되는 날 댁님, 핵대 다 내주더라

1.4후퇴 어머니 언니 동생 시체 발견  
자식 억울한 죽음에 외할머니도 환  
병으로 돌아가서,  
지금도 산소에 가면 떨려요

“아버지는 일산에 있는 이모네 있다가 사촌더러 도민증을 해와라 해가지고 이종 사촌이 남구훈씨 한테 ‘형님이 증명하나 해달래요’ 하면서 저녁에 왔더니 내일 아침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찰이 와서 ‘스파이냐?’ 고 물어 이종사촌이 그런 사람이 있어서 왔노라고 말했대요. 아버지는

음력으로 10월 1일 날 붙잡혀 갔어요. 고모부인 남구훈이가 밀고를 해서 경찰 1명 동네사람 2명이 와서 잡아 갔어요”

“아버지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상청에서 울고 마지막에 물을 드린 것이 끝이에요”

“아버지가 ‘엄마는 어떻게 되었니?’ 라고 물으셔서 ‘언니와 다 죽었어요. 오빠는 살았어요’ 하고 말했어요. 원래 죄인은 집에 안 데리고 오는데 데리고 왔다고 했으



요. 명주 바지 한 벌 입고 창고에 가서 있게 되었어요. 사촌이 피난을 갔다 와서 밥을 날라다 드렸는데 사흘 되는 날, 덧님, 혁대 다 내주더라고요. 사촌 오빠가 고모넌 가서 이상하다고 물었는데 김포로 넘긴다고 했다는데 그 다음은 몰라요”

“남구훈씨가 민병택 아들 하나 있으니 마저 잡아라 해서 오빠는 나무하러 피해 다녔는데 1.4후퇴때 하성초등학교 테니스장 있는데서 죽었어요. 어머니 언니, 동생은 죽은 곳을 다 아는데 아버지는 못 찾았어요. 1.4후퇴때 다른 이들이 자기의 시신들을 찾다보니, 어머니, 언니 동생의 시체를 발견했는데 언니가 동생을 업고 죽어 있었어요. 눈이 많이 왔있어 알아보겠더라고요. 그 당시에 14살이어서 어찌 해 볼 도리가 없어서 가마니만 덮어 놓고 돈을 벌어오겠다고 고향을 떠나서 3년 있다가 와보니 다 합해서 덮어 놓았더라고요. 산에 사태가 난 곳에서 죽여서 뼈가 많았어요”

“지금도 산소에 오려면 심장이 떨려요. 산소가 사유지에 있어서 갈등이 심합니다. 돌아간 부모도 억울한데 피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 오빠는 큰 집에서 피해를 본다고 내쫓았었어요. 정말로 찬바람만 나도 울음이 납니다. 남의 산소만 봐도 울고요. 내 부모 형제 원통하게 죽었습니다”

“14살에 검단 가서 남의집살려고 갔더니 해가 저물어서 외갓집에 들렀더니 들른 날이 외할머니 제삿날이었어요. 외할머니는 우리 어머니가 억울하게 죽은 것에 화병이 들어 돌아가셨어요. 우리 외할머니는 아들이 12명에 우리 어머니가 딸 하나로 한양 조씨였어요”

“우리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피해를 본 거예요. 사상 그런거 하나도 아녜요. 돈을 벌지 말아야만 하는데 돈 없으면 천대를 받아 또 돈을 벌게 되었어요. 방직 공장에 다니면서 폐에 구멍이 뻥뚫려서 피를 흘리기도 하구요. 우리 부모 천하게 해 놓은 것이 걸리고 원통하게 돌아가신 것 때문에 사극을 보면서 원수를 갚는 장면이 나오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자식노릇 못해 죄스럽습니다. 너무 보고 싶고요”

“나는 내가 낳은 아기가 죽어도 잊을 수가 있는데 부모형제는 잊을 수가 없어요. 죽으면 우리 집에 다시 태어나 우리 가족과 다시 살고 싶습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부모의 상처는 안 없어집니다. 그 당시에 집에 딱지를 붙여 놓아 세간을 다 실어가고 헛간에서 잤습니다. 뺏은 것들은 나중에 보니 다 나누어 가졌더라고요. 괜찮은 사람만 그랬어요. 큰 아버지는 당시에 부도가 나서 정신이상이 되어 살아서 모면했습니다”

“얼마 전에 본적을 떼어보니 아버지의 사망신고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이름이 다 나와 있고 내 생일도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안 하려고 합니다. 슬픔으로 한 세상 살았습니다. 분한데 집안에서조차 멀리 하니까요. 지금은 그 가까운 친척들 다 같이 한 회사에 있습니다. 당시에는 큰 집가서 노예처럼 일하고 할아버지 발치에서 자면서 엄마 엄마 찾다가 잠들면 너무나 울어서 아침이면 눈이 퉁퉁 부어있었어요”

“지금도 찬바람만 나면 뭔가 뺨 뚫려 있어요. 나도 갈일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제는 ‘나 좀 엄마 아버지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정월 초하루와 한식 추석날을 평생 한 번도 안 빠지고 엄마 돌아가신 곳에 다닙니다. 우리 산에는 아버지, 어머니 영혼을 모신 가묘를 만들어 모시고요. 우리 자식들한테 ‘네 엄마는 가슴에 한을 가지고 산다. 그리고 그 인간들 다 죽었다. 정치가 그래서 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강범수라고 지금으로 따지면 87.8세가 된 나이인데 인물이 잘나고 힘이 셧습니다. 6.25가 났을 때 강범수 작은 아버지가 사상 일을 좀 보았는데 강범수가 설치고 다니다가 강씨네 일가 등이 무지하게 죽었어요. 50여명 죽었어요. 작은 아버지가 그랬다고 목에다가 줄을 해서 하성시장을 끌고 다니다가 죽었어요. 조미희라고 아버지 어머니도 죽고, 조미희는 17살 이었는데 강간하고 죽었어요. 죽인 후에도 강간을 했다고 들었어요. 당시 4살이었던 동생만 외삼촌과 고모네로 피신을 시켜서 살았어요”



## 이제 원망은 하지 않습니다

- 1.4후퇴 당시 태산골짜기서 학살당한 가족들 모여 위령비 세워

민 경 완(68세)/하성면 봉성리

아버지 외삼촌 치안대 끌려가 죽음...어머닌 시체 찾으러 갔다 유산

6.25 당시 11살이었으며 봉성리에 살았다.

“하성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며 석방된다고 하면서 석방이 미루어지고 있는 아버지 민창기씨가 갇힌 창고에 밥을 날랐습니다. 학교 앞으로 지나가면서 아버지에게 밥을 가져다 드리라고 하면 그렇게 창피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 민창기씨는 인민위원회 서기 일을 보았고 이로 인해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학살은 음력으로 9월 10일로 알고 있습니다”

“학살되었을 당시에 어머니를 찾으러 왔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대신에 면서기 다니던 권동규와 형님들이 찾으러 갔었습니다. 시신을 찾을 수가 없어서 1.4후퇴 된 다음 찾으러 갔는데 모친이 임신 중이어서 놀라면 안 될까봐 외삼촌들만 갔는데 모친이 나중에 쫓아왔었습니다. 8살, 5살 동생 두 명을 둔 채로 시신을 찾으러 갔던 어머니는 시신들이 한데 섞여 있어서 누가 누군지 몰라 옷을 보고 찾으려고 했지만 끝내 시신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신이 부패했고 옷으로도 구별할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그 영향으로 어머니는 뱃속에 있던 아기를 유산했습니다. 당시에 태산골짜기는 험한 산골이고 개울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갔습니다”

“이렇게 당한 가족들 중에 민경완, 민경성, 김충흠 3사람이 의논을 하면서 찾아

보자고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정충현씨가 목장을 만들면서 포클레인으로 파는데 신발짝과 뼈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뼈를 다 모아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대강 추려서 포클레인으로 당시 개울에 골짜기 모아 놓은 것을 풀을 뽑고 단을 모으자고 합의해서 당시 수소문을 하고 제삿날이 같은 이들 9명이 위령비를 세우게 되었어요. 원래는 8명이었는데 나중에 권금자씨가 합류하게 되었어요. 당장은 나무를 박고 새끼줄을 치니까 시에서 산소를 못하게 캐어내라고 했어요. 정식허가를 안 해 주어서 힘들었어요. 새벽에 비는 쏟아지는데 뼈꾸기가 그렇게 많이 울더라고요. 나중에 인정을 하게 되고 봉분이 있었는데 납작하게 만들어 평묘를 했어요. 지금 이 자리가 정충현씨가 모아놓은 자리입니다. 서로 돈을 모아 단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6.25이전에는 구장 보던 사람은 인민군 시절로 바꾸어도 일을 봐야했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버지는 인민위원장이 1명 있고, 행정을 보는 서기 일을 했더랬습니다. 당시에 아버지는 동네에 의사가 없던 시절이라 주사도 사람들에게 놔주고 초상나면 봐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당시에 청년단장 민○○이라는 이가 우리 집안을 별러서 동네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보고 나타나지 말라고 했는데 전류리 집안에 있다가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붙잡혔다고 해서 가보니 동네 사무실이 있는 마당에 계셨고,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시켜서 했는데, 며칠 있다가 나올 거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봉성리에서 하성초등학교까지는 10리입니다. 그곳에 주말에 밥을 가지고 와서 열흘간 드렸는데 마지막 본 것은 면사무실에서 내려오시는데 묶지는 않았더라고요. 보리를 심을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저에게 ‘보리 심었냐?’ 고 물으신 것이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울음) 동네 사람들이 며칠 있다 나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할머니는 아버지 나오시면 술 드린다고 담가 놓았어요. 당시는 청년단장이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안 찍어 주어서 못나왔습니다. 면에 다니던 형님이 밥을 가져가지 말라고 해서 학교에 갔을 때 창고를 들여다보니 사람들이 없었어요. 당시에 창고에는 여자들도 있었어요. 처음에 우리 아버지는 경찰서에 가서 나온다고 믿었어요. 외삼촌도 다 나올 줄 알았는데 음력으로 9월10일 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6.25당시에 군군 패잔병들이 마을에 왔을 때 옷을 다 바꾸어 입혀서



살려서 보내 군인 박해문씨가 나중에 고마웠다고 찾아오기도 했는데 이미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어느 동네든지 감정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치안대장 친구가 있는 사람은 안 당했어요. 하성면사무소에는 창고가 두 개가 있었어요. 창고 두 개가 다 꽉 찼었어요. 하나가 10평이 훨씬 넘는 창고였는데 젊은 사람들이 있는 창고가 있었고, 여자와 노인들이 있는 창고가 있었어요. 의용군 나갈 때 부역한 사람, 애 있는 여자, 젊은 여자들을 매일 잡아 죽여 100여명 정도 죽인 거예요. 창고 안에 있던 사람이 다 나갔으니깐요. 태산이 마지막으로 죽인 장소에 해당합니다. 건너 석탄리엔 여성과 어린아이가 많았습니다”

“석탄리 한강 독에서 학살을 시키는데 살아나온이도 있었어요. 직접 들었습니다. 김동길이라고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달밤에 창고에서 손을 묶더라고요. 김포경찰서로 다 넘긴다고 말하면서요. 김포경찰서로 가려면 큰 길로 가야하는데 빨리 나가더라고요. 철사로 묶어서 강가에 죽 세워놓고 총으로 갈기니까 모두 물로 넘어지면서 그이도 같이 넘어가 갈대를 붙잡고 안 떠내려가려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는데 다른이(경선) 한 사람도 살아 있어 포승을 서로 끊어주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동길씨는 처갓집(전류리) 헛간 짚속에 숨었다가 아침에 쇠 죽을 뿌려 나온 처가 식구가 화장실 재속에 감추어 주었다가 나중에 자수를 시켜서 살았는데 민경선이는 집에 와서 숨었다가 다시 잡혀서 죽었습니다”



수소문끝 신발짝과 뼈 나왔다 소식  
피가 거꾸로 솟아나오는 느낌

면사무소에 젊은 사람들, 여자·노인  
가둔 두 개 창고에서 100여명 죽어나가

“후손으로서 이제 11살이던 나이가 68세, 70세 이상이 되었습니다. 후손으로 생각해 보면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로 보복성 살상이 많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 국운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성이가 안쳐내려 왔으면 이런 일 없었을 것이고, 우리 아버지는 반공에 투철했지만 어려운이 돕고 그렇게 살았어도 돌아가셨어요. 이제 후손으로서는 우리에게 피해를 주었어도 원망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해코지 한 사람도 이미 죽었고, 죽기 전에 사과를 했습니다. ‘어찌다가 하루하루 도장 찍기를 미루어서 너희 어머니에게 미안하다 너희들에게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정홍철씨라고 술집 하는 이도 있고, 오케이 할머니라고 그이도 술집을 하는데 서로 무슨 일로 싸우다가 미군이 나타나서 “코뮤니스?” 라고 물으니 “오케이”라고 하자 정홍철이라는 사람을 쏙 죽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 제삿날 같이 이들 후손 9가족이 모여 위령비 세워

민창기(아들 민경완), 권남규(아들 권문옥·권세옥), 김순명(아들 김충흠)  
민남기(아들 민경성·민경훈·민경웅), 민병호(아들 민석기-작고·손자 민경철)  
민만기(아들 민경철), 어윤(아들 어수일-작고), 여이현(여운정·여운태·여운길)  
권동규(딸 권금자)

### 민 경 철(69세)/하성면 마조리

“당시에 11살이었고요. 아버지는 구장을 보다가 인민위원장을 봤고요. 아버지가 끌려간 현장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끌려가셨다고 아침마다 밥을 가져가는 것을 알았고요. 나는 어렸지만 가족들이 몇날 며칠을 시체를 찾으러 다니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빨갱이 가족이라고 연좌제에 묶여서 생활고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 못하고 공무원 시험을 보아도 다 합격을 하더라도 신원조회만 했다하면 안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을 해도 빨갱이 아들이라고 어디가면 경찰조사를 받았어요. 전셋집을 살아도 찾아오니 이웃사람들이 수상히 여기고 하도 견딜 수가



없어서 중앙정보부 대공분실에 찾아가 왜 뒷조사를 하느냐 직접 물어봐달라고 했습니다. 막내 삼촌이 의용군을 나가서 북에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50년 12월 겨울 덜거덕 거리면서 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눈이 쌓여있었는데 네 식구가 자고 있었어요. 갑자기 누나가 뒷문으로 뛰어나갔고요. 형수는 눈병으로 앞을 못 보았는데 치안대가 칼빈총으로 방을 쾡쾡 치면서 욕을 하고 다 죽인다고 했습니다. 민경희(17살) 잡으러 왔다고 했는데 어머니는 둘러 댔지만 나는 너무 무서워서 우리 누나 금방 도망갔다고 그대로 말했습니다. 누나는 이주열씨가 숨겨주어서 살았습니다. 그날 밤에 처녀들이 4-5명이 치안대에 붙잡혀 갔습니다. 누나를 못 잡아 가니까 총으로 개를 쏘 죽였습니다. 1.4후퇴때 터키군은 ‘도로꼬’ 군이라고 했는데 여자들은 대문이 튼튼한 집에 모여서 잤습니다. 아저씨들이 방망이를 들고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터키 군들이 여자들을 강간을 했거든요”

“하성초등학교에는 당시에 200-3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도치카가 있었어요. 민방공 훈련하는 것이요. 9.28때 30-40명이 죽었어요. 시체가 짝악 깔려 있었어요. 그때는 성황당 고개여서 골짜기였고요. 그곳에서 떡도 주워 먹었는데요. 여기서 시체를 찾아들 갔어요. 산에 감추어 놓았다가 찾아가는 이도 있었어요”

#### 민 경 훈(90세)/하성면 마조리

“강영규라고 하성면 인민위원장을 보았던 일가족 40여명이 몰살되었습니다. 3살 7살, 손을 철사로 묶고 아이 업은 여성은 죽고, 아이는 울고 하성초등학교 뒤(지금은 길옆)에서 보다가 무서워서 다시 갔습니다. 집으로 무엇을 가지러 오다가 다시 갔습니다”

#### 민 경 응(65세)/하성면 마조리

“저희는 민경성, 민경훈, 민경웅 삼형제가 남았습니다. 저는 민경웅이라고 셋째인데 당시에 아버지는 몸을 피하시느라고 그랬는지 산에 많이 계시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9살 때이니까요. 우리 집 아래 황인원씨집 아래에 우리 아버지를 비롯해 죽 잡아다 놓고 있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일을 못 보니까 그중 배운 사람들을 일 시켜놓고 빨갱이라고 한 겁니다. 뒤주와 장롱, 인삼 캔 것을 4가마를 다 압수하고 몰수해 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동네일을 본겁니다.

민봉기가 붙잡아 갔습니다”

권세옥(67세)/하성면 마조리

“그 당시의 상황은 다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농사를 지으면서 구장을 보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마조리에서 살았고요. 2000년부터 뜻을 같이 해서 아버지의 진상을 찾아 애를 써오고 있습니다. 8촌 동생 권금자가 과거사를 찾는 일에 뜻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저도 같이 노력하는 중입니다. 지켜보고 기다려봐야지요. 이제라도 어쩔 수없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죽음을 당한 어른들의 한이 풀려 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Ⅲ. 증언, 김포지역 민간인 학살 실태조사

1. 민간인 학살에 대한 인식
2. 조사방법
3. 6.25전쟁 전후 김포 지역적 상황
4. 민간인 학살에 대한 주민 증언 및 실태
5. 조사(진술)자료에 의한 김포 민간인학살 실태
6. 증언 및 진술로 본 희생자 규모
7. 조사를 마치며

### Ⅲ. 증언, 김포지역 민간인 학살 실태조사

이 글에서 살펴볼 내용과 방향은 다음과 같다. 증언자의 증언내용중 공통적으로 고백되어진 것은 6.25전쟁 중 김포에서 집단적인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주민 증언자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구술내용을 토대로 구분하면 '인민군(좌익)에 의한 민간인 학살, 국군(경찰포함)과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좌익과 우익에 의한 민간인 학살 등으로 구별된다.



세월이 흘러도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있다.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은 가족들의 시커멓게 멎든 가슴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길 없다.

## 1. 민간인 학살에 대한 인식

여기서 '학살'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잔인하고 참혹하게 막 죽음' 또는 '참혹하게 마구 무찔러 죽음'이라 정의되고 있다. 이때의 학살이란 의미는 개인적이거나 소규모의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전쟁 중의 학살은 대량학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대량학살을 '정당한 법적 절차나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국가권력 및 그와 연관된 권력체가 정치적 이유에 의해 자신과 적대하는 비무장 민간인 집단을 일방적으로 살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대량학살이 김포지역에서 진행되었고 그 규모가 약 2,000여명의 살육이 있었음을 전쟁이 끝난지 55년이 지난 지금, 지역적으로 '학살'이라는 단어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전시에 정규군대와 군대 간에 이루어지는 전투는 '작전행위'라고 하여 국가의 '정당화된' 공권력 수행의 과정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성'과 '정당성'을 표방한 국가권력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적으로 의심되는' 민간인을 살해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학살'로 분류하고 있다.

결국 학살은 '공식적인 전투 이면에서 이루어지는 전투'라고 할 수 있으며, 전쟁으로 인한 살상의 규모나 비극성은 사실상 공식 전투보다 더 심각한 경우가 많으며 6.25전쟁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통상 전시에 일어나는 민간인 학살에는 피해자는 있어도 가해자는 없거나 분명치 않은 것이 특징이다.

정상적인 군대작전이라면 계획 및 시행의 근거가 있고 결과에 대한 기록이 남는다. 그러나 학살은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충동적 돌발적으로 일어나거나 말단 부대의 즉각적인 조치에 의해 발생되므로 대체적으로 기록이나 증거가 분명치 않거나 은폐되기가 십상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증언은 중요한 자료가 된다. 증언은 당사자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한 내용이 고백이라는 형식으로 나타나며 진실성을 기반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증언은 역사적 자료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 민간인 학살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남북한의 6.25전쟁 중에 김포지역에서도 수많은 민간인 학살사건이 존재했었으며, 그 학살의 규모와 실태를 모아내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6.25전쟁 중의 김포

의 민간인 학살의 문제를 공식화한 일이 없다.<sup>1)</sup>

조사자는 이번 김포지역의 주민증언을 통해 고백되어진 민간인 학살의 문제를 보다 실증적으로 구체화 하기위해 문서상의 자료실체 여부를 조사해 왔다. 다행히 6.25전쟁 와중에 정부가 나서 조사한 자료를 찾아냈고 김포지역 민간인 피살자 명단을 확보할 수가 있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44명의 학살에 관한 증언 내용과 정부문서 등을 통해 김포지역에서의 민간인 학살의 실태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김포 부역혐의희생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정리할 것이다.

그러나 전문적인 연구나 이론전개를 주장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실태보고서 형식이 될 것임을 밝혀둔다. 이 작은 보고서가 김포지역에서 발생한 전쟁 중 민간인 학살의 진실규명을 밝혀내는데 그 첫걸음이 되기를 기원한다.

## 2. 조사방법

### 1) 증언자 선정과 채록방법

'김포지역 6.25전쟁비사' 조사 집필을 위해 44명의 인물 인터뷰를 진행했다. 증언자 구성은 6.25전쟁 당시의 경험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연령 70세 전후를 기준으로 했다.

우선 증언자 선정을 위해 각 동·면사무소로부터 70세 전후 김포지역에서 6.25전쟁 경험한 계층을 추천받았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김포문화원에서 추천한 인물과 조사자가 지역 노인정 혹은 주변 인물들에게 추천을 받은 50여명을 확정했다. 그러나 추천을 받은 대부분의 인물들이 조사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추천자가 많았다. 가령 조사의 목적과 범위는 김포지역에서 6.25전쟁을 겪었거나 보고, 들은 내용을 증언형식을 통해 조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추천자중 김포 지역 이외의 곳에서 전투에 참가한 인물들을 추천한 것이다. 즉 당시에 김포에 없

1) 2004년 6월 25일, 지역언론 <미래신문>이 인물 인터뷰를 통해서 6.25전쟁 중 김포에도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도한바 있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김포부역혐의희생사건> 조사를 2006년 11월부터 시작했다.

었던 인물을 추천한 것이다.

그렇지만 증언자를 직접 만났을 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앞의 본문의 증언된 글의 일부가 6.25전쟁을 통해 겪은 개인적 경험이 주요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증언자 선정을 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관계로 추천된 증언자 일부를 제외하고 인터뷰 방식을 바꾸었다. 즉 한사람의 증언을 마치면 그 증언자가 다른 증언자를 추천하는 방식(텔레이)으로 증언 인터뷰를 진행해 갔다. 증언자의 주변인물을 소개받은 것이다.

그러나 추천해준 분들을 인터뷰 하기위해 직접 만나거나 연락을 했을 경우 인터뷰를 거절한 분들이 많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때의 기억을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다'는 것과 '왜 그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느냐'이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당시의 죽이고, 죽었던 당사자들과 그 후손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점이었다. 즉 '매우 곤란한 상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조사자가 여러 방면으로 설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완강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제한된 시간 안에 당초 목표로 세웠던 증언자 50명 인터뷰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추천된 인물의 인터뷰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증언자의 연령이 높은 관계로 서면에 의한 방식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증언내용을 비디오로 녹화하면서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여기서 인터뷰 방식은 질문과 메모(기록)를 동시에 진행함을 말한다. 전체 시간은 짧게는 1시간, 상황에 따라 30분 정도 추가했다. 인터뷰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다음의 질문요지 15문항을 준비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은 아니다. 증언이 진행되는 도중에 연세가 높은 관계로 앞부분에서 증언했던 내용을 반복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준비된 질문을 통해 인터뷰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했다. 이 질문 1개 항목도 전달하지 않고도 증언을 해주신 분들이 많았다.

증언인터뷰를 마친 후 구술된 내용을 1차 정리하고, 2차적으로 내용 중 일부 지역명칭, 혹은 알아들을 수 없었던 내용에 대해 다시한번 직접 만나거나 전화상으로 확인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증언자가 밝힌 학살 장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답사하기도 했다.

조사 시기는 2006년 3월부터 2008년 9월 30일까지 자료조사 및 증언자 인터뷰를 진행했다.

〈증언 인터뷰를 위한 질문항목〉

6.25 전쟁 중 김포에서 겪으신 일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① 6.25전쟁이 일어난 사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 ② 선생님이 살고 계시던 동네는 언제 군인들이 들어왔나요(국군, 인민군)
- ③ 동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요?
- ④ 동네에서 선생님은 어떤 일을 경험하셨나요?
- ⑤ 혹 본인이 직접 겪지 않았지만 들은 이야기는 없었나요?
- ⑥ 피난을 가신 적이 있나요 가셨다면 언제 어디로 가셨나요?
- ⑦ 인민군들이 마을에서 어떤 행동들을 취했나요?
- ⑧ 국군 혹은 연합군이 마을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나요?
- ⑨ 가족 중에 인민군 혹은 국군들에게 겪은 일은 없었나요?
- ⑩ 혹 지역에서 치안대나 청년단 활동에 대해서 알고계신가요?
- ⑪ 부역자 활동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나요?
- ⑫ 인민군 혹은 국군이 주민을 학살한 일은 없었나요?
- ⑬ 인민군이 후퇴 중에 마을에 어려운 일을 취한 사실은 있나요?
- ⑭ 개인적으로 전쟁 중 특별한 경험을 하신 일이 있는가요?
- ⑮ 본인 혹은 가족중 의용군이나 국민방위군으로 나간일 있나요?

2) 김포 민간인 학살관련 자료조사

김포 민간인 학살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는 1952년 3월 31일 현재, 공보처통계국이 조사 작성한 자료를 통해서다. 이 문서의 공식명칭은 <6.25사변 피살자명부<sup>2)</sup>>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살자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정부의 공식문서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으며 그나마 비전투인인 민간인 학살 자료라는 점이다. 이 자료는 인민군과 좌익에 의한 주민학살을 중심으로 조사된 자료이다

세 번째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김포 부역혐의희생 사건 조사결과보고서> 등을 참조했다.<sup>3)</sup> 이 조사 자료는 2006년 11월 1일부터 2008년 9월 24일까지 희생자 유가족 및 참고인 40명을 조사한 자료이다.

2) 이 명부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이 자료집 후반부에 설명했다.

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김포부역혐의희생사건 조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옮길 수 있도록 허락받아 게재하였다.



따라서 이 실태보고서는 44명의 증언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자료상의 조사서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6.25사변 피살자 명부>에 나타난 내용은 별도로 분석하였다.

### 3. 6.25전쟁 전후 김포 지역적 상황

김포지역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이해를 위해 6.25전쟁 전후의 지역적 상황을 자료와 증언내용을 토대로 살펴본다. 증언자 대부분이 경찰과 우익치안대에 의해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졌다는 증언에 따라 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 1) 증언으로 본 김포 상황

6.25전쟁 전 김포는 당시 김포경찰서 형사로 근무했던 박점문씨의 증언에 의하면 전쟁 전 김포지역에서도 보도연맹<sup>4)</sup>이 결성되어 있었으며 또한 1948년도에 일명 ‘야산대<sup>5)</sup>’라고 하는 빨치산 부대가 존재했었다고 한다.

야산대는 검단면 원당리, 고촌 신곡리, 대곶면 가현리에 각각 1개 소대가 있었으며 총 2개 대대가 편성되어 있었으며 전국에서 최초로 야산대의 실체를 파악하고 검거했으며 이를 계기로 전국적인 검거가 이루어졌다고 증언하고 있다.

증언자 박점문씨에 따르면 “보도연맹은 치안본부가 좌익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이용할 목적으로 만든 조직체였는데, 김포경찰서<sup>6)</sup>는 이를 통해 당시 경찰이 파악

4) 보도연맹 ; 1949년 좌익전향자들로 구성된 조직. 정식 명칭은 국민보도연맹이었다. 이 단체는 국가보안법의 구체적인 운용책의 하나로 국가보안법에 저촉된 자 또는 전향자로 분류된 인사들을 이 단체에 빠짐없이 가입하도록 규정해 놓았으며, 그들에 대한 회유와 통제를 쉽게 하도록 했다. 1949년 말까지 이 단체의 가입자 수는 약 30만 명에 달했으며, 서울에 1만 9,800명이었다. 1949~50년 이들은 당시 좌익세력을 와해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6·25전쟁이 일어나자 일부 위장전향자들과 북한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는 세력을 뿌리 뽑는다는 정부방침에 의해 무차별 검속과 즉결처분이 실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때의 실상은 공개된 것이 없다.

5) 야산대는 말 그대로 ‘밤에 산에서 활동하는 자’이다. 미군정의 탄압으로 남로당이 모든 정치활동이 불법으로 탄압을 받게 되자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채택하게 되는데 지방에서는 무장부대로서 야산대가 조직되었다. 주로 당원가운데서 군사경험이 있거나 10월 인민항쟁때 지하에 들어가 활동하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다. 대개 한 개 군의 50~100명 정도 이었다. 야산대는 38소총, 장도, 칼 또는 군경으로부터 탈취한 무기로 무장하였다.

6) 김포경찰서 연혁에 따르면, 김포경찰서는 1914년 김포면 북면리 350번지에 설치되어 사건 발생 시기 같은 주소에 있었다. 현 김포경찰서는 1988년 김포군청이 있었던 북면리 361-2번지로 청사를 이전하였다.

하기 어려웠던 중심인물을 파악하여 치안본부에 보고를 하였다”고 한다.<sup>7)</sup>

좌익 인사들 중에 검거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었고, 경찰에 관계없이 활동하게 했으며 활동비도 지급하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니까 당시 좌익인사들이 많이 가입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들이 6.25전쟁이 일어나자 인민군 점령시 하부 활동과 부역을 하게 되었다.

또한 당시 경찰의 하부조직으로 활동했던 치안대는 청년단 단원들이 활동했다고 말한다. 김포는 민족청년단<sup>8)</sup>과 대한청년단<sup>9)</sup>이 조직되어 있었고 대한청년단 단장은 이장희, 민족청년단 단장은 홍선동, 부단장은 황의식씨였다고 한다. 대동청년단<sup>10)</sup> 단장은 윤원표였다.<sup>11)</sup>

고촌면 임병석은 대한청년단 고촌면단부 부단장, 임범일은 신곡리 영사정동단부 단장, 이한선은 향산리 하향산동단부 총무, 윤희섭은 고촌면단부 감찰부차장으로 활동하였다.<sup>12)</sup> 양촌면에서도 청년들을 중심으로 대한청년단에서 주관하던 군사훈련을 받기도 하였다고 한다.<sup>13)</sup> 증언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김포군 전역에서 청년단이 결성되어 활동하였고 청년단원이 치안대로 활동했다.

증언자 김경모씨에 의하면 황의식씨가 호국군을 창설했으며 9개면에 4개 소대

7) 「참고인 박정문 진술녹취록」(2008. 6. 11), 8쪽. 당시 김포군 보도연맹 책임자는 검단면 오우리 사람인 이종빈이었다고 한다.

8) 조선민족청년단(朝鮮民族青年團·약칭 축청)은 이범석을 중심으로 1946년 10월 9일 '국가지상, 민족지상'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창설한 반공주의적 우익 민족 청년 운동 단체이다. 이범석은 청년들을 광복된 새 나라의 역군으로 조직화하고 훈련하는 것이 제일 시급한 일이라 판단하고, 미군정의 지원을 받아 '축청'을 창설했다. 미군정도 청년단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1946년 중반 비밀리에 약 500만 달러와 미군 장비를 지원하고 훈련 고문으로 미군 대령 한사람 등을 특파하여 축청 결성을 지원하였다.

9) 대한청년단(大韓青年團) 1949년 12월 19일 이승만(李承晩)이 자신의 취약한 정치적 기반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전국에 산재해 있던 각 청년단체들을 하나로 통합해 결성한 단체. 이승만이 직접 총재직을 맡았고 장택상(張澤相)·지청천(池淸天)·전진한(錢鎭漢)·유진산(柳珍山)·신성모(申性模)·노태준(盧泰俊) 등이 최고위원으로 추대되었다. 대한청년단은 광범위한 조직망을 이용해 200만 단원을 확보하는 전국적 조직체계를 갖춘 유일무이한 청년단체가 되었다. 그러나 청년단체로서의 독자적인 역할은 상실한 채 주로 이승만 지휘활동을 전개했다. 1950년 1월 내부분열로 최고위원회가 폐지되고 단장제로 바뀌어 신성모가 초대 단장으로 추대되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청년단을 법적 근거도 없는 청년방위대라는 반(半)군사조직으로 만들어 항도방위에 투입시켰다. 그리고 1·4후퇴 시에는 국민방위군(제2국민병) 설치령에 따라 이 조직을 국민방위군으로 재편해 국민방위군을 조직·이동·훈련시키는 임무를 맡겼다. 1953년 9월 10일 이승만의 명령으로 대한청년단의 해산이 선포되었다. 이로써 해방 후 8년 동안 지속되어오던 남한에서의 우익청년단체의 활동은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

10) 대동청년단은 1947년 9월에 지청천을 중심으로 창설되었던 반공주의 우익 청년단체이다. 1947년 4월 광복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지청천이 귀국해, 청년단체의 대동단결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우익계열의 32개 단체를 통합, 결성하였다.

11) 金浦文化(제11호) 김포문화원. (2000년 1월), 56쪽.

12)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단기4284년 형제351호」(1952. 6. 28)

13) 「신정인 김동묵 진술조서」(2007. 5. 31), 6쪽.



가 있었으며 김포면에는 30명이었다고 증언한다.

김포지역 호국군<sup>14)</sup>은 최초로 1946년 인천 신흥국민학교에 1개 소대를 파견, 1개월간 각종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즉각 투입이 가능하도록 훈련되었다. 김포 호국군 1개 소대 30여명은 1개월간의 훈련을 마치고 김포로 복귀, 생업에 종사했다. 당시 김포 호국군 중대는 4개 소대로 편성되어 황의식 중대장을 중심으로 1소대장 김재경, 2소대장 박원재, 3소대장 이승기, 4소대장 풍무리 ○○씨(증언자의 기억 불확실)가 선두가 되어 평시 생업에 종사하며 주기적으로 훈련에 임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대한청년단등 당시 각 청년단체들과의 마찰 등으로 중앙 시책에 따라 국민방위군이라는 통합 단체가 발족되었다<sup>15)</sup>고 한다.

증언자 김경모씨에 의하면 김포면에는 1950년 9월경 호국군 출신 및 청년단원들로 구성된 지역자치대 성격의 지하특공대인 '향토방위특공대'가 조직되었다. 이 조직은 박원재(朴元載)씨가 주도하였는데 박원재씨는 육군 사관학교 8기생으로 1950년 대위로 임관 해 부대배치를 기다리며 휴가를 나와 있던 중 6·25가 발발, 곧바로 원대 복귀하려다 인민군 포로로 잡혀 김포경찰서 유치장에 갇혀있었으나 함께 갇혀있던 다른 청년단원들과 반성문과 정보제공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풀려나와 지하조직을 결성했다고 한다.

이 조직은 준군사적인 조직으로서 인민군과 국군이 남겨놓은 총을 지역별로 회수해서 사용했으며 김포경찰서 내 무기고에서도 몰래 빼온 총도 있었다고 한다.

증언자 유연종씨에 의하면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이 시작되어 국군과 연합군이 9월 21일에 김포에 들어왔으며, 이때 치안대를 자체적으로 결성했는데 걸포리 출신들이었으며 김포면에는 치안대가 걸포리에만 있었다고 한다. 치안대는 걸포리, 감정리, 북변리, 운양리 치안을 담당했다고 증언했다.

14) 대한민국 호국군은 1948년 11월 20일에 창군된 대한민국의 국군의 예비군 부대이다. 정규군 창설이후에도 1949년이 되기 전까지는 지원병제를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비병력 확보의 차원에서 조직되었다. 이는 국군 조직법(법률 제9호) 제 12조에 근거 육군총사령부(육군본부의 전신) 예하 호국군무실(초대 실장 신웅군 소장)을 기원으로 한다. 세부규정은 1949년 1월 20일 공포한 호국군 병역에 관한 임시조치령(대통령령 제52호)으로 정해져 확장을 꾀했으나, 1949년 8월 31일부로 해체에 들어갔다. 그 후 한국전쟁 발발 이후에, 정규군과 완전히 통합되었다. 하지만, 이후 징병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호국군을 대신하여 민병 조직으로서 청년방위대를 창설했다. 기본적으로 육군 정규군을 보조하는 역할로서, 전투부대와 특수부대로 나뉘었고, 필요에 따라서 정규군(현역)으로 편입할 수 있었다. 징병들은 예비역 신분으로 본인 거주지에 주둔하는 연대에 소속되어 생업에 종사하며 필요한 훈련을 받았다.

15) 金浦文化(제11호) 김포문화원. (2000년 1월), 57쪽.

증언자 유선종씨는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인민군과 국군 그리고 특공대간의 전투가 김포읍내에서 낮에는 국군이 밤에는 인민군이 뺏고 빼앗기는 공방전이 있었고 마침내 9월 25일 국군에 의해 김포읍을 재 수복시켰다고 한다. 이후 9월 25일을 '김포의 날'로 정해 10년간 김포수복 기념행사를 치러왔다고 한다.

이때부터(9월 25일부터) 인민군의 김포읍 점령기간(1950년 6월 28일부터 9월 24일까지) 동안 인민군의 하부조직으로 혹은 부역한 주민들을 색출하는 일 시작되었다고 한다.

국군 수복 직후 바로 치안대가 각 면별로 조직되어 활동을 시작했으며 경찰과 치안대원들이 본격적인 좌익인사들과 그 가족 및 부역자들을 총살하기 시작했다.

## 2) 인민군의 김포 점령<sup>16)</sup>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지자 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경찰서장(당시 이무영 경감)의 지휘아래 오전 11시경 김포경찰서 본서로 집결하였다. 그 후 트럭을 타고 서울 시내를 지나 문산 경찰서 관내 성동(개풍 건너편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곳으로 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임)에 배치되었다. 이들이 주로 한 일은 피난민 통제였다고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인민군에게 포위당하자 다시 김포경찰서를 거쳐 후퇴하였다고 한다.<sup>17)</sup>

김포군의 주민들은 대부분 가까운 곳으로 피난하였다가 되돌아 왔으며, 당시 인민군 점령기 동안 피난을 나간 주민들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인민군이 김포를 점령하자 인민위원회가 결성되었다. 김포군 인민위원장은 어수갑, 김동춘 또는 김문흠, 고촌면 신곡리 인민위원장은 이경창, 김포면 운양리 인민위원장은 심성기, 감정리 인민위원장은 김부걸, 양동면 마곡리 인민위원장은 이의철, 하성면 인민위원장은 어수갑(魚秀甲) 또는 강○○, 하성면 마곡리 인민위원장은 여이현이었다고 한다.<sup>18)</sup>

판결문에 따르면, 임병석은 고촌면 조국보위위원회 서기장, 임범일은 조국보위위원회 위원, 이한선은 면 자위대장, 윤희섭은 면 자위대 부대장으로 활동하였으

1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김포부역혐의희생사건 조사결과보고서>, 2008

17) 「참고인 유학현 진술녹취록」(2008. 8. 28), 3쪽, 당시 검단지서에 근무하고 있던 유학현은 전쟁이 났는지 몰랐으며, 무슨 이유로 집결하는지, 어디로 이동하는 지도 몰랐다고 하였다.

18) 박점문, 어후경, 장상래, 송요수, 심순옥, 정○○, 이의연, 이재구 진술

며<sup>19)</sup>, 신분장 자료에 따르면 양촌면 수참리 인민위원장은 한상익(韓相翊)이었음이 확인된다.<sup>20)</sup> 인민군 점령 당시 김포군의 주민들은 의용군에 많이 끌려가기도 했으나 도망하여 다시 국군으로 입대한 일도 많았다고 한다.<sup>21)</sup>

### 3) 9.28수복과 경찰 치안 활동<sup>22)</sup>

김포경찰서를 비롯한 비상경찰총사령부(치안국)는 경인지구의 치안확보를 위하여 경찰 선발대를 편성한 후 1950년 9월 25일 대구를 출발, 부산을 경유하여 10월 1일 인천에 상륙하였다.<sup>23)</sup> 상륙 직후 이들은 인천내 모 중학교 운동장에 모여 경기도 경찰국장(한경록)으로부터 “부역혐의자들을 A, B, C로 나누어 모두 죽이라”하는 지침을 받았다고 한다.<sup>24)</sup>

박점문씨에 의하면 당시 김포경찰들이 인민군이 진격해 왔을 때 모두 후퇴했지만 5명이 후퇴를 하지 않은 경찰이 있었으며 수복후 김포에 들어오니 좌익이 되어 있어 구속시켰었다고 한다.

김경문씨에 의하면 김포가 수복된 후 후퇴했던 경찰이 들어왔는데 좌익들과 부역했던 사람들을 검거하기 시작해 총살시키기 시작했다고 한다.

고촌면에서는 9.28수복이 되자 고촌지서 김용창(金容昌) 순경<sup>25)</sup> 등이 선발대로 도착했으며, 고촌의 유지인 임병석, 임범일 등의 협조를 받으며 부역혐의자들을 색출하였다.<sup>26)</sup>

김포면 감정리에서는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후 이에 저항하며 후퇴하던 인민군이 마을 반장이 정해 준 집에서 쉬고 간 일이 있는데, 국군 수복 후 이에 대해 조

19)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단기4284년 형제351호」(1952. 6. 28)

20) 「신청인 김동목 진술조서」(2007. 5. 31), 7쪽; 「참고인 김정숙 진술조서」(2007. 5. 31), 5쪽. 한상익이 인민위원장이었다는 사실은 치안본부 「신원기록편람(1984년)」에서도 확인된다.

21) 「신청인 김동목 진술조서」(2007. 5. 31), 6~8쪽. 마곡리의 젊은이들은 모두 의용군으로 끌려갔으나 대한청년단이었던 김창길(당시 28세)과 김홍길(당시 31세)은 의용군에 끌려가지 않았다.

2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김포부역혐의희생사건 조사결과보고서>, 2008

23) 「한국경찰사 2」, 내부부치안국, 1973. 292~293쪽. 이때 선발된 인원은 치안국 116명, 서울시 경찰국 809명, 경기도경찰국 1,054명 등 모두 2,049명이었다고 한다. 참고인 유학현에 따르면, 당시 신흥환이라는 일본배를 타는데, 여수 순천에 인민군이 있으므로 제주도를 돌아서 인천으로 상륙했다고 한다.

24) 「참고인 함국주 진술녹취록」(2008. 6. 20), 14쪽. 참고인 함국주는 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인천상륙작전 직후 선발대로 인천을 통해 북귀하면서 경기도 경찰국장으로부터 부역자 처리 지침에 대한 연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25) 김포경찰서, 「직원명부 월례보고에 관한 건」, 1950, 1951. 김용창은 전쟁 전 김포경찰서 사찰계에서 근무했다.

26)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단기4284년 형제351호」(1952. 6. 28)

사한다면서 각 집안을 뒤진 일이 있었다고 한다.<sup>27)</sup>

그 후 1950년 10월 25일 중공군의 참전에 의해 한국전쟁의 전세가 반전되었으며 12월 12일 전선은 다시 38선 이남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은 12월 23일 시민의 피난을 공식 명령하고, 12월 24일 서울시민 소개령을 발표하였다.<sup>28)</sup> 1950년 12월 15일경 경기도경찰국이 양주경찰서장(경감 가창현)에게 경찰관 가족 등 우익인사들에 대한 후퇴 지시를 내리자 양주경찰서장은 12월 19일경 이를 다시 각 지서에 전달하였으며,<sup>29)</sup> 강화경찰서장(경감 김병구)은 같은 해 12월 20일까지 각 경찰관과 우익인사의 철수를 지시했다고 한다.<sup>30)</sup> 이로 보아 경기도경찰국은 경기도내 각 경찰서에게도 같은 내용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각 경찰서는 이를 계기로 인민군에게 협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들을 다시 연행함과 동시에 그때까지 구금상태에 있었던 주민들을 살해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sup>31)</sup>

자료에 의하면 따르면, 김포 하성면에서도 이 시기 희생 사실이 확인되며, “피난을 못해 부역혐의를 받던 주민들에게는 1.4후퇴 당시 도민증을 발급해 주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멀리 피난을 갈 수 없었다”고 한다.<sup>32)</sup>

## 4. 민간인 학살에 대한 주민증언 및 실태

44여명의 증언자 대부분이 김포지역에서 민간인 학살이 대규모적으로 있었음을

27) 「참고인 신성철 진술녹취록」(2008. 4. 11), 3쪽.

28) 양영조, 『한국전쟁과 동북아 국가정책』, 선인, 2007, 211~223쪽. 서울의 경우 1951년 1월 3일까지 114만 명이 철수하였다고 한다.

29) 「양주경찰서장 가창현 청취서」, 28~29쪽. 이 문서를 통해 경기도 경찰국은 양주경찰서장에게 “관공서 직원, 우익 단체원, 경찰관 가족을 한강 이남으로 피난시키며 특히 중요물자 및 청장년을 계획적으로 수송하라”고 통첩을 보냈음이 확인된다.

30) 「강화강화도·석모도·주문도)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조사결과보고서」, 『2008 상반기 조사보고서 2』, 진실화해위원회, 2008, 673쪽.

31) 진실화해위원회는 1950년 12월 19일 남양주 진건면에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229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끌려가 희생당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진실화해위원회에는 경기도 포천지역과 용인지역에서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으므로 진실규명을 해 달라는 신청사건이 있다. 신청인 김순배(9217호 사건)는 “1.4후퇴 당시 포천군 소흘면 치안대가 피난을 시켜준다면 가족들을 모두 끌고 가 총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신청인 원용철(21호 사건)도 같은 시기 “용인군 원삼면 치안대가 ‘남겨두면 보복한다’며 좌항리 노인 5명을 사암리 안골 광산에서 총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32) 「신청인 김동목 진술조서」(2007. 5. 31), 2쪽; 「참고인 김정숙 진술조서」(2007. 5. 31), 6쪽.



학살된 가족을 찾는 유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함흥, 1950. 10. 10. 자료사진 | 지울 수 없는 이미지 (2007. 눈빛)

증언하고 있으나 일부 증언자를 제외한 다른 증언자들의 증언내용은 주로 전해 들은 내용이 많았다. 따라서 직접 민간인 학살에 참여한 당사자와 상황을 본 증언자의 증언 내용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조사 진술한 내용을 보충하여 정리하였다.

민간인 학살 상황에 내용은 두 가지 방향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증언자 44명의 증언내용 속에서 밝혀진 민간인 학살상황을 소개할 것이며 두 번째는 조사 자료를 통해 진술한 희생자 유가족 및 참고인들의 진술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증언자에 의한 민간인 학살 실태를 지역별로 소개한다.

### 1) 김포1,2,3동 지역

김포1, 2, 3동 지역의 증언자는 북변동 4명, 감정동 2명, 걸포동 2명, 사우동 1명, 풍무동 3명, 총12명이다.

증언자 구정희씨는 당시에 중학교 1학년 14살이었으며 외삼촌 정준현씨가 인민군 시절에 반장 일을 시키니까 반장일 4-5일 했는데 인민군이 후퇴하자 치안

대에 의해 경찰서에 잡혀가 국군 쪽에 의해 죽었다고 한다. 또한 이 일로 외할머니도 끌려가 여우재 고개에서 죽었고, 치안대가 장릉부터 순가락까지 다 가져갔다고 한다.

그 일로 외숙모(조씨)는 항의하다 구속돼 어린 막내를 업고 서대문 형무소에 9년이나 복역한 후(복역 중 어린애기 감옥에서 사망) 5-6년도 못살고 죽었다고 한다.

증언자 두병환씨에 의하면 김포에서는 8월 10일경부터 9월 초순까지 좌익에 의한 우익 가족학살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학살을 할 때 끌고 가는 사람이 많을 때는 20명쯤이었고, 이를 건너 사흘 건너 15명 정도씩 끌고 가는 것을 마당에서 구경했다고 한다.

장릉산에서 5-6미터의 계곡(고려공원 골짜기)깊이 낭떠러지에서 죽었으며 끌려가는 사람들 중에 애기업고 가는 여자들도 있었다고 한다.

낭떠러지 앞에 일렬로 세워놓고 따발총으로 쏘면 자동적으로 골창으로 떨어져 들어갔으며 삼을 가지러 완장을 찬 사람이 와서 삼을 빌려다가 얇게 덮었다고 한다.

8월 20일 넘어서 인천에서 함대사격을 김포에도 밤낮 10일 이상 사격을 했는데 8월 말에 함포사격을 할 무렵에 더 많이 죽었다고 한다. 예비군 훈련장 앞 영구령터에서 죽었다고 한다.

서울이 수복되고는 그 반대가 되었으며 9월 이후에는 빨갱이 가족들이 희생물이 되었다고 한다. 여우재 고개에서 많이 죽었고, 독자골(고려공원)에서도 처형사건이 몇 번정도 있었다고 한다. 형님이 치안대 예비경찰로 지원해서 들어가 2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좌익을 희생시켰다고 한다.

증언자 유선중씨에 의하면 9.28수복 당시 좌익들을 충현탑 밑에 있는 채석장에서 총살시켰으며, 치안대들이 여럿이 가서 열 명씩, 열 명씩 전화 줄로 묶어서 놓고 쏘았다고 한다. 일부 치안대는 빨갱이들을 패서 죽었다고 한다.

증언자 유연중씨에 의하면 치안대 하다가 인민군에게 붙잡힌 7명이 구 경찰사에서 삼각창(총 끝에 꽂혀있는 칼)에 찔려 죽었는데 수복된 후 치안대가 보복을 했었다고 한다.

증언자 박점문씨에 의하면 김포경찰서 소속경찰 중 후퇴하지 않은 다섯 명이 있었는데 복귀해보니 좌익이 되어 있어 구속시킨 일이 있으며, 여우재 고개 오른쪽 땅이 사태가 나서 파진 곳에서는 우익, 좌익 수백 명이 묻혀 있었다고 한다.

증언자 송영환씨에 의하면 잔존 부역 가족들이 많이 희생되었으며 '여우재 고개 구령터'와 '신방축(한강제방 뺨)', '감정동 독자골, 고려공원 안쪽의 영구령터

이'에서 희생되었다고 한다.

증언자 윤종호씨에 의하면 상이용사탑(충현탑) 아래(채석장) 강훈석씨가 처음에 집 지을 때 사람의 뼈가 나와서 삼태기로 담아내 공동묘지 위에 묻어주었다고 하며 김포초등학교 뒷산에서도 학교 지을 때 뼈가 나와서 어린 학생들이 보았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그 당시는 40년 전만 해도 비가 오면 흙이 패어지면서 뼈다귀가 나와 반짝거렸고 그것이 무서워서 직원을 데려다 주기도 했다고 한다.

증언자 김경모씨에 의하면 9.28수복때 경찰서에 좌익빨갱이 40명을 잡아넣었는데 인민군이 별안간 왔다는 바람에 다 놓쳐버린 적도 있었으나 밤으로 집집마다 다 뒤져서 5,60명 다 잡아서 경찰이 가두어놓고 20-30명씩 데려가서 죽였다고 한다. 이 때 70명을 큰 굴창이에다 잡아넣고 죽였으며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

또한 인민군이 구 경찰서 담 밑에서 7-8명의 걸포리 사람을 대창으로 죽이니까 약이 올라 10월 6,7일경에 경찰이 70명의 패잔병들을 죽였다고 한다. 사우리 안동네 사람 5-6명 바닥빨갱이를 죽였는데 본인이 직접 사살했다고 한다.

고려공원 세 곳 골창(골짜기)에서 밤 12시가 넘으면 끌고 와서 죽였는데 첫 골창에서는 10명, 두 번째 골창은 17명, 세 번째 골창에서는 30명을 죽였다고 한다.

여우재 고개도 3곳이 있었는데 첫 번째 곳에서는 20명, 두 번째에서는 10명, 세 번째 더 큰 골짜기에는 70명 모두해서 110명을 죽였다고 한다.

여우재 고개는 경찰이 들어와 10월 초에 총살이 이루어졌고 지금의 신명 아파트 뒤쪽 20미터 더 간 지점이었다고 한다.

예비군 훈련장 뒤 이곳은 두 군데에서 옹주물, 사우리 사람들 6-7명을 죽였다고 한다.

감정동 성인교회 뒤쪽 산골짜기에서 20명을 총살했다고 한다.

북변동 충현탑 밑 채석장 자리 이곳에서는 정확한 명수로 31명을 죽였는데 바닥 빨갱이 가족, 위원장을 한 남편, 증언자에게 욕을 심하게 한 여자, 부위원장을 한 아들 등 일가와 조리미 사람도 있었다고 하며 여성은 7명(여선생 2명, 여성인민 위원장과 욕한 여자, 그리고 술집 영업자 2명) 여자는 7명, 남자는 24명이었고 밥도 주는 것이 아까운 진짜 빨갱이라서 낮에도 4-5명씩 데려다 죽였다고 한다.

증언자 이재근씨에 의하면 풍무동에서는 인민군이 밀려가고 정식 경찰이 들어오기 전 치안대가 빨갱이라고 동네 처녀들을 강간하고 끌어다 여우재 고개, 향교자락(김포초 뒤편) 있는데서 철사로 묶어 싹 죽였는데 40명이 된다고 한다.

또한 죽은 남편의 부인들을 빨갱이 여자들이라고 머리 뺨뺨 깎이고, 재산을 몰

수해 갔다고 한다.

이상 증언자 12명에 의한 김포1, 2, 3동 지역의 민간인 학살은 치안대에 의한 학살과 좌익의 우익주민학살 실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살구분	현지역	증언에 의한 학살현장	학살인원추정	다른증언
우익치안대 좌익학살	불로동	여우재고개 골짜기 1	30	200-400명
		여우재고개 골짜기 2	10	
		여우재고개 골짜기 3	70	
	감정동	예비군훈련장(여우재고개 정상) 골짜기 1	7	
		예비군훈련장(여우재고개 정상) 골짜기 2		
		독자골(고려공원) 골짜기 1	17	
		독자골(고려공원) 골짜기 2	10	
		독자골(고려공원) 골짜기 3	30	
		성인교회 뒤편 골짜기	20	
	북변동	충현탑 아래 채석장 자리	31	
김포초 뒤 골짜기		40		
걸포동	한당제방둑 20미터전방 뺨(개흙)	40		
좌익의 우익학살	감정동	독자골(고려공원) 골짜기 1곳	수십명	
	북변동	구 김포경찰서 내	7	
	고양시	고양시 송포면(호국군12용사)	12	
합 계			334명	

※ 학살인원 추정에서 '수십명'으로 표현한 수치는 최소10명으로 계산했다.

### ■ 증언자가 말하는 학살현장

김포1, 2, 3동 지역에서 민간인 학살 상황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증언했다. 또한 증언자들의 증언내용 속에서 학살상황과 현장 등에 대해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특별한 점은 이 지역의 학살 증언자 대부분 자신의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위치에서 증언을 해주었으나 몇 분의 증언자(치안대 활동)는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김포1동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학살 장소로 지목한 곳은 일명 '여우재 고개'로 불리는 곳이다. 여우재 고개 위치는 지금의 김포시 감정동에서 인천광역시 불로동(불로동은 1995년 3월 이전까지는 김포군 검단면이었다)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이 지역은 증언자 대부분이 '김포 여우재 고개'에서 민간인 학살이 대규모로 행해졌다는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 ① 여우재 고개 신명아파트 자리



여우재 고개에서 불로동 방향으로 내려가는 오른쪽 방향의 신명아파트 오른쪽 등에서 20미터 후방지점

여우재 고개는 김포시 감정동과 인천시 불로동(1995년 3월 이전까지 김포군이 었다)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김포시 감정동에서 불로동 방향으로 여우재 고개를 넘어가면서(고개 정상지점) 오른쪽 방향(50여 미터)에 신명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지점이 김포1동의 대표적인 학살현장으로 지목한 곳이다. 사진에서 보이는 신명아파트 102동 뒤편으로 20여 미터 지점이다. 당시 이곳은 세 곳의 골짜기(증언자는 골창이라고 함, 2개는 작고, 하나는 큼)가 있었으며 길이 꼬불꼬불했다고 한다.

증언자에 의하면 이곳에서의 학살은 1950년 10월초 김포군 경찰이 후퇴했다

가 김포로 복귀하면서 경찰에 의한 집단학살이 자행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현장이다. 치안대보다 경찰이 더 심하게 했으며 밤 12시가 넘어야 이곳으로 끌고 와 학살시켰다고 한다.

증언자 김경모씨에 의하면 학살 장소로 가는 도중 개머리판으로 머리 오른쪽을 내리쳤는데 흘러들 머리가 벗겨지면서 즉사한 일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증언자는 학살규모에 대해서 골짜기 세군데 장소에서 110명을 죽였다고 증언했다.(작은 골짜기 한곳에서 30명, 중앙에 있는 골짜기에서 10명, 가장 큰 골짜기에서 70명; 사진에서 바라보는 방향에서 왼쪽)

## ② 예비군 훈련장 뒤편 골짜기



증언자가 서있는 위치는 여우재 고개 정상지점이며 증언자 오른쪽에 아치형 탑 뒤편 예비군훈련장이 위치하고 있다. 증언자가 가리키는 방향은 김포방향이다.

예비군훈련장은 감정동 여우재 고개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방향은 김포시 감정동에서 인천 불로동으로 넘어가는 도로상에서 왼쪽방향이다. 당시에는 골짜기를 따라 좁은 길이 놓여 있었는데 증언자가 가리키고 있는 반대편(왼쪽)에 길이 있었다.

위 사진에서 증언자가 손으로 가리키는 방향은 김포방향이다. 증언자 오른쪽(아치탑)이 예비군훈련장 입구이다. 입구에 아치형 탑이 놓여 있다.

학살 장소는 증언자가 서있는 위치에서 손방향의 아치탑 뒤 보이는 산위 방향이다. 당시 이곳의 골짜기는 크지 않았다. 골짜기가 두 곳이었는데 그 중 하나가 지금 도로가 만들어진 지점인데 많이 깎아내렸다고 말한다.

이 두 골짜기에서 6-7명을 죽였으며 특히 용주물(감정동)과 사우리(현 사우동) 주민들을 총살시켰다고 증언했다.

### ③ 감정동 성인교회 뒤편 골짜기



증언자가 가리키고 있는 성인교회 뒤편 산골짜기 지점

증언자가 서 있는 위치가 인천시 불로동으로 넘어가는 여우재 고개 중간지점이다.

증언자가 가리키는 사진속의 성인교회 뒤편 산이 보이는 곳이 세 번째 학살 장소다.

이곳에서 일명 바닥빨갱이들을 총살했는데 창으로 죽이면 더불쌍해 총으로 죽였다고 증언했다. 증언자는 ‘빨리 죽여 달라거나, 살려달라며 울고 매달리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

이 골짜기에서 20명을 총살시켰다.

#### ④ 북변동 충현탑 및 채석장자리



이 충현탑에는 6.25전쟁 중 전사한 김포출신 영령을 모신 위령탑이다. 여기에는 민간인으로서 호국군을 조직해 전투에 참가 인민군에게 총살당한 김덕문의 12용사가 위패가 함께 모셔져 있다.

김포시 충현탑은 장릉산 줄기 끝자락 작은 봉우리에 세워져 있다. 이 충현탑은 김포지역에서 지역방위를 자체적으로 지켜내기 위한 청년단(호국대) 12명이 인민군에게 잡혀 고양군 송포면에서 집단학살을 당했다. 일명 12용사로 불리는 호국단 회원들과 무명용사 및 전사사 607명의 위를 모시고 있는 곳이다.



이 충현탑 앞으로 장릉산으로 올라가는 4-5미터 폭의 아스팔트 도로가 놓여있다. 충현탑 입구(문)와 맞닿아 있는 도로 반대편 끝이 낭떠러지 형태의 지형이다. 바로 이 낭떠러지 밑이 당시에는 채석장 자리였다.

◀사진속의 슬레이트지붕이 보이는 집 지점이 당시 채석장자리다. 사진 속 오른쪽 끝의 위쪽에 충현탑이 있다.

이곳 주변은 당시 나무가 우거져 있었으며 골짜기(채석장)만 뺄려 있었다고 한다. 돌을 캐는 곳이라서 인적이 없었으며 이곳에서 정확히 31명을 학살했다고 증언한다. 이 학살 장소에서는 바닥빨갱이로 손가락질을 당한 사람들만 총살시켰다. 여성 7명을 총살시켰으며 여선생이 2명, 여성인민위원장, 증언자에게 욕한 여자, 술집영업자 2명을 학살했다.

이곳에서의 집단학살은 다른 곳에서는 낮에는 총살을 시키지 않았지만 악질 빨갱들은 밥도 주는 것이 아까워 낮에도 4-5명씩 총살시켰다고 증언하고 있다.

증언자는 다른 곳에서 죽인 사람들 중 억울한 사람을 죽였을 수도 있었지만 이곳 채석장에서 총살은 악질 바닥빨갱이들이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⑤ 감정동 고려공원 골짜기



증언자가 가리키는 산 왼쪽 방향에 골짜기가 있었다.

현 고려공원(감정동 신안실크밸리아파트 끝자락 공동묘지) 안쪽이다.(그림; 사진에서 증언자가 가리키는 지점) 장릉산 서쪽 능선을 말한다. 당시에는 이곳에 3곳의 골짜기가 있었으며 울창한 숲으로 조성되어 있어서 이곳에 들어오면 밖에서 사람이 있는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고려공원안 사진정면에 보이는 큰나무 뒤 골짜기가 학살지점이다.

큰 아름드리나무 숲으로 돼 있어서 당시 인민군에 의해 의용군으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이곳 아름드리나무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숨으면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 다른 증언자는 당시 골짜기 위에서 치안대가 좌익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총을 쏘면 골짜기 밑으로 굴러 떨어졌는데 그 중 한사람이 일어나 목지 쪽으로 도망을 간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도망가는 사람을 향해 총을 쏘았지만 잡지 못했다고 한다.

특히 이곳에서는 김포경찰서 유치장에 인민군이 걸포리

사람 7-8명을 가두고 있었는데 인민군이 후퇴하는 상황에서 창으로 찢러 죽이는 일이 발생했다. 이 일로 인해 치안대에서 복수가 이루어졌으며 좌익 가족들을 마구 죽였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좀 더 추려야 했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곳 세 골짜기에서 67명을 학살했다. 세 골짜기 중 한곳에서 17명, 다른 골짜기에서는 10명, 좀 더 큰 골짜기에서는 30명을 학살했다.

증언자는 이곳에서의 총살은 경찰이 들어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곳이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또 다른 증언자에 의하면 이 골짜기 위에서 인민군에 의한 우익주민들을 한 줄로 세워놓고 총을 쏘면 골짜기 밑으로 굴러 떨어졌으며 바닥으로 떨어진 시체위에 삼으로 흙을 덮어 놓았다고 한다. 증언자가 직접 삼을 건네주었다고 한다.

학살은 2-3일에 한 번씩 수십 번을 진행했으며 어린아이를 맨 여자도 살해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곳에서 학살된 사망자의 뼈가 지금의 감정동 굽은물까지 비가 많이 오면 흘러내려 왔었다고 증언한다.

⑥ 걸포동 한강제방 독 전방 개흙뺨



사진속의 초소 후방 20미터 지점이 집단학살이 있었던 한강 개흙뺨이 있다.

이곳의 위치는 걸포리 우리병원을 왼쪽에 두고 흥도평을 가로져 있는 도로를 따라 가면 제방도로와 만나는 삼거리이다. 사진에서 보이듯이 한강방향으로 제방도로에 초소가 있다. 이 초소 양쪽으로(제방도로) 철조망이 쳐져있다. 이 철조망 안쪽(한강쪽)으로 20미터 전방 개흙뺨 지점이 학살 장소이다. 이곳은 물이 찰 때는 개흙뺨이 보이지 않지만 물이 빠져 있을 때는 개흙이 드러난다.

증언자에 의하면 이곳 개흙뺨에 큰 구덩이를 파놓고 묶인 채로 흙을 덮어두면 물이 들어와 수장을 시켰다. 당시 40여명을 수장시켰다고 증언하고 있다.



▶철조망 너머 개흙뺨이 보이는 곳(20미터 지점)에서 40여명이 집단수장을 당했다.

⑦ 북변동 구 김포경찰서 유치장 자리



사진은 구 김포경찰서 뒤편 담장이다. 이 담장 안에서 주민학살이 이루어졌다.

이곳에서는 인민군이 유치장에 가둬놓았던 걸포리 주민 7-8명을 묶어놓고 삼각창(총 끝부분에 달린 칼)으로 학살했다고 증언했다. 이 학살로 인해 인천상륙작전 후 국군이 김포지역으로 들어왔을 때 유치장에서 학살당한 걸포리 주민 가족에 의해 좌익가족들이 집단적으로 보복 학살했다고 한다.

⑧ 북변동 김포초 뒤편 골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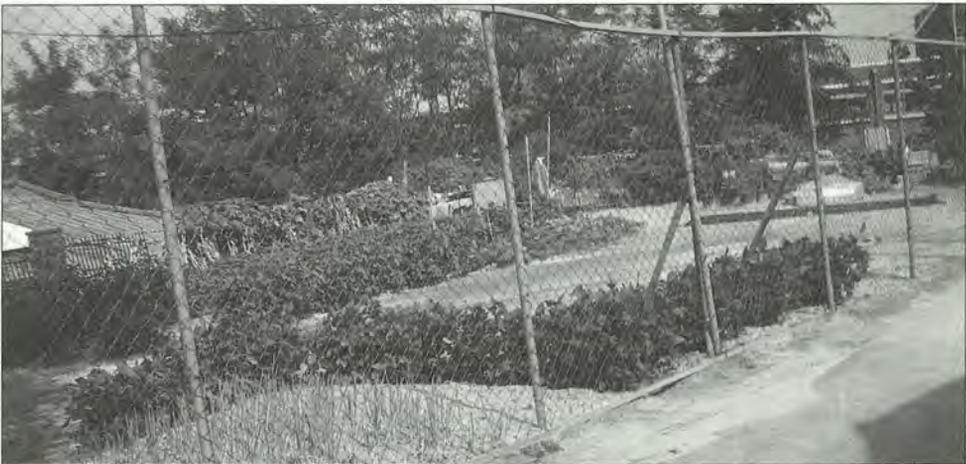


사진 철조망 뒤로 김포초등학교 건물이 보인다. 오른쪽 보이는 길으로 내려가면 김포향교가 나온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30여미터 올라가면 충현탑이 있다.

풍무동 지역에서 증언한 내용으로서 치안대들이 주민 40여명을 현 향교 뒤편 김포초등학교 올라가는 산길 골짜기와 여우재 고개에서 학살했으며 그 후 학살당한 좌익남편의 부인들에게 빨갱이 표시를 한다고 모두 머리를 깎여 구분하도록 했으며 머리를 깎인 부인들은 머리 없는 표시를 감추기 위해 2년 동안이나 수건을 감쌀 수밖에 없었는데 짐승취급을 당했고 이들의 재산과 곡식 모두를 치안대에서 압류해 갔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한 치안대 사람들이 좌익 가족의 처녀들을 집단 강간을 해 마을 어른들한테 야단을 맞기도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 ⑨기타지역 ; 고양군 송포면

강 건너 고양군 송포면에서는 김포지역 방위를 위해 호국단을 만들어 인민군과 전투를 전개한 지역청년단 김덕문의 11명이 인민군에 잡혀 끌려가 총살을 당했던 장소이다.

## 2) 양촌면 지역

양촌면 지역에서 민간인 학살이 진행된 곳은 4곳으로 증언했다.

증언자에 의하면 하나는 양곡교회와 천주교 성당 사이의 야산이다. 이곳에서는 내무서원(파출소) 했던 사람들이 많이 학살당했던 곳이라고 한다. 당시 북한군이 포진지 구축을 위해 파놓은 동굴(약20평 규모)이었다고 한다. 이 동굴에서는 청년단이 중심이 되어 학살이 진행되었으며 피살자를 동굴 안으로 걸어 들어가 한 뒤 2-3미터 뒤에서 총을 쏘 죽였다는 증언과 청년단원이 잡아오면 해병대들이 죽였는데 너무 심하게 다룬다는 생각이 들어 함께 있었던 국군 패잔병 상사가 해병대를 말리다가 총개머리 판으로 내리치는 바람에 피투성이가 된 일도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특히 이곳은 한 부인이 인민군에 의해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국군이 다시 마을을 확보하게 되자 인민군에 의해 죽은 부인의 남편에 의해 좌익에 대한 보복학살이 이루어졌으며 제일 많은 학살을 주도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두 번째 학살 장소는 양곡중고등학교 뒤편 야산이다. 이곳은 지금 도로가 관통되어 있으나 당시에는 도로가 아니었다.

현재는 이 산 아래 이 지역에서 항일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한 독립 운동가를 추모



양촌면 양곡사거리에서 서울방향의 왼쪽에 양곡교회와 교회 뒤편으로 천주교 양곡성당이 위치하고 있다. 바로 양곡교회와 성당 사이지점이다. 사진 속 교회 오른쪽 뒤편쪽이다. 이곳이 양촌면의 대표적인 민간인 학살이 진행된 장소이다.



양곡중학교 뒷산, 이곳은 일제 강점기에도 주민학살이 있었던 곳이다. 약100여명이 학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산 아래 오른쪽에 3.1만세운동 기념탑이 세워져 있다.

하는 3.1공원이 세워져 있다.

증언자 김천길씨에 의하면 9월 15일경부터 양곡에는 치안대들이 4-50명 있었으며 치안대장은 김동선이었다. 이때부터 치안대와 해병대들이 좌익들을 다 잡아 죽이기 시작했다. 양곡교회 옆 극장(현, 모텔) 뒤에 동굴(20평정도의 굴, 인민군들이 곡사포를 두려고 파놓았던 곳)에서 10명, 5명, 3명씩 끌고 와 죽였다고 한다.

당시에 해병대들은 사람들을 죽일 때 '야 해장거리 없니?' 하며 말하곤 했다고 한다. 또한 치안대들이 빨갱이 재산 다 몰수하고 버선 양말짝까지 가져가고 집까지 철어 버렸다고 한다. 인민군이 쌓아놓고 못가지고 간 비단, 재물들도 치안대가 나눠가졌다고 한다.

경찰가족이 아버지 죽였다고 당숙 등 7명의 친척을 죽인 일도 있었으며 당시 학생동맹위원장, 여성동맹위원장을 잡아다가 치안대 식사동원을 시켰는데 해병대들이 가현산으로 끌고가 돌아가면서 집단강간을 했다고 한다. 이후에 해병대를 '개병대'로 불렀다고 한다.

가장 많이 죽인 곳이 양곡교회 위 극장 뒤하고, 양곡중학교 뒷산, 베데스다 요양원 근처였다고 한다.

인민군이 죽인 일도 있는데 심종운씨의 부인이었으며 이후 심종운씨 치안대 감찰부장을 했는데 부인 죽은 원한 때문에 사람을 제일 많이 죽였다고 한다.

증언자 이기갑씨에 의하면 양촌면 보도연맹이었던 민병대, 양태훈, 이강운이는 장기리 치안대원인 조범산이가 여우재 고개에서 죽였으며, 사상이 다른지 알려주는 일은 동네 치안대가 했고, 당시 양곡치안대가 양곡천주교 자리에서 싸 죽였다고 한다.

증언자 이기실씨에 의하면 양곡은 천주교 지은 곳에서 내무서원 했던 사람들 많이 죽고, 지금 3.1만세운동 기념비 있는 산에서도 많이 죽였다고 한다. 토익기군(터키)에 의해 강간을 당한 석모리 사람도 있었으며 양곡중학교를 창설한 반병섭목사는 군목이었는데 강간했다는 사람을 유선 줄로 묶어서 의자를 걸머지게 했다고 한다.

증언자 이병수씨에 의하면 양곡중학교 뒷산에서 5명의 장년들이 죽음을 당했으며, 꾸지2리는 남자들 없는 부락이 되었다고 한다.

증언자 홍선표씨에 의하면 수복이 되고 나서 치안대에서 박탱이(24살 혹은 25살)를 먼 지소 뒤에서 죽였으며 보도연맹원 부역한 사람, 호속에 집어넣고 수습



양촌면 누산리 포구가 있었던 한강제방 독이다. 이곳에서 양촌면 주민을 학살했다. 내부사진은 봉성리 다리간.

명 죽였다고 한다. 또한 양곡중학교 뒤쪽 산, 누산리 한강뺨에서도 죽였었다고 한다.

홍종기씨에 의하면 양곡전체에서 빨갱이들(보도연맹), 개인적인 감정 있는 이들은 손가락질하면 죽였다고 한다. 보도연맹이 이쪽 죽인 거는 없고 치안대에서 죽였다고 한다.

증언자 경제봉씨에 의하면 9월 21일 경 해병대가 마송리 동산에 와서 주둔하게 되었는데 인민위원장과 여성동맹위원장 2명을 나무에 묶고 때리는 것을 보았으며 양곡지서에 끌고가서 총살했다고 한다.

마송에서는 9.28 수복때 바다빨갱이 6-7명이 죽었고, 구연호라고 내무서원이 있었는데 총을 메고 고촌서 지키다 죽었고, 마송리에서만 6명이 있었으며 가현리에는 희생자가 10명 넘는다고 한다.

증언자 신범수씨에 의하면 인민군 부역자들을 치안대들이 다죽였으며 치안대들한테 고통을 당하니까 약 먹고 자살해 죽은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증언자 박광원씨에 의하면 9.28때 봉성 2리에서 미 해병대가 4-5명 봉성리 독 다리간에서 총으로 죽였다고 한다. 1.4후퇴 때 월북한 사람의 부인을 석탄리 강 낭떠러지에서 총살했다고 한다. 이상 증언자에 의한 양촌면 지역의 민간인 학

살은 실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지역	증언에 의한 학살현장	학살인원추정
양촌면	양곡지서 뒤편	69
	양곡중학교 뒷산	수십명
	봉성리 다리간	수십명
	누산리 한강 뺨	수십명
합 계		99명

※ 학살인원 추정에서 '수십명'으로 표현한 수치는 최소10명으로 계산했다.

### 3) 하성면 지역

하성면 지역에서의 민간인 학살은 하성면사무소 옆 창고와 하성초등학교 뒤편(테니스장 지점), 태산가족공원 골짜기, 석탄리(태산 건너편 산골짜기·미루지산), 석탄리 한강 제방둑, 신리 강변, 하성중학교 뒤 군부대 골짜기, 마곡리 태메시장(하성시장)을 지목했다.

하성면사무소 창고에서는 인민군에 의해 100여명의 주민들이 학살되었으며 또한 이에 대한 보복으로 좌익 가족들을 석탄리 한강둑과 신리 마금포 강변에서 집단 학살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증언자 유재언씨에 의하면 치안대들이 하성초등학교 뒤편 골짜기, 면사무소 창고에서 많이 죽었다고 한다.

증언자 장명수씨에 의하면 원산리 사람 강범수가 바닥빨갱이였는데 시범보인다고 코를 꼬여 시장을 돌아다녔으며 후에 좌익사람 잡아들이는데 앞장섰다고 한다.

증언자 조시현씨에 의하면 당시 청년단이 부락의 세세한 것을 경찰한테 알려주면 치안대에서 고문을 하고 경찰한테 넘겨 경찰에서 훑어보고 넘겨 징역살게 했다고 한다.

9월 10일경 치안대들이 도망간 바닥빨갱이 가족들을 검거해서 마곡리 면사무소 창고에 두고 취조하려 했는데 9월 12일경 인민군이 역습해서 치안대가 인천으로 도망을 갔었다고 한다.

또한 연합군의 비행기 폭격 때문에 인민군이 죽창으로 찔렸는데 100여명 죽었다고 한다. 이 일로 인해 국군이 들어왔을 때 치안대들이 도망간 바닥빨갱이 가족



하성면사무소 오른쪽 끝부분이 창고가 있었던 자리이다. 큰 창고 2개가 있었다고 한다.

들을 붙잡아 석탄리, 마금포, 신리 강변에 세워놓고 총살시켰다고 한다.

증언자 조한승씨에 의하면 8월 14일 인민군들이 후퇴하면서 하성중학교 뒤 건너 군인부대 가운데 들어간 곳에서 다 때려죽였다고 한다.

학교에 갔다 왔다 하면서 인민재판 하는 것을 봤는데 소시장에서 총을 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하성초등학교 강당에 여자 남자 여럿이 있었고 총 안 맞아도 지레 쓰러지면 그냥 물어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하성중학교 골짜기 양택리 가는데 돌산, 석탄리 태피(하성시장)에서 많이 죽었던 장소라고 한다.

또 이곳에서는 학살과는 다른 집단강간이 있었는데 연합군인 터키군과 해병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증언하고 있다.

증언자 홍순면씨에 의하면 국군이 하성에 들어왔을 때 치안대들



◀하성면 마곡리에 5일장이 서는 하성시장이다. 이곳에서 인민재판이 개최돼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학살됐다.



하성초등학교내 교실뒷편 골짜기, 이곳은 현재 테니스장이 설치되었으며 증언자가 가리키는 웅벽위치가 학살현장이다.

이 바닷빨갱이들을 태산 골짜기에서 많이 죽였다고 한다.

증언자 민경완씨에 의하면 하성면사무소에는 창고가 두 개 있었고 하나는 10평이 훨씬 넘는 창고였는데 젊은 사람들이 있는 창고가 있었고, 여자들과 노인들이 있는 창고가 있었으며 의용군 나갈 때 부역한 사람, 애 있는 여자, 젊은 여자들을 매일 잡아 죽여 100여명 정도 죽였다고 한다.

또한 석탄리 한강 독에서 학살을 시키는데 살아나온 이도 있었으며 김동길이라고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한사람은 민경선이며 그는 다시 잡혀 총살당했다고 한다. 이들은 달밤에 창고에서 철사 줄로 손을 묶고 김포경찰서로 넘긴다고 말하면서 한강 독으로 가서 세워놓고 총살시켰다고 하며 100여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증언자 민천기씨에 의하면 아버지 민병택(38), 어머니 조원순(39), 오빠 민진기(19), 언니 민봉기(17), 동생 민군자(7)가 치안대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 또한 강범수 작은 아버지가 사상 일을 좀 보았는데 일가 50여명을 죽였으며 작은 아버지가 좌익을 했다고 강범수를 목에다가 줄을 해서 하성시장을 끌고 다니다가 죽였다고 한다.

또 조미희는 17세였는데 아버지, 어머니도 죽이고, 조미희도 강간하고 죽였다고 한다. 이상 증언자에 의한 하성면 지역의 민간인 학살은 실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지역	증언에 의한 학살현장	학살인원추정
치안대에 의한 학살	하성면사무소 창고	100명
	하성초등학교 뒤편 골짜기(테니스장)	수십명
	태산가족공원 내 골짜기(태산가족공원)	수십명
	석탄리 골짜기(태산건너편)	수십명
	석탄리 한강 둑	100명
	마금포 신리강변	수십명
	강범수 가족 희생	50명
인민군의 의한 학살	하성면사무소 창고	수십명
	마곡리 하성시장(테미시장)	수십명
	하성중고 뒤편 산 골짜기	수십명
합 계		410명

※ 학살인원 추정에서 '수십명'으로 표현한 수치는 최소10명으로 계산했다.



하성면 석탄리 한강둑이 있는 곳이다. 증언자가 가리키고 있는 둑에서 100여명을 학살했으나 2명이 극적으로 살았다. 2명중 1명은 다시잡혀 죽었다.



태산가족공원 안쪽 골짜기에서 집단학살이 이루어졌다. 학살당한 희생자 유족들이 2000년에 위령비를 세웠다.



마금포 신리 강변이다. 이곳에서 집단학살이 이루어졌다.



하성삼거리에서 태산가족공원 방향으로 100미터를 가면 오른쪽 도로에서 약200미터 전방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 골짜기에서 부녀자와 어린사람들을 학살했다. 하얀 컨테이너집 뒤 골짜기 옆에 묘소를 만들었다.



하성중고등학교 뒤편 산골짜기이다. 왼쪽으로는 군부대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전원주택단지가 있다. 왼쪽 방향으로 골짜기에서 집단학살한 장소이다.



#### 4) 고촌면 지역

고촌면 지역에서는 김포방향으로 천등고개 왼쪽 편 골짜기 지점이다. 지금의 한화아파트 입구에서 20-30미터 들어선 곳이다. 당시에는 골짜기가 있는 공동묘지였다.

증언자 김부섭씨에 의하면 이 지역에서는 국군에 의해 바다빨갱이로 불리는 주민들이 학살당했던 곳이라고 증언한다. 또한 치안대에 의해 구덩이에다 사람 놓고 쓰고, 술가지 덮고, 흙으로 메우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현장은 상수도사업소 정문 앞 지점에서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진 현장으로 지목했다.

증언자 박점문씨에 의하면 후퇴했다가 다시 김포로 들어오는데 이곳에 20여 시체가 즐비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고촌지역에서는 9.28수복이 되자 각 부락에서 자치대원들이 사상 의심자를 잡아 지서에 가둬놓고 전기 줄로 고문을 가했으며 새벽 3시경 김포경찰서로 이동한다는 이유를 들어 천등고개에 이르러서 학살을 진행했다고 증언 자료는 기술하고 있다.

박용석씨에 의하면 각 부락에서 사상 의심자를 다 데려다가 지서에 가두고, 전깃줄로 고문을 하고, 새벽 3시가 되면 김포 지서로 이동한다면서 몇 명씩 데리고 나가 천등고개로 데리고 가서 총살을 했다고 한다.

특히 이곳은 전쟁이 끝나고 미군이 와서 치안대에 의해 살해당한 은행정의 천주교 전도사, '공기돌' 선생으로 불린 송해봉의 유해 발굴이 있었으며 이때 뼈뼩선으로 손목 묶은 뼈가 발견되기도 하고 70여의 시체가 나왔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한 고촌면 전호리 지역은 더욱 심했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증언되지 않았다. 이상 증언자에 의한 고촌면 지역의 민간인 학살은 실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지역	증언에 의한 학살현장	학살인원추정
고촌면	천등고개 한화아파트 입구(30미터)	20
	천등고개 상수도사업소 지점	70
합 계		90명

※ 학살인원 추정에서 '수십명'으로 표현한 수치는 최소10명으로 계산했다.



증언자 서있는 위치는 고촌면 천등고개에서 김포쪽 방향으로 왼쪽 아스팔트를 따라가면 김포시 상수도사업소가 위치하고 있다. 이 상수도사업소 정문입구 건너편 지점이다. 이곳은 당시 좁은 산길이었으며 발굴시 70여 시체가 나왔다.



증언자가 가리키고 있는 위치는 고촌면 삼거리에서 김포방향으로 천등고개를 향하는 왼쪽 한화아파트 입구에서 약30미터지점이 주민학살 지점이다.

## 5) 월곶면 지역

월곶면 지역에서는 월곶초등학교 뒤편 산골짜기 지점(거무레골;현재는 한성레미콘 뒤 골짜기)을 지목했으며 또 다른 곳은 김포컨트리클럽 골프장 오른쪽 고개지점(대나루 고개)이다. 특히 이곳 대나루 고개에서는 고개 밑이 염하강가로 바로 이어지는 곳이어서 고개(계곡)위에서 사람들을 세워놓고 총을 쏘면 계곡 밑 염하로 떨어졌다고 증언하고 있는 곳이다.

한 증언자는 치안대가 수복되면서 부역자 가족이라고 많이 죽었는데 성동리 말구리재를 학살 장소로 지목했다. 특히 이곳 성동리 말구리재 고개 밑은 염하강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서 부역자 가족들을 세워놓고 총을 쏘아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밀물이 올라와 물속으로 사라졌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증언자는 치안대들에 의해 갯 고개 오른쪽 옹정리 정신병원(김포외고) 위치 사태구덩이에서 학살이 이루어졌다고 증언하고 있다.

증언자 박점문씨는 “집단희생 현장에서 살아 나온 주민을 통해 월곶면 군하리에서도 집단희생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용강리와 조강리에서도 사람이 많이 죽었다”고 한다.<sup>33)</sup>

증언자 김문복씨에 의하면 조강라에서 청년대를 구성해서 13명이 활동했으며 총살 장소는 월곶초등학교 뒤 골짜기, 성동리였다고 한다.

증언자 신호철씨에 의하면 아버지가 구장을 보고 민족청년단 단장을 했었기 때문에 잡혀가서 고문 받고 살아나왔으며 그때 7-8명을 총살감이라고 김포내무서로 끌고가 죽였다고 한다.

치안대가 많이 죽었는데 월곶초등학교 뒤 사태구덩이와 갯 고개 넘어 옹정리 정신병원 외고 있는 데 사태구덩이었다고 한다.

증언자 정해운씨에 의하면 치안대가 수복되면서 부역자 가족이라고 많이 죽었으며 구 분진중학교 뒷산 골짜기(거무레골을 말한다), 골프장 절벽(대나루 고개), 성동리 말구리재 같은 곳이 희생된 곳이었다고 한다. 월곶파출소가 성동리에 있었으며 오염섭 치안대장이 진두지휘를 했다고 한다.

증언자 강성구씨는 치안대가 매일 50명씩을 끌고가는 것을 보았으며 월곶초등학교 뒤편 거무레골에서 총살했고 1,000명을 살해했다고 한다. 성동리 말구리재

33) 「참고인 박점문 진술녹취록」(2008. 6. 11), 7~11쪽. 참고인 박점문은 당시 생존자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에서는 눈먼 송서방, 송기배 아버지가 죽었다고 한다.

군하리 박치옥은 처남이 갯고개에서 죽었으며 갯고개는 2차 징집(의용군) 거부한 사람들도 죽었다고 한다. 이상 증언자에 의한 월곶면 지역의 민간인 학살은 실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지역	증언에 의한 학살현장	학살인원추정
월곶면	월곶초교 뒷산 골짜기(거무레골)	1,000명
	김포CC 언덕(대나루 고개)	수십명
	성동리 말구리재	2
	옹정리 갯고개(김포외고 골짜기)	2
합 계		1,024명

※ 학살인원 추정에서 '수십명'으로 표현한 수치는 최소10명으로 계산했다.



48번국도가 지나가는 월곶면과 통진읍의 경계지점이다. 도로 오른쪽으로 골짜기가 있었다. 지금은 휴게소와 김포 외고가 들어서 있다.



강고개로 불리는 골짜기 지금은 왼쪽에는 정신병원과 오른쪽 김포외고 사이가 학살현장이다.



월곶면 성동리 말구리재 끝자락에 해병대 초소가 보인다. 이 지점에서 부역자 가족들을 처형했는데 오른쪽 철망 안으로 염하강이 보인다. 이곳으로 시체가 떨어져 물속으로 사라졌다.



월곶면 포내리 대나루고개 지점. 현 김포골프장 오른쪽 고갯길이다. 이곳에서 학살이 이루어졌으며 총을 쏘면 뒤편 보이는 바다가로 떨어졌다고 증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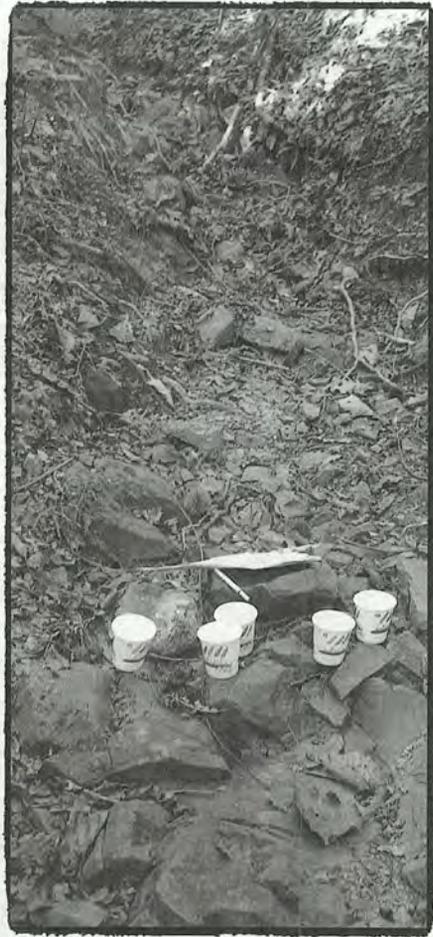
월곶면 포내리 다리, 지금은 48국도가 지나가 낮아졌지만 무네미고개로 불리운다. 포내리로 들어가는 입구이다. 당시 다리는 나무로 만들어진 다리였다고 한다.



월곶면사무소 창고에 갇혀있던 주민을 거무레골에서 학살하기 위해 이곳 월곶초등학교 뒤편 산길로 올라갔다. 사진은 월곶초 뒤편 거무레골로 가는 입구였다.



월곶면 군하리 거무레골, 증언자가 당시 1000여명을 학살한 현장을 지목했다.



거무레골로 불러지는 골짜기 이곳에서 주민 1000여명이 학살당한 장소이다. 증언자와 함께 희생된 영령을 위해 예를 올렸다.



◀월곶면 군하리에서 강화 방향으로 포내리 고개(무네미고개) 직전 오른쪽 골짜기에 현 한성레미콘이 세워져 있다. 이 레미콘 공장 안쪽으로 골짜기(거무레골)를 갈수 있다.

## 6)대곶면 지역

증언자 권순덕씨에 의하면 대곶면에서 여성동맹위원장 등 강간했다는 소리를 들었고, 그 여성들도 다 죽고, 여자들이 우리 누이만 해도 당시에 16살 17살로 숙녀였. 그래서 할머니 행세하느라 하얀 옷 입고 피난가면서도 위장했었다고 한다.

또한 그는 대부분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는 곳은 대곶면사무소 면창고에 갇혀 있다가 송마 4리 소라리 뒷산에서 총살시켰다고 한다.

증언자 권영세씨에 의하면 치안대들에 의해 죽은 이들이 많았으며. 저사람 빨갱이다 손가락질 당하면 죽었고, 사적인 감정으로 죽인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죽은 사람은 대명리에 친형 권영목, 송마리에 권오향, 권영표, 권오선, 김창봉, 신안리 차정식 등 대명리, 송마리, 신안리 사람들도 죽였다고 한다.

증언자 심문섭씨에 의하면 살상한 사람들은 치안대가 였다고 하며, 치안대 완장 하나면 권세가 컸으며 완장하나 두르고 손가락질하면 진짜 빨갱이가 아닌데도 사적인 감정으로 죽였다고 한다. 또한 그는

이승만 박사가 죽이지 말라고 하기 전까진 많이 살상했는데 향동(지금은 인천시 검단동) 개울이 다 피바다가 되었다고 한다. 이상 증언자에 의한 대곶면 지역의 민간인 학살은 실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송마리 소라리 산골짜기는 대곶면의 민간인 학살이 일어난 두 곳 중의 한 곳이다.

현지역	증언에 의한 학살현장	학살인원추정
대곶면	대곶면사무소 뒷산골짜기	수십명
	송마리 소라리산 골짜기	수십명
합 계		20명

※ 학살인원 추정에서 '수십명'으로 표현한 수치는 최소10명으로 계산했다.



대곶면사무소 뒤편 골짜기가 있던 장소이다. 여기서 민간인 학살이 대량 있었다. 지금은 주변에 공장들이 들어서 있다.



구 대곶면사무소가 있었던 자리에 창고가 있었다. 이곳에서 주민들이 감금되어 있다가 뒷산 골짜기에서 학살되었다.

## 5. 조사(진술)자료에 의한 김포 민간인학살 실태

김포면, 고촌면, 대곶면, 하성면지역의 좌익 혹은 부역혐의자로 학살당한 희생자 유가족 및 참고인이 진술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보고서를 중심으로 실태를 살펴본다.

### 1) 김포면 여우재 고개·독자골 사건

#### (1) 희생자 연행

김포면 북변리 정순영은 ‘옹주물(감정리) 빨갱이’ 부역자와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1950년 10월 5일(음력 8월 24일) 처 조명순과 생후 4개월 된 정정자와 함께 “모이라”는 치안대의 지시에 따라 불려나가 운양리 샘재 쪽에 있는 곡식창고로 끌려갔다.

김포면 감정리 신성철은 인천상륙작전 직후인 1950년 9월 18일 나무하러 갔다가 국군에 의해 치안대로 넘겨져 김포경찰서로 끌려갔으며, 모친 이정순 등 그의 가족들은 9월 28일 어디론가 끌려갔다고 한다. 일자는 불명확하나 비슷한 시기에 같은 마을 정순달은 고촌으로 피신하던 중 고촌면 관청에서 연행되었다고 한다.

김포면 운양리 심덕기는 1950년 9월 18일경(음력 8월 7일경) 국군 수복 직후 “죄가 없으니 금방 갔다 온다. 너희들은 방공호에 가 있어라”고 하면서 치안대에 끌려갔으며 그의 사촌 심현구는 그 바로 뒤에 끌려갔다.

#### (2) 감금

국군의 수복 직후 김포경찰서 유치장으로 끌려갔던 김포면 감정리 신성철에 따르면, 당시 잡혀 온 주민들 100여 명으로 세 개의 유치장이 모두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 갇힌 지 이틀 째 되던 날 밤인 9월 19일 밤 12시경 후퇴하던 인민군이 다시 김포로 돌아와 유치장에서 풀려나기도 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유치장에 갇혀 있던 사촌 오빠 심현구가 인민군에 의해 유치장에서 풀려나와 다시 경찰에게 잡혀 총살당했다는 신청인 심순옥의 진술과 일치한다. 이로부터 국군 수복 직후인 1950년 9월 18일경부터 김포면에서 치안대가 활동하였으며 이들에 의해 김포경찰서 유치장으로 끌려간 신성철과 심현구는 1950년 9월 20일 후퇴한 인민군의 일시적 반격 과정에서 풀려났으나 1950년 9월 21일경 다시 국군이 수복하자

신성철은 자수한 후 풀려나게 되었다.<sup>34)</sup> 한편, 심현구는 김포에서 다시 치안대에 잡혀 여우재 고개에서 총살당한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으로 김포를 재점령한 인민군이 후퇴하자 김포 치안대가 다시 활동하였다. 치안대는 김포경찰서로 끌려 온 주민들의 이름을 확인한 후,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남자는 김포경찰서 유치장에, 여자는 경찰서 내 방공호에 감금하였다. 부역혐의에 대한 조사는 김포경찰서 경찰관들이 하였는데 유치장에 감금된 남자들을 고문을 하면서 인민위원회 활동에 대한 자백을 강요했으며 여자들에게도 말채찍 모양의 흉기로 손바닥을 때리는 고문을 했다.

정순영의 처 조명순은 “장사를 하는 가게에 좌익이 드나든 사실을 말하러면서 매를 맞았으며 일주일 후인 1950년 10월 11일 남자들이 끌려 나가고 비어 있던 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져 다시 일주일 동안 취조를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 (3) 집단 살해와 암매장

김포경찰서는 주민들을 연행한지 일주일이 지난 1950년 10월 11일 유치장과 방공호에 감금된 사람들을 나오라고 하여 다시 두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이 때 정순영·조명순 부부도 다시 갈라지게 되었다. 당시 경찰은 정순영이 속한 주민들에게 주먹밥을 나누어 주었으나 조명순이 속한 주민들에게는 주먹밥을 나누어 주지 않았다. 조명순은 유치장 담당 경찰들이 주먹밥을 받은 주민들에게 “아 저 사람들 오늘 밥 한 술씩 먹고 좋은데 가는 거야”라고 하며 조롱하는 말을 들었다. 잠시 후 조명순은 정순영을 포함하여 밥을 먹은 주민들 100여 명이 전깃줄에 묶이어 2대의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조명순은 나중에 그들이 여우재고개로 끌려가 총살당했으며 그 곳에 있던 큰 웅덩이에 매장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

양촌면 수참리에서 연행되어 김포경찰서에 감금되어 있던 김동철·최인준과 양촌면 유현리 황범주도 이때 여우재 고개에서 같은 시기에 희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신성철은 끌려간 지 한 달 만에 부평경찰서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온 후 가족들이 김포면 장릉산 독자골에서 1950년 9월 29일 살해당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

34) 「김포군지」(1992) 253쪽에 따르면, 1950년 9월 19일 국군에 의해 김포지역이 수복되었으나 다음날인 9월 20일 후퇴하던 인민군의 반격으로 해병부대가 후퇴하였고, 다시 진격하여 9월 21일 재 수복되었다.

다고 한다. 그 후 독자골에서 가족들과 함께 끌려갔다 살아나온 정광순과 현장을 가 보았으나 유골을 찾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감정리에서는 이들과 함께 황 씨 일가족, 정남석 일가족, 정형모 일가족 등 60여 명이 희생당했다고 한다. 당시 총탄을 빗맞아 현장에서 살아나온 정광순은 참고인 정○○이 치료해 주어 살 수 있었으나 몇 년 후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한다.<sup>35)</sup>

한편, 조명순은 “김포경찰서에 연행되기 전에 운양리(샘재) 등 여러 동네의 사람들이 북변리 김포국민학교 있는 쪽 산(장릉산)으로 끌려간 후 총소리를 들었으며, 남편 정순영의 죽음 뒤에도 김포경찰서에서 몇 번 더 주민들을 죽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김포면 운양리 심성기, 심현구, 심덕기도 김포경찰서에 갇혀 있다가 총살당한 것이므로 이들 역시 1950년 10월경 여우재 고개 또는 장릉산 독자골에서 희생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인 조명순은 사건 1년 뒤에 희생된 주민들의 유족 서너 명과 함께 남편 정순영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여우재 고개에 갔으나 시신을 찾지 못하였다. 당시 여우재 고개의 웅덩이에는 시신 위에 흙을 덮고 술가지를 덮은 채 장마로 드러난 유골을 볼 수 있었으며 시신들의 팔은 통선으로 묶여 있었다. 시신들이 입고 있던 옷도 부패되어 알아 볼 수 없었으며 여자들이 묻혔다는 곳에는 쪽 머리가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모습은 감정리 정○○에 의해서도 목격되었다. 정○○은 사건 후 3~4년 지나 여우재 고개를 가 보았는데, 당시 시신들이 네 겹으로 쌓여있었으며, 아래 개울까지 시신들이 흘러 내려간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정봉운은 모친이 정경순의 시신을 찾기 위해 여우재 고개를 갔는데 당시 산비탈에서 흙에 살짝 덮여 있는 시신들의 모습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다. 감정리 윤종호는 “여우재 고개에서 사람 뼈가 많이 나왔으며, 김포국민학교 뒤 충훈탑과 공군부대에서도 많이 나왔다”고 진술하였다.<sup>36)</sup>

사건당시 김포경찰서 사찰계 형사였던 박점문도 “여우재 고개의 웅덩이에서 200명 내지 400명에 이르는 많은 주민들이 총살당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

35) 「참고인 정○○ 진술녹취록」(2008. 8. 5), 3쪽. 정광순의 제적사항에는 1954년 6월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6) 「참고인 윤종호 진술녹취록」(2007. 5. 31), 4쪽. 그런데 참고인 윤종호가 말하는 충훈탑과 공군부대는 모두 장릉산 독자골내 또는 인근에 있는 시설이므로 희생추정지는 독자골로 판단된다.



울부짖는 아낙네. 함흥 덕산광산. 1950. 11. 13. 자료사진 | 지울 수 없는 이미지 (2007. 눈빛)

하였다.

참고인 정○○은 “정순달과 그의 며느리 한말려, 손자가 김포 공설운동장에서 희생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이로부터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김포 여우재 고개와 장릉산 독자굴 등에서 조사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희생사건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 양촌면(현 통진면 일부 포함) 양곡지서 사건

### (1) 희생자 연행

수참리 김동철과 최인준은 1950년 9월 28일경 가족들과 함께 마을에서 김포면 쪽으로 피난하던 중 바리미 부근에서 치안대에게 연행되었는데, 김포로 가는

길목인 바리미 고개에서 하루 밤을 보낸 후 미군차에 실려 김포경찰서로 보내졌다. 이들이 차에 실린 후부터는 미군들의 감시를 받았다고 한다. 그 후 김포경찰서로 끌려갈 주민들이 바리미 고개 치안대 사무실에 더 있었으나 서울에서 피난왔던 김동욱이 치안대를 설득하여 모두 풀려나게 되었다고 한다.

수참리 장경선은 1950년 9월 30일경 부역혐의로 양곡지서로 끌려가 9일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다시 김포경찰서로 넘겨져 10일 후 석방되었다. 그러나 석방된 지 일주일 뒤 김동욱에게 불려나가 양곡지서로 다시 끌려가게 되었다. 정경순은 1950년 10월 10일경 양곡지서에서 나왔다고 밝힌 치안대에게 끌려갔다. 수참리 김동준과 김동기 형제는 월북했다는 김동준의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잡혀갔는데, 신청인 김동묵은 그의 친구였던 김동기가 1.4후퇴 직전까지 양곡지서에 갇혀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한다.

유현리 황범주는 인민군 점령 당시 면 사무소에서 일했으니 피신하라는 권유가 있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부역혐의를 받던 마을 주민 황덕현, 심유택과 함께 김포경찰서로 자수하였다. 그 뒤 황덕현과 심유택은 풀려났으나 황범주는 풀려나지 않았으며 그 뒤로 행방을 알 수 없었다.

## (2) 감금

끌려간 주민들이 양곡지서에 갇히자 신청인 정봉운, 장경선의 처 김정숙 등 그 가족들이 옷과 음식을 날랐다.

신청인 정봉운은 밤을 나르면서 정경순을 면회할 수 있었는데, 당시 양곡지서 유치장은 3~4평 정도였고 10여 명이 잡혀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갇혀 있던 주민들은 주로 젊은 사람들이었고 여자들도 있었다. 정봉운은 양곡지서를 지나오던 친구들로부터 “지서에서 매일 고문하는 소리가 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참고인 김정숙에 따르면, 양곡지서에서 심부름하던 사람을 통해 남편 장경선이 양곡지서 내 지하 방공호에 감금되어 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이 사람을 통해 주먹밥을 전해 줄 수 있었다고 한다.

## (3) 집단살해와 시신 수습

정봉운의 가족들은 정경순이 잡혀간 지 일주일 후 면회를 시켜주지 않자 죽임을 당했다고 판단하고 시신을 찾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양곡지서 뒷산과 여우재 고개, 한강변을 찾아다니다가 1950년 11월 8일경 하성면 전류리 한강변에

서 최인덕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낭떠러지였던 양곡지서 뒷산에서 흙으로 대충 덮어놓은 20여구의 시신을 목격하기도 하였다.<sup>37)</sup>

양곡지서로 남편 장경선의 주먹밥을 해서 나른 김정숙은 밥을 나른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지서 창고에서 아무도 볼 수 없었다. 그 때 양곡지서 근처에 거주하던 어떤 할머니의 “밥을 해 올 필요 없다. 어제 저녁에 다 끌려 나갔다”는 말을 듣고 남편의 죽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사망일을 음력 9월 27일(양력 11월 6일)로 알고 있다. 희생된 곳은 구래리 입구 양곡지서 뒷산으로 알고 있다.

1.4후퇴 직전 신청인 김동묵은 양곡중학교 뒷산(현재 3.1공원 뒤)에서 3~4평 크기의 구덩이에 암매장 되어 있는 10여구의 시신을 목격하였다. 당시 시신들은 군용 통신선에 손을 뒤로 묶인 채 들쭉로 얇게 덮여있었다고 한다.<sup>38)</sup> 이로 보아 양촌면의 희생지는 양곡지서 뒷산과 양곡중학교 뒷산으로 두 곳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할 때, 장경선·정경순·김동준·김동기 등 30여 명의 주민들은 1950년 11월 6일경 양곡지서 뒷산과 양곡중학교 뒷산에서, 김포경찰서로 끌려간 김동철·최인준과 자수한 황범주는 1950년 10월경 여우재 고개에서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최인덕은 1950년 11월 6일경 하성면 전류리 한강변에서 희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 3) 하성면 태산골짜기 등 사건

#### (1) 희생자 연행

국군에 의해 김포 하성면이 수복되자 각 마을의 치안대가 부역혐의를 받던 주민들을 연행하기 시작했다.

가금리 김순명 등 마을 주민 10여 명이 1950년 9월 말경 가금1리 송득선에게 끌려가 가금리 치안대 사무실로 쓰인 조제원의 집에서 매를 맞았다. 그 다음 날 김순명을 제외한 주민들은 모두 풀려났으나 김순명은 하성지서로 끌려갔다. 가금리에 피신해 있던 여이현과 마조리 마을에 있던 권동규는 치안대 민봉기에게 잡혀

37) 「신청인 정봉운 진술조서」(2007. 5. 22), 7~8쪽.

38) 「신청인 김동묵 진술조서」(2007. 5. 31), 10쪽. 김동묵은 목격한 시신들이 3~4평의 크기의 구덩이에 매장되어 있었으나 그 깊이는 알 수 없었으므로 희생자 수를 10여 명으로 추정하였다.



하성면 석탄리 태산가족공원 내 골짜기에서 집단학살 당한 희생자 유족들이 모여 위령비를 세웠다.

갔다.

마조리에서 주민들이 끌려가는 모습은 참고인 민경성·권세옥이 목격하였다. 민봉기 등 치안대원들이 30여 명 되는 마조리 사람들의 양손을 묶은 채 잡혀 와 아래 집 마당에다 앉혀 놓았다. 그 중 민봉기가 집에 들어와 작은 소총(갈빈총으로 추정) 개머리판으로 마루를 광광 치면서 위협을 하였다. 그 뒤 이들은 권계성(마을에서는 권남규로 부름)을 끌고 갔다.

고양 벽제면 성석리에서 치안대 활동을 하던 이각은 민병택과 친인척 사이였는데, 민병택의 연행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하였다. 이각은 인민군 점령 당시 하성면의 배급소에서 일하던 민병택이 국군 수복 후 피신하던 중 고양 벽제면 성석리로 오게 된 것이었다고 한다.

그 후 민병택은 이각의 집에서 땀감 나무를 하는 등 의심을 받지 않고 돌아 다녔다. 그러던 중 1950년

11월 초순경 고양 벽제면 치안대장 홍기세가 이를 보고 혹시 누군지 모르니까 김포에 가서 증명서를 받아오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 민병택은 “매부가 하성면 청년단 단장이니까 그 사람에게 얘기하면 증명서를 해 줄 거다”면서 이각에게 김포로 다녀오라고 했다. 이에 이각이 김포 하성면 치안대장으로 있다는 남궁씨(남궁준으로 추정됨)에게 사정을 말하고 증명서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이 말을 들은 남궁씨는 바로 김포 하성면 치안대원 2명을 팔려 보내며 민병택을 잡아오라고 하였다.

그 후 이각을 따라 온 김포 하성면 치안대 2명이 민병택을 체포하여 김포로 떠났다. 민천기에 따르면 민병택이 하성면으로 끌려온 때는 1950년 11월 10일(음



력 10월 1일)이었다. 민병택이 피신해 있는 동안인 1950년 10월 29일경 그의 모친 조원순, 딸 민진기, 민군자가 치안대에 의해 끌려갔으며, 아들 민봉기는 1.4후퇴 직전에 고모부 남궁준(대동청년단장이었다고 함)의 집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잡혀갔다.

마곡리 강범수는 국군 수복 당시 개풍군으로 피신해 있었는데, 전쟁 전부터 가깝게 지냈던 치안대 민근식이 찾아가 “살려 줄테니까 돌아가자”고 설득하여 하성면으로 돌아왔으나 그 직후 하성지서에서 감금되어 고문을 받으며 부역자들 명단 작성을 강요받았다고 한다.

### (2) 감금 및 고문

끌려 온 주민들은 하성면사무소 뒤 두 개의 가마창고에 감금되었다.<sup>39)</sup> 이들은 창고에 연행된 지 7일에서 10일 후 대부분 살해되었는데, 당시 두 창고에는 각 30여 명씩 모두 60여 명이 감금되어 있었다고 한다.

신청인 권금자는 모친의 등에 업힌 채 창고에 함께 갇혀 있었는데, 나중에 그의 모친으로부터 부친 권동규가 매일 끌려 나가 “잘못을 대라”고 하면서 매를 맞았으며 여자들의 경우에는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였는지 발가벗겨서 때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당시 창고는 20여 평 크기로 남녀구분 없이 감금해 놓고 있었고 수시로 끌고 나가 때렸으며 창고 안에서도 때리기도 했다는 말을 들었다.

### (3) 집단살해와 시신 수습

김충흠의 모친은 매일 가곡리 김순명의 밥을 날랐는데 10일 즈음 지난 10월 20일 창고에 가 보니 이미 갇혀 있던 주민들이 아무도 없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보초를 보던 자들이 “이제는 밥을 받아 잡술 분이 없다. 누가 데리고 갔다.”고 하였다.

마곡리 민병택이 고양 벽제면 성석리에 피신하여 있는 동안 그의 처 조원순 등 가족들은 하성면사무소 앞 치안대사무실 창고로 끌려가서 5일 정도 갇혀 있다가 1950년 11월 3일(음력 9월 24일) 지금의 태산가족공원 맞은 편 야산 숲 속에

39) 「참고인 이재구 진술녹취록」(2007. 8. 23), 2쪽; 「참고인 황순구 진술녹취록」(2007. 8. 9), 11쪽; 「참고인 민경철·민경완 진술조사」(2007. 6. 8), 5쪽; 「참고인 김충흠 진술조사」(2007. 7. 18), 3~4쪽. 참고인 민경완이 밥을 나르면서 목격한 바에 따르면, 위 창고에는 노인과 부녀자, 아래 창고에는 젊은 남자들이 주로 갇혀 있었으며 아래 창고가 먼저 비었고 나중에 위 창고가 비었다고 한다.

서 살해당했다. 민병택은 성석리에서 치안대에게 잡혀 1950년 11월 14일(음력 10월 5일) 총살당했다.

석탄리 어수갑은 인민군 점령 초기 김포군 인민위원장이었으므로 치안대의 체포를 피해 어씨 집성촌이 있는 고양군 벽제면 성석리로 피신했으나 결국 고양 금정굴에서 희생되었다.<sup>40)</sup> 희생된 구체적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마조리 권동규·민남기 등은 1950년 10월 20일(음력 9월 10일) 저녁 10시경 치안대에게 끌려 나가 하성면사무소 뒷산인 태산에서 살해당했다.<sup>41)</sup> 권동규는 창고에서 끌려 나가면서 함께 창고에 갇혀 있던 그의 처에게 “나한테 매달리면 매를 맞게 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며 나갔다고 한다.

참고인 민경완은 석탄리 강변 현장에서 살아나온 전류리 김동길로부터 당시 경위를 들을 수 있었다. 당시 창고에 갇혀 있던 김동길은 치안대가 나오라고 하자 김포경찰서로 가는 줄 알았는데, 다 묶어가지고 달밤에 하성면 석탄리로 내려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큰 길로 안 가고 돌아가나 보다 했는데 가다말고 강변에다 세워 놓고 총으로 쏘 뺐다고 하였다.

김동길은 아래 창고에 있었는데 당시 함께 끌려간 주민들이 아주 많았다고 한다. 당시 석탄리 한강변은 강 물살이 아주 강해 송장들이 다 떠내려갔다고 한다. 김동길은 물에 떠 내려가지 않으려고 풀을 붙잡고 있었는데 치안대들이 다 확인하고 그냥 돌아가서 살게 되었다. 사건 당시 전류리에서 함께 살아난 사람이 두 명이었는데 다른 한명은 나중에 다시 잡혀서 태산에서 죽었다고 한다.

참고인들 진술을 종합하면 석탄리 한강변 현장에서 살아남은 주민은 김동길이었다고 다시 잡혀 희생된 주민은 김영재였다.

하성면 주민들의 희생은 국군 수복 후부터 1.4후퇴 직전까지 계속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치안대 활동을 했던 참고인 황순구는 “3~4개월 동안 계속되었는데, 하성면 주민들뿐 아니라 외지인들도 죽었다”고 하였다.

40) 「참고인 이재구 진술녹취록」(2008. 8. 23), 4쪽; 「참고인 조동화 면담보고」(2008. 9. 24), 3쪽. 어수갑의 사위인 참고인 조동화는 군 생활 중 만난 어한(고양군 벽제면 성석리 어씨 집안 사람)으로부터 어수갑이 “일산의 한 수직굴에서 총살당했다”는 말을 들었다. 고양 금정굴 사건은 “최의현 외 75명을 포함한 153명 이상의 고양지역 주민들이 한국전쟁 중인 1950년 10월 9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부역혐의자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고양경찰서 경찰관에 의해 고양시 소재 금정굴에서 집단총살 당한 사건”으로,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년 6월 26일 이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41) 「참고인 황순구 진술녹취록」(2007. 8. 23), 13쪽; 「참고인 김충흥 진술조서」(2007. 7. 18), 2쪽. 참고인 황순구는 “저녁에 죽이는 거니까,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10시나 10시 반 즈음 되면 그랬어요.”라고 하였다.

참고인들에 따르면, 마곡리 강범수·강봉수 등 하성국민학교 뒤에서의 총살당한 주민들은 1.4 후퇴 직전 창고에 갇혀 있다가 함께 데리고 갈 수 없었던 주민들을 경찰 등이 총살한 것이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당시 하성지서 경찰관이었던 이재구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학살된 시신들. 원산, 1950. 11. 13. 자료사진 | 지을 수 없는 이미지 (2007. 눈빛)

“누군지는 몰라도 1.4 후퇴 때 여기 창고에 사상불순자가 남았더랬어요.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김포까지 차에 데리고 가 가지고 ‘그걸 어떻게 다 데리고 가느냐’ 그래가지고. 그 때 김포 전체면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깐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필이면 하성으로 들어와 가지고, 학교 뒤에다가 갑자기 그냥. 급하니까. 거기서 그냥. 총으로다 M2같은 거로 바바방 하고 얼른 하고 내빼가지고 그냥.”

김충흠에 따르면, 희생자들이 나간 날 저녁에 태산에서 총소리가 많이 났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2001년 민경성과 함께 유골과 유품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한다.

참고인 민경완에 따르면, 모친이 민성남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1.4후퇴 직전 태산골짜기에 왔으나 시신들이 서로 엉켜 있어서 시신을 찾지는 못했다고 한다.

2001년 하성지서 뒷산에 태산가족공원이 만들어지면서 희생자들의 유품과 유골 등이 발굴되었다. 이로서 하성지서 뒷산에서 하성면 일부 주민들이 총살당한 소문이 사실이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때 발굴된 유골 등은 하성면 유족들인 민경성·김충흠 등에 의해 태산가족공원 내 골짜기에 수습되어 가매장되었다.

당시 김포경찰서 사찰계 형사였던 박점문은 “하성면 태산골짜기에서도 여러 사람이 희생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진술을 종합하면, 하성면 주민들이 희생된 곳은 석탄리 한강변, 하성국민학교 뒤 창고, 태산 건너편, 태산 뒤 골짜기, 천주교 성당 골짜기 등 모두 다섯 곳이다.<sup>42)</sup>

42) 「신청인 권금자 진술조서」(2007. 6. 5), 3쪽; 「참고인 민경성·권세옥·여운길 진술조서」(2007. 6. 5), 3쪽; 「참고인 황순구 진술녹취록」(2007. 8. 23), 11쪽. 참고인 황순구에 따르면, 태산골짜기 외에도 천주교 교회골짜기에서도 치안대 민원기에 의해 주민들이 희생되었다고 하나 더 이상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 4) 고촌면 천등고개 사건

##### (1) 희생자 연행

9.28수복 후 치안대원들이 신곡리 한강 정수장에서 근무하던 장문숙을 잡기 위해 집을 뒤지기도 하였는데, 피신해 있던 장문숙은 1950년 10월 1일경 연행 당했다. 천주교 고촌공소 창립자 송해봉은 부역했다는 모함을 받고 천주교 신자의 집 벽장에 며칠을 숨어 지냈으나 1950년 10월 10일 오후 3시 치안대에게 발각되어 임병석 등에게 끌려가 고촌면사무소 양곡창고에 갇히게 되었다.<sup>43)</sup> 목격자에 따르면, 당시 창고에는 수십 명이 갇혀 있었는데, 신곡리 외에 전호리, 풍곡리, 향산리에서도 많이 잡혀왔다고 한다.<sup>44)</sup> 신곡리 이경창 가족·윤희용·김기산, 향산리 기곽도 가족은 목격자가 없어 어떻게 연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 (2) 감금

임병일 등 치안대는 연행한 주민들을 고촌지서로 끌고 갔다가 고촌면사무소 옆 양곡창고에 감금했다. 양곡창고 인근 주민들은 치안대가 연행한 주민들을 창고 안에 몰아넣고 때리는 소리와 고문당하는 주민들의 비명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sup>45)</sup>

송해봉을 면회하기 위해 창고를 방문했던 그의 제자 임병렬은 창고 앞쪽에서 송해봉을 만났으며, 이때 창고 안에 함께 갇혀 있는 20여 명의 주민들을 목격하였다. 그 후 임병렬 역시 천주교 지도자 송해봉을 따르지 않을 것을 강요당하며 3일 동안 창고에 갇혀 거꾸로 매달리고 매를 맞기도 하였다고 한다. 임병렬은 “함께 창고에 갇힌 주민들도 전깃줄에 손을 묶인 채 거꾸로 매달려 매를 맞고 물고문을 당했다”고 증언하였다.

##### (3) 집단 살해와 암매장 과정

참고인들 진술에 따르면, 창고에 갇힌 주민들 중 일부는 김포경찰서로 넘어간다

43)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단기4284년 형제351호」(1952. 6. 28)

44) 『스물넷, 못다 사른 불꽃』(2006), 122쪽, 「참고인 송요수 진술조서」(2007. 8. 17), 8쪽, 주민들이 갇혀 있는 모습은 송해봉의 제자 임병렬이 치안대 심부름을 하면서 목격한 것이다.

45) 「참고인 장상래 진술조서」(2007. 8. 17), 2~3쪽; 「참고인 송요수 진술조서」(2007. 8. 17), 7~8쪽, 당시 고촌지서는 창고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치안대의 사무실로도 쓰였다.

면서 새벽에 끌려 나갔다. 이들은 죽으러 가는지 모르고 갔던 것이었지만, 치안대는 이미 다 죽일 사람들만 뽑아 가는 것이었다고 한다.

임병석 등에 대한 판결문에 따르면, 임병석 등은 송해봉과 김기산 외 여러 명의 주민들을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1950년 10월 12일 0시경 각각 카빙, M1소총, 권총 등을 가진 채, 창고에 있던 희생자들을 군용전화선으로 결박하여 김포경찰서 고촌지서 서쪽에 있는 천등고개로 연행하였다. 이들은 끌고 온 주민들을 천등고개에 미리 만들어져 있던 미군용 참호에 일렬로 세워놓고 각자 휴대한 총기로 일제히 20여 발을 발사하여 전원을 살해한 후 참호에 시체를 매몰하여 이를 유기하였다.<sup>46)</sup>

그런데 참고인 진술에 따르면, 이러한 집단살해는 1950년 10월 12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임병열 등 참고인들은 “이들 외에도 천등고개로 끌려간 주민들이 더 있었으며 군용 방공호가 깊어서 여러 번 주민들을 총살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 판결문 외에 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했다는 사실은 1952년 송해봉의 시신발굴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간혀 있던 주민들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은 지서로 밥을 나르던 가족들에 의해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희생자 중 송해봉 외에 아무도 시신수습을 못 했다. 송해봉의 시신은 희생된 지 2년이 지난 1952년에서야 천주교 관련 복장과 유물을 확인하여 수습이 가능했다고 하는데, 천등고개 야산(지금은 김포시 상수도 사업소가 있음)에서 다섯 구의 다른 시신과 함께 발굴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70여 구의 시신을 더 찾았으나 수습할 방법이 없어 다시 덮어야만 했다고 한다. 송해봉의 시신 수습 상황을 직접 목격한 송해숙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저희가 오빠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가족하고 여기 제자들하고 200여 명이 모였어요. 어디였냐면 미래사목연구소에서 바라보이는 천등고개였어요. 거기에 미군들이 파 놓은 방카가 있었어요. 거기서 6명을 죽였다는 소리만 들었지 어느 장소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삽이니 곡괭이니 가래 같은 거를 다 가지고 와서 그냥 아무데나 파 보았어요. 오빠 시신을 찾기 전에 바로 그 수도사업소 길옆이 될 것 같아요. 대략 그래요. 소문에는 70~80명을 한꺼번에 죽였다고 했어요. 빨갱이들 일을 보았다고 그 손자까지도 다 죽였다고 들렸거든. 거기를 가래로 파는데 진

46)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판결 「단기4284년 형제351호」

짜 70~80명 더 되는 것 같아. 보니까 여자의 머리카락을 머리 위로 올려서 전기줄로 창창 엮었는데 돌멩이로 머리를 짓찌어 죽였어. 그래 그 참혹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 …(중략)… 거기는 오빠 시신이 있는 곳이 아니니까, 여섯 명이 총살당했다는 곳이 아니니까, 60명도 넘으니까 거기는 도로 덮어 버렸지요. 그 장소가 바로 수도사업소가 있는 곳이에요. 그 맞은 편 동산으로 옮겨 가지고 제 각기 찾는 겁니다. 어디 있나 찾는데 까만 남자 고무신 한 짝이 있는 거예요. 누가 발견했는지 지금은 기억이 안 납니다. 까만 고무신이 있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근처를 파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여섯 분의 시신이 나왔어요. 오빠는 신학생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 신학생복을 입은 시신의 위 주머니에서는 목주가 나왔고, 아래 주머니에서는 데레사 성녀의 상본이 나왔고. 허리 밴드도 나왔고. 밴드는 지금도 집에 있어요.”

사건 후 고촌지서로 발령 받은 참고인 유영국은 “지서 뒷산에서 주민들 몇 명이 희생되었는지 모르나 대략 많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으며, 밤에 근무할 때 많이 무서웠다”고 한다. 한편 참고인 장상래는 천등고개의 희생자가 200여 명에 이른다고 진술하였다.

#### (4) 사건 후 임병석 등 구속 및 재판 경과

송해숙 등에 따르면, 임범일 등이 구속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송해봉의 가족이 1952년 경 김포경찰서에 진정을 낸 결과였다고 한다.<sup>47)</sup> 임범일 등의 신분장에는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혐의로 임범일, 윤흥섭, 장장선은 1951년 7월 23일, 임병석은 1952년 7월 22일 체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sup>48)</sup>

참고인 송해숙은 임병석 등에 대한 재판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는데,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도 총살 과정에서 목격한 사실이나 총살 장소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결국 가족이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 직접 시신을 찾아야 했다고 한다.

임범일 등은 이후 재판과정에서 시체를 매장하였으므로 유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47) 「참고인 장상래 진술조사」(2007. 8. 17), 3쪽; 「참고인 송요수 진술녹취록」(2007. 8. 17), 5쪽; 「참고인 송해숙·임병열·박용석·김길상 진술녹취록」(2008. 7. 22), 5~6쪽. 참고인 송해숙은 천주교 신자였던 가족들이 1951년에도 송해봉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인천에 주둔해 있던 벨기에군 천주교 신부에게 호소한 일이 있었다고 하였다.

48) 「임범일 신분장」; 「임병석 신분장」; 「윤흥섭 신분장」; 「장장선 신분장」. 이들이 징역을 갔다 왔다는 사실은 송요수 등 마을 주민들의 진술에서도 확인된다.



학살된 현장을 마을 사람들이 수습하고 있다. 진주, 1950. 10. 2. 자료사진 | 지울 수 없는 이미지 (2007. 눈빛)

재판결과 이들은 「특별조치령」 제3조제1호 등에 의하여 임병석 이한선은 각 징역 8년, 윤흥섭은 징역 5년, 임범일 장장선 김용창은 각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sup>49)</sup> 그런데 각 신분장에 따르면, 임범일은 1953년 7월 11일 만기, 임병석은 1954년 3월 17일 형집행정지, 윤흥섭은 1953년 9월 18일 형집행정지, 장장선은 1953년 7월 11일 만기를 이유로 출소하였다.<sup>50)</sup> 이로보아 이들은 수십 명의 주민들을 불법 집단총살 하였다는 명백한 중범죄를 지었음에도 결국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데 그쳤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 5) 대곶면 소라리 고개 사건

### (1) 희생자 연행 및 감금

쇄암리 이달재는 국군 수복 후 피신하던 중 강화로 건너는 광성나루터에서 연행 당했다고 한다. 그 후 대곶면사무소 앞에 있던 창고에 7~10일간 갇혀 있었으며

49)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판결 「단기4284년 형제351호」

50) 「임범일 신분장」, 「임병석 신분장」, 「윤흥섭 신분장」

그 동안 모친이 창고로 밥을 날랐다. 이달재를 포함하여 당시 쇠암리에서 끌려간 주민은 모두 세 명이었는데 이들이 대곶지서 창고로 끌려가자 그 가족들이 밥을 날랐다. 당시 창고에는 30여 명이 갇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 이강운은 9.28수복 후 12월 초순 경 대곶지서 경찰관으로 발령받았는데 지서에 도착해 보니 창고에 고향 오니산리 주민인 보도연맹원 신상규가 갇혀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그리고 창고에 이를 전까지 오니산리 김경섭, 이원상이 함께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로부터 오니산리에서는 적어도 세 명이 대곶지서로 끌려왔음을 알 수 있다. 보도연맹원이었다는 김경섭과 이원상이 어떻게 대곶지서로 끌려오게 되었는지는 목격자가 없어 확인되지 않았다.

## (2) 집단 살해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달재의 시신은 대곶면사무소에서 약간 떨어진 소라리 고개에서 수습하였는데, 당시 쇠암리에서 끌려간 세 명을 포함하여 대여섯구의 시신이 함께 있었다.

이달재의 시신은 모친이 수습하였는데 이때 동생 이덕재도 따라 가서 시신을 직접 목격했다. 당시 이달재는 총살을 당했는데 머리를 맞아서 그랬는지 시신에 머리가 없어 모친이 나무로 머리를 만들어 장사를 지냈다고 한다. 이때 이달재의 신원은 모친이 옷을 보고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인 이강운은 대곶지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발령 직전인 11월 말경 창고에 갇혀 있던 오니산리 김경섭, 이원상을 포함한 주민들이 대곶지서 너머에서 총살당했다는 말을 들었다. 총살을 한 지들이 경찰이었던지는 알 수 없으나 당시 대한청년단원들도 총을 가지고 다녔으므로 이들이 했을 수도 있으며, 총살한 곳은 소라리산 고개 골짜기라고 들었다고 한다.

## 6) 사건 조사 결과

### (1) 희생자 신원과 희생자 수

희생자 신원은 진술인 2인 이상의 진술 일치, 제적등본과 희생사실 정황의 일치, 조사된 자료와 대상자의 성명 일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참고인이 희생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이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모순되지는 않는지를 검토하여 희생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2명 이하 참고인

진술에서 확인되나 더 이상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는 '희생 추정'으로 정리하였다.

## (2) 희생자 명단

고촌면에서는, 임병석 등 판결문을 통해 고촌성당 송해봉과 신곡리 김기산의 희생사실이 확인되었다. 진술을 통해 신곡리 송해봉·장문숙·이경창·윤희용, 향산리 기곽도 삼형제 가족(이양순 외 11명)의 희생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경창 일가족 12명·전호리 윤섭·외지인 이태하가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적등본에 장문숙은 “1950년 8월 20일(양력 10월 1일) 사망”, 송해봉은 “1950년 10월 11일 사망”, 윤희용은 “1950년 9월 30일 사망”, 김기산은 “1950년 9월 25일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다.

김포면에서는 진술을 통해, 북변리 정순영, 감정리 정순달 가족(정순달 외 5명)·신성철 가족(이정순 외 3명)·정영현<sup>51)</sup> 가족(정영현 외 2명), 운양리 심성기 가족(심성기 외 2명)의 희생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북변리 박일영, 감정리 황○○ 가족과 정남석 가족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인 조명순의 목격에 따르면, “김포경찰서에 잡혀 온 주민들 상당수는 김포면 운양리 샘재 주민들이었으며, 그 중에는 아이를 업은 여자들도 많았다”고 하나 이들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제적등본에 김포면 운양리 심성기는 “1950년 10월 25일 사망”, 심현구는 “1950년 10월 28일 사망”, 심덕기는 “1950년 10월 27일 사망”으로, 감정리 정순달·민문자·정범모는 모두 “1950년 9월 10일(양력 10월 20일)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다.

대곶면에서는 진술을 통해, 쇠암리 이달재, 오니산리 김경섭·이원상의 희생사실이 확인되었다. 제적등본에 김경섭은 “1950년 9월 30일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다.

양촌면에서는 진술을 통해, 수참리 김동철·장경선·정경순·최인덕·최인준·최일만·김동준·김동기의 희생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김포경찰서에서 입수된 자료와 당시 사찰계 형사였던 박점문, 유현리 황의화의 진술을 통해 황범주의 희생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들 외에 수참리 김동영도 함께 희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적등본에 수참리 김동철은 “1950년 10월 5일 사망”, 정경순은 “1950년

51) 참고인들은 정복현으로 기억하고 있었으나 제적등본을 확인한 결과 정광순, 정순익의 부친 이름은 정영현이었다.

9월 26일(양력 11월 5일) 사망”, 장경선은 “1950년 9월 27일(양력 11월 6일)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성면에서는 진술을 통해, 하성면 가금리 김순명, 마곡리 강범수 가족(강영규 외 34명)·민병택 가족(민병택 외 4명)·여이현, 마조리 권계성·권동규·민남기·민성남(민만기로도 부름), 봉성리 민상기, 석탄리 어윤·어수갑·김영재, 후평리 민병호의 희생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외에 이재기·오옥분·민낙기·황윤진의 처·미희네 가족 3명·장석범 가족 3명, 오수일 부친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적등본에 권동규는 “1950년 10월 20일 사망”, 김순명은 “1950년 9월 10일(양력 10월 20일) 사망”, 권계성(권남규로 부름)은 “1950년 10월 5일 사망”, 민남기는 “1950년 10월 14일 사망”, 여이현은 “1950년 9월 24일(양력 11월 3일) 사망”, 민성남(민만기로도 부름)은 “1950년 11월 10일 사망”, 민상기는 “1950년 10월 5일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외에 「판결문 71고합12」에서 민만기(호적의 민성남), 민남기의 총살 사실이 확인된다. 이상의 조사결과 희생사실이 확인된 희생자와 희생추정자의 신원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확인된 희생자 명단〉

연번	희생자	당시나이	성별	당시 주소	희생시기	희생지	확인 근거
1	장문숙(張文淑)	27세	남	고촌면 신곡리142	1950.10.1.	천등고개	장상래, 송요수, 조원준 진술
2	송해봉(宋海鵬)	25세	남	고촌면 신곡리388	1950.10.12.	천등고개	장상래, 송요수, 박점문 진술, 판결문, 시신수습
3	이경창		남	고촌면 신곡리101		천등고개	송요수, 박용석, 임병열 진술
4	윤희용(尹喜龍)	35세	남	고촌면 신곡리390	1950.9.30.	천등고개 (추정)	박용석, 임병열, 김길상 진술, 제적등본.
5	김기산(金起山)	44세	남	고촌면 신곡리884	1950.10.12.	천등고개	판결문, 제적등본.
6	이양순(李仰順)	51세	여	고촌면 향산리86	1950.10.	천등고개	기노정 증언, 송해숙, 박용석 진술, 제적등본.
7	기곽도(奇廓度)	35세	남	고촌면 향산리86	1950.10.	천등고개	
8	김준령(金俊令)	35세	여	고촌면 향산리86	1950.10.	천등고개	
9	기노선(奇老善)	14세	여	고촌면 향산리86	1950.10.	천등고개	
10	기노월(奇老月)	12세	여	고촌면 향산리86	1950.10.	천등고개	
11	기노봉(奇老峯)	4세	남	고촌면 향산리86	1950.10.	천등고개	

12	기용도(奇龍度)	27세	남	고촌면 향산리86	1950.10.	천등고개	
13	조영현(曹英鉉)	23세	여	고촌면 향산리86	1950.10.	천등고개	
14	기노연(奇老蓮)	2세	여	고촌면 향산리86	1950.10.	천등고개	기노정 증언, 송해숙, 박용석
15	기홍도(奇鴻度)	25세	남	고촌면 향산리109	1950.10.	천등고개	진술, 제적등본.
16	황옥동(黃玉同)		여	고촌면 향산리109	1950.10.	천등고개	
17	기향도(奇香度)	17세	남	고촌면 향산리86	1950. 10.	천등고개	
18	정순영(鄭淳榮)	39세	남	김포면 북변리376	1950.10.11.	여우재고개	조명순, 정정자, 신성철 진술, 제적등본
19	정순달(鄭淳達)	58세	남	김포면 감정리194	1950.10.20.	공설운동장	
20	민문자(閔文子)	59세	여	김포면 감정리194	1950.10.20.	독жат굴	
21	한말녀(韓末女)	36세	여	김포면 감정리194	1950.10.20.	공설운동장	민경철, 신성철, 정○○
22	정범모(鄭範模)	23세	남	김포면 감정리194	1950.10.20.	독жат굴	진술, 제적등본.
23	정경분(鄭敬分)	18세	여	김포면 감정리194	1950.10.20.	독жат굴	
24	정환국(鄭煥國)	5세	남	김포면 감정리194	1950.10.20.	독жат굴	
25	이정순	63세	여	김포면 감정리194	1950.9.28.	독жат굴	
26	김기순	23세	여	김포면 감정리194	1950.9.28.	독жат굴	신성철, 조명순, 정○○
27	신춘실	6세	남	김포면 감정리194	1950.9.28.	독жат굴	진술
28	신○○ <sup>52)</sup>	3세	남	김포면 감정리194	1950.9.28.	독жат굴	
29	정영현(鄭泳鉉)	43세	남	김포면 감정리195	1950.9.28.	독жат굴	신성철, 정○○
30	박연애(朴蓮愛)	41세	여	김포면 감정리195	1950.9.28.	독жат굴	진술, 제적등본
31	정순익(鄭淳翼)	23세	남	김포면 감정리195	1950.9.28.	독жат굴	
32	심성기(沈聖基)	46세	남	김포면 운양리154	1950.10.25.	여우재고개	심순옥, 박점문
33	심현구(沈鉉球)	28세	남	김포면 운양리154	1950.10.28.	여우재고개	진술, 제적등본
34	심덕기(沈德基)	26세	남	김포면 운양리154	1950.10.27.	여우재고개	
35	이달재(李達宰)	28세	남	대곶면 쇠암리404	1950.11.	소라리고개 골짜기	이덕재, 이태순, 이강현 진술, 시신수습
36	이원상(李元相)		남	대곶면 오나산리173	1950.11.	소라리고개 골짜기	이강운, 이병진, 김명환 진술, 시신수습
37	김경섭(金敬燮)	27세	남	대곶면 오나산리122	1950.11.	소라리고개 골짜기	이강운, 이병진, 김명환 진술

52) 참고인 신성철은 사건 당시 3살이었던 막내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

38	안삼순(安三順)	32세	여	양동면 마곡리337	1950.9.27.	마곡리 한강변	이정옥, 이의연, 이정례 진술
39	덕만(金德萬)	42세	남	양동면 마곡리330	1950.9.27.	마곡리 한강변	이의연, 이정례, 이의균 진술. 제적등본
40	김복희(金福熙)	34세	여	양동면 마곡리330	1950.9.27.		
41	김옥례(金玉禮)	17세	여	양동면 마곡리330	1950.9.27.		
42	김정옥(金貞玉)	15세	여	양동면 마곡리330	1950.9.27.		
43	김한길(金漢吉)	11세	남	양동면 마곡리330	1950.9.27.		
44	김인길(金仁吉)	1세	남	양동면 마곡리330	1950.9.27.	마곡리 한강변	이정례, 이의균, 이정옥 진술, 제적등본
45	이교영(李敎寧)		남	양동면 마곡리337	1950.9.27.		
46	이의석(李義錫)	23세	남	양동면 마곡리336	1950.9.27.	한강변	진술, 제적등본
47	김동렬 모친		여	양동면 마곡리	1950.9.27.	마곡리 한강변	이정례, 이정옥, 이의균 진술
48	장경선	31세	남	양촌면 수참리218	1950.11.6.	양곡지서 뒷산	김동묵, 김정숙, 장용식 진술
49	김동준(金東俊)	21세	남	양촌면 수참리218			
50	김동기(金東基)	17세	남	양촌면 수참리218	1950.12.		
51	정경순	38세	남	양촌면 수참리248	1950.11.6.	양곡지서 뒷산	김동묵, 김정숙, 정봉운, 오세욱 진술
52	김동철(金東徹)	21세	남	양촌면 수참리406	1950.10.5.	여우재고개	김동묵, 김정숙, 박점문 진술
53	최인덕		남	양촌면 수참리	1950.11.4	전류리 한강변	
54	최인준		남	양촌면 수참리	1950.10.5. (추정)	여우재 고개	김동묵, 김정숙, 정봉운 진술. 시신수습(최인덕)
55	최일만		남	양촌면 수참리		양곡지서 뒷산	
56	황범주(黃範周)	28세	남	양촌면 유현리354	1950.10.	여우재 고개	박점문, 황의화, 이강운 진술. 김포경찰서 자료.
57	김순명(金順明)	37세	남	하성면 가금리89	1950.10.20.	하성지서 뒷산	권금자, 김충흠, 민경성, 민경완 진술, 위령비
58	강영규(姜永奎)	56세	남	하성면 마곡리798		하성 국민학교 뒤	이재구, 황순구, 김충흠, 권세욱 강건수 진술. 제적등본
59	신관옥(愼冠玉)	54세	여	하성면 마곡리798			
60	강범수(姜范秀)	32세	남	하성면 마곡리798			
61	홍순임(洪順任)	34세	여	하성면 마곡리798			

62	강순희(姜順姬)	14세	여	하성면 마곡리798	
63	강옥희(姜玉姬)	11세	여	하성면 마곡리798	
64	강인자(姜仁子)	8세	여	하성면 마곡리798	
65	강명희(姜明姬)	5세	여	하성면 마곡리798	
66	강대식(姜大植)	1세	남	하성면 마곡리798	
67	강창수(姜昌秀)	29세	남	하성면 마곡리798	
68	유일순(柳日順)	28세	여	하성면 마곡리798	
69	강대용(姜大容)	6세	남	하성면 마곡리798	
70	강대원(姜大元)	1세	남	하성면 마곡리798	
71	강한수(姜漢秀)	22세	남	하성면 마곡리626	
72	조정순(趙丁順)	24세	여	하성면 마곡리626	
73	강봉수(姜鳳秀)	17세	남	하성면 마곡리611	
74	강덕성(姜德成) <sup>53)</sup>	49세	남	하성면 마곡리599	
75	최남순(崔南順)	49세	여	하성면 마곡리599	
76	강갑수(姜甲秀)	28세	남	하성면 마곡리599	
77	김경란(金慶蘭)	28세	여	하성면 마곡리599	
78	강용운(姜龍雲)	9세	남	하성면 마곡리599	
79	강송지(姜松子)	7세	여	하성면 마곡리599	
80	강대천(姜大天)	3세	남	하성면 마곡리599	
81	강영수(姜英秀)	25세	남	하성면 마곡리599	
82	김중희(金重姬)	21세	여	하성면 마곡리599	
83	강완수(姜完秀)	22세	남	하성면 마곡리599	
84	강상옥(姜祥玉)	16세	여	하성면 마곡리599	
85	강영근(姜永根)	34세	남	하성면 마곡리798	
86	이정순(李貞順)	29세	여	하성면 마곡리798	
87	강명수(姜明秀)	14세	남	하성면 마곡리798	
88	강명순(姜明順)	13세	여	하성면 마곡리798	
89	강철수(姜喆秀)	11세	남	하성면 마곡리798	
90	강재순(姜載順)	10세	여	하성면 마곡리798	
91	강택수(姜澤秀)	6세	남	하성면 마곡리798	
92	강준수(姜俊秀)	3세	남	하성면 마곡리798	

하성  
국민학교  
뒤

이재구, 황순구, 김충흠, 권세옥  
강건수 진술. 제적등본

53) 또 다른 제적등본에는 강영숙(姜永肅)으로 되어 있으나 그의 부모처자의 이름이 강덕성의 부모처자의 것과 일치하므로 두 사람은 동일인으로 판단된다.

93	민병택(閔丙澤)	38세	남	하성면 마곡리635	1950.11.14.	마곡리 야산	민천기, 이각, 민경완, 박점문 진술. 시신수습(민병택 제외)
94	조원순(趙元順)	39세	여	하성면 마곡리635	1950.11.3		
95	민진기(閔震基)	18세	여	하성면 마곡리635	1950.11.3		
96	민봉기(閔鳳基)	16세	남	하성면 마곡리635	14후퇴 직전		
97	민정자(閔貞子)	9세	여	하성면 마곡리635	1950.11.3		
98	민군자(閔君子)	7세	여	하성면 마곡리635	1950.11.3		
99	여이현(呂伊鉉)	45세	남	하성면 마곡리619	1950.11.3.	태산 골짜기	권금자, 민경성, 여운길, 권세옥 진술, 위령비.
100	권계성(權季成)	48세	남	하성면 마조리203	1950.10.5.	태산 골짜기	권금자, 이재구, 민경성, 민경완, 박점문 진술, 위령비.
101	권동규(權東奎)	26세	남	하성면 마조리139	1950.10.20.	태산 골짜기	권금자, 이재구, 민경성, 민경완 진술, 위령비.
102	민남기(閔南基)	45세	남	하성면 마조리417	1950.10.14.	태산 골짜기	권금자, 김충흠, 민경성, 박점문 진술, 위령비.
103	민성남(閔聖男)	56세	남	하성면 마조리416	1950.11.10.	태산 골짜기	권금자, 민경성, 권세옥 진술, 위령비
104	민상기(閔商基)	47세	남	하성면 봉성리175	1950.10.5.	태산 골짜기	민경완, 권금자, 민경성, 권세옥 진술, 위령비.
105	어윤(魚潤)	60세	남	하성면 석탄리488	1950.10.20.	태산 골짜기	민경성, 권금자, 여운길 진술, 위령비
106	어수갑(漁秀甲)	55세	남	하성면 석탄리611	1950.10.	고양 금정굴	어후경, 박점문, 조동하 진술
107	김영재		남	하성면 석탄리		태산 골짜기	민경성, 권세옥, 여운길, 이재구 진술
108	민병호(閔丙皓)	50세	남	하성면 후평리	1950.10.20.	태산 골짜기	권금자, 민경완 진술, 위령비.

### (3) 희생자 특성

희생자들은 인민군 점령기 면(面), 리(里) 인민위원회 간부 또는 이들에게 협조적이었던 주민과 그 가족들이었음이 확인된다. 희생 원인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보자면 인민위원회 간부, 인민위원회 간부의 가족, 의용군의 가족, 전쟁 전 좌익 혐의자의 가족, 우익인사들과 사적 원한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대한 보복의 경우

〈희생추정자 명단〉

연번	희생자	당시나이	성별	당시 주소	희생시기·장소	추정 근거
1	이경창 가족 12명			고촌면 신곡리 101		송요수, 박용석 진술
2	이태하		남	고촌면 신곡리		송요수 진술
3	윤섭		남	고촌면 전호리		송요수 진술
4	황씨 가족		남	김포면 감정리		신성철 진술
5	정남석 가족		남	김포면 감정리		신성철 진술
6	박일영		남	김포면 북변리		조명순 진술
7	이성재 모친		여	양동면 마곡리	1950.9.27.	이정례, 이의균 진술
8	김동영		남	양촌면 수참리		김동묵 진술
9	이재기		남	하성면 석탄리	태산 골짜기	이재구 진술
10	오옥분	18세	여	하성면 양택리	태산 골짜기	황순구 진술
11	황윤진 처		여	하성면 시암리		이재구 진술
12	민낙기		남	하성면		민경완 진술
13	오수일 부친		남	하성면		권금자 진술
14	미희네 가족 3명			하성면		민천기 진술
15	장석범 가족 3명			하성면		민천기 진술

등으로 구분된다.

희생자들은 전쟁 전부터 좌익운동을 하던 주민들도 있었지만 전쟁 후 대개 피난 갈 형편이 되지 못 했거나 피난 갔다가 돌아와서 어쩔 수 없이 직책을 맡게 된 경우로서 특히 전쟁 전부터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은 전쟁 전부터 일해 오던 면장·구장으로서의 행정 업무를 인민군이 점령한 후에도 인민군의 압력 아래 계속 보게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진술과 자료에 따르면, 고촌면에서 본인과 일가족이 희생당한 신곡리 이경창은 리(里) 인민위원장이었으며 마찬가지로 일가족이 희생당한 향신리 기용도는 남로당 탈퇴자였음이 확인된다. 신곡리 장문숙은 당시 김포 고촌의 양수장 수리조합 직원이었고, 송해봉은 신학생이었다.

김포면 감정리 정순달의 가족은 정순달의 아들이 좌익 활동 혐의를 받고 있었다.

양동면 마곡리 안삼순은 남편 이기학이 의용군에 끌려갔다는 이유로 양동지서에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양촌면 수참리 최인덕이 수참리 인민위원장이었으며, 정경순이 안말 반장, 장경선이 수참 반장이었다. 그리고 김동국이 인민위원회 일을 주로 보았으며 그 제수가 여성동맹위원장이었다고 한다. 김동철은 전쟁 전 양곡면에서 대한청년단이 주관하던 군사훈련을 받기도 하였으며 인민군 점령기 연락원의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유현리 황범주는 전쟁 전부터 양촌면사무소에서 근무하였는데 인민군 점령 당시에도 계속하여 면사무소 일을 보게 되었다.

하성면 가금리 구장이었던 김순명은 리 인민위원회 간부로, 마조리 권동규는 전쟁 전부터 근무하던 하성면 서기로, 마조리 구장 권남규는 리 인민위원장으로, 마곡리 여이현은 전쟁 전부터 보던 구장 일을 인민군 점령 당시에도 계속 보았다. 그리고 마곡리 민병택은 배급소 일을 보았다고 한다. 권남규는 마조리 구장이었던 데다가 국군 해병대에 있던 아들 때문에 인민위원장일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한다.

#### (4) 희생자 수

고촌면 참고인 송해숙은 고촌면 천등고개에서 송해봉의 시신을 찾던 중 집단살해당한 시신들을 직접 목격 하였는데, 70여 구의 시신이 암매장 되어 있던 구덩이와 송해봉이 암매장 되어 있던 6명의 시신을 볼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참고인 장상래는 고촌면에서만 200여 명이 희생된 것으로 안다고 하였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고촌면 희생자 수는 80여 명 이상으로 판단된다.

김포면 참고인 조명순은 김포경찰서에서 트럭에 실려 가는 100여 명의 주민들을 목격하였는데 모두 여우재고개에서 희생되었을 것이며 그 후로도 여러 번 더 그렇게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김포경찰서 사찰계 형사였던 참고인 박점문은 200명에서 400명 정도가 여우재고개에서 희생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참고인 신성철은 김포면 감정리에서만 60여 명이 희생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감정리 주민들은 대부분 독자골에서 희생되었다고 한다. 감정리 외의 주민들도 독자골에서 희생되었다는 진술이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상을 종합하면, 김포면 희생자 수는 260여 명 이상으로 판단된다.

대곶면 참고인 이태순은 사건 당시 대곶지서 창고에는 쇠암리 3명, 오니산리 3명을 포함하여 30여 명이 갇혀 있었다고 하였는데 이들 대부분이 희생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곶면 희생자 수는 30여 명으로 판단된다.

양동면에서는 참고인 이정옥 등이 마곡리 주민 6명이 갇혀 있던 수리조합 창고

에 100여 명의 주민들이 함께 갇혀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는데 이들 대부분이 함께 희생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동면 희생자 수는 1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양촌면에서는 신청인 정봉운과 참고인 김정숙이 양곡지서 유치장에 10여 명, 이외에 지하 방공호에도 주민들이 갇혀 있었으며, 양곡지서 뒷산에서 20여 구와 양곡중학교 뒷산에서 10여 구의 시신을 목격하였다고 하므로 양촌면 희생자 수는 3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하성면에서는 국군 수복 후부터 1.4후퇴 직전까지 여러 차례 집단총살이 있었다고 하는데 1950년 10월 20일경 2개의 창고에 30여 명씩 60여 명이 갇혀 있다가 희생되었다는 진술과 1.4후퇴 직전 강씨 집안 등 40여 명 이상의 주민들이 희생되었다는 진술로 보아 100여 명 이상의 주민들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각 사건 희생자 수는 고촌면 80여 명 이상, 김포면 260여 명 이상, 대곶면 30여 명, 양동면 100여 명, 양촌면 30여 명, 하성면 100여 명 이상이므로 이를 종합하면 김포군에서는 모두 600여 명 이상이 부역혐의자 살해사건으로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 6. 증언 및 진술로 본 희생자 규모

44명의 증언자와 진술에 의한 조사 자료를 통해 김포지역의 민간인 학살 희생자 수를 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학살 장소 또한 또 다른 증언을 통해 확대될 여지는 많다.

증언자에 의한 김포 민간인 학살 장소는 총 37곳으로 나타났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조사한 학살 현장은 총 5곳으로 김포면, 양촌면, 고촌면, 하성면, 대곶면 지역이다. 그러나 5곳 지역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했다고 볼 수 없다. 위원회의 조사는 당시 학살당한 희생자가 신고 접수한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월곶면은 신청자가 없어 조사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며 당시 김포군지역이었던 검단면, 양서면도 빠져있다.

먼저 증언자에 의한 김포지역 민간인 학살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포지역 중 김포, 1, 2, 3동지역(북변동, 감정동, 사우동, 풍무동, 장기동, 걸포

동, 운양동)에서 민간인 학살 현장은 총 15곳으로 나타났으며 치안대 및 경찰에 의해 학살한 현장은 13곳, 인민군에 의한 학살 장소로 2곳으로 나타났다.

민간인 학살 규모는 총 334명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 조사는 김포면이 총 260명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양촌면은 증언자에 의한 학살 인원이 파악되지 못했다. 증언자가 말하는 학살 규모 표현은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였다. 이는 전해들은 내용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원수로 증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황상으로 150여 명으로 추정된다. 양촌면은 99명으로 파악되었다. 위원회의 조사인원은 30명으로 나타났다.

하성면은 410명으로 나타났으며 위원회는 100명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고촌면은 증언자가 증언한 인원수는 90명이다. 위원회는 80명 이상으로 파악했다. 고촌면 지역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한 사람에 의하면 200명이 학살됐다고 진술하고 있다.

월곶면은 김포지역에서 가장 많은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진 곳으로 증언됐다. 총 1,024명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한 장소에서 1,000여명이 학살된 장소는 월곶면 군하리 거무레골이라는 곳이다. 이 수치를 증언한 증언자는 증언자 아버지가 당시 치안대장으로 활동했던 이유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보고 들을 수 있었다고 증언한다. 당시 매일 50명씩 묶어 끌려가는 것을 보았으며 이후 내용은 아버지와 이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서 이야기 나누는 것을 들었던 내용이며 틀림이 없다고 주장한다.

대곶면 지역은 양촌면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규모를 증언 받지 못했다. 20명으로 추정했다. 위원회는 30명으로 조사했다.

이상으로 김포지역 민간인 학살에 대한 희생자 규모를 잠정적으로 정리해 보면 총 1,967명이 학살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수치 또한 정확한 인원수가 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이 인원수의 규모를 기초로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추후 보다 면밀한 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김포의 민간인 학살 현황이 나와야 할 것 같다.



어린 남매가 이미 숨을 거둔 엄마의 시신을 붙잡고 길가에서 울고 있다. 자료사진 | 지울 수 없는 이미지 (2007. 눈빛)

## 7. 조사를 마치며

김포지역의 6.25전쟁을 통해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갖고 살아온 세대들의 삶을 조명하고 나누고자 기획된 <김포6.25전쟁비사>는 그러나 인터뷰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사실이 고백되어지고 우리 김포지역에서도 지역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크나큰 과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44명의 증언자들에 의해 김포지역에서 민간인 학살 장소로 지목한 곳이 총37곳으로 밝혀졌다. 또한 1,967명의 민간인 학살이 진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이 수치는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 또한 44명이 증언한 학살 장소 이외에 다른 곳이 더 있을 수 있다.

약2,000여명의 민간인 학살의 문제를 김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새로운 화두가 김포역사의 한복판으로 등장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해법을 가진 사람은 없을듯하다.

역사는 진보해 가는 것이다.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어떤 때는 급격하게 폭풍이 몰아치듯 하면서 우리 삶의 역사는 발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일지도 모른다.

까맣게 몰랐던 새로운 소식을 접했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된다. 그리고 두려움이 오게 되고 그 다음은 숙연해진다. 그 문제가 피할 수 없는 나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김포지역 민간인 학살 현장지도



김포지역 민간인 학살 현장 및 현황

학살구분	현지역	증언에 의한 학살현장	증언	진술자료
우익치안대 좌익학살	불로동	여우재고개 골짜기1	30	260명이상
		여우재고개 골짜기2	10	
		여우재고개 골짜기 3	70	
	감정동	예비군훈련장(여우재고개 정상) 골짜기1	7	
		예비군훈련장(여우재고개 정상) 골짜기2		
		독자골(고려공원) 골짜기1	17	
		독자골(고려공원) 골짜기2	10	
	북변동	독자골(고려공원) 골짜기3	30	
		성인교회 뒤면 골짜기	20	
		충현탑 아래 채석장 자리	31	
결포동	김포초 뒤 골짜기	40		
좌익의 우익학살	한당제방둑 20미터전방 뺨(개흙)	40		
	감정동	독자골(고려공원) 골짜기 1곳	수십명	
	북변동	구 김포경찰서 내	7	
	고양시	고양시 송포면(호국군12용사)	12	
소계		15곳	334명	260명
양촌면		양곡지서 뒤면	69	30명이상
		양곡중학교 뒷산	수십명	
		봉성리 다리간	수십명	
		누산리 한강 뺨	수십명	
소계		4곳	99명	30명
우익치안대 좌익학살	하성면	하성면사무소 창고	100명	100명이상
		하성초등학교 뒤면 골짜기(테니스장)	수십명	
		태산가족공원내 골짜기(태산가족공원)	수십명	
		석탄리 골짜기(태산건너편)	수십명	
		석탄리 한강둑	100명	
		마금포 신리강변	수십명	
인민군의 우익학살		강범수 가족 희생	50명	
		하성면사무소 창고	100명	
		마곡리 하성시장(테외시장)	수십명	
		하성중고 뒤면 산 골짜기	수십명	
소계		10곳	410명	100명
고촌면		천등고개 한화아파트 입구(30미터)	20	80명이상 (200명)
		천등고개 상수도사업소 지점	70	
소계		2곳	90명	80명
월곶면		월곶초교 뒷산 골짜기(거무레골)	1,000명	월곶면은 조사하지 않음
		김포CC 언덕(대나루고개)	수십명	
		성동리 말구리재	2	
		옹정리 갯고개(김포외고 골짜기)	2	
소계		4곳	1014명	-
대곶면		대곶면사무소 뒷산골짜기	수십명	30명이상
		송마리 소라리산 골짜기	수십명	
소계		2곳	20명	30명
합계		37곳	1,967명	500명이상

※ 학살인원 추정에서 '수십명'으로 표현한 수치는 최소10명으로 계산했다.

### 〈6.25사변 피살자명부〉와 김포민간인 학살

민간인 학살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는 1952년 3월 31일 현재, 공보통계국이 조사 작성한 자료를 통해서다. 이 문서의 공식명칭은 〈6.25사변 피살자 명부〉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살자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지만 정부의 공식문서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또한 이 문서 조사내용은 비전투인인 민간인 학살 자료라는 점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당시 피살자는 총 59,964명이 조사 기술되어 있다. 이중 경기도가 2,536명(남 2,373명, 여163명)이며 김포지역 민간인 학살(피살자) 인원은 총 75명으로 파악되었다. 이 수치는 1952년까지의 조사 통계이므로 휴전이 1953년 7월까지의 시간을 감안한다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또는 전쟁 중에 제대로 신고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화군	길상면(1)	1
검단면	금곡리(1)	1
고촌면	향산리(1)	1
김포면	감정리(1) 걸포리(5) 북변리(11) 사우리(2) 운양리(1) 풍무리(1) 걸포리(1) 장기리(1)	23
대곶면	대능리(1) 신안리(1) 울생리(2) 초원지리(2)	6
양동면	가양리(2) 마곡리(1) 염창리(1) 화곡리(3)	7
양서면	개화리(1)	1
양촌면	구래리(2) 누산리(1) 양곡리(2) 흥신리(1)	6
월곶면	고정리(1) 귀전리(3) 서암리(3)	7
충 북	제천군 덕산면 수곡리(1)	1
하성면	가금리(1) 마곡리(8) 석탄리(3) 신리(3) 원산리(1) 하사리(3) 석탄리(1) 마곡리(1)	21
소 계		75



### (1) 김포 피살자 지역별 실태

먼저 <6.25사변 피살자명부>에 나타난 김포지역 피살자 명단을 거주지 및 본적별로 살펴보면 김포면이 23명으로 가장 많은 피살자가 발생했다. 하성면이 21명으로 그 다음이며, 양동면과 월곶면이 7명, 대곶면과 양촌면이 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마을별로는 김포면 북변리가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하성면 마곡리가 8명, 김포면 곁포리가 5명, 3명의 피살자로 조사된 양동면 화곡리, 월곶면 귀전리, 서암리, 하성면 석탄리, 신리, 하사리 순이다.

각 지역별(본적) 명단현황은 다음과 같다.

### (2) 김포지역 피살자 장소별 분포

전체 피살자 75명중 가장 많은 수가 피살된 장소로는 고양군 송포면 대화리이다.

총13명이 피살당했다. 피살된 13명중 12명은 당시 김포지역 청년단들로 구성된 호국군으로서 인민군에 의해 잡혀 강건너 고양군에서 총살당한 이들이다. 다음으로 하성면 마곡리에서 10명이 피살당했으며 양촌면 양곡리가 6명으로 그 다음순이다.

### (3) 김포지역 피살일자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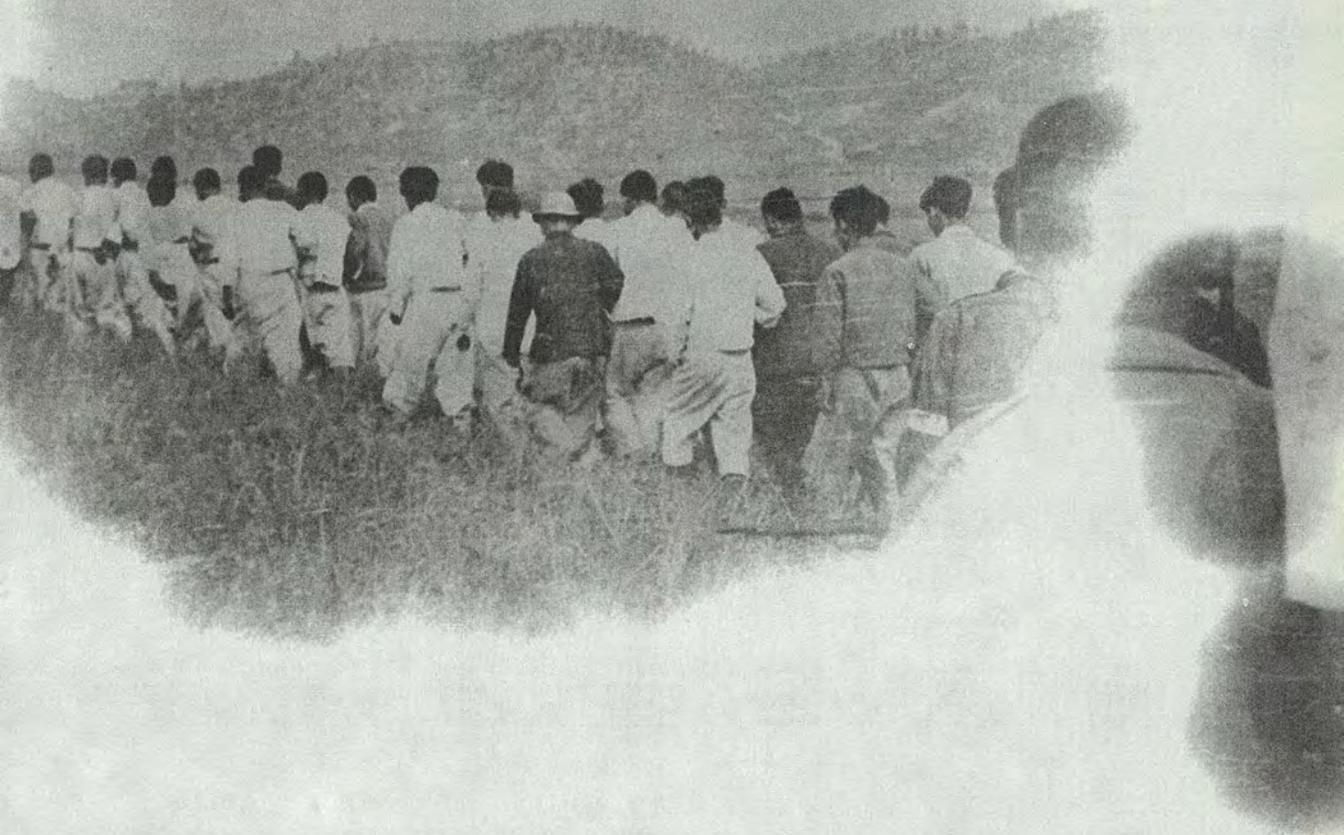
피살일자별 실태는 1950년 9월 17일에 가장 많은 18명이 피살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으로 9월 3일에 13명, 9월 15일 10명, 9월 16일 5명, 9월 18일, 2일 4명 순이다.

피살자 장소별 분포

피살(학살)장소	인원
검단면 금곡리	1
고양군 송포면 대화리	13
고촌면 향산리	1
김포면 북변리	7
김포면 사우리	2
김포면 운양리	2
김포면 풍무리	1
김포면 장기리	1
대곶면 대능리	1
대곶면 율생리	3
양동면 가양리	1
양동면 마곡리	1
양동면 염창리	1
양동면 화곡리	2
양서면 개화리	2
양촌면 구래리	2
양촌면 누산리	1
양촌면 마송리	1
양촌면 양곡리	6
양촌면 흥신리	2
월곶면 갈산리	2
월곶면 고정리	1
하성면 가금리	1
하성면 마곡리	10
하성면 석탄리	4
하성면 신리	3
하성면 하사리	3
합 계	75

김포지역 인사 피살일자별 분포

피살일자	인원
기록무	1
1950.6.27	1
6.28	1
7.05	1
7.14	2
7.15	1
7.28	3
8.01	1
8.03	1
9.11	3
9.15	10
9.16	5
9.17	18
9.18	4
9.19	3
9.02	4
9.03	13
9.04	1
9.23	1
9.28	1



#### IV. 6.25전쟁 중 김포 납북자 실태조사

1. 납북자 유형구분 및 조사자료
2. 자료 소개 및 김포납북자 실태자료 분석
3. 김포 납북(피랍)자 자료 통합 분석
4. 조사를 마치며

## IV. 6.25전쟁 중 김포 납북자 실태조사

김포지역에서도 6.25전쟁 중 북한으로 납북된 인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이번 (김포지역 6.25전쟁비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다. 증언자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밝혀지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문서를 통해 김포지역에서도 납북자가 1천여 명이 넘는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동안 6.25전쟁에 관한 내용들을 부모세대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쟁의 참혹함과 아픔 그리고 피해에 대한 인식을 갖고는 있었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납북되었다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처음 접한 정보였다.

조사과정을 통해 접한 증언내용과 납북자에 관한 입수된 자료를 근거로 6.25전쟁 중 김포지역의 납북자 실태를 파악해 '보고서 형식'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1950년 9월 서울수복 직전 수백명에서 수천명에 이르기까지 무리를 지어 여러차례 납북돼 갔는데 그 중 한 장면으로 보인다.(출처:국가기록원)



## 1. 납북자 유형구분 및 조사자료

먼저 납북자<sup>1)</sup>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납북자 유형<sup>2)</sup>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측 입장에서 본 일명 '반동분자'의 강제 납치였다. 즉 사상적으로 공산주의를 반대했던 우익인사와 부르주아 계급 출신들이다. 이들 가운데는 체포되어 처형당한 사람도 많지만, 북으로 끌려가다가 죽은 경우, 북한의 감옥에 감금된 후에는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로 대별된다.

둘째 북한은 남침과 동시에 인적 자원의 확보를 위해 전문직 종사자를 북으로 끌고 갔다. 남한에 비해 인적 자원이 열세였던 북한은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지닌 인물들을 북으로 데리고 가서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납북자를 직업별로 분류한 김명호 교수의 통계도 서울시의 전체 피랍자 2만 4,468명 가운데 '기술자'로 분류된 피랍자가 2,032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교수(98명), 의사(9170명), 변호사(129명) 같은 직업을 합하면 남침 후 전문직 인력을 조직적으로 납북한 사실이 드러난다.

셋째 북한의 '의용군'으로 징발된 사람들이었다. 군 인력의 충원을 위해 젊은 사람들은 강제로 인민군에 입대시켰다. 젊은이는 잡히면 무조건 끌려가야 했다.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한 채 끌려간 수많은 젊은이들이 원하지 않은 북한군에 편입되어야 했다.

위의 납북자 유형을 정리하면 북한체제를 받아들일 수 없는 부르주아적 계급과 자신의 체제에 활용할 전문직 종사자, 북한의 전쟁인력에 강제 동원된 의용군을 납북자로 규정할 수 있겠다.

## 2. 자료 소개 및 김포납북자 실태자료 분석

전쟁 중에 납북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에서 몇 차례 조사를 실시한 것을 파악했다. 그러나 조사한 자료가 전쟁의 외중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자료로서 객관

1) 6.25전쟁 당시 북한에 피랍(被拉)되어 간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는 납북자(拉北者), 피랍인(被拉人), 피납치자(被拉致者), 납치자(拉致者), 납북인사(拉北人士) 등으로 다양하다. 여기서는 납북자 혹은 피납치자로 혼용해서 사용하였다.

2) 정진석, <6.25전쟁 납북>, 기파랑, 2006. P24-28 정진석교수의 납북자에 대한 유형을 설명한 내용을 요약 발췌했다.

성을 확보하는데 미흡하다는 평가를 갖는다.

1952년 10월 대한민국 공보처 통계국이 발간한 <대한민국 통계연감>에는 전쟁 중 피랍자를 8만 2,959명으로 집계했고, 이듬해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에 발행한 정부의 통계연감은 8만 4,532명으로 집계했다. 1년 사이에 남북 피해자가 늘어나기도 했을 것이고, 이미 남북 또는 피살되었으나 이전에는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사람이 새로 밝혀진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감에는 피해자의 명단이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살던 어떤 사람이 피해를 입었는지를 알 수 없다.<sup>3)</sup> 고 지적하고 있다.

6.25전쟁 중 납북자 실태를 알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는 1950년 <공보처통계국>이 조사한 <서울특별시 피해자 명부>와 1951년도 <6.25사변 피랍치인사 가족회의>에 의해 작성돼 해공 신익희 국회의장에게 전달된 <6.25사변 피납치인사 명부>, 대한민국 정부가 전쟁 중인 1952년도에 작성한 <6.25사변 피랍치자 명부(其二)>, 1954년의 내무부치안국이 조사한 <6.25동란으로 인한 피랍치자 명부>, 1956년 대한적십자사의 <실향사민 등록자명단>과 1952년 10월 공보처통계국이 조사한 <6.25사변 피살자 명부> 등 총6개 자료가 있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 가운데 김포지역 피랍치자 및 피살자 실태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서울특별시 피해자 명부>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자료이다.

<피랍치자 명부>와 <피살자명부> 자료를 소개하고 김포지역 납북자 및 피살자 실태를 살펴본다.

#### 납북자·피살자 조사자료

자 료 명	작성기관	년도	피해자인원
서울특별시피해자명부	공보처	1950.12	4,616
6.25사변 피납치인사명부	피랍가족협의회	1951	2,316
6.25사변 피랍치자명부	공보처통계국	1952.3	82,959
6.25사변 피살자명부	공보처통계국	1952.10	59,994
피랍치자 명부	치안국정보과	1954	17,940
실향사민 등록자명단	대한적십자사	1956	7,034

3) 정진석, <6.25전쟁 납북>, 기파랑, 2006. P32



### 1) 서울특별시 피해자 명부<sup>4)</sup>

- △납치인원 : 총2,438명
- △김포납북자 명단 : 없음
- △작성일 : 1950년 12월
- △작성자 : 공보처 통계국



이 자료는 1950년 12월에 공보처 통계국이 전쟁의 와중에서 조사 작성한 최초의 명부이다. 이 명부의 범례에 따르면 1950년 9월 29일 서울 수복 직후 서울지역 내 피해자 조사가 진행되어 확인된 피해자 명단으로 총4,616명 중 피살자(남 796명, 여180명), 납치 2,438명(남 2,345명, 여 93명), 행방불명(남 1,149명, 여 53명)으로 분류돼 있다.

구별로 인적사항을 성명, 성별, 연령, 직업, 소속 및 직위, 피해 월일, 피해종류, 피해 장소, 약력, 주소 순 10개항으로 기록했다. 당시는 적과 아의 구분이 명확하여 의용군에 징집된 사람은 명단에서 제외했음을 명기했고, 유명인사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다.

이 명부는 비교적 보관 상태가 양호하며 범례까지 그대로 적혀 있어 명부 작성의 배경과 대상자를 처음에는 애국인사에 국한하려고 하였는데 선출의 어려움이 있어 보고된 피해자 전부를 수록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명부는 전시 납북자 명단에 관한 최초의 정부 공식 전국 명부로서 사료 가치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당시 정부는 9.28수복 후 적 치하 수도 서울에 갇혀 있던 수많은 남한의 지도층에 속한 애국인사들이 흔적도 없이 납북되어간 사건을 국가적 인명 피해 사건으로 인식하였다.

4)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집 1>, 2006.9. P668.  
이 명부는 김포지역과는 무관하나(서울지역 조사) 최초의 납북자에 대한 정부공식 조사 자료로서 가치 때문에 소개한다. 특히 이 자료는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이 고서수집가로부터 입수한 문서이다.

## 2) 6.25사변 피랍치 인사 명부<sup>5)</sup>

### (1)기본현황

△납치인원 : 총 2,316명

△김포납북자 명단 : 9명

△작성일 : 1951년

△작성자 : 6.25사변 피랍치인사 가족회의



1951년 부산 피난 시절에 결성된 <6.25사변 피랍치 인사 가족회의>가 회원들의 등록으로 작성한 명부이다. 32cm(가로)×22cm(세로)의 크기 110면

분량의 프린트 본으로 총2,316명의 인적 사항(성명, 직업, 연령, 주소, 피해 월일)이 기록되어 있다. 명부 자료 표지 오른쪽 상단에 '국회의장 신익희 각하'라고 기록되어 있다. 9.28 서울 수복 후 납북자 가족들이 모여 1950년 6월 28일부터 9월 28일까지 적치하 3개월간 주로 서울에서 납북된 분들의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1951년 1월 4일 1.4후퇴를 하게 되어 부산으로 피난을 간 가족들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명부를 1951년 9월 1일 청원문과 함께 국회의장 신익희에게 보낸 것이다.

가족회의 활동 범위가 한정된 까닭인지 명단의 대부분이 서울에서 납치된 경우였다. 1954년 7월 7일에는 가족회가 작성한 피랍자 명부 1차분은 2,815명으로 늘어났고, 2차분으로 1,791명이 추가로 작성되어 계 4,606명이 되었다는 기록이 정부 행정문서에 있지만 2006년 현재 발견된 바는 없다.



◀1951년 9월 1일 부산 새들공원에서 납북자 가족들이 모여 <6.25사변피랍치인사가족회>를 결성하고 창립총회를 가졌다(출처:국가기록원)

5) 일명 신익희 의장 소장 명부.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집 1>, 2006.9. P690. 김포관련 납북자 현황은 이책 부록에 첨부했다.



## (2)김포 납북(피랍)인사 관련사항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원장 이미일)으로부터 명부를 전달받아 분석한 결과 총 9명이 김포인사가 조사됐다.

이 자료의 작성 시기가 1950년 6월경이므로 이때의 김포군 행정구역은 김포면, 고촌면, 양촌면, 대곶면, 검단면<sup>6)</sup>, 월곶면, 하성면, 양동면<sup>7)</sup>, 양서면<sup>8)</sup>이다.

자료는 성명(姓名), 성별, 연령, 직업, 직위 및 소속, 피랍일자, 납치지역, 납치장소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조사된 김포인물 이름은 다음과 같다.

김기억(金基億), 김학선(金學善), 김기목(金基睦), 심석구(沈錫九), 김재경(金在慶), 김재구(金在九), 이옥균(李玉均), 이석준(李錫俊), 이혁희(李赫熙)

### 김포지역 납북(피랍)자 명단(9명)

성명	姓名	연령	직업	피랍일자	납치지역
김기억	金基億	20	경기공중생	1950-07-15	김포군
김학선	金學善	27	? 사건	1950-08-01	김포군
김기목	金基睦	20	교수	1950-07-15	김포군 동면
심석구	沈錫九	24	청년단	1950-07-15	김포군 동면
김재경	金在慶	30		1950-07-31	김포군 목동리 280
김재구	金在九	25		1950-07-31	김포군 목동리 280
이옥균	李玉均	37		1950-07-31	김포군 목동리 280
이석준	李錫俊	23		1950-07-31	김포군 목동리 280
이혁희	李赫熙	53	조합 출장소장	1950-08-04	김포면 운정리 330

지역별로는 <양동면 목동리> 인물이 4명이다. 그런데 또 다른 2명은 '동면'으로 기록되어 있어 '양동면'을 기록자가 '양'자를 빠트린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또한 '김포군 운정리'로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 있지만 '운정리'는 김포지역에 없다. '양동면 신정리'를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한다. 또 2명은 '김포군'으로만 표기되어 있어 김포군의 어느 면인지 알 수 없다.

6) 검단면은 1995년 인천광역시로 편입되었다.

7) 양동면은 1963년 서울특별시로 편입되었다.

8) 양서면은 1963년 서울특별시로 편입되었다.

납치일자는 1950년 7월 15일에 3명, 31일에 4명, 8월 1일 1명, 8월 4일 1명이다.

연령은 20대가 6명, 30대가 2명, 50대가 1명이다. 더 면밀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은 4명의 주소가 모두 김포군 양동면 목동리 280번지로 똑 같다는 점이다. 번지가 같은 점으로 보아 가족일 가능성은 있으나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

### 3) 6.25사변 피랍치자 명부<sup>9)</sup>(其 二)

(1)기본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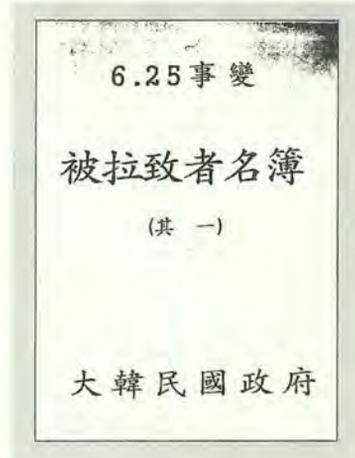
(其一);서울, (其二);경기, 충북 (其三);충남, 전라도 (其四);경상도, 강원도 (추가분)

△납치인원 : 총 82,959명

△김포납북자 명단 ; 1,348명

△작성일 : 1952년

△작성자 : 대한민국 정부 작성



최초의 전국 단위 납북자 명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면밀하게 조사, 작성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인적사항은 성명, 연령, 직업, 소속 및 직위, 납치 연월일, 납치장소, 주소 순으로 총 8개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른 명부와는 달리 의용군 또는 노무자로 강제 징집된 납북자를 포함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전쟁 중임에도 피랍치자 명단을 작성할 하게 된 배경에는 휴전회담에서 북한에 제시할 명부가 반드시 필요했고, 문서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사료된다.

자료는 도별 집계된 대략적인 숫자 약8,000명을 언급하면서 그중에는 자의적으로 월북한 사람과 공산주의를 자인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 명부를 작성하는 일을 담당했던 공보처 통계국 직원 이원상씨는

9)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집 1>, 2006.9. P675.



2002년 3월 14일 보도된 SBS 8시 뉴스에서 이 명부가 휴전협상 대표에게 제출되었고, 직접 면담을 통한 엄밀한 명부임을 증언했다. 또한 그는 실지로 이 명부가 휴전 이후에도 납북자 가족들에게 증명서를 발급하는 근거로 활용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이명부는 6.25전쟁납북인사가



끌려가는 양민들(출처:〈민족의 증언〉, 중앙일보사)

족협의회가 2002년 2월 16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견한 문서이다. 작성경위는 전쟁 중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을 비롯하여 너무나 많은 인물들이 북한으로 납치되어 갔으므로, 그 당시 정부가 국가적 인명 피해로 여기고 전국 일선 행정기관에 명령을 시달하여 실제로 납치여부를 확인한 후 명단을 올렸다고 한다.

## (2) 김포 피랍인사 관련사항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원장 이미일)으로부터 입수한 김포지역 납북인사 명단은 총1,348명이다. 우선 이 명부를 가나다순으로 분류하고 김포군의 지역별, 납치일자별, 연령순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동일인물의 중복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중복자 검색을 실시했다.

먼저 중복자 여부를 확인한 결과 19명이 동일인물로 파악되었으며 이를 제외한 김포지역 피랍치자 인원은 총1,329명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중복자 수는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짐작된다. 왜냐하면 원본내용이 한문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데다 한문을 해독하는 자의 해석오류가 많기 때문이다. 가령 데이터에 기술된 내용이 '양동면 마전리'로 기술되어 있으나 양동면에는 '마전리' 지역명이 없다. 따라서 이는 '검단면 마전리'를 잘못 해석한 결과이다.

조사자가 자료원에서 받은 자료내용을 검토한 결과 약100여개의 지역명칭이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이름은 같은데 번지가 다르거나, 번지는 같은데 이름의 한단어가 다르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 짐작은 동일 인물임이 틀림없으나 중복자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한 피랍치자 주소가 분명하게 기록된 것은 많지 않았다. 조사기준도 '납치장소', 혹은 '납치지역' 중심으로 표기가 이루어져 해당 피랍치자가 어느 면/리 사

람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피랍장소가 김포지역 이외에서 이루어진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피랍장소 표시를 주소지로 보아도 틀리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과 환경을 감안해 원본중심으로 면밀한 분석 작업이 요구된다 하겠다.

① 지역별 피랍현황

총1,329명에 대한 피랍자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가장 많은 피랍자가 발생한 면은 하성면으로서 248명이 납북됐다. 두 번째로는 216명의 대곶면, 148명의 김포면, 양촌면 138명, 월곶면 129명, 양동면 129명, 고촌면 98명, 기타지역 6명 순이다.

마을단위(리)로 가장 많은 피랍자가 발생한 지역은 하성면 후평리의 57명이며 두 번째 역시 하성면 석탄리로 48명이고 그 다음이 김포면 북변리에서 41명이 피랍됐다.

김포지역 납북자(1,395명) 지역별 현황

김포군	지역(숫자는 인원수)	인원
검단면	금곡리5 당하리16 대곡리32 마전리19 불로리15 오류리16 왕길리10 원당리7	120
고촌면	신곡리35 전호리12 태리9 풍곡리19 향산리23	98
김포면	감정리38 걸포리3 북변리41 사우리5 운양리14 장기리17 풍무리30	148
대곶면	가현리12 거물대리12 대능리24 대명리17 대벽리20 상마리12 석정리12 송마리11 쇠암리13 신안리10 약암리35 오니산리7 울생리24 초원지리7	216
양동면	기양리36 등촌리9 마곡리12 목동리27 신당리11 신정리1 염창리8 화곡리25	129
양서면	개화리12 과해리25 내발산리9 방화리35 송정리11	92
양촌면	구래리21 대포리5 도사리10 마산리8 마송리8 석모리4 수참리12 양곡리27 유현리14 학운리12 흥신리17	138
월곶면	?계리8 갈산리6 개곡리13 고막리3 고양리8 고정리12 공반월리7 군하리14 귀전리4 동을산리2 보구곶리6 서암리14 성동리10 용강리8 조강리10 포내리9	134
하성면	가금리2 마곡리34 마조리21 봉성리6 석탄리48 신리7 양택리22 원산리15 전류리24 하사리12 후평리57	248
기타	서울시 영등포3 김포군 동주리1 김포군 운정리1 고양면 행주리1	6



## ② 남북일자별 피랍자 현황

이 자료에 의하면 김포지역에서 최초 남북자가 발생한 곳은 하성면이며 일자는 1950년 7월 3일이다. 김포지역은 북한군이 김포반도 조강포 및 강령포 쪽으로 한강을 넘어 진격해 온 날이 1950년 6월 26일이며 김포읍까지 진격해 온 시기가 28일 오전이다. 북한군이 김포에 진격한지 5일만에 남북을 시도한 것이 된다.



끌려가는 양민들(출처:대한뉴스 1964.7.11 '남북인사를 송환하라' 중)

북한군이 김포지역에서 1950년 7월 3일부터 1951년 9월 20일까지 남북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군은 1년여 동안 김포에서 총 1,329명을 납북하였음을 자료는 말해주고 있다. 1년여 중에서도 7월, 8월 9월에 집중적으로 피랍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1950년 8월 2일에 가장 많은 인원의 435명이 피랍되었으며 그 다음이 1950년 7월 20일에 121명, 1950년 8월 5일 102명 순이다.

지역적으로는 하성면이 248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피랍됐다. 216명의 대곶면이 두 번째로 많았고, 김포면이 148명, 양촌면이 138명, 월곶면이 134명, 양동면이 129명, 검단면이 120명, 고촌면 98명, 양서면 92명, 기타 6명 순이다.

구분	검단면	고촌면	김포면	대곶면	양동면	양서면	양촌면	월곶면	하성면	기타	소계
피랍일자	120	98	148	216	129	92	138	134	248	6	1329
1950-07-03				1					21		22
5					1				8		9
6			7			2					9
7									3		3
8			4								4
9			1			3					4
10						1					1
11						5			5		10
12									6		6
13									9		9
14						1					1
15	1	1	2		4	7					15

구분	검단면	고촌면	김포면	대곶면	양동면	양서면	양촌면	월곶면	하성면	기타	소계
1950-07-18						2					2
19						2					2
20	10	10	6	8	5	1	34	47			121
21			5	7		6			10		28
22				17							17
24			3								3
25	1		4		6	1			40		52
27	21				2	1			5		29
28	4		1	1	1					1	8
30	11	4		17	7				3		42
1950-08-1			6								6
2	16	26	1	132	35		100	84	41		435
3			2						15		17
4									4	1	5
5	27	31	3	11	30						102
6			11	1		13					25
7			14		8	8			11		41
8			1			8					9
9			7			3					10
10	23		1	13	2		4				43
11			3	1					28		32
13									4		4
15					6						6
16			3			2					5
17			3		5				10		18
18						1					1
19						1					1
20	6		10	3	1	6		3	7	1	37
21				2					7	2	11
22			1		2	3					6
23			3		3	1					7
26						7					7
27			11	1	4	7					23
30			2	1	7				9		19
1950-09-3			4								4
1950-09-4										1	1
5			1								1
7			7								7



구분	검단면	고촌면	김포면	대곶면	양동면	양서면	양촌면	월곶면	하성면	기타	소계
1950-09-10		26	2								28
15									1		1
20			3								3
1951-01-15			2								2
1951-07-25									1		1
1951-08-23			2								2
1951-09-04			6								6
1951-09-05			2								2
1951-09-10			2								2
1951-09-20			2								2

## ② 연령별 피랍자 현황

김포지역에서 피랍된 인물들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가장 낮은 연령은 13세이며 가장 연령이 높은 나이는 74세였다. 가장 어린 13세 소년과 가장 연령이 높은 74세 노인이 피랍된 지역이 모두 김포면에서 발생했다.

20세가 166명으로 가장 많은 수가 피랍되었으며 22세가 155명, 23세 113명, 24세 105명, 23세 101명 순으로 조사됐다.

특이한 점은 피랍인 전체 1,395명중 20에서 25세까지의 젊은이가 하성면에서 가장 많이 피랍되었다는 점이다.

## 6.25전쟁 중 김포지역 연령별 납북자(피랍자) 현황

구분	검단면	고촌면	김포면	대곶면	양동면	양서면	양촌면	월곶면	하성면	기타	합계
연령	120	98	148	216	129	92	138	134	248	6	1,329
13			1								1
16			1						1		2
17	1		1		1				3		6
18	1	2	3	2	2	1	3	1	4		19
19	2	1	5	16	5	3	4	13	23		72
20	11	4	24	34	19	6	9	18	41		166
21	9	5	9	24	13	10	4	14	25		113
22	11	10	14	30	16	7	12	21	33		154
23	9	7	11	18	8	3	17	13	15		101
24	9	8	13	11	16	9	8	11	20		105
25	8	11	8	11	8	8	5	9	22		90
26	8	3	6	11	4	7	9	11	16	1	76

구분	검단면	고촌면	김포면	대곶면	양동면	양서면	양촌면	월곶면	하성면	기타	합계
27	11	10	9	11	7	8	7	5	10		78
28	9	8	8	6	10	6	13	3	5		68
29	5	2	1	11	3	4	8	4	7		45
30	8	9	7	6	4	5	7	1	3		50
31	3	2	5	6	3	5	7	1	2	1	35
32	3	3	1	4		3	10	1	6		31
33	1	5	2	1		3	1	3		1	17
34	5	4	5	2	3		4	2	2		27
35	1	3	2	1		1	3	2	4		17
36	1		2	2	2		2		3		12
37	2			2	1	1			1		7
38		1		2	1	1	1			1	7
39				1				1			2
40	1				2		1		1		5
41						1					1
42			1				1				2
43	1		1								2
45			1		1						2
46				1			1				2
47			2						1		3
48			1								1
50				1							1
52				1							1
53							1			1	2
54			2							1	3
59				1							1
69			1								1
74			1								1



◀ 끌려가는 양민들  
(출처: 대한뉴스 1964.7.11 '남북인사를 송환하라' 중)



#### 4) 6.25동란으로 인한 피랍치자 명부<sup>10)</sup>

##### (1)기본현황

총 2권(1권: 서울, 경기, 강원 / 2권: 충청남북, 전북, 경상남북)

△납치인원 : 총 17,940명

△김포지역 : 73명

△출 처 : 외교 정책 자료실

△작성 일 : 1954년

△작성 자 : 내무부 치안국



이 명부는 전후 처음으로 내무부 치안국 차원에서 조사 작성된 명부로 전쟁 중 작성되었던 1952년 명부에 비해 피랍인 수가 4분의 1이하로 대폭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조사 대상을 피랍치 인사를 위한 조사임을 표면에 내놓지 않고 호주 부재 가족 중 행방불명자 및 그 이유들을 주(主)로 한 형식의 조사를 진행하였다. 전쟁 중 작성된 1952년 명부에서 누락된 사람들이 추가되었지만 민간인 신분으로 강제로 징집된 의용군들을 비롯한 청년층은 거의 다 제외시켜 피랍인 수가 대폭 감소한다. 북한의 납치주체를 명시해 납치 사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는 명부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어 보인다.

우리 측은 1954년 4월 스위스에서 개최되었던 극동평화회의에서 국제적십자사로부터 인도적 차원에서 6.25 당시 북한에 납치된 인사 송환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에 우선 가족회가 작성한 4,606명의 명단을 1차분이라고 국제적십자사에 주었지만, 휴전 직후 보다 정확한 순수한 민간인 신분의 피랍치자 명단재작성이 요구되어 내무부가 이를 작성하게 된다.

이 명부는 엄격한 재작성의 취지에 맞게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북한에 협력하게 된 의용군, 노무자 등과 군인들을 제외하여 인원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10)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집 1>, 2006.9. P693.

(2) 김포 피랍인사 관련사항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원장 이미일)으로부터 전달받은 김포지역 납북인사 명단은 총73명이다. 우선 이 명부를 가나다순으로 분류하고 김포군의 지역별, 납치일자별, 연령순으로 구분하였다.

이 명부의 특징은 피랍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점이다. 예를 들면 ‘내 무서원에게 납치되다’, ‘인민군에게 납치되다’, ‘정치보위원에게 납치’ 등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납치장소 기록은 한두 명을 제외하고 모두 자택에서 피랍되었음을 기술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검단면이 2명, 고촌면 5명, 김포면 9명, 대곶면 4명, 양동면 9명, 양서면 2명, 양촌면 7명, 월곶면 30명, 하성면 4명이다.

김포군	피랍지역	인원
검단면	불노리2	2
고촌면	신곡리1 태리2 풍곡리1 향산리1	5
김포면	북변리2 사우리2 운양리1 장기리2 풍무리2	9
대곶면	고모리1 대명리1 석정리1 올생리1	4
서 면	서면 창저리1	1
양동면	양동면1 등촌리1 목동리6 신정리1	9
양서면	방화리1	1
양촌면	양곡리3 흥신리4	7
용천면	용천면 포산외리1	1
월곶면	갈산리3 고막리2 고양리2 군하리1 보구곶리4 성동리6 웅정리2 용강리3 포내리6 고막리1	30
하성면	가금리1 마곡리1 마조리1 원산리1	4
합 계		73

연령별로(괄호는 인원)는 19세(1명), 21(1), 22(3), 23(3), 24(6), 25(7), 26(5), 27(1), 28(8), 29(1), 30(1), 31(6), 32(1), 34(5), 35(3), 36(1), 37(1), 38(2), 39(1), 40(1), 42(1), 43(1), 44(2), 45(1), 47(1), 49(1), 50(1), 51(1), 52(2), 57(1), 58(1), 59(1)

피랍일자별(괄호 안은 인원)로는 1950년 7월 3일(3명), 7-5(2), 7-10(3),



7-12(2), 7-13(1), 7-15(2), 7-16(1), 7-17(1), 7-19(1), 7-20(6), 7-21(1), 7-24(2), 7-25(2), 7-27(2), 7-28(3), 7-30(4), 8-1(1), 8-02(1), 8-3(2), 8-5(1), 8-6(1), 8-7(2), 8-10(1), 8-15(2), 8-17(1), 8-20(3), 8-25(10), 8-28(1), 8-30(2), 9-10(1), 9-12(1), 9-13(1), 9-15(2), 1951년 2월 3일(1), 2-20(1), 7-28(1)

직업별(괄호는 인원)로는 경찰관(2명), 공무원(1), 교원(3), 노동(2), 농업(46), 무(2), 문관(2), 병기청사무원(1), 상업(1), 서기(6), 선업(2), 정미업(1), 학생(4)

### 5) 실향사민 신고서(실향사민 등록자명단)<sup>11)</sup>

#### (1) 기본현황

△납치인원 : 총 7,034명

△김포지역 : 38명

△작성일 : 1956년 6월 15일 - 8월 15일

△작성자 : 6.25전쟁 납북자의 가족

△보관처 :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가 원본을 보유하고 있는 <실향사민신고서>는 6.25전쟁 납북자들의 개별 납치 상황에 대한 납측 가족들의 육필 납치 신고서를 말한다. 원래 전체 7,034건이었으나 일부가 유실돼 6,472건만 제본돼 있다.

정식명칭은 <6.25전쟁 납북자 안부탐지 신고서>로 '실향사민'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협상과정에서 납치 또는 납북이라는 표현을 거부하는 북한측과의 타협의 산물로 협상용 용어로서 고안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향을 잃은 민간인'이라는 중립적 표현으로 납치의 범죄적 성격을 가리고 있으나 이때의 실향사민이란 정확히 6.25전쟁 납북자를 가리킨다.

이 육필 신고서들은 국제 적십자사를 통하여 북한적십자사로부터 6.25전쟁 납북자의 '안부탐지'를 할 목적으로 1956년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2개월에 걸쳐 가족들이 직접 작성하여 신고토록 한 것이다.

11)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집 1>, 2006.9. P717.

1952년 정부가 작성한 82,959명의 <6.25사변 피랍치자 명부>에 비하여 신고자가 대폭 축소된 이유는 첫째 홍보 부족으로 대한적십자사가 납북자 신고를 받는다는 사실이 당시 전국에 퍼져있는 피랍인 가족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것과, 둘째 지사가 몇 개 지역에만 한정 설치돼 있었던 적십자사에서 신고를 받은 것, 셋째 접수 기간이 2개월로 한정되어 기한인 8월 15일이 지나서는 일절 접수를 받지 않은 것과, 마지막으로 납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어 의용군으로 강제 징집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이 육필 신고서를 바탕으로 7,034명의 <실향사민등록자명단>을 작성하고 가족들이 납북사실 증명을 신청할 경우 이를 토대로 <납북사실확인서>를 발급해 왔다. 또한 대한적십자사는 이 신고서를 기초로 <안부탐지조회서>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 국제 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적십자사에 보냈다. 그 결과 1957년, 북한의 조선중앙적십자사위원회로부터 337명에 대한 <회답서>를 받게 되는데, 이는 현재까지 6.25전쟁 납북자 안부탐지에 대한 전후 유일한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 (2) 김포 피랍인사 관련사항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원장 이미일)으로부터 전달받은 김포지역 납북인사 명단은 총38명이나 중복자 2명을 제외하면 총 36명이다.

이 명부에는 '피랍일자' 혹은 '피랍장소'가 기술되어 있지 않다. 이유는 위에서 이미 밝히고 있듯이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납북자라는 용어자체도 받아들이지 않는 원인이 작용했다.

직업별(괄호 안은 인원)로는 공무원(2명), 교원(6), 노동(1), 농업(15), 무직(4), 직공(1), 철공업(1), 학생(3), 한의사(1), 회사원(2)

연령별(괄호 안은 인원)로는 20세(1명), 21(1), 23(1), 25(1), 27(2), 28(1), 29(3), 30(1), 31(2), 32(2), 33(2), 34(2), 35(1), 36(1), 37(2), 40(2), 41(1), 45(1), 47(1), 51(1), 54(1), 55(2), 59(1), 60(1), 61(1), 62(1)

납치장소별로는 경기 29명, 충남 2명, 충북 1명, 평남 1명, 평북 1명

지역별(면별) 납치현황은 검단면 2명, 고촌면 1명, 김포면 8명, 대곶면 1명, 양동면 11명, 양서면 8명, 양촌면 3명, 월곶면 1명, 하성면 1명이다.(중복자 2명 제외)



## 6) 6.25사변 피살자 명부<sup>12)</sup>(其 一)

### (1)기본현황

작성 : 공보처통계국

작성일 : 1952년 3월 31일 현재

이 자료는 1952년 3월 31일 현재 공보처통계국이 조사한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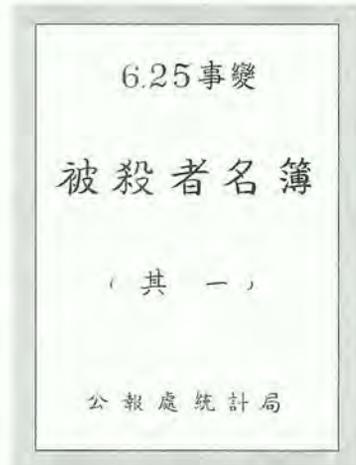
다른 자료는 '피랍치자'를 조사한 명부이나 이 자료는 '피살자'를 조사한 점이 다르다. 북한군과 좌익이 학살한 민간인과 공무원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 명단이다.

4권으로 된 이 자료에는 5만 9,964명의 피살자 명단이 실려 있다. 전쟁이 끝나기 전이었으므로 종전까지는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을 가능성도 있다.<sup>13)</sup>

자료 범례에 따르면 6.25사변중 공무원 및 일반인이 북한에 의해 피살당한 상황을 조사 편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또 자료는 피살인사의 개별적 내용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성명, 성별, 연령, 직업, 피살년월일, 피살 장소, 본적, 주소등 항목을 정하여 조사하였다고 말하고 피살인사의 편의를 도모코자 서울특별시 및 각도, 시군별로 편집하고 다시 다수별 성씨별로 구별 정리하였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 조사는 군경을 제외한 비전투원(민간인)을 조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피살자 가운데는 앞에 소개한 <서울특별시 피해자 명부>에는 남북으로 되어 있으나 이 자료의 피살자 명단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서 당시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강제 연행된 후에 죽었는지, 살아서 북으로 끌려갔는지, 가족이나 이웃사람들이 모르거나 서로 다른 증언을 했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자료에 따라 '피살' 또는 '납북'으로 다르게 기록되기도 했다. 끌려가니 후에는 소식이 끊어졌으니 북에서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가족들은 알도리가 없었던 것이다.<sup>14)</sup>



12) 조사자가 국회도서관에서 찾아내 <김포지역 피살자 명단>을 복사했다.

13) 정진석, <6.25전쟁 남북>, 기파랑, 2006. P41.

14) 정진석, <6.25전쟁 남북>, 기파랑, 2006. P42.

피살자 명단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총59,964명 중 경기도가 2,536명(남자 2,373명, 여자163명)이고, 김포군은 총75명으로 조사되었다.

#### 피살장소별 피살자 현황

피살지역	피살장소	인원
강화군	길상면(1)	1
검단면	금곡리(1)	1
고촌면	향산리(1)	1
김포면	감정리(1) 걸포리(5) 북변리(11) 사우리(2) 운양리(1)	
	풍무리(1) 걸포리(1) 장기리(1)	23
대곶면	대능리(1) 신안리(1) 율생리(2) 초원지리(2)	6
양동면	가양리(2) 마곡리(1) 염창리(1) 화곡리(3)	7
양서면	개화리(1)	1
양촌면 구래리	구래리(1) 누산리(2) 양곡리(1) 흥신리(1)	5
월곶면 고정리	고정리(1) 귀전리(3) 서암리(3)	7
충북 제천군	덕산면 수곡리(1)	1
하성면가금리	가금리(1) 마곡리(8) 석탄리(3) 신리(3) 원산리(1)	
	하사리(3) 석탄리(1) 마곡리(1)	21
소 계		75

### 3. 김포 납북(피랍)자 자료 통합 분석

위에서 6.25전쟁 중 납북(피랍)자에 대한 기본 자료들을 소개하고 김포지역의 납북자 명단과 그 자료들을 소개, 분석하였다.

이 장에서는 김포지역 납북자가 조사된 4개의 자료에서 각 납북자 명단을 통합하여 중복자를 제외하여 집계한 김포 최종 납북자 명단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1951년 전쟁 중 부산에서 <6.25사변 피납치 인사 가족회의>에 의해 조사된 <6.25사변 피랍인사 명부>에는 김포지역 피랍자 인사명단이 총 9명으로 파악되었다. 두 번째로 1952년도 <6.25사변 피랍치자 명부(其二)>에는 1,348명, 세 번째 자료로 1954년도 작성된 <6.25동란으로 인한 피랍치자 명부>에 73명, 마지막으로 1956년 대한적십자사가 접수한 <실향사민 등록자 명단>에



37명이 조사 되었다.

각 자료별 김포지역 납북자 인원은 다음 <표>와 같다.

자료명	전국현황	김포지역	작성년도
6.25사변 피랍치인사 명부	2,316명	9명	51년
6.25사변 피랍치자 명부	82,959명	1,348명	52년
6.25동란으로 인한 피랍치자 명부	17,940명	73명	54년
실향사민 등록자 명단	7,034명	38명	56년
소 계	110,245명	1,468명	

각 자료별로 파악된 김포지역 피랍치자 명단을 1차적으로 각 자료별로 동일인물(중복자) 여부를 조사했다. 중복검사후 51년도와 54년도 명부에서는 중복자가 없었으나 52년도 자료에서는 19명, 56년도 자료에서는 2명이 파악되었다.

자료명	김포지역	중복자	최종명부
6.25사변 피랍치인사 명부	9명	-	9명
6.25사변 피랍치자 명부	1,348	19명	1,329명
6.25동란으로 인한 피랍치자 명부	73	-	73명
실향사민 등록자 명단	38	2명	36명
소 계	1,468명	21명	1,447명

다음으로 각 자료별로 명단을 확정(1,447명)한 후 4개의 명단을 통합 동일인물(중복자) 여부를 조사하였다.

총 1,447명 중 중복자가 52명이 조사되었으며 4개의 자료를 통해 확인된 김포지역 <피랍치자 명단>은 총 1,395명으로 최종 파악되었다.

그러나 이 명단 수치는 기술적인 차원의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조사자가 분석한 자료는 <한국전쟁납북자료원>으로부터 김포지역 명단을 데이터로(엑셀)로 받은 것이다. 즉 1차 자료를 판독하여 2차 자료로 데이터베이스화 한 것이다. 따라서 판독(한문해석)하고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조사자가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에 잘못 기록된 사항을 발견

하고 수정을 가했다. 그러나 시간부족으로 원본대조를 실시하지 못했다. 추후 시간을 갖고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 1) 지역별 납북(피랍)자 분포



끌려가는 양민들(출처:KBS 영상실록 '1950년')

경기도 시·군별 납북자 수 중 1,000명이 넘는 지역은 강화군(1,485명), 김포군(1,395명), 파주군(1,383명), 화성군(1,231명), 여주군(1,110명), 안성군(1,028명), 부천군(1,004명) 등이다.

경기도의 납북자 수는 18,270명이며 김포지역이 1,395명으로 강화군(1,485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이다.

김포지역별<sup>15)</sup> 납북자 수는 하성면이 24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곶면 219명, 김포면 155명, 월곶면 151명, 양촌면 142명, 양동면 137명, 검단면 122명, 고촌면 101명, 양서면 94명, 기타 26명(기록이 없거나 김포이외의 지역)순이다.

리단위에서는 하성면의 후평리가 57명으로 가장 많은 납북자가 발생되었으며 두 번째도 하성면 석탄리로 47명이 피랍되었다 세 번째로 많은 납북자 리지역은 김포면 북변리로 42명이다.

## 2) 연령별 납북자 분포

납북자들의 연령별에 따른 지역별 납북자 수를 살펴보면 김포면의 13세가 최연소 납북자로 파악되었다. 최고령은 김포면의 74세 노인이다.

10대가 99명, 20대가 1,023명, 30대 230명, 40대 23명, 50대 17명,

15) 1950년의 김포군의 행정구역은 김포면, 고촌면, 양촌면, 대곶면, 월곶면, 검단면, 하성면, 양동면, 양서면으로 총9개면이었다. 양동면과 양서면은 1963년 서울특별시로 편입되었다. 검단면은 1995년 인천광역시로 편입되었다.



60대 2명, 70대 1명이다.

가장 많이 납북된 연령은 20세로 168명이며 다음으로 152명이 납북된 22세, 112명이 납북된 24세, 111명이 납북된 21세 순이다.

김포지역 면별 납북자 현황

김포군	지역	인원
검단면	금곡리5 당하리16 대곡리32 마전리19 불로리17 오류리16 왕길리10 원당리7	122
고촌면	신곡리34 전호리12 태리11 풍곡리20 향산리24	101
김포면	감정리38 곁포리3 북변리42 사우리8 운양리15 장기리18 풍무리31	155
대곶면	가현리12 거물대리12 대능리24 대명리18 대벽리20 상마리12 석정리13 송마리11 쇠암리13 신안리10 약암리35 오니산리7 울생리25 초원지리7	219
양동면	가양리35 등촌리10 마곡리12 목동리34 신당리11 신정리2 염창리8 화곡리25	137
양서면	개화리12 과해리25 내발산리9 방화리36 송정리12	94
양촌면	구래리21 대포리5 도사리10 마산리8 마송리8 석모리4 수참리11 양곡리28 유현리14 학운리12 흥신리21	142
월곶면	?계리8 갈산리9 개곡리13 고막리5 고양리10 고정리12 공반월리6 군하리14 귀전리4 동을산리2 보구곶리8 서암리14 성동리13 웅정리2 용강리9 조강리10 포내리12	151
하성면	가금리3 마곡리33 마조리22 봉성리6 석탄리47 신리7 양택리22 원산리15 전류리24 하사리12 후평리57	399
기타	경기13 고양면 행주리1 김포군 동면2 김포군 운정리1 서면 창저리1 서울 영등포1 용천면 포산외리1 충남2 충북1 평남1 평북2	26

김포지역 연령별 납북자 현황

구분	검단면	고촌면	김포면	대곶면	양동면	양서면	양촌면	월곶면	하성면	기타	합계
연령	122	101	155	219	137	94	142	151	248	26	1395
13			1								1
16			1						1		2
17	1		1		1				3		6
18	1	2	3	2	2	1	3		4		18
19	2	1	5	16	5	4	4	12	23		72

구분	검단면	고촌면	김포면	대곶면	양동면	양서면	양촌면	월곶면	하성면	기타	합계
20	11	4	24	34	19	6	9	18	41	2	168
21	9	5	9	24	12	10	4	12	25	1	111
22	11	10	14	30	16	7	13	19	32		152
23	9	7	11	18	8	3	17	13	14	1	101
24	9	8	13	11	16	9	9	16	20	1	112
25	8	11	8	11	9	8	6	14	22	1	98
26	8	3	6	11	4	7	8	14	16		77
27	11	10	9	11	7	8	7	6	10		79
28	9	9	8	6	10	6	14	7	6	1	76
29	5	2	1	11	3	4	8	5	7	3	49
30	8	9	7	6	6	5	7	1	3		52
31	3	3	7	7	5	5	7	1	2	2	42
32	3	3	1	4		3	9	2	6	1	32
33	1	5	2	1		3	1	3		3	19
34	5	5	4	2	3		5	4	3		31
35	1	2	3	2	1	1	3	2	4	1	20
36	1		2	2	2		2		3	1	13
37	2	1		2	2	1			1	1	10
38	1		1	2	1	1	1			1	8
39	1			1				1			3
40	1		1		1		1		1		5
41						1					1
42			1		1		1				3
43	1	1	1								3
44					1	1					2
45			1		1					1	3
46				1			1				2
47			2								2
48			1								1
49			1								1
50				1	1						2
51									1		1
52				2				1			3
53							1			1	2
54			2							1	3
55										2	2
57			1								1
58			1								1
59				1			1				2
61										1	1
69			1								1
74			1								1



### 3) 직업별 납북자 분포

김포지역 납북자들의 직업별 분류를 살펴보면 경기공중생(1명), 경찰관(4), 공무원(6), 공업(4), 교원(14), 군인(1), 노동(21), 농업(1,256), 무직(20), 문관(2), 사원(3), 상업(4), 서기(6), 선업(3), 운전수(4), 정미업(1), 청년단(1), 토건업(2), 학생(38), 기록무(4)로 나타났다.



1954년 3월 11일 <6.25사변피랍치인사가족회>가 주최하여 덕수궁 뒤에서 송환촉구 시위를 하고있다.(출처:국가기록원)

김포지역 직업별 납북자 현황

경기공중생	1
경찰관	4
공무원	6
공업	4
교원	14
군인	1
노동	21
농업	1256
무직	20
문관	2
사원	3
상업	4
서기	6
선업	3
운전수	4
정미업	1
청년단	1
토건업	2
학생	38
기록무	4
소 계	1395

### 4) 피랍일자별 납북자 분포

전국적으로 1950년 7월, 8월, 9월의 3개월 동안 동시에 집중적인 피랍이 이루어졌다. 김포지역도 조사 분석한 결과 7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인 피랍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김포는 1950년 8월에 집중적으로 피랍되었다.

피랍자 총 1,395명중 1950년 7월에 427명, 8월에 886명, 9월에 45명, 1951년 1월부터 9월까지 18명(기타 19명)이다.

김포지역에서의 납북자의 최초 피랍일자는 1950년 7월 3일이며 마지막으로 피랍된 시기는 1951년 9월 20일이다. 또한 가장 많은 인원이 피랍된 일자는 1950년 8월 2일이다. 총 428명이 피랍되었다. 다음으로 1950년 7월 20일에

121명, 8월 5일에 103명이 순이다.

하루에 가장 많은 피랍자가 발생한 면은 1950년 8월 2일 132명이 피랍된 대  
곶면이며 다음으로 같은 날짜에 101명이 피랍된 양촌면, 76명의 월곶면 순이다.

김포지역 피랍일자별 납북자 분포

구분	검단면	고촌면	김포면	대곶면	양동면	양서면	양촌면	월곶면	하성면	기타	합계
피납일자	122	101	155	219	137	94	142	151	248	26	1395
1950-07-03				2			1		22		25
5				1	1				9		11
6			7			2					9
7									3		3
8			4								4
9			1			3					4
10			1		1	1			1		4
11						5			5		10
12				1			1		6		8
13		1							9		10
14						1					1
15	1	1	3		3	7		1		2	18
16										1	1
17		1									1
18						2					2
19						2		1			3
20	11	12	7	8	5	1	33	43	1		121
21			6	7		6			10		29
22				17							17
24			3					2			5
25	2		5		6	1			39		53
27	21				3	2			5		31
28	4		1	1	1			2		1	10
30	11	4	2	17	7			2	2		45
31					2						2
1950-08-01			6					1			7
2	16	26	1	132	35		101	76	41		428
3			2					2	15		19
4									4	1	5
5	27	31	3	11	30		1				103
6			12	1		13					26



구분	검단면	고촌면	김포면	대곶면	양동면	양서면	양촌면	월곶면	하성면	기타	합계
1950-08-07			16		8	8			11		43
8			1			8					9
9			7			3					10
10	23		1	13	2		3	1			43
11			3	1					27		31
13									4		4
15					7			1			8
16			3			2					5
17			3		5				10		18
18						1					1
19						1					1
20	6		10	3	3	6		4	7		39
21				2					7	1	10
22			1		2	3					6
23			3		3	1					7
25					1			9			10
26						7					7
27			11	1	4	7					23
28						1	1				2
30			2	1	7			2	9		21
1950-09-03			3		1						4
5			1								1
7			6								6
10		24	2					1			27
12								1			1
13							1				1
15								2			2
20			3								3
1951-01-15			2								2
02-20		1									1
07-08										1	1
07-25									1		1
08-23			2								2
09-04			6								6
09-05			2								2
09-10			1								1
09-20			2								2
기록무										19	19

#### 4. 조사를 마치며

6.25전쟁 중 김포지역의 납북자 혹은 피랍자로 규정한 총1,395명의 김포출신들이 납북됐다. 물론 이 수치는 아직 확정적인 명단은 아니다. 이보다 더 많은 수가 증가할 수도 있으며 아니면 축소될 수 있다. 그 개연성은 다양하다.

첫째 1,395명의 수치는 전쟁와중에 조사된 자료라는 점이고 둘째는 이 수치 안에 들어간 인물 중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파랍자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명단속의 인물들중 상당수가 이미 김포지역에서 피살된 인물이었으나 가족이 그 사실을 몰라 피랍자로 신고된 인물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자료의 내용은 인민군에 의해 피살되거나, 납북되기도 했지만 국군에 의해 또는 우익청년단원과 일명 바닥빨갱이로 불리는 좌익에 의해 피살된 인물들이 다수 포함된 수치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1,395명의 수치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따지거나, 많고 적음의 비율이 중요한 사실이 아닐 것이다. 문제는 김포지역에서 1천여 명이 넘는 인물이 피살되거나 납북된 사실을 전쟁이 끝난지 5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다는 수치스러움이다.

앞으로 김포가 극복해야 할 지역적 과제가 있다면 반드시 이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 가는,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몫이 되어야 할 것이다.

## 김포 6.25 전쟁 비사

### | 부록 |

6.25사변 피랍치자 명부(其二)\_ 대한민국 정부/1952년

6.25사변 피살자명부(其一)\_ 공보처통계국/1952년

실향사민신고서\_ 서경택, 이의중, 정은동, 조봉호, 배중석

함희경, 이용준, 김재성, 강시형, 심규섭

최기준, 이혁희, 최임성, 이지연

김포 6.25전쟁 참전 전사자 명단\_ 김포군지·육군본부

6.25 事變

被拉致者名簿

(其二)



大韓民國政府

## 6.25사변 피랍치자 명부(其 二)

최초의 전국 단위 납북자 명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면밀하게 조사, 작성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인적사항은 성명, 연령, 직업, 소속 및 직위, 납치 연월일, 납치장소, 주소 순으로 총 8개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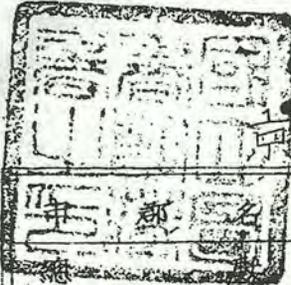
다른 명부와는 달리 의용군 또는 노무자로 강제 징집된 납북자를 포함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전쟁 중임에도 피랍치자 명단을 작성을 하게 된 배경에는 휴전회담에서 북한에 제시할 명부가 반드시 필요했고, 문서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사료된다.

자료는 도별 집계된 대략적인 숫자 약8,000명을 언급하면서 그중에는 자의적으로 월북한 사람과 공산주의를 자인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 명부를 작성하는 일을 담당했던 공보처 통계국 직원 이원상씨는 2002년 3월 14일 보도된 SBS 8시 뉴스에서 이 명부가 휴전협상 대표에게 제출되었고, 직접 면담을 통한 엄밀한 명부임을 증언했다. 또한 그는 실지로 이 명부가 휴전 이후에도 납북자 가족들에게 증명서를 발급하는 근거로 활용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명부에 따르면 6.25전쟁중 피랍된 인원은 전체 8만2천959명에 이르고 김포 지역에서만 무려 1천348명이 피랍됐다. 명부는 1952년 대한민국 정부가 작성했다.



畿 道

郡 名	總 數	男	女
總	15,871	15,783	88
仁 川 市	1,596	1,590	6
開 城 市	259	259	-
水 原 市	1,053	1,048	5
廣 州 郡	726	726	-
加 坪 郡	785	763	22
利 川 郡	431	431	-
龍 仁 郡	558	553	5
富 川 郡	896	895	1
金 浦 郡	1,342	1,338	4
江 華 郡	1,375	1,367	8
安 城 郡	974	972	2
始 興 郡	646	646	-
坡 州 郡	1,104	1,099	5
平 澤 郡	215	215	-
抱 川 郡	584	568	16
楊 州 郡	404	400	4
楊 平 郡	284	279	5
華 城 郡	1,018	1,014	4
高 陽 郡	736	735	1
窮 州 郡	885	885	-

京畿道金浦郡 總數 1342 男 1338 女 4							
姓名	性別	年令	職業	所屬以職位	按年日	拉致場所	住 所
梁海徳	男	36	公務員	鐵城西民保團副團長	4253 9.11	鐵城西蘇谷里	金浦郡
趙奉鎭	"	47	農業	鐵城西民保團副團長	7.15	" 元山里	"
金基睡	"	22	公務員	鐵城西民保團副團長	7.28	陽東面木谷里	"
孫老健	"	34	無	防衛軍少尉	7.3	大甲面栗生里	"
金在九	"	26	公務員	鐵城西民保團副團長	8.20	什言市永登洞	"
崔直馨	"	30	"	高村國民學校教師	7.15	高村面新谷里	"
李斗万	"	24	軍人	陸軍一等上士	7.15	金浦面安陽里	"
申京正	"	35	農業	無	4284 8.10	" 曹基里	"
姜規鉉	"	34	"	"	"	"	"
梁一沃	"	45	商業	"	4283 7.15	" 北辺里	"
成鳳景	"	43	無	"	9.7	"	"
崔爽根	"	28	農業	"	"	"	"
金徳文	"	22	"	"	"	"	"
李允根	"	24	"	"	"	"	"
朴敏範	"	23	"	"	"	"	"
朴義福	"	22	"	"	"	"	"
李在允	"	25	"	"	"	"	"
朴音玉	"	49	商業	"	4284 9.4	"	"
朴三陽	"	47	無	"	"	"	"
趙順永	"	28	"	"	"	"	"
洪智及	"	74	"	"	"	"	"
朴淑陽	"	34	"	"	"	"	"
金順禮	女	13	"	"	"	"	"
崔順恭	男	22	自勤車助手	"	7.5	"	"
白仁基	"	27	農業	"	"	"	"

金浦 - 216 -

姓 名	性 別	年 令	職 業	所 屬 以 職 位	拉 致 日 期	拉 致 場 所	住 所
金 在 燮	男	27	商 業		4282 8.23	金浦面北垵里	金浦郡
金 信 燮	"	21	農 業		"	"	"
李 承 順	女	31	無		9.20	"	"
劉 美 烈	男	36	學 勤		"	"	"
李 肅 俊	"	45	農 業		4283 8.23	" 沙陽里	"
李 光 沃	"	20	"		"	"	"
李 席 億	"	40	"		"	"	"
鄭 富 龜	"	47	"		9.3	" 塚基里	"
李 義 燮	"	43	"		"	"	"
李 順 短	女	24	"		"	"	"
李 氏	男	16	"		9.5	" 坎井里	"
奇 元 庚	"	38	"		9.10	高村面 新谷里	"
金 用 九	"	36	"		"	"	"
崔 万 吉	"	35	"		"	"	"
金 斗 成	"	26	"		7.15	陽東面 加陽里	"
金 基 燮	"	21	商 業		"	"	"
洪 錫 永	"	24	農 業		7.5	"	"
金 千 蔚	"	41	"		7.15	陽西面 果海里	"
丁 義 燮	"	35	"		"	"	"
姜 錫 祐	"	29	"		"	" 枚亭里	"
吳 明 淳	"	37	"		"	" 磅地里	"
金 在 玉	"	38	"		"	"	"
李 玉 均	"	46	"		8.17	陽東面 木洞里	"
李 錫 俊	"	28	"		"	"	"
金 在 燮	"	31	銀行書記		8.21	서울 永登浦	"
李 元 答	"	38	農 業		"	"	"
金 長 司	"	33	"		7.28	高陽面 草洲里	"

姓 名	性 别	年 龄	职 务	所属以職位	拉 歌 日 子	拉 歌 場 所	任 所
申福永	男	28	裝 束		2285 7.28	陽竹西 東砂里	金浦邱
金興烈	"	59	"		"	大南面 裝束里	"
李明鎔	"	25	"		8.30	"	"
李圭楹	"	50	"		8.27	"	"
刘叔政	"	32	必 働		"	華禮里	"
崔源行	"	28	裝 束		8.20	" 大明里	"
安貞煥	女	38	舞		"	" 大陵里	"
崔昌鳳	男	37	裝 束		"	" 裝束里	"
金恩學	"	46	"		8.21	"	"
李匡根	"	27	"		"	" 石井里	"
田鳳煥	"	52	"		8.11	" 大明里	"
李胤錫	"	30	"		7.25	陽城西 新里	"
成貞南	"	22	"		"	" 麻谷里	"
俞道善	"	22	"		7.30	"	"
吳相俊	"	35	"		"	"	"
梁海德	"	36	"		"	"	"
刘載山	"	23	"		9.20	金浦西 保浦里	"
刘允堉	"	27	運轉手		"	"	"
金銀山	"	19	裝 束		"	" 北里	"
金基成	"	30	"		8.3	" 揚基里	"
李赫原	"	54	"		8.2	" 雙禮里	"
金裕辰	"	42	"		8284 7.15	" 保浦里	"
成相植	"	33	"		"	" 坎井里	"
金德秀	"	27	"		8283 9.10	" 坎里	"
崔貞茂	"	26	運轉手		"	"	"
黃昌允	"	26	裝 束		9.3	"	"
趙元相	"	32	"		7.10	陽竹西 陽谷里	"

金浦 - 218 -

姓 名	性 别	年 令	职 業	所 属 职 位	按 收 日 目	拉 教 场 所	住 所
金 在 成	男	53	農 業		8.22 2.10	瑞 村 西 晒 谷 里	金 浦 郡
李 明 錫	"	26	"		"	" 九 半 里	"
梁 明 煥	"	42	"		"	" 晒 谷 里	"
李 鳳 錫	"	28	"		7.25	靈 城 西 脉 谷 里	"
申 海 斗	"	40	土 造 業		"	"	"
金 寬 玉	"	35	"		"	"	"
李 棐 鍾	"	27	農 業		7.15	梁 丹 面 不 老 里	"
李 悌 天	"	18	"		8.10	金 浦 西 晒 谷 里	"
李 庸 日	"	23	"		"	" 不 老 里	"
李 膺 和	"	27	"		"	"	"
李 深 錫	"	25	"		8.15	"	"
丁 東 鎮	"	22	"		"	"	"
洪 長 鎭	"	22	"		"	"	"
崔 炳 勲	"	23	"		"	"	"
崔 炳 國	"	20	"		"	"	"
李 課 沃	"	20	"		"	"	"
李 克 煥	"	25	"		7.27	"	"
柳 叔 昌	"	21	"		"	"	"
李 寬 銜	"	36	"		7.20	"	"
李 爾 泳	"	28	"		"	"	"
李 教 孝	"	23	"		"	"	"
李 應 九	"	29	"		8.7	"	"
李 允 九	"	36	"		8.17	"	"
李 叔 沃	"	27	"		"	"	"
李 弼 揆	"	21	"		"	"	"
李 元 熙	"	24	"		8.22	"	"
羅 學 畢	"	28	"		"	"	"

金浦

~218~

姓 名	性 别	年 令	职 業	所 屬 職 位	授 任 日 期	授 任 場 所	住 所
嚴 鈞	男	30	農 業		4283 8 6	金浦面觀舞里	金浦郡
白 南 火	"	21	"		"	"	"
李 知 衡	"	20	"		"	"	"
李 弼 善	"	20	"		"	"	"
李 俊 恩	"	31	"		8 7	"	"
金 炳 昊	"	24	"		8 20	"	"
申 茲 沃	"	24	"		8 27	"	"
金 炳 完	"	20	"		8 3	"	"
宋 元 植	"	32	"		8 9	"	"
白 滿 基	"	24	"		7 20	"	"
孫 世 永	"	24	"		8 9	"	"
申 鐘 敬	"	24	"		"	"	"
申 光 澈	"	20	"		8 25	"	"
李 大 辰	"	28	"		"	"	"
姜 哲 馨	"	30	"		"	"	"
許 錫 錫	"	31	"		"	"	"
姜 白 辰	"	28	"		8 30	"	"
元 鍾 順	"	28	"		"	"	"
許 東 泳	"	24	"		8 6	"	"
許 珍 泳	"	25	"		7 24	"	"
姜 煥 永	"	20	"		"	"	"
北 相 熙	"	25	"		"	"	"
鄭 苞 範	"	27	"		7 20	"	"
李 源 申	"	17	"		"	"	"
李 源 率	"	26	"		"	"	"
李 喜 鎔	"	30	"		8 9	"	"
李 弼 斗	"	26	"		"	"	"

金浦 - 220 -

姓 名	性 別	年 令	職 業	所 屬 職 位	拉 教 年 月 日	拉 教 場 所	住 所
李 恭 和	男	31	農 業		4.28.3	金浦西 靈陽里	金浦郡
李 深 益	"	20	"		8.7	"	"
李 益 秀	"	23	"		"	"	"
辛 宗 濟	"	27	"		"	"	"
沈 勳 基	"	25	"		8.11	"	"
沈 養 榮	"	26	"		"	"	"
辛 宗 植	"	26	"		"	"	"
沈 宗 大	"	27	"		8.28	"	"
沈 篤 基	"	31	"		8.20	"	"
金 彪 甲	"	28	"		8.9	"	"
任 肯 淳	"	23	學 生		7.20	"	"
金 順 沃	"	20	"		8.8	"	"
崔 洵 南	"	25	農 業		7.9	靈基里	"
沈 在 奎	"	20	"		8.7	"	"
沈 在 益	"	19	"		8.27	"	"
沈 在 國	"	20	學 生		"	"	"
沈 相 天	"	21	農 業		"	"	"
金 庚 允	"	21	無		"	"	"
李 英 燕	"	21	學 生		"	"	"
沈 奎 爽	"	22	"		8.6	"	"
沈 相 燦	"	22	農 業		"	"	"
沈 相 錫	"	20	"		"	"	"
李 敏 亨	"	20	"		8.27	"	"
孫 俊 錫	"	20	"		"	"	"
金 春 鳳	"	35	"		"	"	"
李 秉 沃	"	21	學 生		7.20	北切里	"
井 厚 鶴	"	20	無		7.21	"	"

姓 名	性 别	年 龄	职 业	所属及职位	出 发 日	出 发 场 所	任 所
朴 泰 夏	男	20	公務員	地方法院	8.23 7.21	金浦面 北山里	金浦郡
張 在 万	"	30	農 業		"	"	"
宋 基 成	"	20	無		"	"	"
沈 相 信	"	33	勞 働		"	"	"
洪 光 東	"	19	學 生		8.1	"	"
金 光 喆	"	"	"		"	"	"
張 德 存	"	22	勞 働		"	"	"
金 冬 寒	"	34	無 職		"	"	"
崔 林 相	"	24	農 業		8.20	"	"
崔 雷 浩	"	21	學 生		8.20	"	"
安 順 吉	"	18	農 業		8.17	"	"
金 興 山	"	36	勞 働		"	"	"
金 啟 山	"	19	農 業		8.16	"	"
李 源 均	"	22	"		"	"	"
朱 英 淑	"	24	"		"	"	"
李 庸 煥	"	25	"		8.5	" 少爾里	"
李 庸 梅	"	20	"		"	"	"
丁 海 鉉	"	22	"		"	"	"
李 庸 璇	"	34	"		8.20	"	"
李 在 熙	"	23	"		"	"	"
盧 在 德	"	30	"		8.7	" 坡井里	"
金 聖 淳	"	23	"		"	"	"
朴 學 鳳	"	30	"		"	"	"
曹 熙 星	"	20	學 生		8.20	"	"
李 相 敏	"	20	農 業		"	"	"
劉 漢 万	"	20	"		"	"	"
劉 亮 万	"	22	編輯手		8.22	"	"

- 222 -

姓 名	性 别	年 令	職 業	所 屬 以 職 位	拉 致 年 月 日	拉 致 場 所	住 所
李 昌 淳	男	22	農 業		4.28.3 7.28	金 浦 面 坎 井 里	金 浦 郡
金 炳 國	"	24	"		7.6	"	"
崔 昌 錫	"	21	"		"	"	"
徐 堯 文	"	22	"		"	"	"
金 順 英	"	25	"		8.1	"	"
金 學 然	"	23	"		8.7	"	"
金 學 英	"	27	"		"	"	"
金 學 善	"	29	"		"	"	"
金 學 所	"	28	"		"	"	"
金 善 基	"	24	"		"	"	"
金 鍊 苞	"	22	"		8.9	"	"
金 鍊 煥	"	23	"		8.7	"	"
鄭 淳 欽	"	34	"		8.27	"	"
鄭 範 模	"	20	"		7.6	"	"
金 貞 基	"	20	"		"	"	"
鄭 文 鉉	"	25	"		"	"	"
李 允 鎬	"	18	"		"	"	"
李 志 鎔	"	22	"		8.6	"	"
李 基 洙	"	22	"		"	"	"
李 基 沃	"	27	"		"	"	"
李 基 德	"	21	"		8.16	"	"
李 福 鎔	"	19	"		8.27	"	"
李 基 禕	"	20	"		7.8	"	"
方 恭 德	"	20	"		"	"	"
方 仁 淑	"	25	"		"	"	"
李 聖 夏	"	23	"		"	"	"
陵 文 得	"	23	"		8.23	"	"

姓 名	性 别	年 岁	职 业	作 业 头 职 位	控 制 日 期	控 制 场 所	住 所
金 德 允	男	20	农 业		4283 8.23	金浦面坎井围	金浦郡
韩 永 植	"	28	"		"	"	"
沈 敏 芥	"	19	"		8.27	" - 傍花面	"
申 湖 植	"	33	"		"	"	"
韩 秉 元	"	24	"		"	"	"
李 镇 夏	"	26	"		"	"	"
沈 敏 得	"	27	"		8.6	"	"
梅 炳 贤	"	28	"		"	"	"
郑 竟 君	"	24	"		"	"	"
李 炳 斗	"	26	"		"	"	"
尹 凤 基	"	30	"		8.7	"	"
朴 凤 海	"	33	"		8.8	"	"
丁 奎 冈	"	31	"		"	"	"
申 弘 植	"	22	"		"	"	"
沈 敏 奎	"	31	"		8.7	"	"
孙 镇 英	"	23	"		"	"	"
孙 源 锡	"	33	"		"	"	"
李 叔 满	"	21	"		8.27	"	"
李 基 凤	"	21	"		"	"	"
睦 荣 玉	"	29	"		8.9	"	"
李 荣 尚	"	33	"		8.6	"	"
李 亨 模	"	31	"		7.20	"	"
文 成 伯	"	27	"		8.20	"	"
朱 春 锡	"	22	"		"	"	"
金 英 锡	"	30	"		"	"	"
金 明 斗	"	21	"		"	"	"
睦 荣 圭	"	22	"		"	"	"

金浦 ~224~

姓 名	性 別	年 令	職 業	所屬或職位	投 獄 日 期	投 獄 場 所	任 所
李 敦 徵	男	26	農 業		8.23 8.20	金浦西 榜花里	金浦郡
金 昌 鉉	"	32	"		8.19	" 黑池里	"
李 鍾 九	"	23	"		8.18	"	"
洪 範 煥	"	19	"		8.23	"	"
車 山 水	"	27	"		7.20	"	"
金 昱 華	"	22	"		8.6	"	"
柳 憲 成	"	21	"		7.6	陽西面 榜花里	"
尹 錫 希	"	25	"		7.9	"	"
張 世 甲	"	25	"		7.10	"	"
金 旻 烈	"	23	"		7.11	"	"
金 槿 玉	"	31	"		"	"	"
權 純 玉	"	22	"		8.7	"	"
李 揆 錫	"	28	"		"	"	"
林 鳳 玉	"	25	"		"	"	"
梁 承 浩	"	20	"		"	"	"
劉 永 喆	"	20	"		7.27	"	"
梁 承 晚	"	21	"		8.18	"	"
李 成 魯	"	28	"		7.6	" 榜亭里	"
李 甲 益	"	27	"		8.9	"	"
金 鎮 鎭	"	27	"		8.8	"	"
金 大 顯	"	29	"		"	"	"
朱 德 洙	"	29	"		"	"	"
金 在 峇	"	24	"		"	"	"
裴 仁 植	"	25	"		8.22	"	"
崔 煥 堯	"	22	"		"	"	"
井 順 吉	"	27	"		"	"	"
鄭 賢 經	"	24	"		8.6	"	"

姓名	性別	年令	職 業	所屬以職位	接 取 年月日	拉 政 場 所	住 所
鄭 寅 之	男	27	農 業		4283 8.6	陽西面 松坪里	金浦郡
樵 五 中	"	22	"		7.9	" 榜花里	"
柳 寅 浩	"	25	"		"	"	"
貝 仁 會	"	24	"		7.14	"	"
朴 奉 海	"	24	"		7.5	"	"
朴 聖 甫	"	24	"		"	"	"
丁 奎 雨	"	32	"		8.8	"	"
鄭 住 淑	"	26	"		"	"	"
宣 道 均	"	20	"		8.6	"	"
李 鍾 九	"	24	"		"	" 累治里	"
張 凡 煥	"	21	"		"	"	"
洪 東 煥	"	31	"		"	"	"
金 明 花	"	28	"		"	"	"
車 山 珠	"	22	"		8.26	"	"
張 命 茂	"	21	"		"	"	"
金 武 中	"	18	"		"	"	"
林 順 基	"	21	"		"	"	"
金 公 先	"	24	"		"	"	"
姜 錫 煥	"	26	"		"	"	"
李 今 俊	"	25	"		"	"	"
成 河 日	"	20	"		8.6	"	"
柳 昌 植	"	27	"		7.25	"	"
柳 告 叔	"	30	"		7.18	"	"
李 喟 童	"	24	"		8.9	"	"
柳 達 敏	"	26	"		7.19	"	"
樵 燦 取	"	26	"		"	"	"
趙 煥 干	"	30	"		8.16	"	"

金浦

- 226 -

姓名	性別	年令	職業	所屬	職位	拉致年月日	拉致場所	住 所
趙 恭 一	男	21	裁 業			8.16	溇 西 面 果 洞 里	金 浦 郡
成 河 龜	男	25	"			8.27	"	"
崔 炳 俊	男	20	"			8.3	霞 城 面 伯 坪 里	"
崔 炳 基	男	17	"			"	"	"
沈 相 春	男	17	"			"	"	"
沈 相 樹	男	26	"			"	"	"
梁 石 洞	男	17	"			"	"	"
鄭 泰 政	男	20	"			"	"	"
崔 炳 天	男	21	"			"	"	"
崔 炳 模	男	22	"			"	"	"
劉 明 泳	男	27	"			"	"	"
洪 淳 泳	男	20	"			"	"	"
崔 炳 夏	男	22	"			"	"	"
金 允 元	男	24	"			8.2	"	"
金 興 基	男	25	"			"	"	"
金 基 煥	男	26	"			"	"	"
金 上 元	男	26	"			"	"	"
金 振 煥	男	21	"			"	"	"
洪 淳 方	男	20	"			"	"	"
鄭 鎮 漢	男	31	"			"	"	"
金 東 哲	男	21	"			"	"	"
金 漢 源	男	18	"			"	"	"
趙 達 成	男	25	"			"	"	"
吳 世 万	男	34	"			"	"	"
宋 雷 勳	男	29	"			"	"	"
宋 大 會	男	26	"			"	"	"
姜 万 煥	男	22	"			"	"	"

姓	名	性別	年令	職業	所屬以職位	按察使 官日	按察使場所	住所
姜	萬亨	男	19	農		8.2	國城番 伯坪里	金浦郡
金	基乃	"	16	"		"	"	"
洪	慶善	"	21	"		"	"	"
成	淳慶	"	22	"		8.20	"	"
權	永會	"	21	"		"	"	"
李	增旭	"	22	"		"	"	"
劉	奇煥	"	22	"		"	"	"
宋	信會	"	22	"		"	"	"
金	若源	"	21	"		"	"	"
鄭	基成	"	26	"		"	"	"
閔	永基	"	23	"		8.2	"	"
閔	奭基	"	25	"		"	"	"
閔	鳳柱	"	20	"		"	"	"
張	鎮玉	"	21	"		"	"	"
林	炳兼	"	23	"		"	"	"
呂	奎賢	"	24	"		"	"	"
金	奉濟	"	22	"		"	"	"
金	仁基	"	21	"		"	"	"
黃	允鎮	"	36	"		"	"	"
金	和夏	"	26	"		"	"	"
金	乃濟	"	22	"		"	"	"
黃	秉元	"	24	"		"	"	"
黃	秉烈	"	30	"		"	"	"
閔	明基	"	25	"		"	"	"
金	鎭勳	"	27	"		"	"	"
金	中元	"	20	"		"	"	"
洪	淳旭	"	19	"		"	"	"

金姓

- 228 -

姓	名	性別	身令	職業	所屬及職位	拉致年月日	拉致場所	住 所
黃	庚 鎮	男	20	農業		4295 8.2	震城面 佃里	金浦郡
崔	相 希	男	19	"		"	"	"
金	東 喪	男	19	"		"	"	"
洪	淳 乃	男	22	"		"	"	"
金	順 冀	男	18	"		"	"	"
白	南 秀	男	29	"		"	"	"
申	德 秀	男	21	"		"	" 佳金里	"
李	叔 珠	男	20	"		" 7.25	"	"
朴	崑 末	男	26	"		"	" 麻道里	"
朴	錫 末	男	19	"		"	"	"
英	誌 罔	男	19	"		"	"	"
權	昌 植	男	24	"		"	"	"
丙	庚 夏	男	24	"		"	"	"
朴	亨 璵	男	21	"		"	"	"
俞	昌 善	男	22	"		"	"	"
吳	基 兜	男	25	"		"	"	"
權	豐 玉	男	19	"		"	"	"
丙	俊 基	男	27	"		"	"	"
丙	堯 基	男	28	"		"	"	"
丙	庚 贊	男	18	"		"	"	"
丙	庚 仁	男	19	"		"	"	"
丙	丙 遠	男	25	"		"	"	"
丙	滄 基	男	32	"		"	"	"
丙	成 基	男	35	"		"	"	"
李	河 湖	男	20	"		"	"	"
孫	昌 植	男	20	"		"	"	"
孫	守 一	男	20	"		"	"	"

姓 名	性 別	年 令	職 業	所 屬 以 職 位	拉 致 年 月 日	拉 致 場 所	任 所
陳 堯 基	男	20	販 菜		4.25 7.25	顯 城 面 石 灘 里	全 瑞 廊
李 令 山	"	22	"		"	" "	"
南 呂 德	"	25	"		"	" "	"
陳 庚 祖	"	25	"		"	" 麻 延 里	"
樵 永 玉	"	34	"		8.1	" 石 灘 里	"
金 振 玉	"	26	"		"	"	"
金 振 弼	"	21	"		"	"	"
吳 汝 滋	"	19	"		"	"	"
樵 茲 玉	"	24	"		"	"	"
金 秉 完	"	20	"		"	"	"
尹 用 煥	"	26	"		"	"	"
盧 用 鳳	"	24	"		"	"	"
金 東 元	"	23	"		"	"	"
金 東 熙	"	27	"		"	"	"
金 煥 煥	"	24	"		"	"	"
金 世 慶	"	26	"		"	"	"
金 用 煥	"	23	"		"	"	"
金 東 秀	"	25	"		"	"	"
李 玉 登	"	37	"		8.7	"	"
禹 炳 俊	"	22	"		"	"	"
金 光 泳	"	22	"		"	"	"
樵 翼 春	"	23	"		"	"	"
樵 大 漢	"	20	"		"	"	"
樵 春 次	"	19	"		"	"	"
樵 敬 玉	"	20	"		7.25	"	"
樵 善 玉	"	20	"		"	"	"
安 春 茂	"	21	"		"	"	"

金州 - 270 -

姓名	性别	年龄	职业	所属单位	拉教日期	拉教场所	住所
地雨章	男	21	教员		4284 8.25	襄城县石佛里	金州郡
梅翼宽	"	25	"		8.7	"	"
李羲宸	"	22	"		"	"	"
金秉善	"	20	"		"	"	"
尹奇元	"	21	"		7.3	"	"
梅顺玉	"	20	"		8.11	"	"
金鍾男	"	28	"		"	"	"
韩相元	"	20	"		"	"	"
蔡同原	"	24	"		"	"	"
许文时	"	19	"		7.25	"	"
李大吉	"	21	"		"	"	"
内展甫	"	24	"		"	"	"
边又春	"	26	工业		"	"	"
金俊锡	"	29	教员		"	" 松汉里	"
金荣玉	"	25	"		8.7	"	"
赵敬培	"	26	"		"	"	"
侯寿夫	"	26	"		"	"	"
刘璋贤	"	25	"		8.3	"	"
对在元	"	22	"		8.4	"	"
吴世元	"	25	"		"	"	"
吴顺秩	"	21	"		"	"	"
金永基	"	27	"		"	"	"
朴寿表	"	25	"		7.25	"	"
吴永焕	"	25	"		"	"	"
吴世春	"	21	"		"	"	"
金奉锡	"	25	"		7.3	"元山里	"
金岩俊	"	26	"		"	"	"

~231~

金南

姓 名	性 別	年 令	職 業	所 屬 職 位	拉 取 日 期	拉 取 場 所	住 所
金 恭 錫	男	32	農 業		4.28 5.27	敵城面楊沃里	金浦郡
金 善 圭	"	21	"		"	"	"
金 正 起	"	23	"		"	"	"
申 振 均	"	24	"		"	"	"
金 承 道	"	21	"		"	"	"
金 仁 壽	"	22	"		"	"	"
李 興 善	"	21	"		"	"	"
金 衣 明	"	21	"		7.13	"	"
次 連 植	"	22	"		"	"	"
申 天 均	"	29	老 農	負 業	"	"	"
康 水 文	"	27	農 業		"	元山里	"
朴 容 希	"	22	"		"	"	"
趙 載 寬	"	25	"		"	"	"
趙 二 鎭	"	22	"		"	"	"
趙 福 頭	"	22	"		"	"	"
申 世 弘	"	21	"		"	"	"
金 興 天	"	26	"		7.7	"	"
張 允 沃	"	23	"		"	"	"
朴 相 和	"	31	"		"	"	"
趙 永 錫	"	20	中 學 生		8.3	"	"
趙 承 錫	"	20	農 業		"	"	"
趙 載 新	"	32	"		"	"	"
內 泳 乃	"	25	"		7.5	雙流里	"
黃 致 雲	"	22	"		"	"	"
申 潤 附	"	24	"		"	"	"
申 明 濟	"	25	"		"	"	"
申 貞 植	"	19	"		7.27	"	"

金浦

- 232 -

姓 名	性 别	年 龄	职 业	所 属 头 衔 位	接 收 日 期	接 收 地 点	任 所
申 英 丙	男	32	蔗 業		6.29 7.27	環 城 面 頰 泳 里	金 浦 郡
申 賢 基	"	32	"		8.30	"	"
趙 焜 屏	"	19	"		"	"	"
李 昱 根	"	20	"		"	"	"
申 斗 泓	"	20	"		"	"	"
申 英 植	"	25	"		"	"	"
申 忠 植	"	19	"		"	"	"
李 起 昌	"	22	"		"	"	"
趙 東 天	"	26	"		"	"	"
申 庚 振	"	26	"		"	"	"
張 基 煉	"	25	"		8.17	"	"
申 寅 泓	"	25	"		"	"	"
申 成 基	"	27	"		"	"	"
申 庚 祖	"	27	"		7.3	"	"
張 東 先	"	25	"		"	"	"
申 東 岨	"	28	"		4.	"	"
張 東 春	"	18	"		7.21	"	"
申 東 柱	"	26	"		"	"	"
申 庚 朝	"	24	"		"	"	"
洪 永 杓	"	22	"		8.17	"	"
申 伊 憲	"	28	"		" 7.3	事 務 里	"
吳 相 煥	"	19	"		"	"	"
金 養 崗	"	22	"		"	"	"
崔 相 哲	"	30	"		"	"	"
朱 錫 奉	"	29	"		"	"	"
朴 好 連	"	26	學 生		"	"	"
張 文 亨	"	20	"		7.21	事 務 里	"

- 233 -

金浦

姓 名	性 别	年 令	職 業	所 屬 職 位	檢 査 日 期	拉 致 場 所	住 所
徐 壽 吉	男	20	農 業		22.3.21	慶 成 面 馮 沙 里	金 浦 郡
鄭 用 榮	男	23	無		"	"	"
金 吳 基	男	25	農 業		"	"	"
申 相 玉	男	28	"		"	"	"
張 錫 貞	男	19	"		"	"	"
趙 奇 錫	男	24	教 員		"	"	"
張 錫 亨	男	22	農 業		2.3	"	"
沈 賢 基	男	20	"		"	"	"
鄭 運 奎	男	27	"		"	"	"
朴 賢 階	男	20	"		"	"	"
李 康 教	男	21	"		"	"	"
申 德 乃	男	19	學 生		2.7	" 茂 谷 里	"
吳 世 男	男	20	"		"	"	"
柳 永 均	男	30	農		"	"	"
金 仲 煥	男	20	"		"	"	"
吳 炳 榮	男	19	學 生		"	"	"
趙 毅 顯	男	19	"		2.3	"	"
李 華 錫	男	26	警 察 官		"	"	"
金 冠 吉	男	20	農		"	"	"
呂 宗 鎰	男	36	"		"	"	"
盧 次 奎	男	20	"		"	"	"
吳 連 奎	男	27	"		2.11	" 石 灘 里	"
樞 勳 發	男	22	"		"	"	"
樞 奎 玉	男	23	"		"	"	"
黃 金 周	男	23	"		"	"	"
金 秉 次	男	20	"		"	"	"
樞 勳 培	男	22	"		"	"	"

金浦 ~ 234 ~

姓 名	性 别	年 令	职 業	所 属 头 职 位	拉 致 年 月 日	拉 致 場 所	住 所
黄 玉 周	男	25	農		42.9.11	露 城 番 石 雜 里	金 浦 郡
江 奎 出	男	26	"		"	"	"
南 官 洙	男	32	"		"	"	"
推 矣 石	男	20	"		"	"	"
金 成 奇	男	20	"		"	"	"
成 仁 泓	男	22	"		2.5	" 蔚 倉 里	"
成 熹 泓	男	24	"		"	"	"
尹 斗 炳	男	23	"		"	"	"
柳 奎 秀	男	20	"		"	"	"
成 佑 泓	男	21	"		8.13	"	"
南 官 用 益	男	27	"		"	"	"
南 官 沐	男	23	"		"	"	"
成 敏 植	男	27	"		"	"	"
李 奎 熙	男	25	"		2.12	"	"
成 丙 侯	男	20	"		"	"	"
金 甲 用	男	22	"		"	"	"
成 振 庚	男	18	学 生		"	"	"
成 秉 秀	男	20	農		"	"	"
成 忠 基	男	20	"		"	"	"
成 奎 基	男	19	"		8.17	"	"
成 玉 基	男	19	"		"	"	"
崔 奎 滋	男	19	"		"	" 新 里	"
林 玄 基	男	29	"		2.11	"	"
田 昌 垓	男	21	"		"	"	"
金 奎 安	男	35	"		"	"	"
張 学 敏	男	25	"		"	"	"
宋 敏 成	男	20	"		"	"	"

姓 名	性 别	年 令	職 業	所 屬 以 職 位	拉 致 日 期	拉 致 場 所	住 所
宋 百 山	男	21	農 業		4.28 5.11	陽 面 內 林 山 里	金 浦 郡
刘 浩 鍾	"	20	"		"	"	"
卞 春 植	"	19	"		"	"	"
柳 浩 郁	"	30	"		7.21	"	"
朴 永 杓	"	25	"		"	"	"
金 允 飛	"	28	"		"	"	"
韓 啓 福	"	27	"		"	"	"
金 起 默	"	22	"		"	"	"
李 啓 起	"	28	"		"	"	"
金 哲 圭	"	35	"		7.20	月 寧 面 下 里	"
尹 煥 泰	"	33	"		8.2	"	"
趙 春 燁	"	33	"		7.20	"	"
吳 貞 根	"	34	"		8.2	"	"
文 永 吉	"	20	"		"	"	"
朴 啓 燮	"	24	"		"	"	"
李 俊 善	"	19	"		"	"	"
朴 壽 男	"	22	"		"	"	"
金 聖 遠	"	27	"		"	"	"
韓 聖 茂	"	30	"		"	"	"
金 永 弘	"	29	"		7.20	"	"
李 奎 輝	"	19	"		8.2	月 寧 面 里	"
李 厚 燾	"	19	"		"	"	"
高 元 福	"	24	"		7.20	"	"
林 啓 達	"	21	"		8.2	"	"
趙 榮 俊	"	20	"		"	"	"
金 長 女	"	27	"		7.20	"	"
金 埴 基	"	39	"		8.2	"	"

金浦

~ 230 ~

姓 名	性 别	年 令	职 業	所 属 及 职 位	拉 教 年 月 日	拉 教 居 所	住 所
李 次 德	男	25	農		42.8.2	月半面 南谷里	金 浦 郡
林 康 德	"	22	"		"	"	"
林 鍾 元	"	22	"		"	"	"
朴 喜 遠	"	20	"		7.20	高陽里	"
李 秉 叔	"	20	"		"	"	"
金 在 根	"	22	"		"	"	"
金 在 錫	"	21	"		5.2	"	"
金 次 春	"	22	船 業		7.20	"	"
洪 賢 鐘	"	22	農		5.2	公茂月里	"
洪 基 鐘	"	19	"		"	"	"
洪 基 弟	"	22	"		"	"	"
洪 基 浩	"	22	"		"	"	"
林 鍾 文	"	27	"		"	"	"
推 義 澤	"	33	"		7.20	"	"
沈 相 國	"	22	"		5.2	"	"
鄭 鎮 玉	"	20	"		"	東乙山里	"
丁 益 東	"	20	"		"	"	"
李 基 榮	"	21	"		"	高幕里	"
李 先 默	"	19	"		"	"	"
卜 振 養	"	19	"		"	"	"
因 景 叔	"	23	"		"	西峯里	"
安 呈 奎	"	19	"		"	"	"
金 永 基	"	25	"		"	"	"
趙 鐵 相	"	22	"		7.20	"	"
趙 男 火	"	24	"		8.2	"	"
洪 興 均	"	19	"		7.20	"	"
趙 學 衡	"	25	"		"	高亭里	"

姓 名	性 别	年 令	职 业	所 属 职 位	任 政 日 白	任 政 场 所	住 所
趙 敦 九	男	24	農		8.2	日本面高亭里	金浦郡
肉 翼 基	"	22	"		"	" 祖江里	"
肉 鉸 基	"	23	"		"	"	"
南 宮 均	"	23	"		"	"	"
林 元 基	"	27	"		"	"	"
鄭 五 鉸	"	29	"		2.20	"	"
趙 南 昌	"	26	"		"	"	"
林 昌 基	"	21	"		"	"	"
鄭 海 鏡	"	24	"		"	"	"
肉 炳 皓	"	23	"		8.2	"	"
崔 慎 良	"	22	"		"	高亭里	"
金 一 濟	"	24	"		"	"	"
李 澈 天	"	20	"		"	"	"
宋 佩 昌	"	26	"		"	"	"
宋 炳 夏	"	23	"		"	"	"
宋 元 奎	"	19	学生		"	"	"
洪 昌 鳳	"	25	農		"	"	"
金 貴 玄	"	23	"		"	" 菊山里	"
金 昌 德	"	21	"		"	"	"
吳 高 友	"	20	"		"	"	"
黎 泳 学	"	23	"		"	"	"
尹 磁 濟	"	22	"		"	" 肉在里	"
尹 銘 淳	"	21	"		"	"	"
尹 聖 模	"	23	"		2.20	"	"
金 文 煥	"	26	"		"	" 報果里	"
金 東 茂	"	25	"		"	"	"
金 秉 烈	"	24	"		8.2	"	"

金南 ~ 238 ~

姓 名	檢 列 一 次	職 業	所 屬 職 位	推 徵 日 期	推 徵 場 所	住 址
李 俊 九	" 29	農		4.20	丹寧西 依田里	金南郡
黃 爽 根	" 20	"		7.20	"	"
李 昌 燦	" 25	"		8.2	"	"
黃 鎮 昌	" 19	"		7.20	"	"
李 正 儀	" 27	"		"	"	"
李 甲 春	" 22	"		8.2	" 南亭洞	"
肉 弼 載	" 22	"		"	"	"
李 振 山	" 25	"		7.20	" 依田里	"
蔡 炳 南	" 21	"		8.2	" 高亭里	"
趙 成 崗	" 20	"		"	"	"
金 漢 鍾	" 24	"		7.20	" 西岩里	"
朴 桂 頭	" 20	"		8.2	"	"
朴 桂 男	" 20	"		"	"	"
朴 鳳 夜	" 21	"		"	"	"
朴 柱 夜	" 21	"		"	"	"
康 載 成	" 22	"		"	"	"
井 桂 明	" 24	"		"	" 飛岩里	"
肉 慶 植	" 23	"		"	"	"
安 星 奎	" 19	"		7.20	"	"
宋 元 奎	" 19	"		8.2	" 高亭里	"
宋 炳 昌	" 23	"		"	"	"
宋 炳 夏	" 20	"		"	"	"
李 銀 天	" 19	"		"	"	"
趙 泰 錫	" 26	"		7.20	" 郡下里	"
金 炳 基	" 26	"		8.2	"	"
金 泰 福	" 22	"		"	"	"
金 昌 洙	" 25	"		7.20	" 葛山里	"

姓 名	性 别	年 令	職 業	所 屬 頭 職 位	控 致 日 月	控 致 場 所	住 所
金 汎 燮	♂	20	農		8.20 8.2	白事面 蔚山里	金浦郡
謝 德 衡	♂	25	"		7.20	" 故田里	"
洪 在 寬	♂	26	"		"	"	"
柳 麟 錫	♂	32	"		"	" 高陽里	"
卞 承 遠	♂	28	"		"	"	"
鄭 錫 南	♂	34	"		"	" 洞江里	"
李 毅 俊	♂	35	"		"	" 高陽里	"
權 五 湖	♂	24	"		8.20	" 甲口里	"
金 允 喆	♂	21	"		"	"	"
金 時 永	♂	23	"		"	"	"
金 童 基	♂	23	"		7.20	"	"
元 煥 玉	♂	22	"		"	"	"
柳 今 善	♂	21	"		8.2	"	"
柳 元 培	♂	21	學生		7.20	" 浦內里	"
宋 承 又	♂	19	農		"	"	"
高 相 俊	♂	25	"		"	"	"
高 相 文	♂	18	"		8.2	"	"
金 元 基	♂	22	"		7.20	"	"
林 培 玉	♂	26	"		"	"	"
盧 春 秀	♂	26	"		8.2	"	"
吳 俊 哲	♂	24	"		"	" 意康內	"
鄭 完 植	♂	20	"		"	"	"
姜 時 馨	♂	26	"		"	"	"
趙 卓 植	♂	21	"		7.20	"	"
李 載 烈	♂	20	"		8.2	"	"
鄭 忠 鎭	♂	20	"		7.20	"	"
林 炳 國	♂	20	"		8.2	"	"

金浦 ~ 240 ~

姓 名	性 别	年 令	職 業	所 屬 以 職 位	拉 致 日 月	拉 致 場 所	住 所
金 載 道	♂	29	農		8.2	月亭面 邑康里	金浦郡
嚴 基 浩	♂	21	"		7.20	" 城東里	"
成 百 康	♂	23	"		"	"	"
成 基 學	♂	22	"		"	"	"
金 斗 永	♂	22	"		8.2	"	"
金 學 善	♂	21	"		7.20	"	"
嚴 基 煥	♂	26	"		8.2	"	"
嚴 基 永	♂	23	"		"	"	"
李文錡	♂	21	"		"	"	"
李 錡 令	♂	20	"		"	"	"
肉 住 若	♂	28	"		"	" 清內里	"
尹 汝 春	♂	26	"		"	"	"
鄭 錫 德	♂	19	"		"	" 城東里	"
李文錡	♂	21	"		"	"	"
李 相 春	♂	29	"		"	陽村面 馬松里	"
宋 在 雪	♂	22	"		"	" 道孔里	"
姜 南 洙	♂	27	"		"	"	"
南 相 吉	♂	23	"		"	"	"
李 鍾 祿	♂	28	"		"	"	"
申 錄 益	♂	30	"		"	"	"
李 岡 衡	♂	29	"		"	"	"
金 東 福	♂	30	"		7.20	" 水波里	"
崔 在 根	♂	32	"		"	"	"
尹 福 寬	♂	21	"		8.2	"	"
李 起 福	♂	27	"		"	" 席毛里	"
李 起 福	♂	23	"		"	"	"
肉 康 祿	♂	26	"		7.20	" 麻山里	"

姓 名	性 别	年 龄	职 业	所属及职位	拉 政 日期	拉 政 场所	住 所
韩相彬	男	21	愚		8.20	阳村西麻山里	金南郡
赵德凤	"	31	"		7.20	" 九木里	"
赵米乙	"	28	"		8.2	"	"
李 筱 图	"	26	"		7.20	"	"
尹 喆 敏	"	23	"		8.2	"	"
崔 在 玉	"	28	"		"	"	"
李 炳 元	"	26	"		"	"	"
李 範 洙	"	27	"		"	"	"
朴 峇 德	"	29	"		7.20	"	"
金 秉 善	"	30	"		"	"	"
李 夏 夏	"	30	"		"	" 阳谷里	"
李 範 岫	"	32	"		"	"	"
李 大 谷	"	20	"		"	"	"
井 茂 贞	"	19	"		"	"	"
李 範 麟	"	20	"		8.2	"	"
李 承 柱	"	20	"		"	"	"
李 有 虎	"	38	"		"	"	"
金 命 天	"	35	"		7.20	"	"
金 旭 泰	"	32	"		8.2	"	"
郑 镇 良	"	28	"		7.20	"	"
申 永 程	"	28	"		"	" 兴新里	"
申 正 秀	"	40	"		8.2	"	"
黄 珩 元	"	32	"		"	"	"
金 允 完	"	29	"		"	"	"
金 益 植	"	32	"		7.20	"	"
李 聖 春	"	29	"		8.2	"	"
李 琦 贵	"	31	"		"	"	"

金湖 - 242 -

姓 名	性 别	年 令	職 業	所 屬 職 位	抵 致 日 月 日	抵 致 場 所	任 所
聶長安	男	19	農		4.25 8.2	陽材面 驛經	金浦郡
沈千受	"	18	"		"	"	"
鄭秋誌	"	20	"		"	"	"
河相憲	"	25	"		"	馬松里	"
李應誌	"	20	"		"	"	"
姜致南	"	19	"		7.20	"	"
李在根	"	26	"		8.2	九味里	"
朴相弼	"	34	"		7.20	"	"
趙允亨	"	19	"		8.2	"	"
蔡允東	"	26	"		"	柳營里	"
盧意休	"	22	"		"	"	"
元容奉	"	31	"		"	"	"
金柱安	"	27	"		"	"	"
李今先	"	35	"		"	"	"
金庚煥	"	22	"		"	柳營里	"
崔連行	"	18	"		"	"	"
任基煥	"	30	"		7.20	"	"
劉淳福	"	24	"		8.2	"	"
李敏錫	"	20	"		"	"	"
崔然行	"	24	"		"	"	"
李鏡國	"	29	"		7.20	"	"
李範錄	"	35	"		8.2	大韓里	"
金山根	"	23	"		"	馬松里	"
李秉一	"	31	"		7.20	水站里	"
忠養化	"	34	"		"	陽合里	"
金龍德	"	24	"		8.2	"	"
姜錫基	"	26	"		7.20	水站里	"

姓名	性別	年	職業	所屬機關	位	拉致日期	拉致場所	住所
沈凡沃	男	34	農			2.20	陽村面洞區里	金浦郡
申弘恭	"	28	"			"	" 恩谷里	"
金甲允	"	25	"			"	"	"
金電得	"	26	"			"	"	"
憲恭和	"	31	"			"	"	"
韓連文	"	21	"			"	"	"
鄭崑學	"	22	"			8.2	"	"
朴昌熙	"	23	"			"	"	"
李尺鐘	"	28	"			7.20	蔴山里	"
李起謙	"	21	"			8.2	"	"
肉成基	"	24	"			"	" 蔴山里	"
李義振	"	24	"			"	"	"
肉丙崑	"	22	"			"	"	"
姜奉念	"	22	"			"	"	"
肉本德	"	17	"			"	" 蔴山里	"
肉丙泰	"	22	"			"	"	"
憲強基	"	20	"			"	" 九峯里	"
金基三	"	20	"			"	"	"
趙仁植	"	23	"			"	"	"
憲仁奇	"	23	"			"	"	"
崔天玉	"	28	"			"	"	"
崔鳳宇	"	24	"			"	"	"
肉根昌	"	24	"			"	"	"
柳得勇	"	28	"			"	"	"
金東七	"	23	"			"	" 陽谷里	"
金珠熱	"	28	"			"	"	"
韓仁波	"	31	"			"	"	"

金浦 -204-

姓	名	性別	年令	職業	所屬職位	拉致日期	拉致場所	住 所
金	元植	男	32	農		4.25 5.2	陽村面 隱谷里	金浦郡
李	琰壽	男	23			"	"	"
李	貞壽	男	23			"	"	"
李	洪男	男	36			"	" 大浦里	"
蔡	今熙	男	31			"	"	"
李	彰敏	男	36			"	"	"
李	鐘度	男	27			"	"	"
尹	在采	男	25			"	" 密雲里	"
章	暎熙	男	28			"	"	"
崔	福山	男	22			"	"	"
崔	振國	男	25			"	"	"
沈	凡沃	男	28			7.20	"	"
沈	鍾沃	男	25			"	"	"
卞	振沃	男	28			8.2	"	"
趙	恩弼	男	32			"	" 柳悅里	"
沈	鍾國	男	27			7.20	"	"
金	巧石	男	28			8.2	"	"
崔	明九	男	23			"	"	"
朴	成根	男	23			7.20	"	"
金	起夏	男	46			"	"	"
韓	東受	男	25			"	"	"
金	昌福	男	20			8.2	" 次新里	"
金	完圭	男	22			"	"	"
徐	哲俊	男	22			"	"	"
宋	義洙	男	28			"	" 尚牧里	"
李	載春	男	30			"	"	"
李	成輝	男	32			"	"	"

姓 名	性 别	年 令	職 業	所屬及職位	任 職 日 期	拉 致 思 所	住 所	價 值
金 汝 三	男	27	農		4.25 8.2	陽材面 新興里	金 浦 郡	
黃 命 性	"	32	"		7.20	"	"	
金 山 叔	"	29	"		8.2	"	"	
失 存 高	"	32	"		"	"	"	
金 益 亨	"	23	"		"	道新里	"	
吳 命 吉	"	31	"		"	"	"	
鄭 東 玉	"	36	"		"	"	"	
權 南 洛	"	26	"		"	"	"	
元 有 福	"	34	"		"	水馬里	"	
金 相 得	"	23	"		"	"	"	
金 元 茂	"	22	"		"	"	"	
鄭 慶 福	"	27	"		"	"	"	
姜 信 華	"	33	"		"	"	"	
姜 錫 基	"	26	"		"	"	"	
吳 世 均	"	33	"		"	"	"	
李 源 培	"	28	"		"	陽材面 成合里	"	
孔 平 心	"	20	"		"	"	"	
金 英 福	"	20	"		"	"	"	
李 康 老	"	20	"		"	"	"	
李 庸 先	"	21	"		"	"	"	
李 貴 哲	"	28	"		"	"	"	
李 恆 致	"	28	"		"	"	"	
李 義 麟	"	22	"		"	"	"	
肉 丙 國	"	20	"		"	"	"	
金 基 春	"	20	"		"	"	"	
權 相 玉	"	24	"		"	"	"	
金 仁 叔	"	37	"		"	"	"	

金浦 - 246 -

姓 名	姓 别	年 令	職 業	何 屈 吳 頭 面	社 教 場 所 社 教 場 所 社 教 場 所	社 教 場 所	住 所
安 鍾 赫	男	29	勞 働	-	4253 7.25	陽 東 面 加 陽 里	金 浦 郡
金 脉 哲	"	21	"		8.5	"	"
柳 聲 國	"	24	裝 業		"	"	"
朴 茲 相	"	27	學 生		"	"	"
李 壽 炳	"	19	教 員		"	"	"
河 憲 意	"	24	裝		"	"	"
韓 平 植	"	24	"		"	"	"
任 慈 淳	"	17	"		"	"	"
李 應 八	"	30	"		7.25	"	"
柳 昌 万	"	23	"		8.2	"	"
朴 在 運	"	20	"		"	"	"
尹 東 株	"	24	"		8.5	" 新 堂 里	"
嚴 奉 用	"	24	社 員		"	"	"
洪 完 福	"	19	農		7.25	"	"
李 煥 世	"	18	"		8.5	"	"
李 載 福	"	24	"		"	"	"
李 函 楷	"	22	"		"	"	"
朴 光 星	"	26	"		"	"	"
沈 沫 完	"	31	勞 働		7.25	"	"
張 昌 文	"	29	"		8.2	"	"
朴 壽 童	"	23	裝		"	"	"
元 厚 壽	"	21	"		"	"	"
朴 秉 俊	"	31	"		"	" 永 谷 里	"
張 基 燾	"	25	"		"	"	"
金 千 錫	"	27	"		"	"	"
朴 秉 日	"	20	"		"	"	"
朴 丁 喪	"	20	"		"	"	"

姓 名	性 别	年 令	職 業	所 屬 職 位	批 發 日 日	拉 取 場 所	任 所	价
李 源 烈	男	20	農		8.2	陽東面 木洞里	金浦郡	
李 鐘 學	"	20	"		"	"	"	
李 福 錯	"	19	"		"	"	"	
李 鐘 爽	"	20	"		"	"	"	
李 億 福	"	28	"		8.7	"	"	
李 恭 泳	"	34	"		8.5	"	"	
李 鐘 冕	"	25	"		"	"	"	
李 鐘 寬	"	25	"		7.30	"	"	
金 奉 德	"	24	勞: 勤		"	"	"	
李 相 管	"	21			8.2	"	"	
李 諾 鉉	"	22	技: 工		"	"	"	
鄭 永 寬	"	22	農		"	"	"	
金 振 圭	"	22	"		"	"	"	
成 鏡 基	"	22	"		"	"	"	
黃 佑 諾	"	24	"		8.20	" 新亭里	"	
趙 南 錫	"	19	"		7.30	" 登村里	"	
尹 明 儀	"	20	"		"	"	"	
金 程 男	"	28	"		8.30	"	"	
金 貞 得	"	28	"		"	"	"	
金 恩 泳	"	25	"		"	"	"	
許 錄	"	21	"		"	"	"	
許 長 根	"	22	"		"	"	"	
嚴 火 鏞	"	24	"		"	"	"	
崔 漢 甫	"	34	"		"	"	"	
梁 在 憲	"	30	"		7.30	" 塢倉里	"	
高 明 華	"	18	"		8.5	"	"	
李 景 天	"	21	勞		8.7	"	"	

金浦 - 248 -

姓 名	性 别	年 令	职 業	所 屬 職 位	拉 致 日 月 日	拉 致 場 所	住 所
李 仁 永	男	24	勞 働		4.29 8.7	陽 泉 面 地 倉 里	金 浦 郡
洪 鍾 巧	男	20	"		"	"	"
安 震 武	男	30	"		2.30	"	"
張 康 鎮	男	28	"		8.7	"	"
姜 信 守	男	22	"		"	"	"
崔 祉 榮	男	26	農		"	" 木 洞 里	"
李 福 九	男	22	學 生		2.30	"	"
鄭 暹 模	男	25	農		"	樂 丹 面 不 老 面	"
趙 鍾 仁	男	40	"		8.5	"	"
权 榮 夏	男	27	"		"	"	"
朴 二 凡	男	27	"		8.16	"	"
崔 長 辰	男	27	"		"	"	"
姜 頭 登	男	26	"		"	"	"
文 化 植	男	19	"		"	"	"
文 斗 玉	男	28	"		"	"	"
文 原 秉	男	22	"		"	"	"
林 承 文	男	21	"		"	"	"
李 上 根	男	27	"		2.30	" 草 下 里	"
朴 允 宰	男	27	"		8.10	"	"
李 明 鎭	男	27	"		"	"	"
李 東 鎭	男	23	"		"	"	"
李 淳 欽	男	21	"		8.5	"	"
权 重 慶	男	32	"		1.30	"	"
权 重 範	男	24	"		"	"	"
权 重 茂	男	28	"		8.2	"	"
金 三 益	男	30	"		2.20	"	"
李 英 鎭	男	23	"		8.5	"	"

姓 名	性 别	年 令	職 業	所 屬 職 位	拉 致 日 月 日	拉 致 場 所	任 所
李 匡 夏	男	25	農		4283 7.20	默 田 面 堂 上 里	金 浦 郡
許 祖	"	33	"		8.2	" 元 世 里	"
鄭 義 男	"	21	"		"	"	"
安 昌 男	"	25	"		"	"	"
金 重 學	"	26	"		"	"	"
李 鐘 浩	"	25	"		"	" 梧 柳 里	"
李 鐘 光	"	24	"		7.20	"	"
李 鐘 璣	"	22	"		"	"	"
金 南 山	"	30	"		"	"	"
尹 春 英	"	20	"		8.2	"	"
李 相 福	"	17	"		"	"	"
金 仁 東	"	29	"		"	"	"
李 鍾 漢	"	20	"		"	"	"
李 那 永	"	22	"		"	"	"
李 鍾 萬	"	28	"		7.20	"	"
李 鍾 國	"	30	"		8.5	"	"
李 洞 九	"	22	"		"	"	"
朴 重 皓	"	22	"		"	"	"
金 考 鐘	"	22	"		"	"	"
韓 昌 成	"	25	"		"	"	"
鄭 大 模	"	23	"		"	" 旺 吉 里	"
叔 五 聲	"	22	"		"	"	"
鄭 仁 圭	"	23	"		7.27	"	"
崔 鐘 明	"	21	"		8.5	"	"
趙 相 成	"	21	"		"	"	"
尹 貞 煥	"	20	"		7.25	"	"
金 奉 玉	"	23	"		8.5	" 金 倉 里	"

金浦 - 250 -

姓 名	性 别	年 令	职 業	竹屬及職位	拉 致 日 期	拉 致 場 所	住 所
金 連 兴	男	21	農		4.23 8.7	陽東面 木谷里	金浦郡
柳 芝 俊	男	20	"		"	"	"
元 漢 常	男	28	"		"	"	"
金 有 福	男	23	"		"	"	"
金 載 福	男	24	"		7.20	"	"
文 永 鍊	男	22	工		8.5	"	"
金 奉 壽	男	26	農		"	"	"
申 良 均	男	27	"		"	"	"
李 漢 洙	男	21	"		"	"	"
金 後 吉	男	21	"		"	"	"
李 雪 米	男	23	"		"	"	"
文 存 天	男	27	"		"	"	"
金 頭 德	男	20	"		"	"	"
鄭 鐘 麟	男	25	"		"	"	"
林 茂 山	男	21	"		"	"	"
金 明 洙	男	31	"		"	"	"
朴 鐘 賢	男	19	"		"	"	"
柳 海 堯	男	24	"		7.25	"	"
柳 海 得	男	24	"		"	" 木洞里	"
金 在 福	男	27	"		8.5	"	"
金 在 植	男	30	"		"	"	"
李 奉 魯	男	22	"		7.20	"	"
林 擘 堯	男	21	"		8.27	"	"
洪 起 學	男	25	"		"	"	"
金 學 南	男	22	"		"	"	"
孫 允 錫	男	23	"		"	"	"
梁 承 万	男	24	"		7.15	"	"

~ 251 ~

金浦

姓 名	性 别	年 令	職 業	所屬職位	社 政 年 月 日	拉致場所	住 所
李 鵬 敏	男	21	農		4.23 8.5	豐丹面金台里	金浦郡
李 承 斗	"	24	"		"	"	"
元 榮 喜	"	19	"		"	" 麻田里	"
李 基 春	"	30	"		7.20	"	"
李 基 和	"	20	"		"	"	"
洪 在 益	"	26	"		8.5	"	"
楊 孝 叔	"	18	"		"	"	"
安 洙 祿	"	25	"		7.28	"	"
安 洙 慶	"	21	"		"	"	"
宋 煥 承	"	20	"		"	"	"
金 鍾 煥	"	29	"		8.2	"	"
金 重 煥	"	21	"		"	"	"
金 壽 福	"	29	"		"	"	"
梁 義 元	"	23	"		8.5	"	"
梁 在 德	"	21	"		"	"	"
梁 明 錫	"	27	"		"	"	"
梁 肯 煥	"	21	"		"	"	"
洪 鍾 善	"	32	"		"	"	"
洪 鍾 浩	"	28	"		"	"	"
梁 重 錫	"	20	"		7.30	"	"
許 榮 茂	"	23	"		"	"	"
井 勝 煥	"	27	"		8.5	" 六谷里	"
李 英 秀	"	26	"		"	"	"
井 興 緒	"	28	"		8.2	"	"
鄭 崇 宗	"	27	"		"	"	"
李 根 淑	"	28	"		8.10	"	"
李 根 有	"	24	"		"	"	"

金浦 - 252 -

姓 名	性 别	年 令	職 業	所屬及職位	拉致 年 月 日	拉致場所	住 所
鄭 淳 基	♂	26	農		4.28.53	縣丹西大谷里	金浦郡
李 根 成	♂	28	?		11	?	?
李 根 喆	♂	32	?		7.20	?	?
鄭 道 末	♂	26	?		8.20	?	?
李 基 男	♂	23	?		?	?	?
朴 瑞 陽	♂	27	?		?	?	?
朴 瑞 陽	♂	34	?		?	?	?
李 万 甲	♂	34	?		?	?	?
金 重 吉	♂	37	?		?	?	?
文 漢 植	♂	25	?		7.27	不老里	?
蔡 光 振	♂	34	?		?	?	?
吳 意 成	♂	32	?		?	?	?
張 兴 万	♂	35	?		?	?	?
李 成 夏	♂	24	?		?	金谷里	?
井 世 万	♂	26	?		?	元堂里	?
李 鍾 安	♂	24	?		?	金谷里	?
柳 秉 洙	♂	28	?		?	旺吉里	?
金 洛 根	♂	20	?		?	?	?
金 兴 植	♂	30	?		?	?	?
金 文 錫	♂	24	?		?	梧柳里	?
金 壽 梓	♂	34	?		?	堂下里	?
許 銀	♂	20	?		?	?	?
金 康 洙	♂	22	?		?	?	?
宋 贊 鉉	♂	30	?		?	?	?
崔 大 先	♂	30	?		?	?	?
許 相 俊	♂	31	?		?	元堂里	?
許 俊	♂	31	?		?	?	?

姓	名	性別	年令	職業	所屬職位	拉致年月日	拉致場所	住 所
葛	炳 學	男	36	農		1285 7.27	默川面大谷里	金浦郡
文	昌 淳	"	26	"		"	"	"
愼	甫 益	"	24	"		736	"	"
李	忠 秀	"	30	"		"	"	"
金	重 高	"	29	"		8.10	"	"
金	洛 采	"	43	"		"	"	"
李	哲 淳	"	20	"		"	"	"
申	致 斗	"	24	"		"	"	"
朴	勝 七	"	25	"		"	"	"
朴	熙 欽	"	30	"		"	"	"
李	承 植	"	22	"		"	"	"
鄭	文 煥	"	31	"		730	"	"
鄭	致 煥	"	20	"		"	"	"
鄭	永 煥	"	20	"		"	"	"
柳	恩 秀	"	29	"		8.10	"	"
柳	得 秀	"	23	"		"	"	"
柳	德 秀	"	22	"		"	"	"
柳	德 玉	"	22	"		7.26	"	"
任	昌 錫	"	20	"		8.10	商村面 新谷里	"
文	有 福	"	21	"		"	"	"
金	命 緜	"	28	"		"	"	"
朴	興 珠	"	25	"		"	"	"
尹	俊 寬	"	28	"		"	"	"
尹	英 鎬	"	25	"		"	"	"
金	東 植	"	23	"		"	"	"
趙	聖 淳	"	26	"		8.5	"	"
趙	淳 淳	"	22	"		"	"	"

金浦 - 25.4

姓	名	性別	年令	職業	所屬職位	社政場日	社政場所	住	所
申	學濬	男	24	殺		4283 5.5	高村西新谷里	金浦郡	
尹	刊鎭	男	27	"		"	"	"	
金	在憲	男	25	"		"	"	"	
李	蔚應	男	27	"		"	"	"	
任	文茂	男	25	"		"	"	"	
桂	聖万	男	24	"		"	"	"	
金	起鏞	男	22	"		"	"	"	
宋	明文	男	32	"		"	"	"	
李	英根	男	18	"		"	"	"	
金	明求	男	25	"		"	"	"	
金	明俊	男	27	"		"	" 鼓淵	"	
蔡	聖玉	男	20	"		"	" 台里	"	
鄭	仁善	男	20	"		"	"	"	
尹	在福	男	22	"		"	"	"	
金	漢用	男	23	"		"	"	"	
尹	在祿	男	31	"		"	"	"	
李	德秀	男	23	"		"	"	"	
奇	老杰	男	32	"		130	"	"	
許	叔	男	27	"		"	"	"	
李	宸徽	男	30	"		"	"	"	
趙	乙濬	男	22	"		"	" 新谷里	"	
趙	鳳濬	男	22	"		8.2	"	"	
李	摩基	男	26	"		"	"	"	
金	基隣	男	25	"		"	"	"	
丁	台鏞	男	35	"		"	"	"	
尹	成基	男	35	"		8.10	"	"	
孫	大元	男	22	"		"	"	"	



金浦 ~ 250 ~

姓 名	性 别	年 令	职 業	所 属 以 職 位	拉 致 年 月 日	拉 致 場 所	住 所
李明魯	男	52	農		4.28 5.2	高材面香山里	金浦郡
李明魯	"	50	"		"	"	"
朴俊喆	"	32	"		"	"	"
李重寬	"	30	"		"	"	"
金良九	"	30	"		"	"	"
具致哲	"	31	"		"	"	"
朴品未	"	29	"		"	"	"
李起德	"	28	"		"	"	"
金聖伯	"	30	"		"	"	"
張一伯	"	28	"		5.10	"	"
金仁錫	"	22	"		"	"	"
朴兴良	"	28	"		"	"	"
尹翔良	"	34	"		"	"	"
任特吾	"	33	"		"	"	"
金天植	"	34	"		"	"	"
李庚学	"	30	"		"	"	"
鄭聖壽	"	25	"		"	"	"
張文吉	"	21	"		"	"	"
李永俊	"	22	"		"	"	"
李秀安	"	18	"		"	"	"
金南旭	"	24	"		"	"	"
金南沃	"	22	"		8.5	" 新谷面	"
韓長良	"	25	"		"	"	"
金南七	"	33	"		"	"	"
趙鵬濬	"	27	"		"	"	"
申成章	"	28	"		"	" 振谷里	"
李庚友	"	24	"		"	"	"

姓 名	性 别	年 令	职 業	所 属 职 位	拉致 年月日	拉致 场所	任 所
李相鐘	男	28	農		4.28.53 8.5	高村面 楓谷里	金浦郡
李元	"	24	"		"	"	"
李庚煥	"	29	"		"	"	"
趙善彙	"	27	"		"	"	"
趙明彙	"	25	"		"	"	"
李河談	"	20	"		7.20	大串面 霧生里	"
李駿相	"	28	"		8.2	"	"
朴貞奎	"	21	"		"	"	"
俞舜燁	"	22	"		"	"	"
崔教壽	"	23	"		"	"	"
李國顯	"	22	"		7.21	"	"
林辰鐘	"	25	"		8.2	"	"
朴恭西	"	22	"		"	"	"
李泳玉	"	30	"		"	"	"
李泳天	"	20	"		"	"	"
崔俊學	"	20	"		"	"	"
張羣男	"	20	"		"	"	"
盧大煥	"	23	"		"	"	"
朴啟撲	"	27	"		"	"	"
盧大元	"	26	"		"	"	"
李起福	"	24	"		"	"	"
池德章	"	25	"		8.20	"	"
崔宇雲	"	20	教員		"	大串面 大明里	"
鄭大泳	"	27	"		"	"	"
鄭万泳	"	27	農業		"	"	"
洪相吉	"	27	"		"	"	"
韓相錫	"	27	"		"	"	"

金浦 - 218 -

姓 名	性 别	年 令	职 业	所 属 头 职 位	拉 致 日 期	拉 致 场 所	住 所
张 相 谦	男	28	劳 働		4.25 4.30	大 串 面、大 明 里	金 浦 郡
张 五 石	"	20	学 生		8.2	" 菜 岩 里	"
洪 基 万	"	26	粮		7.21	"	"
洪 基 元	"	22	学 生		"	"	"
韩 元 沃	"	20	粮		8.2	"	"
韩 东 桓	"	20	学 生		"	"	"
韩 仁 植	"	21	"		"	"	"
金 基 燮	"	22	"		"	"	"
李 容 仁	"	18	粮		"	"	"
郑 海 俊	"	23	"		7.21	"	"
沈 京 贞	"	21	"		"	"	"
李 起 元	"	24	"		8.2	"	"
李 起 昌	"	21	"		"	"	"
赵 甫 德	"	25	"		7.21	"	"
推 蔚 成	"	22	"		"	"	"
井 永 春	"	24	"		8.2	"	"
郑 洛 奉	"	24	"		7.22	"	"
沈 和 植	"	29	"		8.2	"	"
沈 俊 茂	"	20	"		"	"	"
沈 凤 贞	"	23	"		"	"	"
沈 智 贞	"	25	"		7.22	"	"
推 春 福	"	36	"		"	"	"
推 炳 煥	"	36	"		"	"	"
金 成 敷	"	29	"		8.2	"	"
李 贞 基	"	20	"		"	"	"
李 完 基	"	20	"		"	"	"
李 愚 美	"	39	"		"	"	"

姓名	性	年	職	米	在任頭職位	按數 年月日	拉致場所	在	所
沈相鶴	男	29	賤			4285 7.22	大串面 峽岩里	金浦郡	
趙四男	男	31	"			"	" 石井里	"	
金今俊	"	22	"			"	"	"	
金瀾末	"	22	"			8.2	"	"	
盧湖末	"	26	"			"	"	"	
金永德	"	24	"			"	"	"	
李鐘天	"	21	"			"	"	"	
文誌模	"	23	"			"	"	"	
文炳虎	"	22	"			8.2	"	"	
張錫永	"	21	"			"	"	"	
盧道末	"	21	"			"	"	"	
李淑錫	"	23	"			7.22	" 砵岩里	"	
林恩基	"	27	"			"	"	"	
林塔啟	"	26	"			8.2	"	"	
李駿照	"	29	"			"	"	"	
李義成	"	25	"			"	"	"	
李昌宰	"	20	"			7.22	"	"	
吳万泳	"	27	"			"	"	"	
林容誌	"	21	"			"	"	"	
張錫凡	"	20	"			8.2	"	"	
金福壽	"	20	"			"	"	"	
林昌模	"	21	"			"	"	"	
李凡誌	"	31	"			"	"	"	
金依錫	"	21	"			"	" 砵岩里	"	
樺寧頭	"	22	"			"	"	"	
井宰祿	"	22	"			"	"	"	
沈相堉	"	22	"			"	"	"	

金浦

- 260 -

姓	名	性 别	年 令	職 業	所 屬 職 位	拉 致 日 目	拉 致 場 所	住 所
尹	炳植	男	26	叢		4.23 7.22	大車園 杖麻里	金浦郡
朴	貞德	"	20	"		8.2	"	"
梁	相喆	"	25	"		7.22	"	"
沈	相翊	"	32	"		"	"	"
沈	相龜	"	32	"		"	"	"
權	五均	"	24	"		8.2	"	"
李	考冕	"	21	"		"	"	"
權	率七	"	30	"		"	" 新應里	"
車	慶德	"	29	"		"	"	"
車	世植	"	23	"		"	"	"
姜	意會	"	20	"		"	"	"
張	恩振	"	21	"		"	"	"
金	千春	"	33	"		7.22	"	"
金	意煥	"	19	"		8.2	"	"
林	容德	"	20	"		"	"	"
李	恩吉	"	23	"		"	"	"
申	洪均	"	22	"		"	" 佳岷里	"
李	河南	"	19	"		"	"	"
張	孝國	"	22	"		"	"	"
申	五均	"	20	"		"	"	"
申	載均	"	23	"		"	"	"
李	振仁	"	25	"		"	"	"
申	珪均	"	22	學生		"	"	"
金	東俊	"	38	叢		"	"	"
黃	仁性	"	20	"		"	"	"
李	意根	"	22	"		"	"	"
李	命卿	"	21	"		"	"	"

姓 名	性 别	年 龄	职 务	所属及职位	拉政 昇月日	地 政 届 别	住 所
李 朝 柳	男	20	兼		4293 8.2	大田面 佳岷里	金浦郡
李 明 錫	男	21	〃		〃	〃 草天里	〃
李 羨 洙	男	21	〃		〃	〃 〃	〃
李 明 叔	男	21	〃		〃	〃	〃
李 振 世	男	18	〃		〃	〃	〃
林 容 喆	男	31	〃		〃	〃 巨勿里	〃
金 錫 台	男	27	〃		〃	〃	〃
皮 鐘 相	男	28	〃		〃	〃	〃
李 宣 範	男	24	〃		〃	〃	〃
裴 鐘 根	男	26	〃		〃	〃	〃
金 炳 浩	男	20	〃		〃	〃	〃
裴 仲 錫	男	21	〃		〃	〃	〃
金 光 会	男	22	〃		〃	〃 大陵里	〃
金 煥 沃	男	29	〃		〃	〃	〃
金 正 会	男	24	〃		〃	〃	〃
金 俊 卿	男	21	〃		〃	〃	〃
宋 七 鳳	男	39	〃		〃	〃	〃
崔 元 文	男	23	〃		〃	〃	〃
韓 長 愚	男	22	〃		〃	〃	〃
韓 祖 愚	男	14	〃		〃	〃	〃
李 恭 洙	男	29	〃		〃	〃	〃
金 鎔 卿	男	23	〃		〃	〃	〃
韓 富 束	男	20	〃		〃	〃	〃
韓 昌 愚	男	29	〃		〃	〃	〃
車 吉 福	男	25	〃		〃	〃	〃
崔 貞 九	男	26	〃		〃	〃	〃
李 恩 甫	男	25	〃		〃	〃	〃

金浦 ~262~

姓 名	性 別	年 令	職 業	所屬及職位	拉致年月日	拉致場所	住 所
崔 基 汝	男	28	教 員		4.23 5.2	大串西 大陽里	金浦郡
李 相 珪	男	20	農		"	"	"
尹 鐘 根	男	20	"		"	"	"
李 元 宰	男	19	學 生		"	"	"
由 貞 基	男	19	農		"	"	"
崔 炳 益	男	27	"		"	"	"
沈 七 喪	男	23	"		"	" 大碧里	"
李 憲 鐘	男	27	"		"	"	"
韓 一 喪	男	21	"		"	"	"
韓 貞 喪	男	21	"		"	"	"
李 銀 俊	男	20	"		"	"	"
沈 勳 喪	男	23	"		"	"	"
沈 俊 喪	男	23	"		"	"	"
沈 在 豐	男	30	"		"	"	"
沈 相 滂	男	26	"		"	"	"
沈 相 鐘	男	20	"		"	"	"
沈 意 喪	男	21	"		"	"	"
沈 恭 喪	男	23	"		"	"	"
沈 明 載	男	21	"		"	"	"
李 昆 錫	男	19	學 生		"	" 永生里	"
李 權 煥	男	22	"		8.10	" 大明里	"
李 成 衣	男	20	農		"	"	"
高 順 万	男	22	"		"	"	"
李 炳 万	男	19	"		"	"	"
尹 用 仁	男	22	"		"	"	"
金 達 湖	男	19	"		"	"	"
梅 亭 吉	男	22	"		"	"	"

姓 名	性 别	年 龄	职 业	所 属 头 等 位	持 照 年 限	批 发 场 所 位	任 务 所
韓 相 模	男	20	農		2.5.53	大甲面 大明里	金浦署
俞 銀 福	男	22	?		"	"	"
金 順 秀	男	21	船業		"	新雁里	"
鄭 永 善	男	22	作系		"	榮岩里	"
韓 教 植	男	19	学生		"		"
李 寬 重	男	20	無		8.2		"
羅 東 漢	男	21	農		"		"
金 興 身	男	36	?		"	石甘里	"
林 貞 基	男	29	?		"	碎岩里	"
李 基 錫	男	19	?		"	華元里	"
李 箕 秀	男	22	?		"		"
李 康 玉	男	32	?		"	大瑞里	"
全 煥 秀	男	24	"		"	"	"
崔 言 文	男	19	学生		"	"	"
印 恭 奉	男	35	農		"	"	"
金 万 合	男	20	"		"	"	"
李 錫 宰	男	19	学生		"	"	"
李 容 九	男	20	"		7.30	"	"
韓 鐘 學	男	27	農		"	榮岩里	"
姜 春 根	男	29	"		"	"	"
趙 煥 星	男	23	"		"	"	"
韓 志 男	男	30	"		"	"	"
崔 治 俊	男	19	"		"	巨勿半里	"
崔 鍾 致	男	30	"		"	"	"
黃 錫 周	男	19	"		"	吾尼山里	"
李 英 俊	男	20	"		"	"	"
吳 一 文	男	20	"		"	"	"

부록 1 |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其二)

金浦 ~ 264 ~

姓 名	性 别	年 令	职 業	所屬以職業	控致 每月日	控致場所	住 所
李 尚 徽	男	23	教		4.23 7.50	大津西 吾尼山里	金津郡
袁 信 文	"	22	"		"	"	"
趙 有 淳	"	23	"		8.5	"	"
鄭 基 昌	"	22	"		"	"	"
柳 順 吉	"	22	"		"	" 上馬里	"
韓 載 檀	"	22	"		"	"	"
韓 善 植	"	31	"		"	"	"
沈 栢 赫	"	28	"		8.2	"	"
韓 登 沃	"	30	"		"	"	"
韓 允 燮	"	24	"		8.10	"	"
金 輔 山	"	26	"		8.5	"	"
朴 榮 求	"	26	"		"	"	"
朴 紅 求	"	21	"		"	"	"
朴 應 求	"	31	"		"	"	"
韓 貴 天	"	24	"		2.30	"	"
朴 塔 義	"	20	"		"	"	"
朴 載 乘	"	26	"		"	" 大陵里	"
康 元 俊	"	25	"		"	"	"
韓 爽 惠	"	22	"		"	" 巨勿里	"
袁 相 敦	"	19	"		8.5	"	"
袁 仲 翊	"	19	"		"	"	"

6.25 事變

被殺者名簿

( 其 一 )

公報處統計局

6.25사변 피살자 명부(其 一)

被殺者總括表

市道別	總數	男	女
總數	59,964	44,008	15,956
서울特別市	1,383	1,160	223
京畿道	2,536	2,373	163
忠清北道	633	575	58
忠清南道	3,680	3,476	204
全羅北道	5,603	4,394	1,209
全羅南道	43,511	29,565	13,946
慶尙北道	628	586	42
慶尙南道	689	662	27
江原道	1,216	1,139	77
濟州道	23	18	5
鐵嶺	62	60	2

이 자료는 1952년 3월 31일 현재 공보처통계국이 조사한 자료다.

북한군과 좌익이 학살한 민간인과 공무원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 명단이다.

4권으로 된 이 자료에는 5만 9,964명의 피살자 명단이 실려 있다. 전쟁이 끝나기 전이었으므로 종전까지는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자료 범례에 따르면 6.25사변중 공무원 및 일반인이 북한에 의해 피살당

한 상황을 조사 편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또 자료는 피살인사의 개별적 내용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성명, 성별, 연령, 직업, 피살년월일, 피살 장소, 본적, 주소등 항목을 정하여 조사하였다고 말하고 피살인사의 편의를 도모코자 서울특별시 및 각도, 시군별로 편집하고 다시 다수별 성씨별로 구별 정리하였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 조사는 군경을 제외한 비전투원(민간인)을 조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피살자 가운데는 앞에 소개한 <서울특별시 피해자 명부>에는 납북으로 되어 있으나 이 자료의 피살자 명단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서 당시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강제 연행된 후에 죽었는지, 살아서 북으로 끌려갔는지, 가족이나 이웃사람들이 모르거나 서로 다른 증언을 했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자료에 따라 '피살' 또는 '납북'으로 다르게 기록되기도 했다.

끌려간 후에는 소식이 끊어졌으니 북에서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가족들은 알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피살자 명단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총59,964명 중 경기도가 2,536명(남자 2,373명, 여자163명)이고, 김포군은 총75명으로 조사되었다.

姓 名	性 别	年 令	職 業	被 殺 年 月 日	被 殺 場 所	本 籍	住 所
金 德 文	男	24	農	4283 8.30	高陽郡松楸面 大化里	金甫郡金甫面北辺里	左 同
金 信 楨	"	22	勞働	" 8.15	金甫郡金甫面 龜陽里	真道道鳳山郡 氣仙面草子里	金甫郡金甫面北辺里 (5)
金 德 珠	"	29	農	" 8.30	高陽郡松楸面 大化里	忠北俱川郡總山面 水谷洞	" " "
金 千 萬	"	38	"	" 8.15	自 宅	金甫郡陽西面椽花里	左 同
金 斗 成	"	36	"	" 8.5	"	金甫郡陽東面殊谷里	左 同
金 基 睦	"	22	教師	" 8.28	"	" " 禾谷里	左 同
金 基 德	"	21	學生	"	"	" " "	左 同
金 長 國	"	37	農	"	"	" " 加陽里	左 同
金 四 俊	"	40	"	" 8.10	"	" 歐丹面金谷里 (27)	左 同
金 冠 玉	"	37	"	" 8.16	"	" 慶城面麻公里	左 同
金 東 勲	"	31	"	" 8.17	"	" " 石雀里	左 同
金 東 根	"	35	"	"	"	" " "	左 同
金 東 一	"	42	"	"	"	" " "	左 同
金 性 河	"	38	"	" 8.11	金甫郡月半面 恩山里	金甫郡月半面改洞里 (2)	左 同
李 明 奎	男	25	農	4283 8.30	高陽郡松楸面 大化里	金甫郡金甫面大化里	左 同
李 義 燮	"	42	精米業	6.27	自 宅	川島市面大門及久利洞	金甫郡金甫面陽基里
李 允 根	"	23	農	" 8.30	高陽郡碧蹄面	金甫郡金甫面北辺里	左 同
李 庸 德	"	24	"	" 8.15	自 宅	" " 沙陽里	"
李 宣 沢	"	20	"	"	"	" " "	"
李 載 植	"	26	"	"	"	" " 豐舞里	"
李 在 允	"	24	"	" 8.30	高陽郡松楸面 大化里	" " 北辺里	"
李 千 萬	"	24	"	"	"	" " "	"
李 慶 順	女	45	無	" 8.15	金甫郡陽村面 興刺里	" 陽村面陽谷里	"
李 明 錫	男	23	農	6.28	自 宅	金甫郡陽村面大泉里	"
李 圭 亨	"	63	"	" 8.20	金甫郡大寧面 東井里	" " 柳岬里	金甫郡大寧面元芝里

~90~ 金浦

姓名	性別	年令	職業	被殺 年月日	被殺場所	本籍	住所
李明錫	男	28	殺	4283 9.30	金浦郡陽村 面九來里	金浦郡陽村面柳岬里	金浦郡大串面單元里
李率錫	男	26	"	9.16	自宅	"霞城面麻谷里	左同
李用成	男	20	學生	9.18	金浦郡丹串面 碧山里	"丹串面故田里	"
朴義福	男	23	農	4283 9.30	高陽郡碧蹄面	金浦郡金浦面北江里	左同
朴石範	男	20	"	"	"	"	"
朴相鉉	男	24	"	9.15	金浦郡金浦面北江里	"傑浦里	"
朴恭圭	男	24	"	9.17	金浦郡霞城面 佳金里	金浦郡霞城面佳金里	"
朴仁遠	男	33	"	"	"霞城面	"霞城面	"
朴容熙	男	61	"	"	"	"	"
朴允植	男	37	"	9.19	"陽谷里	"丹串面老里	"
趙載允	男	34	農	4283 9.17	"麻谷里	"霞城面麻元里	"
趙壽頤	男	46	"	"	"	"	"
趙發鎬	男	20	"	"	"霞城面	"霞城面	"
趙裕頤	男	24	"	9.27	"麻谷里	"丹串面冬山里	"
趙声九	男	41	"	9.17	"陽村面陽谷里	"	"
趙哲頤	男	23	"	9.15	自宅	"霞城面石雅里	"
劉允鍾	男	29	運載手	4283 9.30	高陽郡金浦面大化里	"金浦面傑浦里	"
劉載山	男	23	農	9.20	"	"	"
劉芝鍾	男	20	"	9.19	金浦郡金浦面北江里	"	"
劉時雲	男	20	"	"	"	"	"
劉陳成	男	38	船業	9.20	"大串面乘里	"大串面新厓里	"

金浦 ~ 21 ~

姓名	性別	年令	職業	被殺年月日	被殺場所	本籍	住所
崔順泰	男	22	勞働	4.24.3 9.20	金浦郡金浦面北四	金浦郡險浦面北五里	左 同
崔奭根	"	27	無	9.18	"	" " "	"
崔景竹	"	28	農		金浦郡大串面	" 大串面大陵里	"
崔昌鳳	"	38	"	9.17	金浦郡陽村面陽谷里	" " 粟生里	"
閔丙春	男	37	農	9.16	自 宅	" 嚴城通麻谷里	左 同
閔元植	"	29	"	"	"	" " "	"
閔庚成	"	27	"	9.17	"	" " "	"
閔積城	"	42	商	"	金浦郡陽村面陽谷里	" 月串面高亭里	"
深明煥	男	33	農	4.25.3 9.16	金浦郡陽村面市場	金浦郡陽村面陽谷里	左 同
宋得春	男	30	農	9.17	自 宅	金浦郡嚴城面新里	左 同
宋允植	"	42	"	9.11	自 宅	" 月串面高亭里	"
鄭永基	男	24	學生	9.23	自 宅	" 金浦面受陽里	左 同
白仁基	男	27	農	9.18	自 宅	" " 北五里	左 同
張奎河	男	43	農	9.15	金浦郡金浦面地五里	" " 傑浦里	左 同

~ 92 ~ 金浦

姓名	性別	年令	職業	被殺年月日	被殺場所	本籍	住所
張相寅	男	21	農	2.25 2.28	高陽郡 北洞面 大仁里	金浦郡 金浦面 北洞里	左 同
陶上萬	男	24	"	2.28	自宅	" 陽村面 樓上里	左 同
奇元度	"	38	"	2.30	自宅	" 高村面 香山里	左 同
丁義鎮	"	29	"	2.15	金浦郡 陽西面 陽花里	江華郡 吉祥面	左 同
方熙命	"	46	青年團長	2.4	自宅	金浦郡 陽東面 場倉里	左 同
吳載仁	"	37	農	2.22	金浦郡 陽村面 市場	" 陽村面 火新里	左 同
文熙成	"	38	"	2.14	" 陽谷市場	" 九來里	左 同
沈錫求	"	24	"	2.28	高陽郡	" 陽東面 禾谷里	左 同
申福求	男	39	農	2.3	高陽郡	驪州郡	金浦郡 陽東面 加陽里
申煥斗	"	34	"	2.27	自宅	金浦郡 殿城面 板谷里	左 同



1956

失郷私民登録者名單

大韓赤十字社

## 실향사민 신고서(실향사민 등록자명단)

대한적십자사가 원본을 보유하고 있는 <실향사민신고서>는 6.25전쟁 납북자들의 개별 납치 상황에 대한 남측 가족들의 육필 납치 신고서를 말한다. 원래 전체 7,034건이었으나 일부가 유실돼 6,472건만 제본돼 있다.

정식명칭은 <6.25전쟁 납북자 안부탐지 신고서>로 '실향사민'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협상과정에서 납치 또는 납북이라는 표현을 거부하는 북한측과의 타협의 산물로 협상용 용어로서 고안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향을 잃은 민간인'이라는 중립적 표현으로 납치의 범죄적 성격을 가리고 있으나 이때의 실향사민이란 정확히 6.25전쟁 납북자를 가리킨다.

이 육필 신고서들은 국제 적십자사를 통하여 북한적십자사로부터 6.25전쟁 납북자의 '안부탐지'를 할 목적으로 1956년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2개월에 걸쳐 가족들이 직접 작성하여 신고토록 한 것이다.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원장 이미일)으로부터 전달받은 김포지역 납북인사 명단은 총38명이나 중복자 2명을 제외하면 총 36명이다.

이 명부에는 '피랍일자' 혹은 '피랍장소'가 기술되어 있지 않다. 이유는 위에서 이미 밝히고 있듯이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납북자라는 용어자체도 받아들이지 않는 원인이 작용했다.

직업별(괄호 안은 인원)로는 공무원(2명), 교원(6), 노동(1), 농업(15), 무직(4), 직공(1), 철공업(1), 학생(3), 한의사(1), 회사원(2)

연령별(괄호 안은 인원)로는 20세(1명), 21(1), 23(1), 25(1), 27(2), 28(1), 29(3), 30(1), 31(2), 32(2), 33(2), 34(2), 35(1), 36(1), 37(2), 40(2), 41(1), 45(1), 47(1), 51(1), 54(1), 55(2), 59(1), 60(1), 61(1), 62(1)

납치장소별로는 경기 29명, 충남 2명, 충북 1명, 평남 1명, 평북 1명

지역별(면별) 납치현황은 검단면 2명, 고촌면 1명, 김포면 8명, 대곶면 1명, 양동면 11명, 양서면 8명, 양촌면 3명, 월곶면 1명, 하성면 1명이다.(중복자 2명 제외)



30116

No.	姓	性	生年	打	職	再	記	檢
1	被控者姓名 (國文) 이의종 (漢文) 李義鍾 (英文) Lee Yi Chung	性 男	生年 西紀一九一六年 七月九日生	打 被控者本籍 京畿道金浦郡黔丹面不老里四一番地	職 京畿道金浦郡黔丹面不老里四一番地 本職 農業	再 京畿道金浦郡黔丹面不老里四一番地 本職 農業	記 家族代表者 住所 姓 名 李 義 昌 關係 本人 長男	檢 京畿道金浦郡黔丹面不老里四一番地 本職 農業
2	被控者姓名 (國文) 이의종 (漢文) 李義鍾 (英文) Lee Yi Chung	性 女	生年 西紀一九一六年 七月九日生	打 被控者本籍 京畿道金浦郡黔丹面不老里四一番地	職 京畿道金浦郡黔丹面不老里四一番地 本職 農業	再 京畿道金浦郡黔丹面不老里四一番地 本職 農業	記 家族代表者 住所 姓 名 李 義 昌 關係 本人 長男	檢 京畿道金浦郡黔丹面不老里四一番地 本職 農業

西紀一九三〇年 七月 十日 午前 十時 自 宅 出 行  
 申 告 人 李 義 昌

김포면 북변리 정은동	16.	5818	校	記	再	總	長	總	長	總	長
<p>失郷 私民申告書</p> <p>被拉人姓名 (國文) 정은동 (漢文) 鄭銀東</p> <p>別男子 Jung woom dong 年廿</p> <p>白 光 年 月 日 西 紀 一 九 〇 二 年 六 月 三 日 號 五 三 才</p> <p>一 親 屬 本 籍 宗 敏 道 人 金 浦 郡 人 金 浦 面 北 邊 里 三 三 九</p> <p>一 出 身 地 石 洞</p> <p>一 最 終 現 任 所 在 特 別 中 中 邑 茶 洞 一 六 三 八 号</p> <p>一 最 終 職 業 本 職 公 職 外 是 專 賣 廳 兼 務 員</p> <p>一 家 族 代 表 任 所 在 特 別 中 中 邑 雙 林 洞 一 八 二 九 号</p> <p>一 姓 姓 名 金 子 蘭 團 係 妻</p> <p>一 被 拉 狀 况 西 紀 一 九 〇 二 年 八 月 三 日 若 三 時 終 自 己 的 行</p> <p>由 務 署 署 長 鄭 振 晉 署 長 各 的 川 中 邑 由 務 署 署 長 行</p> <p>辛 浦 島 宅 宅</p>											



5121

總長	打字
----	----

失竊私長安否探知申告書

被拉者姓名 (國文) 趙奉鎬 漢文 趙奉鎬

性別 男子

生年月日 西曆一九〇二年 八月十八日 生雲五才

被拉者本籍 京畿道金浦府西陵面元堂三三番地

出生地 右

最終住所 右

最終職業 本職 大韓國民會金浦府西陵面會長

家族代表者現住所 京畿道金浦郡西陵面元堂三三番地

姓名 (國文) 趙奉鎬 (漢文) 趙奉鎬 係被拉者之長男

被拉者住址 西曆一九〇五年 七月十五日 一時頃

金浦郡西陵面元堂三三番地 員長大名 趙奉鎬 係被拉者之長男

收者 趙奉鎬 係被拉者之長男 係被拉者之長男

行方 趙奉鎬 係被拉者之長男 係被拉者之長男

本報刊載 趙奉鎬 係被拉者之長男 係被拉者之長男

대곶면 거물대리 배중석

495.1

水

七家族代表者  
檢發當世場所  
其他狀況

四被培者本籍  
五最終現任所  
六最終職業

二性 別  
三生年 月 日

一被培者姓名

失郷私以民安否探知申告書

其外巨勿空里

(才是) 裴重錫 (漢文)

男子

而紀年既 年 月 日 生

京畿道金海郡南面馬島洞 考

右 右 同 同

本職 佛學生 韓不國幹部

公職 皇市麻橋池 唐仁洞 七區 高地

表慶成 關係 叔父

而此(才是) 年 月 日 七月 七日 午 在 時 自 完

內 登 署 員 則 被 逮

(漢文)

執致者姓名  
性別

咸熙景  
男子

生年月日

西紀一八九七年十一月三日

籍

京畿道金浦郡金浦面北邊里奉七奉番地

職業

京畿道金浦郡金浦面北邊里奉七奉番地

被執致場所

無崎(前職警監忠南島致現警署署長)

家族代表

咸熙日明(執致者外州關係)

被執致者姓名

京畿道金浦郡金浦面北邊里奉七奉番地(自定)

執致狀況

西紀一九五〇年七月三十日項最致住所地京畿道

金浦郡金浦面北邊里奉七奉番地自定州什所職

警署以奉職計以計金浦內務署員

三四人州川連行到時金浦內務署約二連日

間留置此後州什呈西大門刑務所州務

送引以時

김포면 사우리 이몽준

4219

姓 名 九拉敦 沙陽里에서 德僑內務署員	國 籍 西曆一九五〇年八月三日 台內川 連行 陸軍 收復者 時 由 時 連行 收	本 職 農 業 公職 大韓青年團長 金湖郡 金湖面 沙陽里九一	打 字 西曆一九五〇年四月十九日 金湖郡 金湖面 沙陽里九一	被 拉 者 姓 名 (國 文) 이몽준 (漢 文) 尊 屬 倭 英 文 Lee, Mong Jun
----------------------------	--	--	--------------------------------------	--

失竊私民安否探報甲告書

此 方 面 之 北 上 處 於 在 親 和 也



失郷私民安否探知申告書

被拉者姓名(國文) 石川(漢文) 金在成(英文)

二性 別 (男) 子 女 子

三生年月日 西紀一九六六年十一月二十五日生

四被拉者本籍 高才道金浦郡 陽村面樓山里

五 出生地 右台 陽谷市

六最終職業 本職 漢 医 公職 警察協人會長

七家族代表者住所 仁川特別市 西大門區 泉洞 一六六

八家族代表者姓名 金在天 年廿七 被拉者外親係弟 商業 商業

九其他狀況 自定外務署署員二名 以上計七名

消息 全無 消息

百品經理 任 高才道 金浦郡 陽村面 陽谷市 四三六

울꽃면 용강리 강시형

10.

總裁	事務	總振	種字	生年月日	被振者本籍	再振者本籍	記録	一家族	振發當此狀況
失郷私民是否探知申告書									
姓名 (國文) 가오시형 (漢文) 姜世時 聲香									
別 (男子) 女子									
西紀一九二三年三月十四日生 (當三十四才)									
金浦郡日市面龍泉里三三番地									
金浦郡日市面龍泉里三三番地									
金浦郡日市面龍泉里三三番地									
公職 天龍音半 (區長)									
現住所 日市面龍泉里三三番地									
姓名 (國文) 가오시형 (漢文) 姜世時 聲香									
西紀一九五〇年 八月三日 (前) 之時頃									

242



內孫所員에게 부편이여 堂年에 비후의 크고난까지 아부 소식이 이바하여  
 申長을 하노이다





1173

(沈) 子辰

總長

打字

翻譯

再閱

記錄

失鄉私民安否振知申告書  
一 被拉者姓名 (國文) 이혁희 (漢文) 李赫熙 (英文) Joe Hyuk Hee

二 性別 男

三 生年月日 西紀一九八八年一月三日生 (吾9才)

四 僱被拉者本籍 京畿道金浦郡金浦白雲陽里三三番地

五 最終居住所 右同

六 最終職業 右同

七 家族代表者 李庸果

八 委託書 李庸果

九 關係 次田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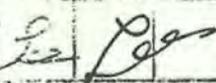
十 地址 京畿道金浦郡金浦白雲陽里三三番地

十一 其他 西紀一九八〇年八月十日頃右被拉致場所의 什物內初四者及五名

十二 其他 市內某利初力所의 收者되였으나 東三三川方面은 現由以也은 應送

던 것임

市內某利初力所의 收者되였으나 東三三川方面은 現由以也은 應送던 것임

김포면 북변리 최임성	打字	總務	總務			
 						

## 失郷私民安否探知申告書

- 一 被拉者姓名 (國文) 최임성 (漢文) 崔林成 (英文) Che in dung
- 二 性別 男 (男子) 女 (女子)
- 三 生年月日 西曆 一九二八年 十二月 十日 生
- 四 被拉者本籍 忠南論山郡 光茂面 五江里
- 五 最終現任所 京畿金浦郡 金浦面 也辺里 三八二
- 六 最終職業 教員 本職 金浦郡 九仁地 公民學校 不職
- 七 家族代表者 京畿金浦郡 金浦面 也辺里 三八二 崔 林秀(弟)
- 八 被拉當時場所 京畿金浦郡 金浦面 也辺里 三八二 覆地 川居 位 途中 身 月 日 三 五 事 表 當 年 七 月 十 四 日 夜 間 川 拉 入 計 數 者

失郷私民安否探知申告書

一被拉者姓名 (國文) 이 지 언 (漢文) 李 之 衍

一姓 別 男子 卅七

一生年月日 西紀一九三二年六月廿日 (生當多○大)

一被拉者本籍 京畿道 金浦郡 陽村 面 道坎里 一三六

一被拉者所在地 右

一被拉者所 京畿道 金浦郡 陽村 面 栗生里

一被拉者職業 本職 公職

一被拉者代表現住所 京畿道 金浦郡 陽村 面 栗生里 (大專國民學校勤務)

一被拉者姓名 李 之 衍 (特別) 李 汝 雨 (被拉者之父)

一被拉者姓名 李 汝 雨

西紀一九五〇年 六月 廿日 大專國民學校 李 汝 雨 自 署 敬 頌

內務署長 李 汝 雨 內務署 外 連 行 之 後 稍 息 以 故 在

## ▶ 김포 6.25전쟁 참전 전사자 현황조사

6.25전쟁 참전군인 중 김포지역 출신 전사자는 1967년<sup>1)</sup> 김포군에서 각 면별로 조사한 사실이 1993년에 발행된 <김포군지>에 기술되어 있다.

<김포군지> <제9장 광복 이후의 김포, 제2절 한국전쟁과 김포, 4.김포군의 피해 및 구호상황>란에 '김포군 출신의 6.25전쟁 전사자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지역별로 현황을 소개하고 있는데 월곶면 39명, 양촌면 65명, 하성면 39명, 검단면 71명, 고촌면 43명, 대곶면 92명, 김포면 44명이다.

군지는 이 자료가 전쟁의 와중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전사자가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고 전사한 시기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도 아주 많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밝히고 있지 않다.

또한 군지 <5. 전쟁기념물> 항목란에 김포군 출신의 영령들을 위로하고 추모하는 충혼탑에 영령 607위가 모셔져 있다고 밝히고 이 607위는 <영현록>에 등록되어 있는 숫자(주소확인 가능 401위, 주소불명 206위)이며 영현록에 등록되지 못한 328위를 포함하여 총 935명이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군지는 또 각 면별 전사자명단, 무명용사 명부, 영현록에 등재된 주소불명자 명단, 해외파견 전사자 추가명단(미등록)을 게재하고 있다.

전사자 명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월곶면 74명, 양촌면 96명, 하성면 64명, 검단면 99명, 고촌면 53명, 대곶면 116명, 김포읍 131명이며 주소불명자 56명, 전기 해외파견 전사자의 추가명부(미등록)는 김포읍 3명, 고촌면 2명, 검단면 1명, 하성면 4명, 양촌면 6명, 대곶면 3명, 월곶면 5명, 총 24명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김포군지>는 1976년 12월말 현재 <영현록>에 등재자 및 미등재자 면별 총수를 기술하고 있다. (도표참조)

조사자는 <김포군지>에 기술된 6.25전쟁중 김포출신으로서 군인으로 참전하여 전투중 전사한 전사자 명단이 조사·등록 기재된 <영현록>이 존재한다는 기술에 따라 김포시에 확인 의뢰하였으나 당시 조사한 전사자 명단이 등록된 <영현록> 자

1) 1993년에 발행된 <김포군지>에 각 면별로 김포출신 전사자 명단을 조사한 시기를 1967년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전사자 명단'에는 1976년 11월말 현재'라고 기재되어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 같은 자료에 '김포군 전몰사자 통계표'란에 1976년 12월말 현재'라고 기재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조사연도가 1967년이 아니라 1976년인 것으로 짐작된다.

료는 폐기되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1993년에 발행된 <김포군지>에 게재된 전사자 명단이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김포출신 전사자 명단일 수밖에 없다.

또한 육군본부 전사자 명부를 관리하는 인사처에 의뢰하여 1950년부터 1953년 7월 휴전까지의 김포출신으로서 6.25전쟁중 전사자 명단을 의뢰 그 명단을 입수하였다.

이 명부의 구성은 소속, SN, 성명, 사망구분, 사망일자, 생년월일, 본적으로 되어 있다. 자료에 의하면 총전사자는 693명으로 되어 있으나 서울시로 편입된 양동면과 양서면 그리고 인천시로 편입된 검단면 지역 명단을 제외하면 현 김포시 행정구역 기준으로 460명이 전사자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이 명단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육군본부에서 관리하는 전사자 명단의 주소내용이 잘못기록된 사항이 너무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기록보관하고 있는 전사자의 명부치고는 너무 졸속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포 전사자 명부에 대한 주소오기의 문제를 전산자료 입력시 오기의 문제로 인식하여 '일본의 주소 수정'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 육군본부측에서의 회신은 당시 원본기록 자체가 불러 주는대로 기록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본과 전산자료가 동일하다는 답변이었다.

따라서 각 자료마다 인원수와 주소지 확인이 불분명한 조건 때문에 <김포군지>와 <육군본부 김포 전사자 명부>의 각 전사자 명부를 자료부록으로 첨부하였다.<sup>2)</sup>

김포군 전몰사자 통계표(1976년 12월 현재)

면 별	등재자수(등록자)	미등재자수(미등록자)
김포읍	76	62
대곶면	56	72
고촌면	38	19
검단면	58	44
하성면	36	33
양촌면	57	45
월곶면	47	32
계	368	307
주소불명	206	-

2) <김포군지>에 게재된 김포전사자 명단과 <육군본부 김포전사자 명부>의 자료를 통합하여 김포지역 6.25전쟁 참전 전사자 공식 명단을 확정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전사자 명단(1976년 11월말 현재)

(일곳면)

階級	姓 名	本貫	父 姓 名	戰死年月日	戰 死 地	住 所	備 考 (登錄番號)
上 士	金 昶 圭	清 州	金 百 鍊	1950. 9.	陸軍病院	郡下里 106	134
上 兵	尹 英 錫	坡 平	尹 無 成	1951. 1. 10	忠北丹陽	郡下里 166	164
下 士	黃 壽 慶	平 海	黃 上 男	1950. 6. 27	汶山地域	郡下里 120	161
一 兵	千 起 源	瀨 陽	千 是 云	1951. 1. 30	東部戰線	古幕里 406	197
"	崔 昌 鎮	海 州	崔 順 吉	1950. 6. 27	未 詳	葛山里 168	162
	洪 顯 玉	南 陽	洪 大 鵬	1951. 2. 9	"	甕井里 207	132
	南 宮 俊 成	悅 悅	南 官 泰 元	1952. 6. 26	漣 川	" 251	486
	金 容 世 光	山 州	金 元 山	1953. 5. 3	慶 北	" 180	488
下 士	李 斗 夏 全	州 全	李 寅 起	1951. 2. 12	未 詳	高陽里 432	175
一 兵	李 允 夏 全	州 全	李 寅 八	1951. 2. 11	"		112
	李 殷 春 全	州 全	李 範 夏	1951. 10. 16	江 原 양 구	浦內里29	123
上 兵	鄭 完 益 慶	州 慶	鄭 芝 泓	1961. 6. 2	江 原 原 州	龍江里249	478
上 兵	林 容 仁 扶 安	" 安	林 奉 模	1951. 1. 1	加 平 地 區	祖江里287	287
"	林 容 直 " 安	" 安	林 相 模	1951. 1. 1	"	" 297	160
下 士	河 昌 男 晋 州	河 州 河	河 乞 伊	1951. 4. 26	江 原 道 麟 蹄	" 8	511
上 兵	宋 仁 植 鎮 州	宋 州 宋	宋 範 成	1951. 10. 2	楊 口 地 區	開谷里628	163
"	林 容 俊 扶 安	安 州 安	林 炳 星	1951. 2. 11	加 里 山 地 區	" 589	531
下 士	林 容 達 " 安	" 安	林 炳 卓	1959. 10.	全 谷 地 區	" 568	100
一 兵	林 元 基 " 安	" 安	林 容 熙	1951. 5. 2	江 原 地 區		129
下 士	林 亨 基 " 安	" 安	"	1953. 7. 19	未 詳		514
一 兵	李 殷 圭 全 州	李 州 李	李 貞 夏	1950. 6. 27	汶 山 地 區	高亭里354	479
下 士	朴 柱 文 密 陽	朴 陽 密	朴 明 國	1953. 6. 28	江 原 金 化 地 區	西岩里97	526
兵 長	朴 鍾 濬 密 陽	朴 陽 密	朴 用 奉	未 詳	襄 津 地 區	西岩里478	157
	崔 德 在 慶 州	崔 州 崔	崔 鳳 慶	1951. 11. 6	楊 口 地 區	" 447	191
二 兵	李 貞 烈 全 州	李 州 李	李 相 憲	未 詳	未 詳	歸田里295	151
"	李 道 烈 全 州	李 州 李	李 鳳 鶴	1953. 7.30	廣 州	" 297	505
上 兵	閔 洪 基 驪 興	閔 興 閔	閔 丙 學	1951. 5. 8	江 原 麟 蹄	" 612	166
三 等 兵 曹	宋 明 植 隔 山	宋 山 宋	宋 永 鎬	未 詳	長 湍 地 區	古幕里345	221
一 兵	魯 松 英 江 華	魯 華 魯	魯 泰 賢	1950. 7. 17	未 詳	浦內里山49	200
一 兵	曹 義 煥 昌 寧	曹 寧 曹	曹 在 默	1951. 5. 29	"	甫口串里242	218
下 士	金 容 德 光 山	金 山 金	金 奉 洙	1950. 8. 1	"	葛山里223	224

階級	姓名	本貫	父姓名	戰死年月日	戰死地	住所	備考 (登錄番號)
一兵	盧明德	淑州	盧春童	1951. 1. 8	未詳	開谷里700	172
	李億鳳	全州	李斗星	1951. 1. 8	"	西岩里495	113
	姜運馨	晉州	姜春澤	1951. 2. 20	陸軍病院	冬乙山里395	130
下士	李성권		이옥순	不明	不明	高陽里山39-1	118
中尉	尹희문		이경휘	"	"	冬乙山里	120
上兵	육동식		윤복순	"	"	高陽里445	180
一水兵	蔡시병		채수연	"	"	高亭里599	484
一兵	閔경덕		閔홍기	"	"	郡下里68	485
"	金세용		金재선	"	"	西岩里863	497
上兵	洪순범		이길순	"	"	高亭里275	498
"	洪창운		김희너	"	"	古幕里406	142
一兵	吳동섭		吳京籤	1951. 4. 1	江原楊口	浦內里43	156
兵長	許진선		未詳	未詳	未詳	葛山五里	海外派遣575
中尉	유학선		"	"	"	南口串里242	" 586
"	조재용		"	"	"	冬乙山里105	" 587
上兵	金光천		"	"	"	郡下里	" 592
上兵	金光天	金海	金允澤	1971. 1. 24	越南	郡下里118	未登錄
兵長	洪昌云	南陽	洪出龍	1957. 10. 16	7296部隊	古幕里406	"
中士	金容浩	光山	金籤洙	未詳	鎮海	葛山里337	"
上兵	俞亨善	杞溪	俞銀弼	1968. 7. 8	未詳	" 163	"
訓練兵	朴商珏	密陽	朴勢遠	1974. 2. 22	麗水海上	" 528	"
上兵	鄭重根	楊州	鄭熙戊	1961. 2. 11	漣川地區	龍江里249	"
	金在權	金海	金百用	1950. 10. 2	未詳	開谷里859	"
一兵	洪淳範	南陽	洪鍾彬	1953. 7. 19	江原地區	"	"
"	趙誠籤	豐壤	趙壽衍	1956. 1. 5	京畿地區	高亭里109	"
	朴柱陽	密陽	朴季福	1951. 7. 14	未詳	西岩里453	"
下士	金起容	金海	金萬協	1968. 2. 3	越南	" 731	"
未詳	劉明鍾	江陵	劉載鶴	1964. 5. 8	江原麟蹄	冬乙山里13	"
"	趙載雄	平壤	趙昇顯	1970. 5. 11	越南	" 105	"
一兵	盧松旭	豐川	盧泰賢	1951. 5. 8	未詳	襄井里78	"
大尉	柳鶴善	文化	柳在淵	1970. 3. 29	越南	南口串里242	"
未詳	李範弘	全州	李奎夏	1952. 6. 9	江原道麟蹄	高陽里437	"

부록iv | 김포 6.25전쟁 참전 전사자 현황\_ 김포군지

階級	姓 名	本貫	父 姓 名	戰死年月日	戰 死 地	住 所	備 考 (登錄番號)
一 兵	李 天 九	全 州	李 鳳 春	未 詳	金 化 地 區	葛山里450	未登錄
二 中	趙 南 韓		조 도 인	1950. 10. 1	未 詳	歸田里215	"
一 兵	이 기 성		子 李 강 희	不 明	"	郡下里407	"
下 士	임 경 룡		子 임 선 진	"	"	高陽里186	"
一 兵	오 성 동		子 오 필 모	1950. 6. 27	"	浦內里49	"
上 兵	金 운 형		子 金 윤 회	1951. 2. 20	"	冬乙山里395	"
"	유 형 선		弟 金 기 환	1967. 7. 8	"	葛山里163	"
上 兵	이 기 정		父 李 영 회	1967. 4. 9	"	冬乙山里26	"
"	노 봉 안		弟 李 봉 길	1975. 8. 16	"	城東里198	"
上 兵	홍 재 윤		子 洪 종 립	1953. 7. 18	不 明	歸田里194	"
一 兵	김 영 신		父 金 출 인	1965. 10. 14	"	葛山里388	"

(양촌면)

階級	姓 名	本貫	父 姓 名	戰死年月日	戰 死 地	住 所	備 考 (登錄番號)
一 兵	高 光 旭	長 興	高 基 相	1952. 2. 10	未 詳	陽谷里417	144
"	姜 永 裕	晉 州	姜 一 會	1951. 10. 3	陸軍野戰病院	" 573	110
巡 警	李 範 成	全 州	李 晚 夏	1951. 4. 26	智異山地區	" 古丹946	525
下 士	李 範 山	"	"	1951. 4. 22	"	"	464
三等兵曹	李 範 仁	"	李 駿 夏	1951. 8. 31	중 동 지 구	" 938	204
兵 長	洪 順 赫	南 陽	洪 鍾 根	1951. 11. 2	江原麟蹄地區	" 632	109
一 兵	金 昌 南	光 山	金 芝 福	1950. 12. 30	江原鐵原地區	" 陽陵600	501
一 兵	陶 貞 教	順 天	陶 義 彬	1951. 4. 23	江原鐵原	" 陽陵79	187
兵 長	李 丙 兆	牛 峰	李 翰 九	1950. 7. 11	未 詳	樓山里492	493
	金 再 壽	清 風	金 裕 景	1951. 5. 18	"	" 151	196
二 中	陶 桂 昌	順 天	陶 學 瑞	1951. 9. 23	"	" 154	518
一 兵	李 康 潤	全 州	李 起 夏	1951. 3. 9	○○地區	姪串160	105
二 兵	李 鳳 爽	慶 州	李 順 在	1951.	未 詳	席毛里325	114
"	李 康 爽	安 東	李 起 德	1951. 3. 23	"	姪串327	223
下 士	韓 震 燮	濟 州	韓 義 植	1952. 7. 10	漣 川 地 區	內村104	523
巡 警	閔 丙 翊	驪 興	閔 龍 雲	1950. 6. 30	서 울	小麻山2	101
一 兵	李 台 壽	載 寧	李 炳 欽	1951. 2. 1	未 詳	大麻山395	124
一 兵	閔 泰 燮	驪 興	閔 有 植	1951. 2. 7	"	大麻山395	516

階級	姓名	本貫	父姓名	戰死年月日	戰死地	住所	備考 (登錄番號)
上兵	金萬龍	龍植	金海	1966. 2. 20	未詳	九來里780	178
兵	李炳植	載寧	李佑根	1951. 11. 25	"	九來里361	107
兵	李炳善	"	"	1950. 10. 21	"	陽谷里414	185
一兵	魯基術	安東	魯春石	1951. 9. 2	江原麟蹄	九來里43	193
"	李殷珏	全州	李世夏	1951. 6. 5	"	大浦里香洞15	183
一中兵	金在福	安東	金恒默	1951. 9. 14	서하면地區	" 343	104
一兵	蔡星鎔	平康	蔡金俊	1950. 6. 25	未詳	황골350	141
"	崔成一行	慶州	崔德行	1951. 3. 1	"	朔是397	189
上兵	崔建一行	朔寧	崔炳德	1951. 3. 22	"	"	198
二兵	李圭一	慶州	李吉榮	1951. 1. 5	"	古音達141	217
下士	崔仲九	朔寧	崔遇福	1953. 9. 14	"	柳峴里捷峴115	283
一兵	金東煥	清州	金奉春	1951. 2. 10	江原橫城	柳峴里218	517
"	河相萬	晉州	河明泓	1949. 5. 11	○○地區	馬松里106	519
一兵	李定雨	全州	李用九	1954. 12. 10	第2陸軍病院	도이곳473	200
警衛	崔允根	海州	崔三公	1951. 10. 1	○○地區	麻山里303	102
"	蔡洙寬	平康	蔡元福	1951. 8. 23	○○地區	道沙里156	201
"	禹吉命	丹陽	禹意鼎	1951. 4. 23	○○ 213	陽谷里44	145
"	尹在元	南原	尹興燮	1950. 6. 25	○○地區	鶴雲里659	181
無名勇士	陶上萬	順天	陶俊實	1950. 9. 20	高陽松浦地區	樓山里318	507
警衛	崔允根	"	子崔기덕	未詳	未詳	麻山里3011	102
下士	金병환	"	金윤수	"	"	九來里443	
一兵	崔준행	"	崔병선	1951. 9. 22	"	鶴雲里293	121
下士	임순호	"	임창기	未詳	"	興新里488	127
一兵	閔유근	"	민대봉	"	"	九來里730	177
二兵	崔중달	"	최주	"	"	席毛里536	203
中士	白형기	"	白인섭	"	"	九來里730	222
一兵	李문제	"	박선기	"	"	陽谷里44	492
중위	朴태규	"	장장금	"	"	陽谷里	503
下士	李중선	"	유부순	1951. 12. 20	"	席毛里557	
一兵	李기덕	"	김순이	1951. 1. 8	"	樓山里636	143
二兵	金재복	"	梁언년	未詳	"	大浦里343	76
兵	長조오	"	趙泰山	1951. 6. 28	"	道沙里143	522
上兵	梁승원	"	未詳	未詳	未詳	九來里	海外派遣570

부록iv | 김포 6.25전쟁 참전 전사자 현황\_ 김포군지

階級	姓 名	本貫	父 姓 名	戰死年月日	戰 死 地	住 所	備 考 (登錄番號)
下 士	李 영 수		未 詳	未 詳	未 詳	九來里 350	" 572
"	金 회 봉		"	"	"	鶴雲里105	" 573
下 士	金 기 용		"	"	"	西岩里713	海州派遣577
上 兵	전 종 갑		"	"	"	樓山里112	" 581
兵 長	양 재 선		"	"	"	九來里275	" 589
하 사	文 영 길		"	"	"	" 120	" 593
一 兵	洪 鍾 萬	南 陽	洪 在 鳳	1951. 5. 18	江 原 地 區	陽谷里448	未 登 錄
"	洪 鍾 學	"	"	1951. 9. 4	"	"	"
"	崔 鍾 植	海 州	崔 仲 善	1952. 10. 7	江 華 喬 洞	" 98	"
"	李 明 九	全 州	李 鳳 雲	未 詳	未 詳	樓山里667	"
"	李 德 九	"	"	1951. 3. 11	"	席毛里595	"
一 兵	李 起 德	"	李 啓 奉	1951. 1. 8	"	" 636	"
"	杜 炳 洙	杜 陵	杜 大 春	1950. 8. 1	"	" 791	"
下 士	李 鍾 善	驪 興	李 治 安	1951. 12. 20	"	" 557	"
一 兵	柳 海 德	晉 州	柳 一 鳳	1951. 8. 29	"	內村104	"
二 兵	閔 丙 玩	驪 興	閔 龍 雲	1950. 12. 25	江 原 金 化	小麻山	"
一 兵	閔 喜 根	驪 興	閔 大 鳳	1967. 9. 9	未 詳	九來里730	"
中 士	李 英 壽	載 寧	李 炳 浩	1967. 2. 17	越 南	九來里九芝350	"
兵 長	文 榮 吉	南 平	文 熙 宗	1971. 8. 27	"	" 가오대	"
中 士	李 孝 根	載 寧	李 河 漢	1950. 12. 15	加 平 地 區	" 127	"
"	沈 善 基	豐 山	沈 燦 瓊		未 詳	가오대305	"
中 士	裴 鳳 基	慶 州	裴 榮 泰	1973. 10. 1	江原양구地區	九來里吾羅里	"
一 兵	崔 駿 行	朔 寧	崔 炳 善	1951. 9. 22	未 詳	" 朔是397	"
二 兵	朴 云 化	密 陽	朴 守 奉	1951. 1. 8	"	鶴雲里177	"
一 兵	金 喜 俸	慶 州	金 順 宗	1967. 2. 2	越 南	三島一里	"
兵 長	李 倫 錫	丹 城	李 圭 高	1952. 7. 16	江原固城地區	柳峴里218	"
一 兵	李 永 鎭	廣 州	李 成 龍	1950. 11. 25	未 詳	馬松里322	"
"	李 秉 春	全 州	李 應 烈	1952. 3. 5	第2陸軍病院	"	"
兵 長	趙 五 錫	白 川	趙 泰 山	1951. 6. 28	未 詳	道沙里143	"
"	吳 世 英	海 州	吳 丙 煥	1952. 3. 21	中 部 地 區	" 779	"
下 士	黃 德 柱	平 海	黃 秀 萬	1951. 9. 4	未 詳	白石峴	"

階級	姓 名	本貫	父 姓 名	戰死年月日	戰 死 地	住 所	備 考 (登錄番號)
下 士	姜 錫 鎬	晉 州	姜 龍 文	1951. 5. 11	未 詳	水站235	未登錄
"	金 寧 奎	振 威	金 昌 龍	1951. 10. 8	"	" 232	"
"	金 景 壽	清 風	金 裕 昌	1951. 9. 20	江原麟蹄地區	樓山里152	"
"	柳 奉 雲	文 化	柳 允 成	1950. 6. 25	○ ○ 地 區	九來里722	"
"	金 東 錫	慶 州	金 奉 愛	1951. 2. 1	○ ○ 213 地區	" 363	"
내무부	梁 명 현		子 梁 재 호	1950. 9. 15	未 詳	九來里27	"
육 군	梁 재 산			1971. 2. 27	"	" 27	"
下 士	이 원 호		子 李 상 훈	未 詳	"	樓山里490	"
兵 長	沈 두 섭		妻 李 명 희	"	"	柳峴里367	"
"	禹 종 열		子 우 재 인	"	"	陽谷里417	"
下 士	崔 충 호		弟 崔 산 호	"	"	九來里724	"
二 兵	權 영 호		妻 李 범 연	"	"	道沙里850	"
兵 長	윤 재 복		父 尹 仁 燮	"	"	鶴雲里127	"
二 兵	朴 재 풍		子 朴 영 희	1966. 7. 14	"	陽谷里79	"

(하성면)

階級	姓 名	本貫	父 姓 名	戰死年月日	戰 死 地	住 所	備 考 (登錄番號)
一 曹	吳 喜 得	海 州	吳 泰 鉉	1951. 1. 10	麗 水 地 區	麻谷里634	133
兵 長	閔 庚 昌	驪 興	閔 庸 基	1951. 2. 6	"	" 149	483
"	閔 丙 煜	"	閔 再 容	1951.	未 詳	" 525	496
"	李 康 呼	全 州	李 奇 男	1950. 8. 22	"	石灘里577	190
兵 佐 장	李 金 萬	"	李 突 奉	1950. 9. 27	東 海 岸 地 區	" 546	176
	金 南 福	金 海	金 基 勳	1950. 10. 19	未 詳	" 282	353
	俞 在 德	杞 溪	俞 戊 吉	1950. 6. 25	"	" 232	382
一 兵	李 聖 默	全 州	李 星 伯	1950. 4. 5	蔚 山 地 區	佳金里76	179
上 兵	李 聖 九	驪 興	李 鍾 錄	1951. 7. 26	江原道西谷地區	柿岩里21	215
一 兵	金 鳳 執	慶 州	金 鴻 萬	1951. 1. 8	未 詳	" 474	165
一 兵	洪 淳 協	洪 州	洪 鍾 寬	1951. 2. 6	第3陸軍病院	" 21	214
下 士	閔 雄 基	驪 興	閔 丙 環	1952. 6. 21	楊 口 地 區	麻造里411	136
一 兵	俞 道 善	杞 溪	俞 銀 成	1951.	未 詳	" 2哩168	182
	朴 太 天	雲 峰	朴 慶 來	1952. 11. 8	金 化 地 區	佳金2里107	116

부록iv | 김포 6.25전쟁 참전 전사자 현황\_김포군지

階級	姓 名	本貫	父 姓 名	戰死年月日	戰 死 地	住 所	備 考 (登錄番號)
下 士	李 成 穆	延 安	李 楊 根	1950. 8. 25	未 詳	佳金2里 76	370
	南 宮 植	咸 悅	南 官 仁 順	1950. 10. 4	日 本	" 1129	487
	李 根 高	全 州	李 裡 泳	未 詳	未 詳	" 3里247	508
	張 錫 元	仁 同	張 奎 漢	1951. 3. 13	江 原 地 區	霞沙里99	184
	金 俊 玉	南 海	金 七 奉	1951. 1. 12	未 詳	" 233	520
	趙 有 腹	白 川	趙 載 連	1950. 6. 25	"	" 239	499
	金 貞 起	金 海	金 庚 福	1951. 7. 24	金 化 地 區	楊潭里81	524
	吳 世 奉	海 州	吳 福 成	1951. 5. 7	未 詳	" 271	195
	정 순 종		정 황 도	未 詳	"	佳金2里	150
	李 현 필		강 귀 너	"	"	柿岩里207	158
中 士	조 심 현		조 회 방	"	"	元山里	205
一 兵	李 영 규		윤 씨	"	"	石灘里540	476
상 兵	조 민 병		이 정 숙	"	"	奉城里166	482
一 兵	閔 경 호		김 창 회	"	"	麻谷里178	500
一 兵	李 근 무		兄 이 근 철	"	"	佳金里248	507
"	張 근 혁		정 문 섭	"	"	" 426	512
一 兵	여 규 정		여 호 섭	1954. 8. 20	"	佳金里488	155
一 兵	沈 燮 根		沈 和 植	1951. 8. 20	"	石灘里9	270
병 장	유 영 관		未 詳	未 詳	"	後坪里137	海外派遣 579
"	김 찬 환		"	"	"	後坪里27	" 584
一 兵	張 호 순		"	"	"	麻谷里556	" 585
中 尉	조 장 호		"	"	"	元山里	591
兵 長 上 兵	盧 雲 來	交 河	盧 承 俊	1962. 9. 19	慶北 鎭 성 지 구	" 167	未 登 錄
	洪 永 憲	豐 山	洪 興 植	1966. 7. 9	未 詳	石灘里525	"
	李 炳 基	平 昌	李 有 成	1950. 8. 27	"	本籍하정現麻浦	"
	沈 燮 根	豐 山	沈 和 植	1951. 8. 20	江 原 麟 蹄	石灘里9	"
	李 贊 煥	慶 州	金 能 元	1969. 9. 11	越 南	未 詳	"
	劉 永 寬	江 陵	劉 學 洙	1968. 4. 8	未 詳	後坪27	"
	朴 泰 雄	雲 峰	朴 恒 來	1963. 8. 10	"	" 177	"
	金 基 俊	慶 州	金 得 春	1950. 6. 25	"	" 160	"
	洪 淳 德	洪 州	洪 鍾 勳	1951. 5. 6	"	永登浦九老洞72	"
	下 士	鄭 振 燮	草 溪	鄭 寅 德	1951. 4. 22	"	後坪里235
	梁 在 龍	南 原	梁 命 煥	1953. 7. 12	金 化 地 區	永登浦九老洞20-3	"

階級	姓名	本貫	父姓名	戰死年月日	戰死地	住所	備考 (登錄番號)
一兵	崔仁泰	慶州	崔乘烈	1951.		柿岩里140	未登錄
	朴益來	雲峰	朴永穆	"	中部戰線	麻造里168	"
	朴元來	"	朴永華	1952.	白馬高地	"	"
中尉	張杞赫	仁同	張雲澤	1951. 1. 1	未詳	佳金里	"
	李根茂	全州	李泰泳	1950. 6. 25	未詳	佳金3里	"
	沈雨澤	青松	沈道成	1976. 3. 13	首都統合病院	永登浦시흥동1345	"
	呂奎貞	咸陽	呂浩燮	1954. 8. 20	未詳	佳金里488	"
	趙張鎬	平壤	趙載贊	1971. 3. 14	越南	元山里270	"
	張錫正	仁同	張奎漢	1951. 3. 13	江原地區	霞沙里99	"
	朴德遠	密陽	朴容建	1950. 6. 25	未詳	" 231	"
	權廷澤	安東	權彝天	1950. 7. 30	"	" 111	"
	申昇雨	高靈	申休	1952. 4. 28	金城地區	顛流里121	"
	金得秋	海豐	金龍鍾	1957. 4. 8	未詳	麻造里184	"
上士	李載明	全州	李仁應	1951. 3. 25	江原地區	石灘里303	"
	홍영희		子 홍기운	1966. 7. 9	未詳	石灘里525 現道沙340	"
一中	黃영남		妻李순남	1953. 7. 26	"	柿岩里339 現北邊里185	"
下士	金장균		金원중	1950. 7. 14	"	佳金里235 現郡下100-4	"
	成성모		成낙원	未詳	"	現郡下31	"

## (김단면)

階級	姓名	本貫	父姓名	戰死年月日	戰死地	住所	備考 (登錄番號)
下士	李雲雨	慶州	李龍山	1952. 7. 25	未詳	旺吉里293	235
	沈建植	忠州	沈始九	1950. 6. 25	○○地區	" 79	329
一兵	林鍾國	羅州	林俊圭	1951. 9. 8	가전리地區	麻田里170	319
下士	張慶燮	德水	張萬福	1954. 5. 13	江原地區	" 157	233
一兵	林普圭	羅州	林壽奉	1952. 5. 7	동부지구	麻田里170	234
下士	孫相龍	慶州	孫昌勳	1950. 7. 2	○○地區	梧柳里610	258
一兵	徐相文	長城	徐基元	1951. 4. 2	"	堂下里633	297
二兵	李允鐵	全州	李喆行	1953. 6. 3	"	" 639	239
	李淳觀	"	李淳益	1950. 12. 3	"	" 633	238
上兵	李誠旭	"	李珠衡	1951. 2. 7	"	麻田里574	90

부록Ⅳ | 김포 6.25전쟁 참전 전사자 현황\_ 김포군지

階級	姓 名	本貫	父 姓 名	戰死年月日	戰 死 地	住 所	備 考 (登錄番號)
上 兵	洪 在 春	南 陽	洪 俊 燮	1950. 4. 7	江 陵 地 區	麻田里3 580	278
一 兵	許 稔	陽 川	許 津	1951. 7. 3	越 南	439	379
"	南 萬 福	宜 寧	南 相 德	1950. 1. 4	○ ○ 地 區	元堂里588	335
下 士	李 忠 煥	全 州	李 應 杓	1954. 5. 23	○ ○ 地 區	# 529	310
下 士	朴 義 緒	潘 南	朴 勝 福	1950. 6. 27	웅 진 地 區	大谷里	369
一 兵	朴 勝 俊	"	朴 鳳 陽	1950. 7. 3	智 異 山 地 區	# 277	173
"	李 鍾 八	慶 州	李 圭 山	1950. 10. 9	江 原 道 地 區	梧柳里245	304
兵 長	許 楠	楊 州	許 大 石	1951. 9. 2	○ ○ 地 區	元堂里195	309
一 兵	李 鍾 福	慶 州	李 圭 天	1950. 12. 1	江 原 地 區	梧柳里459	305
下 士	李 載 淳	固 城	李 鍾 華	1953. 6. 17	"	元堂里1-670	241
"	李 建 燮	"	李 今 泰	1952. 1. 2	"	# 3里670	364
"	李 淳 澤	"	李 連 玉	1951. 9. 6	"	# 1-667	306
"	李 長 淳	"	李 鍾 完	1951. 4. 6	"	# 697	391
兵 長	李 韓 玉	"	李 永 鎬	1951. 9. 30	○ ○ 地 區	不老里230	360
一 兵	金 秉 國	豐 山	金 洛 慶	1951. 1. 6	"	不老里248	371
一 等 中 士	尹 在 錄	南 原	尹 仁 燮	1961. 9. 1	"	旺吉里370	131
一 等 兵	趙 晶 彙	白 川	趙 浩 春	1950. 7. 9	"	梧柳里548	202
上 等 兵	韓 相 周	清 州	韓 廷 洙	1950. 9. 7	"	麻田里504	225
一 兵	李 貴 鉉	長 水	李 基 永	1950. 6. 27	黃 海 道 地 區	金谷里187	332
兵 長	許 鍊 陽	陽 川	許 圭	1950. 8. 27	○ ○ 地 區	麻田里578	307
"	金 壽 榮	清 風	金 洪 俊	1951. 3. 21	全 州 地 區	# 570	227
二 中	趙 遠 默	白 川	趙 敦 九	1950. 11. 7	○ ○ 地 區	大谷里393	362
一 兵	洪 淳 行	南 陽	洪 鍾 萬	1950. 11. 26	"	麻田里265	361
"	安 漢 燮	順 興	安 昌 山	1950. 7. 9	○ ○ 地 區	元堂里	445
下 士	金 永 大	金 海	金 周 鉉	1951. 9. 1	白 馬 高 地	堂下里 807	245
"	文 萬 植	南 平	文 成 根	1950. 5. 5	○ ○ 地 區	不老里 392	416
兵 長	文 永 安	"	文 吉 福	1953. 1. 17	金 化 地 區	不老里 91	294
一 兵	李 德 順	全 州	李 甲 東	1950. 6. 28	黃 海 道 地 區	金谷里 91	355
上 兵	金 慶 采	金 海	金 濟 賢	1950 7. 5	全 州 地 區	# 39	339
一 兵	權 完 安	東 權	權 聖 善	1950. 6. 25	○ ○ 地 區	不老里 649	322
下 士	李 淳 榮	全 州	李 鶴 鎮	1953. 11. 2	平 康 地 區	堂下里 76	275
一 兵	朴 金 龍	潘 南	尹 蘭 當	1951. 3. 28	黃 海 道 地 區	旺吉里 579	351
兵 長	許 贊 會	陽 川	許 淳	1970. 4. 1	趙 南	元堂里 347	海外派遣590

階級	姓 名	本貫	父 姓 名	戰死年月日	戰 死 地	住 所	備 考 (登錄番號)
上 兵	金 영 규		金 명 옥	未 詳	未 詳	金谷里 610	387
上 兵	李 상 업		子 李 기 선	"	"	元堂里 58	" 230
下 士	이 형 근		김 정 임	"	"	堂下里 680	247
"	이 새 근		이 영 숙	"	"	不老里	260
一 兵	김 정 기		조 씨	"	"	" 230	276
"	申 현 칠		김 개 남	"	"	金谷里 403	289
二 兵	金 일 동		채 삼 임	"	"	旺吉里 587	293
一 兵	金 귀 복		최 회 자	"	"	" 122	333
"	유 옥 수		유 순 업	"	"	大谷里 109	340
中 尉	朴 찬 회		박 성 서	"	"	梧柳里 661	373
一 兵	李 종 린		李 종 훈	1951. 1. 19	"	" 464	384
一 兵	許 문 의		허 문 희	未 詳	"	元堂里 195	398
"	申 현 수		이 정 숙	"	"	金谷里 390	412
上 兵	李 忠 안		이 태 응	"	"	麻田里 496	413
一 兵	李 영 진		이 철 옥	"	"	梧柳里 480	509
一 兵	李 鍾 玄	慶 州	李 圭 煥	1950. 12. 12	江 原 地 區	梧柳里 464	未登錄
二 等 中 士	尹 仁 燮	原 州	尹 桂 榮	1951. 9. 30	未 詳	旺吉里 379	"
	金 洛 樹	豐 山	金 珪 欽	1949. 7. 25	開 城 地 區	" 87	"
	金 貴 衿	金 海	金 敬 國	1951. 12. 29	江 華 地 區	" 122	"
下 士	羅 壽 福	羅 州	羅 丙 基	1969 5. 22	○ ○ 地 區	" 157	"
	申 榮 雨	高 靈	申 學 休	1951. 4. 2	○ ○ 地 區	麻田里 606	"
	沈 雙 青	松 川	沈 相 俊	1951. 9. 2	智 異 山 地 區	堂下里 533	"
	許 光 旭	陽 川	許 春 基	1950. 4. 3	○ ○ 地 區	元堂里 188	"
兵 長	金 秉 國	豐 山	金 洛 應	1951. 1. 16	○ ○ 地 區	大谷里 248	"
"	金 正 基	金 海	金 思 德	1950. 6. 25	○ ○ 地 區	麻田里 545	"
一 等 兵	李 榮 俊	慶 州	李 喆 旭	1953. 12. 2	江 原 道 地 區	旺吉里 579	"
"	李 相 浩	"	李 喜 雨	1950. 12. 9	"	" 241	"
下 士	李 永 淳	固 城	李 福 龍	1950. 6. 25	"	元堂里1-667	"
一 兵	朴 萬 石	密 陽	朴 南 山	1951. 10. 10	陸 軍 病 院	元堂里 58	"
一 兵	李 增 韓	廷 安	李 思 默	1951. 10. 4	江 原 地 區	麻田里 478	"
	柳 應 秀	文 化	柳 順 熙	1950. 10. 3	○ ○ 地 區	大谷里 393	"
	洪 淳 元	南 陽	洪 石 崇	1950. 8. 15	○ ○ 地 區	麻田里	"
	金 世 莞	金 海	金 興 龍	1950. 6. 27	白 川 地 區	梧柳里 182	"

階級	姓 名	本貫	父 姓 名	戰死年月日	戰 死 地	住 所	備 考 (登錄番號)
	柳 美 英	晉 州	柳 錫 陽	1951. 5. 18	○○地區	大谷里 504	未登錄
	鄭 明 來	延 日	鄭 海 昌	1951. 2. 4	"	" 520	"
	文 來 寬	南 平	文 吉 福	1951. 8. 25	노천평리	不老里 398	"
	朴 信 義	密 陽	朴 商 根	1951. 4. 29	未 詳	" 339	"
	李 時 根	慶 州	李 淳 明	1951. 9. 14	송치地區	"	"
	崔 益 鍾	朔 寧	崔 商 用	1951. 1. 4	마산地區	" 436	"
	文 鍾 植	南 平	文 乘 者	1951. 4. 2	○○地區	"	"
	權 忠 山	安 東	權 去 圭	1953. 7. 9	金化地區	堂下里 204	"
上 兵	咸 英 煥	江 華	咸 舜 根	1950. 6. 28	黃海道地區	金谷里 486	"
下 士	文 炳 현		母 許 상 갈	未 詳	未 詳	不老里 398	"
兵 長	文 炳 安		母 許 상 갈	"	"	"	"
一 兵	권 용		弟 권 필	1951. 4. 31	"	" 649	"
上 兵	沈 昌 식		母 정 치 너	未 詳	"	旺吉里 71	"
"	宋 영 권		母 손 순 옥	"	"	" 79	"
二 等 上 士	李 宗 록		長男 李 광 수	"	"	" 3152	"
下 士	金 기 득		長男 金 준 용	"	"	" 122	"
上 兵	羅 炳 수		羅 상 복	"	"	麻田里 170	"
兵 長	申 태 환		子 申 명 균	"	"	金谷里 388	"
總 警 務 官	沈 浩 섭		長男 沈 제 국	1951. 9. 3	"	堂下里 533	"
二 兵	朴 명 근		子 朴 영 화	1951. 1. 15	"	麻田里 102	"
上 兵	李 창 호		弟 李 창 복	1967. 7. 7	"	梧柳里 480	"
二 兵	朴 찬 후		父 朴 화 서	未 詳	"	" 667	"
下 士	李 승 택		妻 유 입 분	"	"	金谷里 103	"
下 士	李 世 근		父 李 순 명	1951. 9. 14	"	不老里 521	"
	李 장 손		母 노 춘 자	"	"	元堂里 693	"

(고촌면)

階級	姓 名	本貫	父 姓 名	戰死年月日	戰 死 地	住 所	備 考 (登錄番號)
一 兵	奇 允 福	幸 州	奇 龍 雲	1950. 6. 25	未 詳	香山里 109	394
一 兵	李 明 天	全 州	李 成 烈	1951. 3. 6	江原巨子里地區	台里 1015	357
二 兵	李 康 弼	全 州	李 成 儀	1951. 1. 10	未 詳	台里 1015	262
兵 長	林 圭 敏	慶 州	林 鍾 煥	1952. 1. 12	全北龜林地區	新谷里 387	279
上 兵	金 雄 經	慶 州	金 貳 萬	1968. 3. 30	越 南	" 435	海外派遣578
一 兵	趙 富 澹	白 川	趙 鍾 陸	1951. 8. 12	未 詳	楓谷里 269	269

階級	姓名	本貫	父姓名	戰死年月日	戰死地	住所	備考 (登錄番號)
上兵	金乘云	豐山	金吉福	1951. 7. 15	未詳	楓谷里 405	285
徵用	趙慶濬	白川	趙鍾福	1953. 8. 22	江原華川地區	" 151	378
一兵	金順鍾	光山	金在萬	1951. 4. 23	未詳	錢湖里 1	150
少尉	尹建鎬	南原	尹在龍	1952. 6. 5	江原麟蹄地區	新谷里 481	240
一兵	沈在慶	青松	沈龍燮	1950. 12. 4	未詳	" 541	310
下士	金振昇	慶州	金令龍	1951. 4. 15	江原麟蹄地區	台里 957	302
兵	趙東出	白川	趙能光	1949. 10. 4	開城道立病院	台里 291	352
一兵	趙鎮國	白川	趙英增	1951. 6. 25	未詳	新谷里 884	328
下士	安興圭	順興	安炳龍	1953. 7. 22	首都陸軍病院	錢湖里 608	323
一兵	李炳玉	全州	李商浩	1951. 6. 25	未詳	" 611	350
下士	金湘殷	清道	金正成	1951. 12. 6	全北地區	台里 604	321
一兵	朴柄學	密陽	朴連順	1951. 4. 7	未詳	" 1016	232
"	金東植	金海	張于仙	1951. 3. 8	"	新谷里 391	327
二兵	朴建咸	密陽	朴大吉	1951. 3. 8	"	香山里 109	273
下士	金起聲	慶州	金自斤	1951. 3. 8	江原寧子地區	錢湖里 4	389
兵	金正烈	"	金東壽	1951. 5. 1	未詳	台里 1019	331
一兵	鄭學雲	清水	鄭豐一	1950. 6. 25	未詳	新谷里 62	317
一兵	姜大教	晉州	姜崔興燮	1951.	"	香山里 109	236
兵	李壽男	全州	李聖龍	1950. 6. 25	江原地區	台里 186	337
二兵	金振碩	江陵	金壽鄉	1950. 6. 25	未詳	" 134	338
二兵	全鍾杓	旌善	金浩烈	1951. 2. 11	"	新谷里 558	263
一兵	宋堯哲	礪山	宋基榮	未詳	未詳	" 136	325
上兵	奇鍾度	幸州	奇宇榮	1961. 4. 15	江原麟蹄地區	台里 1015	392
一兵	金仁錫	慶州	金富成	1951. 1. 16	江原地區	新谷里 391	346
兵	李종한	"	임글원	"	"	"	271
一兵	金子섭	"	김병희	"	"	新谷里 821	368
兵	나동완	"	이이순	未詳	未詳	新谷里 891	372
一少尉	이상준	"	천이분	"	"	香山里 19	380
兵	이영생	"	이정만	"	"	錢湖里 4	381
徵用	조경준	"	권집순	"	"	新谷里 151	399
兵	李성만	"	未詳	"	"	台里 151	海外派遣571
下士	朴만석	"	이순안	"	"	香山里 109	231
兵	金龍雄	金海	金東洙	1951. 1. 20	"	香山里	未登錄
兵	李梁漢	全州	李上峯	1949. 11. 25	嶺南地區	台里 1015	"

階級	姓 名	本貫	父 姓 名	戰死年月日	戰 死 地	住 所	備 考 (登錄番號)
二 兵	朴 賢 元	潘 南 川	朴 大 點	1951. 5. 18	未 詳	台里 1015	未登錄
	許 籊 五	陽 海	許 倬 成	1951. 9. 1	"	"	"
	金 順 均	金 平 山	金 春 泰	1951. 8. 19	"	新谷理 85	"
	申 喆 俊	文 化 柳	申 得 秀	1950. 8. 12	"	" 345	"
	柳 孝 起	文 南 原	柳 得 在	1951. 4. 22	"	" 387	"
一 兵	尹 建 煥	南 慶 州	尹 衡 春	1950. 6. 25	"	錢湖里 18	"
	林 忠 熙	延 安	李 乘 德	1954. 2. 16	"	新谷里 884	"
一 兵	金 起 讚	江 陵	金 振 喆	1951. 1. 16	"	台里 209	"
	李 相 天	全 州	李 丁 萬	1951. 10. 16	京畿漣川地區	錢湖里 4	"
兵 長	李 聖 萬	全 州	李 言 成	1966. 3. 23	越 南	台里 595	"
下 士	金 大 北	全 州	金 聖 任	1951.	未 詳	楓谷里 365	"
	李 興 錫	全 州	李 喜 福	1951. 8. 15	三外病地區	台里 35	"
大 領	李 康 範	"	李 起 學	1951. 8. 26	江原楊口地區	楓谷里 107	"
	尹 在 哲	南 原	尹 剛 燮	1951.	江 原 地 區	新谷 603	"

(대곳면)

階級	姓 名	本貫	父 姓 名	戰死年月日	戰 死 地	住 所	備 考 (登錄番號)
一 兵	林 秉 敦	平 澤	林 德 潤	1951. 2. 20	無 名 高 地	大陵里 491	111
"	金 容 善	光 山	金 剏 芑	1950. 8. 17	"	大碧里 302	533
"	韓 鐘 祿	淸 州	韓 圭 桓	1953. 3. 18	金 化 地 區	藥岩里 535	404
二等中士	韓 箕 植	"	韓 重 河	1951. 4. 22	無 名 高 地	"	98
二 兵	韓 南 燮	"	韓 金 植	1951. 9. 13	加 田 里 地 區	上馬里 303	489
二 兵	李 河 完	丹 城	李 亨 錫	1951. 8. 13	"	栗生里 556	490
下 士	李 河 全	丹 城	李 大 錫	1951. 2. 2	原 州 地 區	栗生里 509	119
二 兵	李 甲 錫	丹 城	李 孝 春	1951. 2. 12	無 名 高 地	" 464	535
二等中士	金 正 洙	金 海	金 泰 榮	1953. 7. 15	"	松麻里6	103
一 兵	朴 昇 均	密 陽	朴 泰 根	1951. 6. 8	無 名 高 地	栗生里	534
勞務者	李 河 程	丹 城	李 衡 錫	1951. 3. 15	濟 州 道	"	192
一 兵	柳 光 烈	文 化	柳 根 明	1951. 5. 1	無 名 高 地	" 460	298
二 兵	李 學 錫	丹 城	李 孝 貞	1951. 5. 20	"	" 467	513
一 兵	李 仁 根	全 州	李 河 龍	1952. 6. 12	"	草元芝里	117
二 兵	崔 鍾 義	耽 津	崔 承 教	1951. 1. 3	無 名 高 地	巨勿岱里	521
一 兵	李 永 宰	全 州	李 康 麟	1950. 6. 25	"	吾尼山里 171	202
二等中士	李 振 國	全 州	李 悅 根	1953. 10.15	松 炭 里 地 區	佳峴里 696	188

階級	姓 名	本貫	父 姓 名	戰死年月日	戰 死 地	住 所	備 考 (登錄番號)
一等中士	林 容 吉	扶 安	林 仁 模	1951. 5. 6	金 化 地 區	佳峴里 276	504
一 兵	林 權 寧	安 東	林 權 泰 萬	1951. 4. 10	江 原 地 區	大明里 76	174
下 士	吳 章 石	海 州	吳 銀 奉	1951. 7. 22	"	松麻里 883	495
警 査 兵	金 鳳 化	光 州	金 信 建	1951. 5. 20	富 平 地 區	" 8	147
一 兵	金 權 寧	得 安	金 權 聖 用	1951. 2. 28	無 名 高 地	"	186
"	金 仁 龍	清 道	金 甲 東	1953. 4. 20	麟 蹄 地 區	" 885	149
"	金 建 春	金 海	金 昌 孫	1950. 6. 25	殉 職 (華 川)	"	170
"	文 柄 烈	南 平	文 龍 福	1951. 5. 22	洪 川 地 區	石井里	135
"	盧 亨 來	交 河	盧 承 鳳	1951. 8. 21	端 和 地 區	"	171
下 士	林 容 奎	扶 安	林 義 模	1953. 7. 21	金 化 地 區	石 井 里	126
徵 用 士	文 龍 雙	南 平	文 元 興	1953. 5. 20	無 名 高 地	" 189	529
下 一 海 兵	朴 容 徹	扶 安	林 賢 模	1953. 7. 18	金 城 地 區	碎岩里 409	506
一 下 士	崔 容 晏	海 州	崔 上 烈	1953. 4. 20	甲 學 校	"	510
一 下 士	朴 冕 基	扶 安	林 憲 壽	1950. 6. 25	無 名 高 地	石井里 325	128
"	李 正 熙	延 達	李 義 道	1951. 4. 24	"	"	345
"	徐 相 起	載 寧	徐 用 國	1951. 9. 14	高 城 地 區	新雁里 240	494
"	徐 相 俊	"	徐 用 根	1951. 9. 19	"	" 240	167
一 巡 中 一 二 一 中 二 三 一 下 兵	李 弼 洙	載 寧	李 炳 斗	1951. 4. 20	"	" 242	168
警 尉 兵	金 鍾 炳	金 載 靑	金 甲 順	1950. 6. 25	서 울	" 498	280
一 兵	李 炳 桓	靑 松	李 順 燮	1959. 12. 7	無 名 高 地	大明里 67	532
一 二 一 中 二 三 一 下 兵	李 宗 갑	"	子 李 성 재	1950. 10. 29	"	大陵里 63	146
一 兵	李 宗 훈	"	황 송 진	1951. 2. 12	未 詳	大陵里 397	108
中 二 三 一 下 兵	沈 上 軍	"	송 정 순	"	"	大陵里 77	152
二 三 一 下 兵	林 宗 先	"	최 음 전	"	"	" 141	169
一 下 兵	金 南 勳	"	金 邑 分	"	"	" 525	207
一 下 兵	權 英 勳	"	장 금 순	"	"	松麻里 425	209
一 下 兵	李 철 인	"	崔 우 자	"	"	大陸里 373	210
"	李 현 규	"	金 自 斤 阿 其	"	"	" 271	211
兵 長	李 英 濟	"	이 부 남	"	"	碎岩里 305	219
二 一 兵	李 炳 柱	"	이 명 희	"	"	佳峴里 368	261
一 二 兵	李 文 亨	"	권 옥 희	"	"	松麻里 463	408
警 用 兵	崔 文 亨	"	최 명 기	"	"	大陵里 178	502
一 兵	李 圭 烈	"	김 상 래	"	"	新雁里 250	528
"	崔 人 泰	"	崔 秉 烈	1951.	"	柿岩里 149	139
"	韓 相 春	清 州	韓 慶 洙	未 詳	越 南	石井里	海外派遣138

階級	姓名	本貫	父姓名	戰死年月日	戰死地	住所	備考 (登錄番號)
兵長	李義七	延安	李範寧	未詳	越南	石井里	588
中士	金興洙	金海	金鍾玉	1972.	"	大明里	594
中士	金冠옥	"	"	"	"	藥岩里 60	583
	金演弘	安東	母한인임	1951. 11. 27	楊口地區	大碧里 512	未登錄
二等中士	李起鳳	全州	李景玉	1951. 3. 10	大和地區	"	"
一兵	盧鳳煥	交河	盧春世	1951. 2. 17	無名高地	大碧里	"
"	安榮薰	延安	安壽東	1951. 2. 17	"	"	"
"	金興天	慶州	金時興	1951. 4. 24	원릉	藥岩里 37	"
准尉	文基萬	平南	文德成	1955. 3. 18	"	" 535	"
下士	韓鍾變	清州	韓泰植	1951. 8. 27	端和地區	" 535	"
一兵	朴容學	密陽	朴載錫	1951. 9. 13	江原地區	上馬里	"
下士	李河洙	丹城	李定錫	1951. 8. 13	加田里地區	栗生里 494	"
"	李河北	"	李鳳錫	1950. 6. 27	永登浦地區	" 464	"
二海兵	李永在	載寧	李炳熙	1953. 7. 4	隴川地區	栗生里 464	"
二兵	金天鶴	清州	金興山	1951. 1. 21	無名高地	"	"
"	李繼錫	丹城	李孝貞	1951. 5. 20	"	" 467	"
"	方秋變	金泉	方仁煥	1951. 3. 10	"	草元芝里	"
一等中士	許松陽	陽川	許泰肅	1950. 11. 22	"	"	"
一兵	林榮根	扶安	林春基	1951. 2. 3	"	"	"
二兵	李完淳	廣州	李石台	1952. 2. 15	"	"	"
二等中士	金振斗	元山	金鳳承	1952. 3. 22	金化地區	"	"
兵長	李哲河	全州	李三俊	1969. 7. 19	号項地區	"	"
上兵	許秀亨	陽川	許龍根	1972. 10. 2	清平地區	"	"
下士	沈春變	青松	沈相龍	1951. 10. 1	白石山地區	巨勿岱里	"
一兵	崔律教	耽津	崔柄億	1951. 5. 21	加平地區	"	"
"	崔鍾武	"	崔進教	1951. 1. 1	廣原地區	"	"
下士	崔鍾賢	"	"	1953. 7. 2	金化地區	"	"
一兵	韓慶變	清州	韓萬植	1953. 2. 20	無名高地	吾尼山里	"
一兵	韓雁變	清州	韓萬植	1953. 5. 20	無名高地	吾尼山里	"
"	許林	陽川	許泰賢	1951. 8. 20	"	"	"
"	金星來	慶川	金鳳祿	1960. 2. 19	"	"	"
二兵	金相雲	"	金慶祿	1950. 6. 25	"	" 95	"
一兵	申良均	平山	申能秀	1951. 7. 3	楊口地區	佳峴里 127	"
二兵	申台均	平山	申能秀	1952. 4. 8	抱川地區	佳峴里 127	"
	李文在	全州	李振天	1951. 4. 6	양양地區	佳峴里 658	"

階級	姓名	本貫	父姓名	戰死年月日	戰死地	住所	備考 (登錄番號)
	申元秀	平山	申厚永	1953. 10. 10	金化地區	佳峴里 122	未登錄
	金仁春	清道	金甲東	1951. 9. 11	江原地區	松麻里 883	"
一等中士	李昌熙	延安	李義模	1951. 8. 14	無名高地	" 64	"
下士	沈萬燮	青松	沈相賢	1951. 5. 9	加平地區	" 528	"
"	劉龍燮	江陵	劉山業	1951. 5. 20	江原地區	" 4435	"
"	金輔先	金海	金順德	1951. 4. 19	江原地區	" 883	"
二兵	劉學信	江陵	劉恒夢	1951. 6. 13	無名高地	"	"
一兵	李柄鎬	載寧	李榮根	1951. 5. 10	麟蹄地區	松麻里 185	"
一兵	文學模	南平	文今順	1953. 6. 3	金化地區	石井里	"
一等中士	林容一	扶安	林賢模	1953. 7. 19	白岩山地區	石井1里	"
一海	林昌模	"	林英錫	1953. 6. 29	漣川地區	碎岩里 409	"
一等中士	林賢基	"	林容鳳	1954. 11. 3	楊口地區	"	"
二海	金南室	光山	金潤雨	1954. 5. 31	海洋地區	"	"
一兵	金泰英	"	金南玄	1951. 3. 20	無名高地	石井里	"
"	林寬基	扶安	林容寬	1951. 6. 4	"	"	"
"	林容基	"	"	1951. 5. 20	"	"	"
"	李炳泰	載寧	李昶根	1951. 8. 28	麟蹄地區	新雁里	"
"	李炳薰	"	李禹根	1951. 4. 6	無名高地	大明里	"
二等中士	李炳哲	載寧	李落洙	1951. 9. 14	"	"	"
一兵	權寧煥	安東	權泰鶴	1951. 5. 19	"	"	"
"	尹龍弼	坡平	尹箕模	1957. 7. 11	"	"	"
准尉	趙鳳秀	豐壤	趙鍾熙	1953. 12. 7	鐵原地區	"	"
上兵	李範萬	載寧	李炳圭	1964. 7. 13	無名高地	"	"
"	韓相烈	清州	韓光洙	1969. 11. 4	"	"	"
一兵	韓承烈	"	韓上錫	未詳	"	"	"
一兵	車德夏	延安	車春協	1950. 6. 25	"	"	"
上兵	金인준	"	金인제	1951. 9. 1	未詳	松麻里885	"
下士	文병돈	"	문윤기	未詳	"	石井里189	"
上兵	李동석	"	李조현(父)	未詳	"	大陵里207	"
"	李범수	"	李병규(父)	1964. 7. 13	"	大明里200	"
下士	韓남섭	"	韓금植(父)	未詳	"	上馬里303	"
一兵	이문재	"	李원재(弟)	"	"	佳峴里658	"
"	金세용	"	金재선(父)	"	"	碎岩里863	"
二兵	李종갑	"	李성재(子)	1951. 2. 12	"	大陵里397	"

階級	姓, 名	本貫	父姓名	戰死年月日	戰死地	住所	備考 (登錄番號)
一兵	임용관		具정님(妻)	未詳	未詳	碎岩里161	未登錄
"	최병용		崔창행(子)	1951. 2. 12	"	大陵里379	"
"	申원수		申후영(父)	1953. 10. 10	"	佳峴里21	"

(김포읍)

階級	姓名	本貫	父姓名	戰死年月日	戰死地	住所	備考 (登錄番號)
下士	盧鳳國	慶州	盧壽明	1951. 3. 20	江原鐵原	雲陽54 1146	312
"	杜鉉喆	杜陵	杜仲彥	1952. 4. 19	"	" 1125	348
一中	李德奉	遂安	李點山	1950. 3	"	坎井3里492	251
"	李相連	慶州	李吉山	1952. 2	"	坎井里	291
下士	李漢吉	全州	李命鎬	1956. 6	"	"	318
一兵	車慶善	延安	車春應	1958.	○○地區	" 383	265
下士	沈鉉璟	禮山	沈聖大	1950. 11. 2	"	雲陽里152	334
"	李具知	全州	李東昌	1951. 6. 1	江原三陟地區	" 28	308
"	呂奎澤	咸陽	呂喜得	1953. 6. 15	○○地區	" 2里188	374
"	梁薰錫	南原	梁在德	1953. 5. 10	"	"	264
一兵	李儀洙	全州	李潤鍾	1950. 8. 20	江原地區	場基1里1200	257
下士	申世澈	平山	申鉉九	1952.	"	豐舞2里	249
中士	方弘喆	安山	方南壽	1953. 9. 4	"	傑浦1里	407
"	李弘錫	"	李孝直	1952. 4. 8	"	"	406
兵長	金鍾學	金海	金亨培	1950. 6. 25	○○地區	北邊3里329	405
少領	金明中	光山	金熙善	1950. 6. 30	富平地區	"	1
上兵	李丙直	牛峰	李忠九	1950. 1. 20	江原地區	" 325-5	403
警査	禹浩根	丹陽	禹京洙	1948. 5. 5	江華良道面	" 237	402 九月山部隊
巡警	白光鉉	水原	白斗根	1950. 6.30	水原地區	北邊里	229
兵長	羅吉燮	羅州	羅翼煥	1951. 3	江原地區	沙隅里401	313
二兵	金基澤	慶州	金鍾順	1951. 4	江原地區	沙隅2里420	401
下士	陶鍾煥	順天	陶興周	1952. 4. 2	"	雲陽3里897	365
"	李榮鎬	高城	李水玉	1952. 10. 7	"	"	396
上兵	金榮雲	慶州	金月山	1953. 8.10	"	雲陽2里	344
一兵	鄭萬孫	"	鄭允西	1951. 2	智異山地區	" 414	259
"	朴長壽	密陽	朴月奉	1951. 3	"	" 411	366
兵長	金東基	慶州	金泰孫	1950. 8	京畿地區	北邊 375	290

階級	姓名	本貫	父姓名	戰死年月日	戰死地	住所	備考 (登錄番號)
上兵	金昌龍	慶州	金壁芑	1951. 2	江原地區	北邊里	411
一兵	金龍杓	"	黃禧植	1950. 6.25	"	" 377	242
上兵	金正益	金海州	金自勤	1950. 8.15	○○地區	" 411	341
一兵	金德潤	海州	催洙喆	1952. 8	○○地區	"	367
少尉	石斗均	忠州	石在煥	1950. 4	永川地區	"	342
下士	柳根永	文化	柳必洙	1952. 7	東部戰線	沙隅1里76	299
二中	黃儀天	德水	黃光世	1950. 8.24	"	" 111	237
下士	柳根培	江陵	柳慶洙	1953. 1	"	" 109	393
一兵	洪會鎬	南陽	洪俊萬	1951. 7	"	沙隅1里111	375
"	李庸鎬	延安	李俊熙	1953. 1	"	"	296
下士	李基東	全州	李炳景	1953. 9	江原地區	坎井1里10	330
兵長	劉鍾雲	江陵	劉大奉	1951. 1. 4	金海地區	傑浦西村301	226
下士	姜吉馨	晉州	姜昌永	1950. 6. 18	江原地區	豐舞6里547	314
國民兵	林鍾徹	羅州	林尙祿	1950. 10. 7	○○地區	豐舞6里624	292
中尉	李源奕	全州	李載根	1951. 11. 27	陸軍5105部隊	"	358
一兵	陶應俊	順天	陶弘來	1952. 9. 4	江原地區	雲陽3里776	356
上兵	方熙泳	安山	方芑順	1951. 2	"	傑浦里309	400
兵長	文殷用	南平	文奉山	1951. 1. 1	"	北邊1里	286
二兵	黃允洙	長水	黃南山	1952. 3	"	"	363
上兵	李令福	延安	李千萬		未詳	雲陽里	397
一兵	姜哲秀	晉州	姜聖根		○○地區	坎井里	383
下士	朴홍운		김예순		未詳	場基里451	248
"	宋요흥		조순임		"	沙隅里	232
"	張경환		김은정		"	北邊里303	287
"	李강범		정기순		"	豐舞里107	288
兵長	유지현		이우윤	未詳	"	場基里954	311
"	徐규호		서수창	"	"	" 446	315
下士	金기만		나갑진	"	"	豐舞里292	324
"	金조찬		김씨	"	"	坎井里427	326
二中	朴영준		박순근	"	"	傑浦里359	336
"	李준기		이학순	"	"	雲陽里392	354
下士	崔창석		이득순	"	"	" 600	359
一等水兵	李귀만		김남자	"	"	坎井里502	376

階級	姓 名	本貫	父 姓名	戰死年月日	戰 死 地	住 所	備 考 (登錄番號)
警 衛 兵 長 #	李 무 경		이 옥 진	未 詳	未 詳	北邊里404	385
	方 흥 선		方 집 익	"	"	傑浦里2	410
	金 낙 진		未 詳	"	"	豐舞里261	海外派遣 兵士576
	李 文 結		李 明 吉	1968. 4. 14	越 南	北邊一里113	# 580
	李 상 춘	全 州	未 詳	未 詳	"	" 337	# 582

### 고 김덕문 외 12용사 공적비

위 치 : 김포군 김포읍 북벌리 산 26  
 건립년월일 : 1978년 9월 28일 ○건립자 : 김포군  
 현 상 : 기반높이 0.35미터 비 높이 2.04미터 경역면적 30평  
 모 형 : 비 모형은 일반적인 한국 묘비형임.  
 건립개요 : 1950년 6월 25일 북한 괴뢰 집단의 불법 남침으로 이곳이 적 치하에 있을 때 구국 애족과 향토 수호의 일념에 불타는 김덕문 외 12용사는 공산 괴뢰 집단을 분쇄하고자 반공 투쟁을 하다가 무참히 학살 되었음.  
 그들의 숭고한 정신과 영령을 위로하고자 이 공적비를 세움.  
 진 과 : ○6.25동란 당시 적의 통신망 파괴 분쇄  
 ○대민 모략 선전 분쇄  
 ○의용군 강제징발 사전탐지 대상자 사전도피  
 ○유엔군 인천 상륙에 따른 북괴군 패잔병 다수 사살 및 군내 치안유지  
 ○북괴군이 퇴각시 김포읍 장노교회 옥상에 붙은기를 계양하여 민심이 동요함에 분개한 이들(김덕문 외 12용사)은 이를 철거하던 중 잠복중이던 북괴군에게 포위되어 중과 부족으로 피남 연행도중 고양군 송포면 법곡리 지검에서 무참히 집단 학살 당함.

고 김덕문의 12용사공적비문

階級	姓 名	本貫	父 姓 名	戰死年月日	戰 死 地	住 所	備 考 (登錄番號)
無名勇士	金 德 文	金 海	金 奉 順	1950. 9. 20	高陽松浦地區	北邊里	598
"	李 允 根	"	李 德 順	"	"	"	597
"	朴 石 範	密 陽	朴 春 萬	"	"	"	598
"	朴 義 福	"	朴 聖 龍	"	"	"	599
"	李 在 允	慶 州	李 春 玉	"	"	"	600
"	金 德 洙	金 海	金 貴 鍾	"	"	"	601
下 士	劉 載 孫	江 陵	劉 凡 甫	"	"	"	602
無名勇士	劉 允 鍾	"	劉 載 謙	"	"	傑浦里	603
"	張 相 寅	仁 同	張 末 奉	"	"	"	604
"	李 明 奎	全 州	李 殷 甲	"	"	坎井里	605
상  등	李 千 萬	延 安	李 今 福	"	"	雲陽里(齊村)	606
無名勇士	陶 上 萬	順 天	陶 俊 實	"	"	陽村面戰死	607
上 兵	金 彥 泳	慶 州	金 泳 讚	1951. 6. 27	江原春川地區	雲陽里	未 登 錄
兵 長	李 成 奎	全 州	李 銀 寬	1951. 4	江原鐵原地區	坎井3里	"
下 士	李 南 奉	遂 安	李 俊 永	1950. 4	鐵 原 地 區	坎井3里	"
"	李 明 雲	全 州	李 成 奎	1951. 2	"	"	"
中 士	李 明 奎	"	李 善 元	"	麟 蹄 地 區	"	"
"	姜 祿 壽	新 川	姜 起 泳	1954.	"	"	"
二 兵	趙 永 煥	漢 陽	趙 成 俊	1953. 2	鐵 原 地 區	坎井4里	"
兵 長	沈 文 變	青 松	沈 相 龍	1969. 8. 2	越 南	場基3里	"
下 士	李 源 明	全 州	李 壬 鑣	1953. 7. 3	東 部 地 區	雲陽里	"
"	徐 大 敬	達 城	徐 弘 伊	1951. 8. 22	智 異 山 地 區	場基2里	"
二 兵	朴 龍 雲	密 陽	朴 福 成	1951. 4. 20	"	"	"
一 兵	趙 基 俊	漢 陽	趙 龍 熙	1950. 9. 10	江 原 地 區	場基1里1200	"
下 士	方 熙 榮	安 山	方 芑 順	1953. 6. 4	"	傑浦1里	"
"	方 弘 澤	"	方 正 益	1951. 4. 29	"	"	"
中 士	方 弘 俊	"	"	1953. 7. 7	"	"	"
二 兵	李 載 源	慶 州	李 春 玉	1950. 9. 25	高陽一山地區	北邊里247	"
一 兵	金 成 龍	金 海	金 正 吉	1951. 3	江 原 地 區	北邊里	"
上 兵	金 順 哲	全 州	金 明 善	1952. 8. 2	"	雲陽里	"
"	金 秉 一	豐 山	金 宰 燮	1961. 9. 26	"	" 804	"
下 士	嚴 相 鎬	安 城	嚴 聖 七	1953. 7. 4	"	" 940	"
上 兵	金 榮 雲	慶 州	金 月 山	1953. 8. 1	"	" 2里	"
"	金 有 根	安 東	嚴 道 士	1951. 8	"	北邊2里	"

부록Ⅳ | 김포 6.25전쟁 참전 전사자 현황\_ 김포군지

階級	姓 名	本貫	父 姓 名	戰死年月日	戰 死 地	住 所	備 考 (登錄番號)
上 兵	朴 義 喆	密 陽	朴 聖 龍	1951. 1	江 原 地 區	北邊里	未登錄
"	金 俊 玉	金 海	金 日 奉	1950. 4	"	"	"
"	文 用 福	南 平	文 鳳 釗	1951. 4	"	"	"
"	惠 東 勳	延 安	車 東 濬	1952. 2	"	北邊里375	"
二 兵	李 明 基	延 安	李 允 龍	1953. 3	東 部 戰 線	沙隅里	"
中 士	鄭 東 鎮	慶 州	鄭 貴 南	1951. 4	"	沙隅1里	"
下 士	崔 亨 洙	海 州	崔 鍾 煥	1952. 9	"	"	"
上 兵	李 光 澤	延 安	李 庸 基	1951. 7	"	"	"
下 士	李 源 澤	"	李 庸 極	1952. 8	"	"	"
上 兵	申 建 植	平 山	申 龍 南	1951. 7	"	"	"
下 士	李 基 潤	全 州	李 炳 億	1954. 1	江 原 地 區	坎井1里	"
"	李 弘 植	"	李 錫 奎	1954. 1	"	"	"
一 兵	金 學 模	金 海	金 龍 植	1952. 4	"	坎井2里	"
中 士	劉 載 德	江 陵	劉 漢 玉	1952. 3. 17	金 浦 地 區	傑浦2里	"
兵 長	劉 時 雲	"	劉 春 奉	1950. 8. 16	"	"	"
上 兵	杜 英 浩	杜 陵	杜 鉉 武	1974. 7	金村地區(京畿)	雲陽5里	"
一 兵	金 洛 仁	江 陵	金 永 男	1952. 9	江 原 地 區	豐舞4里	"
"	金 洛 眞	"	"	1969. 3	越 南 地 區	"	"
上 兵	劉 德 哲	"	劉 善 龍	1952. 3	江 原 地 區	坎井1里	"
兵 長	金 泰 永	豐 山	金 基 鍾	1951. 10. 5	"	北邊1里	"
上 兵	金 明 洙	慶 州	金 英 煥	1950. 8. 4	江 原 地 區	雲陽2里	"
"	尹 一 淳	坡 平	尹 英 眠	1951. 3	"	沙隅1里	"
"	方 弘 根	安 山	方 南 壽	1953. 9	"	傑浦2里309	"
下 士	朴 相 鉉	密 陽	朴 孝 俊	1954. 9. 26	"	"	"
"	劉 允 鍾	江 陵	劉 開 童	1952. 1. 18	"	"	"
兵 長	姜 淳 熙	晋 州	姜 元 實	1951. 9. 9	"	北邊1里	"
一 兵	李 基 萬	遂 安	李 秀 星	1952. 3	智 異 山 地 區	"	"
二 等 上 士	姜 正 秀	晋 州	姜 聖 根	1953. 7. 10	○ ○ 地 區	坎井3里	"
下 士	沈 문 섭		沈 명 섭 (兄)	1966. 7. 10	未 詳	楊基里351	"
大 尉	金 在 敬		金 승 희 (子)	1966. 3. 4	"	楊基里382	"
兵 長	李 명 기		李 율 옥 (母)	1975. 7. 14	"	沙隅里105	"
"	方 흥 철		방 남 수 (父)	未 詳	"	傑浦里248	"
鄉 防 隊	유 시 운		유 명 문 (兄)	1950. 9. 20	"	" 295	"
"	유 재 손		유 옥 산 (兄)	1950. 9. 20	"	" 306	"

階級	姓 名	本 貫	父 姓 名	戰死年月日	戰 死 地	住 所	備 考 (登錄番號)
上 兵	姜 환 균		李 계 분 (母)	未 詳	未 詳	傑浦里 389	未 登 錄
一 兵	李 익 수		李 영 길 (長男)	1951. 6. 18	"	場基里 1200	"
中 尉	李 춘 경		李 봉 암 (父)	1970. 11. 4	"	北邊里 408	"

郡英靈錄에 登載된 戰死者中 주소불명자 명부

주) : 김포군 <英靈錄>에는 607위의 성명이 등재되어 있는데 그 중 401명은 주소등이 조사되었으나 206명은 성명과 계급뿐이다. 이를 다음에 기록한다.

階級	姓 名	登錄番號									
一 兵	김 원 섭	2	병 장	정 종 석	3	일 병	정 인 현	4	중 위	정 인 환	5
이 병	황 의 석	6	일 병	장 현 수	7	하 사	박 문 선	8	일 병	안 정 호	9
소 위	임 헌 양	10	일 병	이 봉 의	11	상 병	이 태 영	12	일 병	김 종 의	13
"	조 장 섭	14	병 장	김 기 철	15	일 병	정 규 화	16	이 병	조 근 배	17
일 병	유 대 식	18	병 장	김 재 한	19	하 사	심 재 기	20	下 士	이 한 영	21
一 兵	한 운 삼	22	이 중	권 창 욱	23	"	이 영 근	24	일 병	이 규 형	25
하 사	추 교 든	26	일 병	이 한 영	27	"	최 사 남	28	"	강 윤 희	29
"	김 장 섭	30	중 사	김 원 배	31	일 병	장 원 득	32	하 사	홍 찬 식	33
일 병	이 강 희	34	일 중	이 인 배	35	하 사	김 원 배	36	중 사	김 창 남	37
상 병	이 병 신	38	일 병	박 영 안	39	병 장	이 원 익	40	하 사	김 대 권	41
일 병	김 계 문	42	"	이 갑 봉	43	"	이 대 선	44	"	김 주 영	45
하 사	한 계 춘	46	"	심 연 기	47	"	윤 석 환	48	"	경 필 현	49
일 병	조 병 호	50	일 병	유 창 운	51	병 장	최 배 용	52	이 병	정 인 원	53
"	엄 홍 응	54	상 병	이 원 목	55	이 병	권 오 덕	56	일 병	유 근 수	57
"	김 요 찬	58	하 사	이 명 재	59	일 병	成 하 신	60	이 해	원 완 희	61
"	이 석 규	62	"	권 절 근	63	병 장	안 거 순	64	하 사	金 재 택	65
"	김 봉 규	66	"	吳 필 응	67	일 병	文 흥 석	68	"	임 명 복	69
"	최 병 모	70	소 위	박 훈 남	71	"	김 경 목	72	"	元 부 회	73
하 사	전 태 성	74	상 병	김 재 복	75	경 사	姜 석 우	77	상 병	李 상 흥	78
일 병	유 용 남	79	"	김 문 환	80	"	차 성 운	81	"	정 봉 운	82
"	유 태 연	83	병 장	김 재 설	84	一 兵	성 경 호	85	"	장 기 현	86
중 위	한 영 환	87	노 무	백 인 수	88	"	이 민 영	89	"	梁 범 석	91
일 병	문 상 기	92	"	이 회 철	93	하 사	이 필 주	94	"	박 낙 규	95
이 병	호 영 기	96	"	손 연 수	97	일 병	조 중 근	99	노무자	李 하 점	115

부록Ⅳ | 김포 6.25전쟁 참전 전사자 현황\_ 김포군지

階級	姓 名	登錄番號									
일 병	최 병 용	122	순 경	崔 원 행	125	하 사	신 흥 태	137	上 兵	崔 현 부	153
"	李 덕 규	154	"	이 중 무	194	일 병	金 좌 권	199	하 사	정 호 철	206
일 증	金 천 용	208	일 병	임 경 운	212	상 병	이 강 욱	213	"	金 용 덕	216
일 병	양 재 의	228	이 병	李 승택	243	일 증	黃 병 남	244	일 증	정 순 진	246
대 위	장 경 행	253	경 위	차 익 광	254	이 병	권 영 욱	255	하 사	李 형 우	256
일 병	권 태 영	266	"	金 학 순	267	중 경	신 호 섭	268	이 병	강 순 섭	272
"	채 용 덕	274	일 병	이 성 규	277	하 사	朴 인 봉	281		하 성 출	282
하 사	김 병 윤	285	"	朴 준 규	295	일 병	李 흥 규	300	상 병	朴 승 순	301
일 병	신 윤 철	316	하 사	권 중 산	343	병 장	임 진 환	347	하 사	李 준 모	349
"	양 재 수	377	일 병	권 진 규	386	"	金 낙 우	388	"	문 점 득	390
병 장	李 종 양	395	"	李 동 섭	409	상 병	成 영 환	414	방 위	임 은 상	417
"	崔 익 현	418	하 사	金 준 환	419	경 사	禹 정 균	420	병 장	金 병 태	421
일 병	임 재 흥	422	"	권 익 주	423	"	유 신 열	424	"	유 혜 영	425
경 사	白 남 철	426	일 병	金 병 재	427	"	朴 영 서	428	"	韓 용 택	429
"	姜 신 동	430	"	安 수 만	431	상 병	李 재 성	432	"	安 승 만	433
일 병	金 원 흥	434	"	金 기 중	435	하 사	정 규 환	436	일 증	유 현 상	437
상 병	方 인 영	438	"	이 창 규	439	일 병	이 수 연	440	순 경	장 수 완	441
하 사	崔 병 환	442	"	朴 용 배	443	"	유 호 천	444	중 위	元 경 회	445
"	이 양 학	446	"	金 규 현	447	"	장 순 남	448	"	朴 경 민	449
"	韓 태 우	450	"	元 중 상	451	水 兵	金 응 태	452	일 병	韓 응 섭	453
병 장	한 윤 석	454	하 사	연 규 창	455	병 장	李 정 섭	456	"	이 윤 만	457
일 병	이 영 주	458	"	張 후 섭	459	하 사	李 화 섭	460	"	李 점 북	461
"	김 유 권	462	"	元 명 화	463	상 병	정 명 진	465	"	이 진 규	466
병 장	金 흥 기	467	상 병	이 창 영	468	이 병	유 성 길	469	대 위	金 청 진	470
일 병	朴 동 식	471	하 사	김 진 회	472	"	정 규 회	473	상 병	권 호 길	474
"	인 두 성	475	"	김 명 성	477	하 사	박 태 순	480	병 장	金 용 학	487
"	李 성 목	491	상 병	金 기 산	515	이 병	金 종 순	527		金 득 성	580
"	이 영 규	536		최 덕 준	595	總 計		206名			

부록Ⅳ | 김포 6.25전쟁 참전 전사자 현황\_ 육군본부

번호	성명	생년월일	사망일자	출신지역	소 속	SN(군번)
1	옥현덕					
2	홍창호					
3	한태환					
4	신세철					
5	김명산					
6	이동성					
7	김기철					
8	송영주					
9	강병억					
10	권오덕					
11	이강찬					
12	채윤용					
13	이수연					
14	장순옥					
15	이강윤					
16	김기산					
17	이용문					
18	김필천					
19	이용대					
20	이원계					
21	이광섭					
22	이창영					
23	임종범					
24	이성규					
25	오동백					
26	장석정					
27	민호심					
28	황익성					
29	서상문					
30	서상문					
31	이진백					
32	조유복					
33	이강범					
34	김상은					
35	민웅기					
36	이수남					
37	정학운					
38	유희수					
39	임인택					

부록iv | 김포 6.25전쟁 참전 전사자 현황\_ 육군본부

번호	성명	생년월일	사망일자	출신지역	소 속	SN(군번)
40	이강필					
41	김인석					
42	박건성					
43	이종윤					
44	허변					
45	김병운					
46	이상준					
47	김순섭					
48	기윤복					
49	이상렬					
50	조진국					
51	신성균					
52	임인택					
53	김동하					
54	임병옥					
55	신철균					
56	홍종만					
57	나동원					
58	김순오					
59	이선표					
60	신월균					
61	임택수					
62	이병옥					
63	김성환					
64	김진성					
65	김진석					
66	이홍석					
67	김동준					
68	김순섭					
69	장홍렬					
70	이창수					
71	박찬원					
72	김정열					
73	한경섭					
74	김기택					
75	이영재					
76	이동섭					
77	박영돈					
78	김준옥					

번호	성명	생년월일	사망일자	출신지역	소 속	SN(군번)
79	권진규					
80	박승균					
81	윤재록					
82	최성일					
83	임용준					
84	허연					
85	이영호					
86	김태섭					
87	이상익					
88	신상응					
89	이목희					
90	최득윤					
91	전종표					
92	김재준					
93	이일손					
94	이종안					
95	장경환					
96	김창용					
97	김원영					
98	조기준					
99	두현배					
100	도종후					
101	여규근					
102	이덕봉					
103	권영희					
104	김기만					
105	방홍철					
106	유재덕					
107	도영복					
108	김학무					
109	오순복					
110	박상철					
111	윤춘식					
112	김복원					
113	방건					
114	유종운					
115	김동선					
116	이홍석					
117	이상현					

부록 iv | 김포 6.25전쟁 참전 전사자 현황\_ 육군본부

번호	성명	생년월일	사망일자	출신지역	소 속	SN(군번)
118	김우철					
119	강대규					
120	김정익					
121	정만손					
122	강철수					
123	이재운					
124	채수만					
125	황윤수					
126	정만손					
127	문은용					
128	이병직					
129	김동기					
130	김용표					
131	강순희					
132	송요흠					
133	유근배					
134	강정수					
135	홍정호					
136	김종학					
137	박성용					
138	이광택					
139	방홍택					
140	정동진					
141	허열					
142	나길섭					
143	차경선					
144	문계홍					
145	박영준					
146	엄상호					
147	이원경					
148	심현경					
149	이구화					
150	김영기					
151	문종환					
152	김순철					
153	여규택					
154	심현경					
155	최창석					
156	김영운					

번호	성명	생년월일	사망일자	출신지역	소 속	SN(군번)
157	박수덕					
158	오순덕					
159	서대경					
160	서규호					
161	조규연					
162	이덕봉					
163	김기순					
164	임종철					
165	김낙수					
166	방희영					
167	권영옥					
168	차인희					
169	박원래					
170	정순종					
171	남궁식					
172	이재명					
173	고상규					
174	권주옥					
175	이병기					
176	박용준					
177	민우기					
178	유유상					
179	정진섭					
180	김봉집					
181	박익래					
182	임용철					
183	신대균					
184	신양균					
185	조대환					
186	임병돈					
187	이종우					
188	임병엽					
189	유용섭					
190	이병태					
191	김용한					
192	송영훈					
193	노봉환					
194	심상균					
195	권영기					

부록Ⅳ | 김포 6.25전쟁 참전 전사자 현황\_ 육군본부

번호	성명	생년월일	사망일자	출신지역	소속	SN(군번)
196	한남섭					
197	한종섭					
198	이기봉					
199	권영찬					
200	심만섭					
201	김보선					
202	이병호					
203	임연기					
204	이정희					
205	김홍천					
206	허림					
207	한응섭					
208	이하복					
209	이하전					
210	이하완					
211	이병훈					
212	정시용					
213	홍승표					
214	임영기					
215	이갑석					
216	김태영					
217	김천학					
218	이철인					
219	유광열					
220	최율교					
221	장림수					
222	이창희					
223	심홍섭					
224	이병태					
225	최종현					
226	권경용					
227	배종근					
228	심춘섭					
229	최병석					
230	김인홍					
231	임용일					
232	오장석					
233	임용관					
234	최종무					

번호	성명	생년월일	사망일자	출신지역	소 속	SN(군번)
235	서상준					
236	서상기					
237	이학석					
238	임용길					
239	이진국					
240	이필수					
241	이기량					
242	한연우					
243	최병용					
244	권영환					
245	서규진					
246	이병탁					
247	이병훈					
248	박용흠					
249	이문재					
250	김인춘					
251	최윤구					
252	임용규					
253	성맹기					
254	백상현					
255	남정호					
256	문병열					
257	방지국					
258	이완순					
259	김태영					
260	김인용					
261	이종갑					
262	이인근					
263	한종조					
264	이하수					
265	주한수					
266	소덕민					
267	류하림					
268	이병기					
269	우근수					
270	김명규					
271	황금렬					
272	김봉현					
273	김남복					

부록 iv | 김포 6.25전쟁 참전 전사자 현황\_육군본부

번호	성명	생년월일	사망일자	출신지역	소 속	SN(군번)
274	김정기					
275	박인봉					
276	김광제					
277	신의경					
278	심건식					
279	노용철					
280	이강석					
281	이효근					
282	한성수					
283	민병원					
284	이병식					
285	임경운					
286	이종복					
287	박의표					
288	김용덕					
289	김선경					
290	이범인					
291	이강옥					
292	강영우					
293	이기승					
294	이정우					
295	한진섭					
296	도계창					
297	방보영					
298	김동석					
299	유봉운					
300	민유근					
301	김만용					
302	문기열					
303	박기현					
304	박기현					
305	오현구					
306	김용용					
307	이은각					
308	차천희					
309	김재복					
310	전임출					
311	이태수					
312	이대하					

번호	성명	생년월일	사망일자	출신지역	소 속	SN(군번)
313	이영진					
314	민병홍					
315	이병조					
316	이중선					
317	이강석					
318	김영규					
319	황덕주					
320	강석호					
321	김창남					
322	김병환					
323	홍순혁					
324	박태규					
325	우길명					
326	강영조					
327	노기술					
328	명춘심					
329	임순호					
330	이기덕					
331	이명구					
332	김창용					
333	최준행					
334	이규일					
335	박운화					
336	박태정					
337	최성일					
338	추계봉					
339	이동성					
340	허계					
341	김종배					
342	이현순					
343	조정상					
344	이상구					
345	이종양					
346	홍순학					
347	양재수					
348	김범성					
349	이우철					
350	신흥태					
351	노봉국					

부록iv | 김포 6.25전쟁 참전 전사자 현황\_육군본부

번호	성명	생년월일	사망일자	출신지역	소 속	SN(군번)
352	홍순범					
353	최창진					
354	노명숙					
355	이관영					
356	황대연					
357	이정열					
358	김세용					
359	김원기					
360	임춘규					
361	천기원					
362	임형기					
363	강운형					
364	박봉록					
365	이억봉					
366	송인식					
367	홍현옥					
368	김호순					
369	유재신					
370	장병창					
371	정호철					
372	김좌권					
373	이근설					
74	임용인					
375	권남학					
376	김중순					
377	이원하					
378	채수만					
379	박주석					
380	임원기					
381	하창남					
382	김진학					
383	유부환					
384	김기준					
385	이동성					
386	이현순					
387	박주문					
388	노송영					
389	임용찬					
390	홍순석					

번호	성명	생년월일	사망일자	출신지역	소 속	SN(군번)
391	이봉천					
392	권영희					
393	황수경					
394	홍재윤					
395	박택순					
396	홍순표					
397	노송욱					
398	이천구					
399	김용덕					
400	남공준					
401	이필주					
402	남상윤					
403	이두하					
404	이은규					
405	민강덕					
406	김종모					
407	조성진					
408	최덕재					
409	박상용					
410	윤희문					
411	유재덕					
412	김봉호					
413	오인환					
414	이순관					
415	박병학					
416	김진호					
417	신상순					
418	신현수					
419	이제순					
420	이종윤					
421	박금용					
422	김순종					
423	채수천					
424	김순영					
425	김용호					
426	최인식					
427	허상필					
428	한기식					
429	최현부					

부록iv | 김포 6.25전쟁 참전 전사자 현황\_ 육군본부

번호	성명	생년월일	사망일자	출신지역	소 속	SN(군번)
430	이한길					
431	김원태					
432	장근혁					
433	김정기					
434	민병옥					
435	최인태					
436	이근무					
437	이성목					
438	이성목					
439	이현찬					
440	유도선					
441	이의완					
442	장석원					
443	이현필					
444	정규성					
445	이영규					
446	황의진					
447	송병순					
448	오세봉					
449	신승우					
450	김창규					
451	박덕원					
452	윤호					
453	홍순억					
454	김동식					
455	이명천					
456	이용굴					
457	송용복					
458	김남복					
459	이동수					
460	도응준					



“증언자의 증언내용이 왜곡되거나 억울함을 가중시키는 또 다른 억압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진실한 마음으로 보아주기를 요청한다. 고백은 화해와 평화를 소망하는 자의 첫걸음이다. 이 평화와 화해의 걸음을 색안경을 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고백은 그 자체로 묶여진 어둠을 밝히는 소중한 촛불이기 때문이다.”

-저자의 말중에서

증언, 6.25전쟁을 말하다

